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라북도

제 출 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전북연구원장 권혁남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라북도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배경과 내용	3
1.2. 과업의 수행방법	7

2. 계획 환경 분석

2.1. 법률 및 정부정책 검토	13
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경과와 사업 현황	29
2.3. 다른 지역 사례 검토	45

3. 인식조사와 의견수렴

3.1.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인식조사	63
3.2. 민주화운동 관계자 의견 수렴	86

4. 계획의 방향과 목표

4.1. 계획의 방향 설정	91
4.2. 계획의 목표와 전략	97

5. 전략별 과제

5.1. 역사의 정립	109
5.2. 기억과 예우	129
5.3. 가치의 교육	151
5.4. 활용과 확산	163
5.5. 정책의 기반	172

6. 집행과 관리

6.1. 투자 계획	181
6.2. 관리 계획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193
2.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인식조사 설문지	208
3.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213
4. 시도별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현황(2020~2022)	233

1
·
과업
개요



1.1

과업의 배경과 내용

1.1.1.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 과업의 배경

- ‘민주화운동’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0)되면서임. 이 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의 역사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
- 이후 2001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됨
- 이 법에서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 항쟁 등”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서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규정함
-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 12월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21년 7월에 정신계승 항목을 추가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기존에는 없던 “전라북도에서 발생한”으로 대상을 규정하였음.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음.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 기념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신설되었음
-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기본계획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과업의 필요성

- 첫째, 한국의 인권사상과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관련됨.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열린 기념식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 셋째, 우리나라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으로 정의하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함
-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인권사상과 민주주의의 뿌리임. 근현대 민주화운동의 계승이 곧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임.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어진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을 계승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 둘째, 전라북도 시대정신과 지역 정체성의 정립이 필요함. 시대정신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말함. 지난 시대의 정신을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의 지역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기반임
-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으로 ‘인권도시’를 내세우며 관련 사업을 추진함. 부·마 민주항쟁의 중심 부산시 역시 당시 시대정신을 계승하여 ‘민주화의 성지 부산’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내세움
-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근대화 속에서 지역침체의 길을 걸었으나 어느 지역보다 앞서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앞장섬. 당시 전라북도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자긍심을 높이는 지역 정체성으로 구축해야 함
- 셋째, 역사적 기록의 소멸과 기업의 상실을 해소하여야 함. 과거에서 진보한 역사는 현재를 디딤돌 삼아 미래를 추구함. 그런데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불편한 과거를 외면하는 ‘역사 편식 증후군’이 적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역사의 기록화가 필요함
- 역사의 기록화와 더불어 장소를 보존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적이거나 공적인 기억은 언제나 장소에 기반”하며, “장소를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장소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임¹⁾

1) 신지은(2011), “장소의 상실과 기억: 조르쥬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

- 인권 침해 사건, 민주화·노동·농민 운동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기록과 장소를 기억하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발판이 됨. 전라북도의 한 시대와 관련한 기록이 소멸하고 기억을 잃기 전에 계승사업이 이뤄져야 함
- 넷째, 민주화운동 관련 지역 내 계승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2005년 창립한 전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4·19 김주열열사 묘역 참배, 이세종열사 추모식, 5·18기념식, 6월항쟁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전라북도 후원을 받아 ‘민주화운동사료 목록집’을 펴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하여 『전북민주화운동사』(2012)를 펴냈으나, 이후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승사업이 미흡함
- 민주화운동 계승 관련 종합 계획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화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념·교육 사업이 필요함
- 다섯째, 민주화운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의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37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음. 그나마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함.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연구용역(2019년)을 수행하였으나, 자체에서 발표된 기본계획은 확인되지 않음
-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조례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하여 발표되면 자체 차원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임. 즉 본 용역은 전라북도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지역 단위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1.1.2. 과업의 범위와 내용

□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3 ~ 2027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 지역
- 내용적 범위 : 정책의 기본방향,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 분야별 기념사업, 교육·홍보 방안 수립 등

□ 과업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민주화운동 관련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의 법률적 개념과 정책 대상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위 (2)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의 정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관련 정책 분석 ○ 타 지역의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관련 사례 조사 ○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전라북도 적용방안 제시 (3)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배경 및 실태조사 ○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정책)의 현황 ○ 전라북도 내 민간 단위의 계승사업 현황
민주화운동 인식 조사와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도민의 민주화운동 관련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인식과 계승사업 방향 등에 관한 인식 조사 ○ 도민 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계승사업 관계자 대상 면접 조사 ○ 인터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도출
민주화운동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 ○ 정책 동향, 지역여건,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사업영역),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 (2) 사업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른 영역(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 정신계승 교육·홍보)별 추진과제를 수립 ○ 조례 제5조(기념사업)에 명시된 사업 내용을 추진과제에 반영 (3) 기본계획의 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정책실행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일정 등(로드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1.2

과업의 수행방법

1.2.1. 전북도민 인식조사

▣ 조사 목적과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사 : 2022년 8월 17~23일(7일) 자료처리 및 검수 : 2022년 8월 24~25일 (2일)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지역 : 14개 시군 조사단위 :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인식 등

▣ 조사 방법

- 전북연구원 도민 모니터링단(전체 1,236명)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설계

구분	주요 내용
표분수	$n = \frac{Z_{\alpha/2}^2 p(1-p)}{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개(표본오차 95%신뢰수준 ± 4.9)
표집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연구원 도민 모니터링단(전체 1,236명)
표본추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연령에 따른 제곱근 비례 할당(비례 할당 시 특정 지역의 표본집중 및 과소 표집 해소를 통한 표본구성의 안정성 확보)

1.2.2. 전략별 과제 발굴

□ 사례 조사를 통한 전라북도 적용 과제 발굴

-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기본계획을 조사함. 각 계획의 배경과 목적, 주요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 전국 광역시·도별로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와 비교하고,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과제 발굴

-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과 관련한 관계자(단체 관계자, 사업 관계자 등)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되면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관련자를 중심으로 자문을 받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자문받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안받음
- 기본계획의 방향과 주요 과제가 수립된 이후에 의견수렴회를 개최함

시간	내용	참석(안)	비고
10:00~10:10	인사말	•전라북도 정무수석	
10:10~10:40	계획안 설명	•장세길(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책임
10:40~12:00	종합토론 (가나다순)	•김대인(광주광역시 5·18선양과 진상규명팀장, 前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김완술(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前)5·18전북동지회장) •이미숙(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교육부장, 해설사) •전준형((사)인권누리 운영위원장) •진명숙(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타지역/정부정책 관계자 •관련단체/ 5·18 관계자 •지역(남원)/ 4·19 관계자 •활동가/인권 관계자 •학계/부문 운동 관계자

1.2.3. 과업 일정

과업 내용	추진 일정								
	1M	2M	3M	4M	5M	6M	A/S		
여건 분석	연구착수 협의: 정책대상과 범위	■							
	정책 동향 및 전북 실태 분석	■	■						
	타 지역 계획 및 사업사례 검토		■						
인식 조사	전북도민 인식 조사 및 분석			■■■■■					
	고관여자와 관계자 심층인터뷰			■■■■■					
기본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					
	사업영역별 추진과제 발굴				■■■■■				
	기본계획의 관리계획 수립					■			
발주부서 협의 (수시협의)		◆	◆	◆	◆	◆	◆		
전문가 자문				◎		◎			
행정절차 이행(보고회)	착수				중간		공청회	최종	납품

2

계획 환경 분석



2.1

법률 및 정부정책 검토

2.1.1. 법률 검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령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 제정(2000년 1월)되면서부터임.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의 역사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

[표 2-1] 「민주화보상법」 제정 과정

시기	주요내용
1997.03.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과 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 개최
1998.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신범의원 외 29명 공동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시기를 1972년 10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로 하고 관련자 중 민주화 정착에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훈의 추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998.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등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시작(422일 간 진행)
1998.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유선호의원 외 97명 공동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시기를 1969년 8월 7일부터 1998년 2월 24일로 하고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은 자의 예우 및 보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1999년 8월 10일 철회)
1999.0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유선호의원 외 10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의 시기와 종기를 없애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하도록 함
199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이신범의원 외 27명 발의 법률안(1998년 7월)과 유선호의원 외 104명 발의 법률안(1999년 7월) 각각 폐기 후 하나의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회 제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결
2000.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 5월 13일 시행

자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2015), 『민주화운동백서 위원회편』

● 「민주화보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2] 「민주화보상법」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전문개정 2015. 5. 18.]

제2조(정의)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군민의 자유와 권리회복·신장시키는 활동을 말함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함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전문개정 2015. 5. 18.]

(중략)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전문개정 2015. 5. 18.]

제7조(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생략)

제8조(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함…(생략)

제9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생략)

[전문개정 2015. 5. 18.]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5. 18.]

자료: 법제처

- 2000년 1월 「민주화보상법」 제정 이후 총 다섯 차례 개정(타법 개정 포함)되었으나 보상과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정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권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보상금 지원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논의됨

[표 2-3] 「민주화보상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시기	의의	주요 개정 내용
2004.03.27	<p>-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들이 추가됨. 당초 관련 법에서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보장만을 명시했다면 1차 개정을 통해 권리 회복과 더불어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로 구성되면서 명예회복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확장됨</p> <p>-보상금 보장 지급 기준이 관련 피해를 당했을 당시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피해사점이 앞설수록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p>	<p>-제5조의3(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①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p>
2007.01.26	<p>-“민주화운동”의 해당되는 시기를 현행 1969년 8월 7일 이후에서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변경함. 이는 6·3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군사통치에 대항하고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한 관련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함</p> <p>-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p>	<p>-제2조(정의) <u>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u></p> <p>-제5조의7(직권재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 고 판단될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2015), 『민주화운동백서 위원회편』

- 「민주화보상법」에서 정의한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1964년 한일협정반대운동) 발생한 사건들이 해당됨
- 민주화운동 정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운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폭력 등에 항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일련의 사건들을 일컬음

[표 2-4]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 「민주화보상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5.4.15.〉

자료: 법제처

-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은 입법 목적에 따라 관련자들과 그 유족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지역별 항거행위에 대한 지역별·사건별 분포 현황 자료를 제시한 바 있음(2015년 기준)
 - 신청사건의 시기는 항거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하며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민주화보상법 대상) 과정에서 발생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사망, 상이 등의 피해 사건들을 포함함
-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예: 명동성당, 서울역 등)나 혹은 주요 탄압의 대상지(예: 광주)였던 곳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지역 전역에서 연쇄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함. 또한 대규모시위의 발판이 된 사건들이 지역에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민주화운동 역사가 대도시 위주로 조명받으며 서울이나 광주,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기념사업들이 진행되었음
- 하지만 민주화운동은 어느 특정 지역, 소수 인물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다양한 지역, 다수 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결실을 본 역사적 사건으로

서 지역의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며 기억할 필요가 있음

[표 2-5] 항거행위 지역적 분포

항거지역	신청건수	비율(%)	항거지역	신청건수	비율(%)
서울	7,950	44.6	충북	311	1.7
부산	1,007	5.7	충남	272	1.5
대구	751	4.2	전북	809	4.5
인천	924	5.2	전남	568	3.2
광주	1,653	9.3	경북	420	2.4
대전	292	1.6	제주도	124	0.7
울산	311	1.7	해외	34	0.2
경기	930	5.2	미확인	165	0.9
강원	449	2.5	합계	17,811건	

자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2015), 『민주화운동백서 워원회편』, 122쪽

-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항거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문운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임

[표 2-6] 사건분야별 분포

사건부분(항거지향, 가치)	신청건수 (총17,811건)	위원회 인정건수	비고(구호/지향)
반독재운동	9,842	6,979	독재정권반대, 직선재생취 등
학원민주화 운동	학원자율화/ 교육민주화	2,356	정권통제로부터의 자율(교련반대, 학원사찰규탄), 교육민주화(전교조 교육권확보)
	학내민주화	144	사학민주화, 총장직선제등 학내민주화
노동운동	3,233	2,247	민주노조결성, 노동3권보장, 노동법개정투쟁 등
농민운동	168	87	수입개방반대, 생존권수호 등
언론출판운동	783	420	언론민주화, 언론출판계
문화예술운동	39	30	독재비판 문학, 민중미술
반외세·자주	164	119	한일회담반대, 반제국주의, 반미, 미군철수
통일운동	529	144	남북민간교류, 통일
사회권운동	67	13	처결반대, 노점상투쟁 등
진보정치운동	161	25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노동자 정치 연대
기타	216	0	구치소내 부조리 폭로, 교도관 연판장 사건 등
미확인	109	-	

자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2015), 『민주화운동백서 워원회편』, 126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민주화운동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었고 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창립됨
- 본 법에서는 기념사업회의 설립목적과 기념사업의 수행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추진 대상이 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 대해 「민주화보상법」에 명시된 시점 보다 더 이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정의하고 있음

[표 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제6조(정의·사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미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3.5.22.〉• 제6조(사업) 1.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2.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전문개정 2010. 3. 12.] |
|---|

자료: 법제처

□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적 논쟁

① 민주화운동의 법위와 정의

- 민주화운동 개념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적용됨
- 민주화운동의 개념 정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영제(2021)는 민주화운동이 역사적 연구 대상으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로 민주화가 ‘선조’의 역사로 치부되거나 혹은 관련 세대가 현재 한국 사회 주류세력으로 자리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함
- 하지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추가 지정되었고,

기념시설의 건립과 지자체 조례 제정, 관련 법률안 등이 발의되는 등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논의와 학술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논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정을 앞두고 법·제도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진행됨
- 민주화운동의 법적 개념은 「민주화보상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근거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정과 보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화보상법」을 따르고,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제정 등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주로 근거를 둠
-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민주화운동 시기를 1964년 이후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보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의 공통적 정의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으로 규정함
- 손호철(2002)은 기존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가 좁은 의미로서 1970년대 이후 군사 독재에 대항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저항운동으로 이해되나, 외연을 넓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행한 운동을 모두 한국 민주화운동으로 지칭해야 함을 주장함
- 안병욱(2010)은 민주화운동이 독재 권력과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한 운동으로 권위주의 권력에서 촉발된 항거 운동과 사회 전반에 걸친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 하며, 이는 기존 법률에서 제안된 정의와 다르게 특정 기간을 개념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법률적·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대상의 구체적 시기와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운동 일반'에 초점을 둠
-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의 실행 근거가 되는 법률적 의미의 경우 학술적 논의보다 시기적 구분이 명확하고 집단적 성격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민주화 실현의 대표적 항거 운동으로 범위를 제시함. 하지만 의미가 인정되는 역사적 사건이 국가기념일 (예: 2018년 2.28 민주운동기념일, 2019년 부마민주항쟁)로 지속적으로 채택되면

서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치민주화에서 생활민주화로 민주화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생활민주화에 대해 주성수(2019)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함, 부조리에 직접 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직접행동에 나서는 과정”이라고 함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공자 지정 관련 법안

-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음
-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유공자를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따라서 이 법과 별개로 보훈 대상에 준하는 예우를 보장하는 관련 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포함하여 829명(사망자 136명, 부상자 693명)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것으로 추진됨
- 2000년 12월 이훈평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민주유공자법안은 2002년 1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²⁾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이 법의 적용대상자와 민주화유공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제한함
- 「국가유공자법」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가 포함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법」과 「5·18보상법」에 따라 1960년 4·19혁명(862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4,400여 명)는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해당 법이 보장하는 예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만 분류되어 「민주화보상법」에 해당하는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만을 받음. 이 같은 경우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 하며 항거 활동의 기준이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함

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로 법제명이 변경됨

- 민주유공자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가 넘게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폐기됨. 정치적으로는 운동권 인사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민주유공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포괄성의 문제,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 국민 정서와의 합의 등 주요 쟁점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1.2.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정부 사업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 사업

-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7년 4월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 부합한 미션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으로 민주주의 정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그림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미션과 비전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3)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예산을 받아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처 사업을 살펴봄. 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및 인식제고를 위한 기념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보훈처는 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의 예우보상 활동을 진행함

[표 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 사업

구분	사업내용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6월 6·10민주항쟁 제 31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발표함 2023년 건립을 목적으로 공권력의 고문시설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 시설을 함께 증축하여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국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 교육의 현장으로서 기념시설을 건립 중에 있음 사업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운영 및 건축(신축 및 옛 남영동 대공분실 리모델링)을 담당하며 향후 시설 운영을 위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음 										
기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의 발전의 도화선이 된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에 자신을 투신한 관련자와 단체의 활동을 기르는 다양한 계승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주요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추모행사 개최, 기념·계승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진행,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현장탐방 프로그램 제작·보급, '6월민주상' 운영 등이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r> </thead> <tbody> <tr> <td>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td><td>제35주년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기념식 개최</td></tr> <tr> <td>6월민주상 운영</td><td>6·10민주항쟁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시상 진행</td></tr> <tr> <td>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공동운영</td><td>6월 민주항쟁 지역기념행사 운영지원</td></tr> <tr> <td><민주생활> 전시관 운영</td><td>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전반적 사례 전시 진행</td></tr> </tbody> </table>	사업명	사업내용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기념식 개최	6월민주상 운영	6·10민주항쟁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시상 진행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공동운영	6월 민주항쟁 지역기념행사 운영지원	<민주생활> 전시관 운영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전반적 사례 전시 진행
사업명	사업내용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기념식 개최										
6월민주상 운영	6·10민주항쟁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시상 진행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공동운영	6월 민주항쟁 지역기념행사 운영지원										
<민주생활> 전시관 운영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전반적 사례 전시 진행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스스로 참여와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사업 실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r> </thead> <tbody> <tr> <td>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td><td>미국시민교육센터(CCE)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시티즌'을 한국에 도입,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대안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td></tr> </tbody> </table>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미국시민교육센터(CCE)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시티즌'을 한국에 도입,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대안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미국시민교육센터(CCE)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시티즌'을 한국에 도입,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대안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사료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이 담긴 기록과 기억을 수집·정리·보존하는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가능한 온라인 사료 아카이빙 사이트인 오픈아카이브를 운영함 현재(2021년 12월 기준)까지 수집된 자료로는 문서류 546,470건, 사진필름류 58,734건, 음성영상류 3,373건, 박물류 3,253건임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학술지「기억과전망」,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KDF리포트를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교류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s://www.kdemo.or.kr/>)

- 기념사업회에서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계승의지, 평가 등을 조사하고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는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 날>을 기점으로 발표함
- 2022년 9월 발표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사개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크기: 1,000명 •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22.06.15~17(3일간) • 조사의뢰기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
|---|--|

[표 2-9]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민주화 관련 역사인식	민주화운동 역사 관심도
	주요 역사 인지도: 4·19혁명
	주요 역사 인지도: 부마항쟁
	주요 역사 인지도: 5·18민주화운동
	주요 역사 인지도: 6·10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역사 인식 수준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민주화운동 인지 중요성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	민주화운동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관심도
	민주화운동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필요성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중요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사업에 대한 수요
	민주인권기념관 조성방안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 저해 요인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
민주주의 공공외교	민주주의 공공외교 필요성
	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의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 정치적 이념 성향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22), 「2022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 보고서」

-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 지수는 71.3점으로 202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민주화관련 역사인식과 민주화운동평가 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참여의식에 대한 지수는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22), 「2022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 보고서」, 13쪽

- 지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념사업회의 인지도를 제외(인지도 항목의 경우 광주/전라 2순위)한 모든 항목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광주/전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해 역사적 이해와 관심이 높고 정신계승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10] 지역별 조사결과

구분	조사 내용	
민주화 관련 역사인식	강원/제주	63.4
	부산/울산/경남	66.6
	대구/경북	62.4
	광주/전라	70.1
	대전/충청	66.9
	인천/경기	66.3
	서울	68.9
민주화운동 평가	강원/제주	78.4
	부산/울산/경남	77.9
	대구/경북	65
	광주/전라	83.3
	대전/충청	76.1
	인천/경기	77.8
	서울	77.6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	강원/제주	59.8
	부산/울산/경남	56.5
	대구/경북	49.5
	광주/전라	65
	대전/충청	58.6
	인천/경기	54.3
	서울	57.8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의 역할	강원/제주	41.7
	부산/울산/경남	37.9
	대구/경북	35.7
	광주/전라	39.8
	대전/충청	30.3
	인천/경기	34.1
	서울	37

주. 주요 조사 내용 중 각 문항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질문만을 제시함(표2-9참고)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22), 「2022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 보고서」

▣ <국가보훈처> 주요 사업

-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으로 먼저 보훈 심사를 통한 유공자 선정 및 예우 보상이 있음
- 4·19혁명 관련자들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 보상법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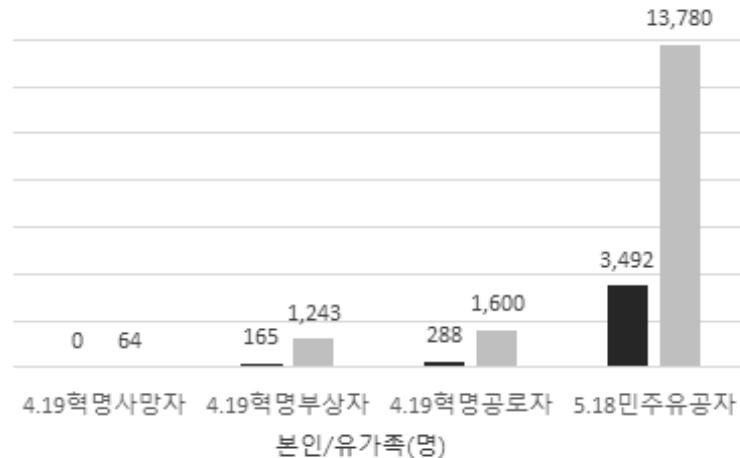
[표 2-11] <국가유공자법>과 <5·18보상법> 지원 주요 내용

구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공로자, 유족 해당 보상금 상이하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로자 월 지급액 361,000원 • 간호수당(상이 1~2급) 지급, 생계곤란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가산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 한해 월 10만원 지급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4·19혁명 부상자 및 자녀,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이며 공로자의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1 이후 신규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입학만 해당 • 내용: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면제와 학습 보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학습보조비의 경우 유공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에게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 내용: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 보조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는 만 30세 이전 취학자 해당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 내용: 채용시험 시 가점,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훈련 지원금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10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사망자 및 6급 이상 부상자의 자녀인 경우 1인 한정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조)부모 • 내용: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23 이후 등록자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11급 이상 및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해당.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은 자녀 1인, 1인당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병원 이용시 부상자는 국비진료, 공로자 및 청예 등록된 유가족은 60% 감면, 부상자 보철구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의 경우 보훈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 및 보철구 지급,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의 유·가족 본인 부담금의 60%감면 진료, 희생자 50%, 희생자 유·가족 30%감면 진료 등

주. 해당 예우 보상에 대한 주요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규등록자 및 상세 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_국가보훈 법정단체 현황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공자로 지정받아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 2,493,613명임(2021년 기준). 이 중 4·19혁명과 5·18민주유공자 수는 20,632명(유·가족포함)으로 0.83%에 해당함



[그림 2-2] 보훈행정 수혜 대상 현황(2021년 기준)

주. 보훈행정 수혜 대상자 중 4·19혁명, 5·18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 현황임

자료: e-나라지표_보훈행정 수혜대상 현황

[표 2-12] 전라북도 보훈대상자 현황(2022.06.30.기준)

구분	합계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정읍	완주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4·19혁명 (합계)	7	3	0	1	0	0	1	1	0	0	1	0	0	0	0
4·19혁명 사망자	-	1	0	0	0	0	0	0	0	0	0	0	0	0	0
4·19혁명 부상자	-	1	0	0	0	0	1	0	0	0	1	0	0	0	0
4·19혁명 공로자	-	1	0	1	0	0	0	1	0	0	0	0	0	0	0
5·18민주 유공자(합계)	130	53	15	8	6	6	6	12	3	8	2	4	3	3	1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	-	1	0	0	1	0	0	0	0	1	0	0	0	0	0
5·18부상자	-	26	10	5	3	3	2	5	0	3	1	1	2	0	0
5·18희생자	-	26	5	3	2	3	4	7	3	4	1	3	1	3	1

자료: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_전라북도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 참고

- 보훈 행정 수혜 대상자 중 전라북도 대상자는 총 137명임. 4·19혁명 대상자가 7명으로 전주 3명, 군산, 정읍, 완주, 임실이 각 1명씩 인정을 받았으며, 5·18민주유공자는 130명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전주시가 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15명), 완주(12명)가 뒤를 이음

- 예우 보상 외 주요 사업으로 보훈 단체지원 사업이 있음. 2022년 보훈단체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약 356억원으로 단체 신규 설립 및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보훈회관 건립 관련 예산도 포함됨
- 2022년 5월 기준 국가보훈 법정단체는 전체 17개이며 그 중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해당)는 6개임

[표 2-13] 국가보훈처_국가보훈 법정단체 현황(2022.5월 기준)

단체명	설립목적	설립근거
4·19민주혁명회	4·1901년 계승	국가유공자단체법
4·19혁명희생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정신 계승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자료: 국가보훈처_국가보훈 법정단체 현황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난극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부기념행사는 총 13개임. 그 중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는 5개이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표 2-14] 정부기념행사 현황

구분	행사명	날짜	담당부서
1	2.28민주운동 기념식	2.28	기념사업과
2	3.8민주의거 기념식	3.8	기념사업과
3	3·15의거 기념식	3.15	기념사업과
4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3.22(3월 4째주 금요일)	제대군인지원과
5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11	기념사업과
6	4·19혁명 기념식	4.19	기념사업과
7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5.18	기념사업과
8	현충일 추념식	6.6	기념사업과
9	6·25전쟁 기념식	6.25	제대군인지원과
1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7.27	제대군인지원과
11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11.3	기념사업과
12	던투워드부산유엔참전용사 추모식	11.11	제대군인지원과
13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17	기념사업과

자료: 국가보훈처 정부기념행사 현황 참고

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념일 중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는 기념일만 해당

2022년 보훈 예산에 포함된 보훈기념행사 관련 예산은 3,151백만원

(참고) 국가기념일 지정																									
•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기념일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지정 시 주관부처가 정해지며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념식과 관련 부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현재 기념일 규정에는 총 53개의 국가기념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일은 국가보훈처(5)와 행정안전부(2)에서 주관하고 있는 7개의 국가기념일이 있음																									
<table border="1"><tbody><tr><td>1</td><td>2·28민주운동기념일</td><td>2.28</td><td rowspan="7">국가보훈처</td></tr><tr><td>2</td><td>3·8민주의거기념일</td><td>3.8</td></tr><tr><td>3</td><td>3·15의거기념일</td><td>3.15</td></tr><tr><td>4</td><td>4·19혁명</td><td>4.19</td></tr><tr><td>5</td><td>5·18민주화운동기념일</td><td>5.18</td></tr><tr><td>6</td><td>6·10민주항쟁기념일</td><td>6.10</td></tr><tr><td>7</td><td>부마민주항쟁기념일</td><td>10.16</td></tr></tbody></table>				1	2·28민주운동기념일	2.28	국가보훈처	2	3·8민주의거기념일	3.8	3	3·15의거기념일	3.15	4	4·19혁명	4.19	5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18	6	6·10민주항쟁기념일	6.10	7	부마민주항쟁기념일	10.16
1	2·28민주운동기념일	2.28	국가보훈처																						
2	3·8민주의거기념일	3.8																							
3	3·15의거기념일	3.15																							
4	4·19혁명	4.19																							
5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18																							
6	6·10민주항쟁기념일	6.10																							
7	부마민주항쟁기념일	10.16																							

자료: 법제처 참고

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경과와 사업 현황

2.2.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경과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주요 사건 및 내용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주관으로 발간된 『전북민주화운동사』를 바탕으로 정리함
-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 3·15부정선거 규탄 최초 시위 실시, 유신 치하 첫 번째 성직자 구속 피해, 계엄 이후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역사에서 전라북도는 핵심적인 지역이었음
-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과 사건에 전라북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대규모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⁴⁾

60.03.15 마산사위 남원출신 김주열열사행방불명	60.05.05 전주고 강당에서 약 300명의 교사 참석전주시중등교원조합결성	63.03.22 최초로 준비된 전북지역 군사장관 저 향시도민수에 그침	67.05.03 제6대 대통령선거 실시
60.04.04 315부산전시지방 대학생 첫시위	60.04.20 전주지역 최초의 대규모 사위	61.05.16 5·16군사쿠데타	63.12.17 제5대 대통령炳正희 취임
80.05.15 대한생총결집전국시민 결집, 2만 여명 참여 대규모 사위	80.03.28 전북대학파자추발족	76.03.04 1976년 전북지역의 학생운동은 고등학생의 유인을 배포하면서 기록상으로 유일하게 확인	72.10.22 유신개방회의 최초이자 유일한 사위
80.05.18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이 세종 열사	80.05.02 5·18 민중항쟁 전 체 포된대학생들	78.08.16 전국에서 전개된 대규모 학생시위의 가 능성을 알리는 의의 1970년대 후반 전북최대 기도사위(1주 일기누 동성투쟁)	72.12.13 유신 치하 첫 번째 성 직자 구속 피해자
80.06.21 임교수 열사(임광대 2학년), 광주에서 사망	80.06.25 공수부대원(주정)의 박창신 신 부와 신도임을 명단에	82.11.25 오송희안연단 사건	84.02 사복강탈 철수
88.05.15 조성민 열사 (김제출신 해성고 투신)	87.06.23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 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	86.05.31 개천 주진우 운동화에서 민주한법당 흥민 증대회 개최	84.05.24 전북대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결성
87.12.10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저지되는 전 국 유일의 사례	87.06.10 고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찰예 도모대회	84.08.18 전국 최초 지역 연합 운동체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창립	

[그림 2-3]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4) 구체적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사(연표)는 부록을 참조하면 됨

[표 2-15]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건 및 내용

일시	주요내용
1960.03.15	마산시위(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 행방불명)
1960.04.04	전국 대학교 최초 시위 '4·4시위'는 개강일에 맞추어 계획·시도한 부정선거 규탄 시위임
1960.04.20	전주지역 최초의 대규모 시위 전북대 학생들과 각 고등학교 학생, 시위에 합세한 시민까지 합쳐 6~7,000명이 결집함
1960.05.05	전주시중등교원조합 결성 교원 정치적 중립, 학원의 완전한 민주화, 교육행정의 부패일소, 교육악법 일소 등 결의함
1961.05.16	5·16 군사쿠데타
1963.03.22	민정당 전북도당 중심의 전주·완주지구투쟁위원회 결성 3월 25일 전매청 앞 시위를 결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최초로 준비된 전북지역의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시도는 미수로 그침
1963.12.17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
1964.03.25	한일회담 반대투쟁 실시 전북대 법정대 학생 80여명이 "대일굴욕외교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본교 현관에 집결하여 시위를 시작함.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27일까지 지속됨
1965.04.20	전북대 학생 중심의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벌발
1965.08.23	전북대 학생 1,000여명이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교내에서 삭발과 단식투쟁을 전개함
1967.05.03	제6대 대통령 선거 실시
1967.06.08	총선실시(공화당 130석, 신민당 44석, 대중당 1석 확보)
1967.06.11	군산시민 3,000여 명이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실시함. 이후 6월 13일에도 군산시민 5,000여 명이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실시함
1972.10.22	유신계엄하의 최초이자 유일한 시위 전주고 3년생이던 소병훈과 최규엽 등이 비상계엄 반대데모를 추진함. 유신 반대시위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위준비물을 반입하다 발각되어 선언문은 낭독하지 못함. 이에 운동장에서 시위를 실시하려 했으나 교사들의 강력한 만류에 의해 시위가 실패함
1972.12.13	유신 치하 첫 번째 성직자 구속 피해자 포고령 위반혐의로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전주 남문교회 은명기 목사를 연행 및 구속함
1975.10.21	전주에서 10여 명의 신·구교 성직자가 경찰에 한꺼번에 연행. 20일 밤 개최된 월요기도회에서 행해진 신앙 간증 대화 내용, 당일 회람된 경과보고 유인물이 법규에 저촉 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었음. 23일에는 전주 성광교회 주일학교 교사 임영환이 추가로 연행됨
1976.03.04	1976년 전북지역의 학생운동은 고등학생의 유인물 배포 사건만이 기록상으로 유일하게 확인됨 전주농고 고영조는 당시 대학생 김금룡과 이해학 전도사로부터 명동 <3·1민주 구국선언>을 받고, 3월 6일 임실오류교회에서 선언문을 찍음. 5,000장을 전주, 익산, 군산 등의 교회와 성당에 배포, 6일부터 19일까지 익산, 군산에 3,000여장을 배포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체포됨

1978.08.16	기청 전주대회 사건. 전국에서 전개된 대규모 학생시위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 1970년대 후반 전북 최대 가두시위(1주일 가두 농성투쟁)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1시간 넘게 벌어진 가두시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 이었으며, 이날 시위로 총 98명이 연행되어 영장 없이 7일 동안 경찰서 유치 장에 구금됨. 농성은 경찰의 봉쇄 속에서 8월 22일까지 1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외신을 통해 전파됨. 청년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전주에서는 천주교 신부들이, 서울에서는 EYC 회원 80여 명이 고난에 동참하는 단식기도회를 가지며 지원함. 21일 전국에서 모인 개신교 목회자들과 청년들까지 모두 1,000여 명이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가짐
1979.12.05	전북 내 학원자율화 투쟁 전북대 학생 1,500여 명이 교내 집회를 열고, <민주학생선언>을 배포하며 시위를 벌임. 주된 구호는 학생회 부활, 구속학생 석방과 복교, 어용교수 퇴진, 학원·언론의 자유 보장 등임
1980.03.28	전북대 학자주 발족 전북대를 시작으로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등 전북지역 내 모든 대학들이 학자주를 결성하여 4월과 5월초까지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고, 학원민주화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함
1980.05.02	대학 간 연합시위를 통한 전북 내 계엄철폐투쟁 전개 전북대 학생 6,000여 명이 처음으로 가두로 진출하여 전북도청 앞까지 시위를 벌임. 당시 전북대 총 학생수가 1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사위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음. 이후 총 학생회 7명은 부상학생을 위문하러 병원에 갔다가 광무 상무대 계엄사에 구속·수감되어, 5·18 민중항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포된 최초의 대학생들로 기록됨. 5월 2일 시위를 시작으로 전북대 학생들은 철야농성과 가두시위를 지속하였으며,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회 관과 의대 합동강의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전북대 학생회관 농성은 이날부터 본격화됨
1980.05.15	전북지역 대학생 총결집투쟁과 시민 결합, 2만 여명 참여 대규모 시위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등 전북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 총 5,600여 명이 총 집결하여 시위를 전개함. 교수 20명이 함께 나와 시위대를 보호하였고 시민들도 시위에 가세하면서 시위대는 2만 여명이 되었으며, 전주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1980.05.18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학생자 : 이세종열사 신군부 5월 17일 24시를 기해 계엄포고령 10호 발표함 5월 17일 밤과 5월 18일 새벽에 전북대에서 공수부대원에 의해 체포된 학생은 34명이었으며, 전주대에선 10명, 군산대 5명, 전주공업전문대 1명 등이 연행됨. 5월 17일을 전·후하여 전북지역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고 전북대 이세종 열사가 사망함
1980.05.21	임균수열사(원광대 2학년) 광주에서 사망 임균수와 오세현이 피격·사망함
1980.06.25	공수부대원(추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 임을영 테러 테러는 박창신 주임 신부의 광주학상 진상 규명 활동에서 비롯됨. 6월 25일 밤에 공수부대원으로 보이는 괴한 4명이 여산천주교회(익산)사제관에 침입해 박창신 주임 신부와 신도 임을영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라짐

1982.11.06	전북대 학생의 날 기념 시위: 나무 위 시위 시위 주동자인 전희남이 과도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이 나무에 올라간 허정이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음. 이 시위모델은 1983년 4월 시위에서도 재연됨
1982.11.25	오송회 간첩단 사건 전라북도경찰국은 군산제일고 현직교사 8명과 전직교사 1명 등이 오송회라는 용공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며, 모두 법정 구속함. 이들은 2002년 1월 18일에 서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음
1983. 말	학원자율화조치 발표
1984. 02.	학원에 상주하던 사복경찰 병력 철수
1984.04.30	전북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됨
1984.05.24	1980년 이후 4년 만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교문 밖 진출 가두시위 400여 명의 학생들이 마당극 '장산곶매'를 관람한 뒤, 교내시위를 시작으로 교문 밖으로 진출함. 팔달로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경찰병력과의 대치가 발생함
1984.08.18	전국 최초로 지역 연합운동체인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창립 전북민협 결성으로 개신교계, 천주교계, 노동운동계, 농민회가 하나로 뭉쳤으며, 전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이 부문운동으로 확산됨
1985.09.13	전북지역 3개 대학 연합 민중민주화운동 탄압 성토대회 전북대 민주광장에서 전북지역 4개 대학(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의 1,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민중민주화운동 탄압 성토대회'가 개최됨
1986.05.31	민주헌법 쟁취 민중대회 1980년대 당시 전주에서 개최된 집회 중 가장 많은 인파 운집한 대회로 이날 참석한 시민은 5만 명(경찰추산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참석자 모두가 "독재타도", "미제축출" 등을 외치며 가두행진에 참석함. 본 대회는 대중들이 개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1987.06.10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박종철 열사의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를 덕진성당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덕진성당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종교계인사 300명은 전북일보사 앞에 집결하여 연좌농성을 벌이기 시작함. 전북대 학생 300여 명도 교내에서 6·10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출정식을 마치고 학교 정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6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 열은 백제로사거리에서 덕진성당에서 치르지 못한 도민대회를 개최함
1987.06.23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 6월 22일 선포한 민주화실천기간 이틀째 시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아백화점 앞에 1만여 명이 집결함. 민주시민 시국토론회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나라의 민주화운동 기도회'가 개최됨
1987.12.10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저지되는 전국의 유일의 사례 전주역 광장에서 노태우 후보가 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각 대학의 유세저지 투쟁위원회 소속 학생들과 EYC 전주지구협의회 회원들이 곳곳에서 "노태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세를 저지함

1988.05.15	조성만 열사(김제출신, 해성고) 투신 조성만이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투신했. 조성만은 1964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를 졸업해 조성만의 죽음은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세력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1988.05.18	조성만 열사 추도회와 광주학살 진상규명 시위 전주 해성고 강당에서 동문, 교사, 재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조성만 추도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 강당과 도내 각 대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함. 도내 7개 대학 학생 3,000여 명이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교내외 시위를 벌임
1989.01.14	지역 민주화운동의 연합전선체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됨
1991.05.01	강경대 폭력살인 이후 5월 1일을 전후해서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한일장 신대 학생들이 거의 매일 거리로 나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농성을 벌임. 이 수현 신부 등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소속 신부 30여 명은 강경대 사망사건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전북지역 민주화교수협의회(8개 대학 130명)은 성명을 발표함
1991.11.30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발족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 전북본부 등의 연대를 기반으로 11개 지역 민주화운동단체, 대중조직이 연합하여 전북연합을 발족함. '민자당 심판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도민대회'를 강행하였으며 1999년 2월 제7기를 끝으로 해산할 때까지 전북지역의 연합운동을 이끌

자료 : 민주운동기념사업회(2012).『전북민주화운동사』,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총서(2); 전북 연구원 이슈브리핑(2021.5.14)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사업의 과제”에서 재인용

주. 전북지역 주요사건에 영향을 준 전국적인 사건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표기함

- 전라북도의 부문별 운동 중 먼저 노동운동을 살펴보면 1983년 노동자의 집이 설립된 이후에 ‘썬전자’ 노동자들의 407일 장기투쟁이 있었음. 소몰이투쟁과 우루과이라운드(UR)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등 전라북도 농민운동은 전국을 선도하였음

[표 2-16] 전라북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주요 사건

구분	주요 사건	일시
노동운동	•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산실, 노동자의 집 개설과 설립(악산 창인동성당)	1983
	• 민주노조운동의 출발: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 사수투쟁	1981.2~1982.8
	• 전국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조작 사건	1986
	• 세풍합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1986
	• 후레아훼순(독일계)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	1987.4
	• 87노동자대투쟁	1987.4~9
	• 썬전자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 407일 장기투쟁	1989.1~1990.4
농민운동	• 전북지역 농민운동의 시작, 한국기톨릭농촌청년회 전주교구연합회 창립	1968
	• 소값 피해 보상 투쟁(소몰이투쟁)	1985.7~9
	•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1986.8.31.~9.3
	• 고추 생산비 보장과 전량수매 쟁취 투쟁	1988.10~1989.3

● 쌀 생산비와 전량수매 보장 투쟁	1989
●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1990~1993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2021.5.14)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사업의 과제”

- 특히 군부독재에 맞선 인권과 민주화운동에서 전라북도 기독교단체를 빼놓을 수 없음. 천주교와 개신교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학생운동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의 최선두에서 활동하였고,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음

[표 2-17] 종교계의 반독재민주화운동

구분	주요 사건	일시
천주교계	●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1974)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1976) 창립	1974.9
	● ‘3·1민주구국선언’ 관련 문정현 신부 징역 3년 선고	1976
	● 파티마성당(전주)에 경찰기동타격대 난입, 문정현 신부 연행	1978.7.6
	●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문정현신부 재수감(긴급조치 9호 위반)	1979.7.30
	● 박창신 신부(익산 여산성당), 흉기 든 괴한 4명에게 피습	1980.6.25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고문 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 등 전두환 정권기 민주헌법 쟁취 투쟁 전개	1986~1987
	● 부정조작 대통령 취임반대 시국기도회(전동성당)와 거리시위	1988.2.24
	● 전주교구 정평, 전북지역 성당 54개에서 10만 여 명이 참석하는 5·18민중항쟁 9주년 기념 추모 미사 진행	1989.5.18
	● 전주교구사제단 주최 조성만 열사 3주기 추모미사와 거리행진	1990.5.15
	● 보안사 해체와 노태우 정권 퇴진 전북도민대회(전주 중앙성당)	1990.10.13
	● 국보법 철폐와 백골단 해체를 위한 시국기도회(전주 중앙성당)	1991.5.9
	● 고 강경대 애국 학생 추모 및 살인 만행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도민대회(전주 전동성당)	1991.5.13
	● 은명기 목사 구속(유언비어 유포 혐의)	1972.12.13
개신교계	● 긴급조치 9호 위반 강희남 목사(김제 난산교회) 연행, 양교철 목사 중앙정보부 연행 등 개신교 성직자 연행과 구속	1975
	● 김경섭 목사(전주 성광교회)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	1979.8
	● 전북 민주헌법쟁취위원회 결성(전주 임마누엘 교회)과 시위	1986.4.28
	● 성광교회를 중심으로 비상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	1986.6.24
	●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도민대회 개최(전주 남문교회)	1986.8.16
	● 남원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구국단식기도(충신교회)	1987.4.13
	● 전북 목정평협 목회자 25명, 민정당 전북도지부 점거 농성	1988.11.28
	●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시한부 농성(고백교회)	1988.11.29
	● 노태우 정권의 문익환 목사 구속에 대한 시위	1989.4~9
	●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성광교회)-경찰 교회 난입	1990.5.15
	● 민주사회를 위한 전북기독교대책위원회 결성	1992.8.9

자료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2021.5.14)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사업의 과제”

▣ 전라북도의 인권 관련 주요 사건⁵⁾

- 국가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1950~1953)에 사망한 민간인은 37만여 명, 전라북도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5만4,678명으로 전라남도(8만4,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2010년 진행한 실태조사가 진실 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사건별로 전수 조사함

[표 2-18] 인권 관련 주요 사건

인권 피해 장소	주요 내용
전주형무소 (전주교도소)	• 개전 초기 군·경과 북한군이 차례로 수형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참사. 피해자가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이리역 (익산역)	• 익산역 폭격 사건은 미군 폭격기가 당시 이리역에 폭탄을 퍼부어 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기타 지역의 피해 장소	• 완주·임실·무주·김제 등 국군과 북한군, 좌·우익 간 충돌로 다수 희생 • (사건사례)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1951년 전북경찰국 전투대대가 마을 주민 89명을 집단 총살)<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문서>

-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건은 전북 남원에서 있었던 송백권 아동성폭행 사건(김부남 사건)(1991)과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참사(2000, 2002)가 있음. 송백권 아동성폭행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1년 후 일어난 유사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군산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성매매 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됨
- 군부독재가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에 대하여 감금·고문·구속·테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종교계가 군부독재 규탄과 인권 수호 활동에 나섬. 대표적인 활동이 월요기도회로, 유신체제기에 전주가톨릭센터를 중심으로 열림
-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도 적지 않음.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전주자립원 사건이 대표적임. 원장과 국장이 2009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2년에 내부고발로 드러남.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이 장애인을 학대, 강제 노역,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장수판 도가니 사건’(2019)도 있음

5) 인권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깊어 주요 현황을 제시함.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2021)을 참조함

2.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지원 여건 및 사업 현황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역사 현황

열사정보				비고
번호	이름 (생몰년)	성별	직업 열사유형	내용
1	강은기 (1942~2002)	남원	노동 열사	72년 유신에 맞서 세진인쇄 설립 이후 유신반대 관련 인쇄유인물을 제작·제공, 02년 병환으로 운명
2	강희남 (1920~2009)	김제	통일 열사	77년 유신투쟁을 하다 투옥, 87년 전두환 호헌 조치 반대 옥중단식투쟁, 95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취임, 09년 이명박에 대한 민중항쟁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3	곽태영 (1936~2008)	김제	재야 열사	60년 4월 혁명 참여, 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권위원장, 08년 병환으로 운명
4	권미경 (1969~1991)	장수	노동 열사	(주)대봉에서 살인적인 노동문제에 항거하여 투신
5	김시자 (1961~1996)	김제	노동 열사	어용노동의 노동탄압에 항거하여 분신
6	김양무 (1950~2000)	남원	통일 열사	94년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결성으로 구속, 투병중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 추진, 00년 병환으로 운명
7	김종수 (1966~1989)	장수	노동 열사	88년 (주)서광구로공장입사, 89년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도 사수”를 외치며 분신
8	김주열 (1944~1960)	남원	학생 열사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 참가 뒤 실종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 4·19혁명의 도화선
9	김진수 (1949~1971)	임실	노동 열사	71년 3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사대에게 피습 당한 후 사경을 해맴, 5월 운명
10	박복실 (1956~1992)	김제	노동 열사	81년 태창메리야스 노조위원장, 전주노동자의집 사목활동, 92년 병환으로 운명
11	박순덕 (1963~1997)	정읍	빈민 열사	97년 철거반대 철탑망루 농성 중 투신
12	박영근 (1958~2006)	부안	재야 열사	80년대 노동문학 개척, 84년 한국 최초 노동시집〈취업공고판 앞에서〉발간, 민중가요〈솔아 푸르른 솔아〉원작자
13	서영호 (1962~1993)		노동 열사	86년 현대자동차 입사, 92년 1월 경찰침투 대비 바리케이트 설치 중 차량사고로 입원, 93년 운명
14	송석창 (1964~2003)	진안	노동 열사	2003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호소 유서 남기고 자결
15	이경해 (1947~2003)	장수	농민 열사	농업발전과 농민 삶을 위해 여러차례 단식 농성 멕시코 강쿤에서 WTO 반대집회 중 할복 자살
16	이광웅 (1940~1992)	이리	노동 열사	오송회 사건 연류로 5년동안 옥중생활, 92년 병환으로 운명

17	이대용 (1963~1987)	고창	노동 열사	86년 통양튜브 임금인상 쟁취 투쟁, 87년 인천 지역 노동자 여름 수련회 중 동료를 구하고 운명
18	이병렬 (1967~2008)	정읍	노동 열사	08년 이명박 탄핵투쟁연대범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참여 촛불항쟁 참여,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 6월 운명
19	이석규 (1966~1987)	남원	노동 열사	대우조선 노동자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중 사망
20	이옥순 (1954~2001)	정읍	노동 열사	1973년 원풍모방입사(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중심), 82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구속, 85년 서울 노동연합 부의장 선출(의장 직무대행)
21	이재호 (1965~1986)	부안	노동 열사	88년 협신사 입사 89년 10월 노조재건 활동 중 파살
22	이정환 (1971~1994)	익산	노동 열사	92년 노래파(휘파람)창설, 94년 겨울농활 수행 중 사고로 운명
23	이형관 (1973~1997)	성남 (군산대)	학생 열사	전대기련 전북지부장 대학연론 탄압문제 해결 위해 원광대로 가던중 쓰러져 뇌출혈로 운명
24	조성만 (1964~1988)	김제	학생 열사	83년 명동성당 청년연합회소속 가톨릭민속연구회 가입, 88년 “양심수 석방,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 외치고 할복 투신
25	진기승 (1967~2014)	임실	노동 열사	09년 신성여객 입사, 12년 사측의 공격적 지장 폐쇄 대응투쟁 과정에서 구속, 14년 4월 자결 시도, 6월 운명
26	최덕수 (1968~1988)	정읍	학생 열사	87년 단국대 입학 후 서도회, 호남향우회, 동학 운동사연구회 가입 및 활동, 88년 교내 광주영령 추모식에서 광주항쟁 성명서 낭독, 5월 시계 탑 앞 분신 시도 후 9일 뒤 운명
27	한상근 (1971~1997)	김제	학생 열사	91년 대한체육과학대(현 용인대) 입학 후 농촌문제연구회 활동, 97년 용인대 학자추 활동, 2월 분신 시도 후 3일 뒤 사망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 전라북도 조례를 제외하고 도내 14개 시·군 중 정읍과 남원에서만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

[표 2-19]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현황

제정일자	조례명
2015.09.25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7.10.13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7.12.29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2022.11.1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정읍과 남원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민주화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지역 관련 민주화 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정읍은 민주주의와 인권사상과 관련한 시대정신의 모태인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지역임. 또한 2000년 12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최덕수 열사(2000년 12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의 ‘최덕수 열사 정신계승 정읍시민문화재’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2009년 최덕수열사 정신계승 추모사업회 결성
 - 2022년 정읍시 본예산 중 사회단체관리(총무과): 최덕수열사 정신계승 34주년 정읍시민 문화재(10,000천원)
-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가 남원 출신임. 열사의 업적을 인정하고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해 고향인 남원시 금지면에는 추모관이 세워졌으며 매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함
 - 2022년 남원시 본예산 중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주민복지과) :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 (25,000천원), 보훈기념행사 지원(14,300천원, 4.19혁명, 현충일 기념행사가 포함된 금액임),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52,195천원)
- 2017년 12월에 제정된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2021년 8월에 전부개정됨.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의무사항들을 반영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 개정 전 조례를 살펴보면 실행의무가 명시된 조항은 하나도 없으며 앞서 제정된 정읍과 남원의 사례와 거의 유사하게 내용이 구성됨. 조례 내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거나 혹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표 2-20] 2017년 제정 된 개정 전 조례 구성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4499호, 2017. 12. 29., 제정]			
제1조	목적	제4조	위탁
제2조	정의	제5조	사업비 지원
제3조	기념사업	제6조	시행규칙

- 2021년 개정된 조례에서는 6개 조항이 추가로 만들어졌으며 그 중 4개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의무조항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 협력체계 구축임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시책 발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5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구성하여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과 구체적인 사업 발굴·추진이 가능하게 됨. 기념사업에는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국제교류협력사업 추가됨
- 전북지역의 상징적인 사건과 장소,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전북의 위상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의지가 반영됨

[표 2-21] 2021년 전부개정 된 현재 조례 구성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4969호, 2021. 8. 13.,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제7조	사업비 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	기념사업	제11조	포상
제6조	위탁	제12조	시행규칙

- 2021년 11월 11일에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 이 조례의 특징은 기존 법률에서 정의한 ‘관련자’란 개념이 아니라, ‘공헌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 전라북도 자체 공헌자 인용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최종 조례에 포함되지 않음), 기존 시·도의 유사 조례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여 반영하였다는 점 등임

[표 2-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p>2.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p> <p>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공헌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공헌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p>
--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현황

- 2005년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조사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서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2006~2007년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이 지원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문서를 수집하는 사업이 추진됨. 2012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전북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됨
- 구술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2002~2005년 4회에 걸쳐 수행되었고, 2017년에는 1987년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으로 6월항쟁 관련 구술사업이 수행됨. 이 외에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2012~2014년에 전북지역 5월 운동사 구술작업이 진행된 바 있음
-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예산을 비교해보면 조례 개정 이전인 2020년도에는 민주시 민교육(자치행정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정무기획과)에 93,000천원이 책정됨. 개정 이후인 2022년도 예산에는 2020년도에 진행된 사업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70,000천원)이 추가, 총 143,0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됨
- 2020년도에 비해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 증가이며 오히려 기존 진행 사업인 기념사업의 예산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조례 의무조항 이행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발

굴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사업은 매년 5월에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대표적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19 혁명 기념식도 매해 열림
- 국가기념일이 아닌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념사업이 없으며 기초단위 지역에서 진행하는 기념식의 경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표 2-23] 2021년 기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주최
기념 사업	군산 민주화운동	20.12.30~ 21.01.28	1980년대 전북 군산의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 '입춘, 6월에 봄이 오다'가 전시됨 당시 군산 오룡동성당 주임신부인 박창신 전주 교구 원로 신부가 1984년부터 시위 현장을 다니며 찍은 7000여장의 기록이 전시됨	군산 대학교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21.5.15~ 22.05.21	5.18민주항쟁 기념식 및 이세종열사 추모식 진행함.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미안마 민주화 투쟁 지지를 위한 사진전 개최(전주, 부안)	5.18민주 항쟁기념 전북행사 위원회
	이세종 열사 41주기 추모식	21.05.17	5.18민주항쟁 4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1부 기념식, 2부 추모식으로 나뉘어 진행됨. 추모비 현화, 이세종 열사의 투쟁 기록과 추모비 제작 과정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함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행사	22.04.19	매년 4.19혁명 당시 희생된 김주열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위해 기념식을 실시함	남원시
교육 사업	민주시민교육 타 지역(여수·순천) 연계 현장 탐방	22.04.14~ 22.04.15	민주학교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탐방 실시함. 타 지역 민주로드 현장 탐방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인식 전환과 네트워크 구축,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방안 논의를 진행함	전북 교육청
	민주체험 뚜벅뚜벅 워크북 <민주야 소풍 가자> 발간	-	우리지역 민주화 운동 체험길 자료로 불의에 저항한 지역의 인물을 선정하여 관련 역사 유적들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안내서임.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가이드가 각각 발매되어 학교별 현장 학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학술 연구 사업	4.19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전북대 4.4 시위와 전북의 정체성>	20.10.27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4.4시위에 대한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신진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됨. '전북정신과 4.4시위'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과 지역사회를 조망하는 세부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전북 대학교

- 4·19 혁명의 대학생 시위의 발판이 되었던 전북대 4·4시위와 관련하여 전북대에서는 <전북대 4·4시위와 전북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추진한 바 있음(4·19 60주년 기념학술대회_2020.10.27.)
 - 현재 많은 사람이 1960년 4월 18일 고려대에서 시작한 시위를 필두로 4·19혁명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인식하지만 앞서 전북대에서는 4월 4일 대학생 시위가 전개됨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4·4시위에 대한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며, 지역민들의 인식 제고와 깊이있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함
- 전라북도 조례 의무조항인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 협력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을 파악하여 연계사업 및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을 발표함. 본 계획에서는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활민주화 실천을 목적으로 함

[표 2-24]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과 협력체계 구축(중점과제)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체계	
비전	일상이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 □ 민주시민을 키우는 학교 □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주체인 학교
가치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활성화 - 학생자치 실현 - 학교민주시민교육 연구와 정책수립 기반 마련 □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자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강화 - 민주시민을 기르는 감수성 함양 교육 활성화 □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과 부서의 협력적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제4712호, 2019.12.6.제정)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3883호, 2014.8.8.개정)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조례 제4614호, 2019.2.1.제정)

- 3-2-1.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교육(지원)청,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 환경교육, 선거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대학과 연계 강화
 - 예비교원 민주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민주시민교육 정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유와 협력 문화 조성
 -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 방향 공유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역사회 협력기관 운영
- 3-2-2. 지역자원과 프로그램 활용 민주시민교육
- 지역 학생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익산 어울누리, 군산 자몽에서 다양한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활동 추진
 -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활동기관 연계
 -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계, 민주시민교육 확산
 - 방과후 마을학교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현장체험 학습과 교육을 위한 지역의 민주화길 <민주야, 소풍가자>를 제작·배포함
 - 지역의 민주화길: 시대의 불의에 저항한 전북 지역 인물과 관련된 상징성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현장탐방이 가능한 루트를 제공함
- 2020년부터 현재까지 4개 테마(발굴 순으로 사월길, 오월길, 삼월길, 유월길)가 제작되어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4개 테마를 추가 발굴할 것을 계획함

[표 2-25] <민주야 소풍가자> 테마별 탐방길

구분	탐방길
삼월길	전주신흥고-다가교-전주서문교회-전주남부시장매곡교-옛)전주제2보통학교 자리(전주교대전주부설초)-풍남문-옛)전주우편국(경원동 우체국)
사월길	전북대 4·4시위 현장-김주열 열사 생가(남원)-금지동초·금지중(김주열 열사 모교)-김주열 열사 추모공원(남원)
오월길	국립5·18민주묘지-전북대 이세종 광장-옛)전북도청-옛)전주시청-옛)전주역-전주신흥고
유월길	황토현 전적지-용머리고개-장군봉-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녹두관-초록바위-풍남문-전라감영 선회당

민주야, 소풍가자! '민주체험 뚜벅뚜벅 워크북'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정한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에서 사망한 27명 열사의 기념행사를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기념행사, 추모제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음. 다만, 노동열사의 기념행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표 2-26]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역사의 기념 관련 행사 현황

역사정보				사업회	주요 사업 현황
1 강은기(1942~2002)	남원	노동열사			강은기선생 추모제 강은기 평전 발간(2014)
2 강희남(1920~2009)	김제	통일열사	흰돌강희남기념 사업회		흰돌강희남목사추모식. 7주기 기념 자서전<한목사의 생애와 사상>출간
3 곽태영(1936~2008)	김제	재야열사			
4 권미경(1969~1991)	장수	노동열사			
5 김시자(1961~1996)	김제	노동열사			김시자동지 추모제
6 김양무(1950~2000)	남원	통일열사			김양무선생 추모제 <청년 김양무> 발간
7 김종수(1966~1989)	장수	노동열사			김종수평전<구로, 1989> 김종수 열사 추도식
8 김주열(1944~1960)	남원	학생열사	남원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 추모제. 김주열열사 기념 사업 기념식·음악회(2022~)
9 김진수(1949~1971)	임실	노동열사			김진수열사 추모제
10 박복실(1956~1992)	김제	노동열사			
11 박순덕(1963~1997)	정읍	빈민열사			박순덕열사추모제(서울 전농동 추모 비)
12 박영근(1958~2006)	부안	재야열사	박영근시인기념 사업회(인천)		박영근시인추모제 박영근작품상 시상식
13 서영호(1962~1993)		노동열사			
14 송석창(1964~2003)	진안	노동열사			
15 이경해(1947~2003)	장수	농민열사			이경해열사 추모제 (한국농업연수원 이경해 열사 묘역· 추모비)
16 이광웅(1940~1992)	이리	노동열사			
17 이대용(1963~1987)	고창	노동열사			
18 이병렬(1967~2008)	정읍	노동열사			이병렬동지 추모제
19 이석규(1966~1987)	남원	노동열사	이석규민주노동열사 기념사업회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추모제
20 이옥순(1954~2001)	정읍	노동열사			이옥순동지 추모제
21 이재호(1965~1986)	부안	노동열사			
22 이창환(1971~1994)	익산	노동열사			
23 이형관(1973~1997)	성남	학생열사			이형관열사 추모제(군산대)
24 조성만(1964~1988)	김제	학생열사	조성만기념사업회		조성만열사 추모제
25 진기승(1967~2014)	임실	노동열사			진기승동지 추모제
26 최덕수(1968~1988)	정읍	학생열사	최덕수열사추모 사업회(천안)		최덕수열사 추모제
27 한상근(1971~1997)	김제	학생열사	한상근열사 추모사업회		한상근열사 추모제

2.3

다른 지역 사례 검토

2.3.1. 민주화운동 관련 지역 여건

□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

-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법규명	기본계획조항	제정일자
강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1.9.20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1.2.24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2.7.20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0.11.5
경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2.11.6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9.1.11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9.7.9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7.7.19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3.1.10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9.7.5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9.05.31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1.9.27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1.12.29
경남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9.5.31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13
경북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1.7.15
광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	2013.7.1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2012.10.15
대구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06.3.10
대전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2013.8.16
부산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2017.09.27
서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2012.7.3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7.12.11
울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9.9.26
인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6.09.29
전남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2015.2.26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2.4.5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2021.12.27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7.2.13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2.4.8
전북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9.3.1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2017.12.29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7.10.13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5.9.2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2013.1.16
충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9.8.7
충북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21.8.6

- 17개 광역시도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부산, 서울, 전북(전남의 경우 5·18 관련 조례 해당)임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형식적 조항에 그침. 그러나 몇몇 조례에서 의무조항이 명시됨
- 다른 지역 조례와 차별화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전북, 광주, 부산, 서울임. 이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부산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조례에 포함시킴

[표 2-27] 광역자치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지원 범위

구분	기념일 지정	기념사업	단체설치 위탁운영	예산 지원	협력 체계	포상	위원회 설치
전북		○		○	○	○	○
강원		○	○	○	○	○	
경기		○	○	○	○		
경남		○		○			
경북		○	○				
광주		○	○	○	○	○	○
대구		○	○				
대전		○	○	○	○	○	
부산	○	○		○	○	○	○
서울		○	○			○	○
세종		○	○	○			
울산		○	○	○		○	
인천		○	○	○	○	○	
전남		○	○	○			
제주		○	○	○	○	○	
충남		○	○	○	○	○	
충북		○		○	○	○	

▣ 지역별 민주화운동 진행 사업 현황⁶⁾

- 16개 광역시도(전북 제외)에서 진행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28] 민주화운동 관련 진행 사업 수 현황

구분	내용	
사업 현황 (기념식/추모제 교육/역사탐방 학술토론/포럼 등)	서울	4·19혁명(3), 5·18민주화운동(5), 6월민주항쟁(11), 범민주화사업(7)
	부산	4·19혁명(3), 부마민주항쟁(15) , 5·18민주화운동(2), 6월민주항쟁(9) 범민주화사업(4)
	대구	2·28민주운동(8) , 6월민주항쟁(2)
	인천	5·18민주화운동(1), 5·3인천항쟁(5) , 6월민주항쟁(11), 범민주화사업(9)
	광주	5·18민주화운동(42), 6월민주항쟁(4), 범민주화사업(2)
	대전	3·8민주의거(5) , 5·18민주화운동(3), 6월민주항쟁(3), 범민주화사업(2)
	울산	4·19혁명(1), 5·18민주화운동(1), 6월민주항쟁(3)
	세종	5·18민주화운동(3), 6월민주항쟁(4)
	경기	5·18민주화운동(4), 6월민주항쟁(12), 범민주화사업(3)
	강원	사북항쟁(2) , 5·18민주화운동(3), 6월민주항쟁(5), 범민주화사업(2)
	충북	5·18민주화운동(6), 6월민주항쟁(5)
	충남	4·19혁명(1), 5·18민주화운동(4), 6월민주항쟁(4), 범민주화사업(1)
	전남	여순사건(1) , 5·18민주화운동(7), 6월민주항쟁(9), 범민주화사업(2)
	경북	5·18민주화운동(1), 6월민주항쟁(3)
	경남	3·15의거(8) , 4·19혁명(3), 부마민주항쟁(6) , 6월민주항쟁(4), 범민주화 사업(2)
	제주	4·3사건(31) , 5·18민주화운동(2), 6월민주항쟁(11), 범민주화사업(3)

주. 범민주화사업은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민주화운동 사업과 민주주의 관련 사업을 포함함

-
- 6) 2020년부터 2022년 6월(조사기준)까지의 기사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음.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행사가 축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다양하고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준이므로 누락된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밝힘. 본 자료는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추진사업의 대략적인 수와 지역에서 다루는 주요 민주화운동 사건을 파악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록에 실려 있음

-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 대부분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관련 기념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표 2-2참고] 민주화의 시기 를 앞당겼다고 평가되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기념식 및 기타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국단위의 대표적인 대규모 사건(4·19, 5·18, 6월항쟁)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발원한 민주화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념식 및 기타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음
- 관련 사례 중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건도 있으며 국가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추진되는 사례도 있는데 후자의 사례로는 인천(5·3인천항쟁/1986년), 강원(사북항쟁/1980년), 전남(여순사건/1948년)이 있음
- 제시된 사건들은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사건이 진행되기 전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음

[표 2-29] 지역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건 사례

지역	주요사건	국가기념일 지정여부	지역	주요사건	국가기념일 지정여부
부산	부마민주항쟁	○	강원	사북항쟁	-
대구	2·28민주운동	○	전남	여순사건	-
인천	5·3인천항쟁	-	경남	3·15의거	○
대전	3·8민주의거	○	제주	4·3사건	○

- 전북에 경우도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한 전북대 4·4시위와 같은 주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연구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전라북도의 위상 정립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원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며 국가기념일 추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

▣ 민주화운동 지역 대표 사례 _① 광주광역시

- 광주에서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과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사업을 위한 시책 담당부서인 민주인권평화국이 설치되어 있음. 민주인권평화국에는 민주인권과 5·18 선양과, 평화기반조성과가 있으며 부서가 관리하는 운영시설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5·18기념문화센터가 있음

[표 2-30]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부서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천원)
민주인권과	인권도시육성,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문화확산협력, 민주선 양사업, 민주시민교육운영, 대외교류협력사업추진, 사이버성 회룡성폭력신고센터운영, 인권옴부즈맨 운영	2,413,967
5·18선양과	5·18선양사업추진지원, 5·18기념사업지원, 옛전남도청복원, 5·18민주여성힐링캠프, 5·18시설사업추진지원, 5·18민주화 운동보상업무추진, 5·18역사왜곡지원, 5·18진상규명조사지 원, 옛광주적십자병원매입	9,347,119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대외교류협력강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보조), 대외인도적지원사업추진, 광주트라우 마센터운영,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북한이 탈여성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3,085,760
합계		14,846,846

주1: 2022년 본예산 기준

주2: 예산은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포함

자료: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 민주인권과에서는 인권과 민주시민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기반조성 과에서는 남북교류사업과 트라우마센터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중심의 기념 및 보상사업 등은 5·18선양과에서 진행되며 민주인권평화국의 2022년 지원예산은 14,846,846천원으로 책정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키워드 ‘광주 민주화’로 검색되는 조례는 총 22개로 나타남. 광역 조례와 더불어 교육청, 기초단위 지역에서도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며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자 예우 관련 지원 조례가 있음

[표 2-31]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현황

구분	법규명
광주 '민주화' 관련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념기간등국기의조기(弔旗)게양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운영조례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 및 교육 시설과 관련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설도 설립되어 있음. 해당 시설들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록물 관리와 전시활동을 지원하고 기념공원 운영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표 2-32]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

기관명	주요사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5)	기록관 행사운영(자료집 제작, 광주정신포럼, 찾아가는 어린이 5·18교실, 오월&금남로, 5·18독서프로그램), 전시운영,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자료실 및 수장고 운영, 세계기록유산(5·18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실시
5·18기념문화센터 (1998)	5·18기념문화관과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관리운영 업무추진 - 기념공원: 기념문화관, 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 자유공원: 군법정, 영창 등 보존시설
5·18교육관 (2010)	위탁기관: (사)5·18구속부상자회 5·18 역사체험프로그램, 오감으로 느끼는 오월(체험활동),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4·19민주혁명역사관 (2019)	광주고등학교 내 개관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체험학습공간으로 운영
광주트라우마센터 (2012)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기관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고문·국가 폭력 트라우마 관련 조사, 고문·국가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진행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 제시된 시설뿐만 아니라 광주에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5·18기념재단’이 있음. 1994년 설립된 5·18기념재단에서는 5·18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과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음.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이 제정될 수 있었으며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연대사업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물 수집과 출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5·18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임. 2022년 재단에서는 기념사업, 국제연대, 교육문화, 학술연구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036,000천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남

[표 2-33]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및 예산(2022년 1차 예산안 기준)

구분	주요사업	예산(천원)
기념사업	5·18민주화운동선양사업, 5·18기념사업홍보, 5·18기념사업 종합관리, 5·18기념사업통합정보체계운영	572,500
국제연대	광주인권상, 광주민주포럼, 5·18인재육성, 연대사업	943,500
교육문화	스마트러닝시스템운영,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오월학교, 오월길, 오월문화예술콘텐츠사업	510,000
학술연구	5·18학술연구사업, 5·18기록물 수집, 5·18아카이브콘텐츠 사업, 5·18인권기록물전, 5·18진실규명·왜곡대응	1,010,000
합계		3,036,000

	
5·18 교육자료 개발	오월길 탐방

자료: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 민주화운동 지역 대표 사례_② 경상남도

- 경남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34]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부서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	
자치행정국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3·15의거 기념식, 3·15의거 기념행사비, 김주열열사 추모사업 등	
합계	4,819,200천원	

주1: 2022년 본예산 기준

주2: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사업 중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만 정리함. 행정운영경비 제외

자료: 경상남도 홈페이지

- 경남은 부마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 3·15의거와 김주열열사 관련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원시에서 2024년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민주주의 전당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키워드 ‘경남 민주화’로 검색되는 조례는 5개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과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3·15의거와 관련하여 기념관 관리와 교육활성화 조례가 있음. 2019년에는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조례를 창원시에서 만들

[표 2-3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현황

구분	법규명
경남 ‘민주화’ 관련 조례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활성화 조례
	•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출범함. 부산과 마산에 사무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데 기여함. 지속적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작업과 관련 기록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사업 및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임

[표 2-36]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요사업 현황

구분	주요사업
학술/사료	부마민주항쟁학술대회, 부마민주항쟁 사료수집, 부마아카이브서비스
기념/교육	부마 아카이브 전시, 부마민주항쟁 상황재현 문화제, 부마민주음악제,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리멤버부마문화행사, 부마민주영화제, 부마길 탐방프로그램, 부마민주항쟁 교재개발, 부산민주화운동 교수학습자료개발
부마아카이브	
부마민주항쟁 교재개발	
1979부마로드(마산코스)	

자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옛 민주당사가 위치한 자리(마산합포구 민주화거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개관함(사업비 45억원, 연면적 743m², 지하1층~지상4층 규모)
-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기념관(1층 깊은울림, 2층 건강한울림, 3층 힘있는 울림)은 3·15의거 관련 다큐멘터리, 해당시기의 사진과 재현 영상과 함께 사건의 계기가 된 3·15부정선거 과정과 시민들의 항거 모습들이 담긴 자료들을 볼 수 있음



자료 :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그림 2-4]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 민주화운동 지역 대표 사례_③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에서는 실무부서인 4·3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함

[표 2-37]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부서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
4·3지원과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4·3전국화·세계화 기념 사업, 4·3유족회 등 단체 지원,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조사, 후유장애자 개호비지원, 4·3사료조사 및 수집,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직권재심청구, 4·3평화공원 및 유적지 관리, 4·3유적지 시설관리, 문화재 시설관리 등
합계	15,707,901천원

주1: 2022년 본예산 기준

주2: 행정운영경비 제외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4·3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피해발굴과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으로 15,707,901천원이 수립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키워드 ‘제주 민주화’, ‘제주 4·3’으로 검색되는 조례는 총 13개임

[표 2-38] 제주 민주화 관련 조례 현황

구분	법규명
제주 ‘민주화’, ‘4·3’ 관련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가의 조기개양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화상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를 보면 앞서 제시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기념 및 정신계승과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4·3사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임
- 주요 시설로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수행하는 제주 4·3평화재단이 있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8년 10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4·3해결 후속 사업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재단에서는 추가 진상, 추모/유족복지, 문화/학술연구, 평화교육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며, 재단운영 사업비로 2022년 수립된 예산은 9,958,936천원임

[표 2-39] 제주 4·3평화재단의 추진사업 현황

구분	주요사업
추가진상 조사	1단계조사: 마을별 4·3피해실태 조사, 분야별 4·3피해실태 조사 2단계조사: 행형기록, 경찰기록 관련 4·3수집자료 해제 및 DB구축 3단계조사: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및 4·3국외자료 조사, 봉기주도세력 조사, 재경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조사 등
추모/유족복지	4·3희생자주념일전야제, 4·3유족진료비지원, 4·3희생자며느리진료비지원, 4·3생존희생자지원사업, 찾아가는 4·3문화체험교실, 4·3생존희생자위로사업, 4·3어버이상, 장학사업, 4·3희생자주념식 등
문화/학술연구	제주4·3평화포럼, 4·3평화문학상,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학생4·3문예대회, 4·3학술연구사업 공모, 제주4·3의 노래 제작 및 보급, 교육자료 발간 등
평화교육	전국교원4·3직무연수, 시민4·3역사문화아카데미, 전국청소년4·3영어스피치대회, 전국청소년4·3평화캠프, 국내외대학생4·3평화캠프 등
평화교류	제주4·3평화상, 국내외 평화교류 등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 4·3생존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의료비 지원시스템

자료: 제주 4·3평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에서 운영(위탁포함)하고 있는 주요 시설에는 평화공원, 평화기념관, 어린이체험관, 트라우마센터가 있음. 관련 시설들은 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의 추모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회복과 치유 사업을 진행함

[표 2-40] 제주 4·3평화재단의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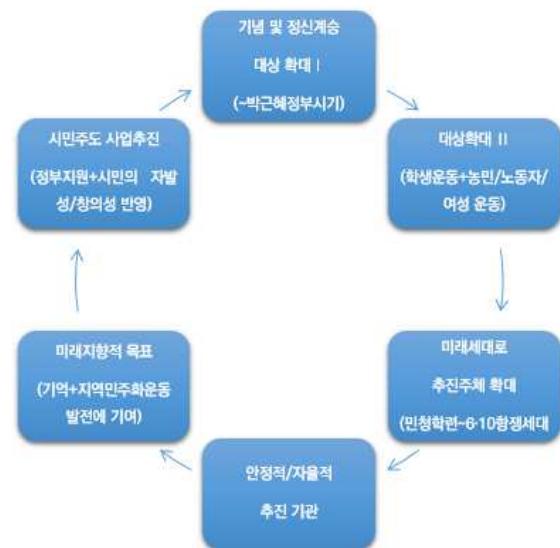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4·3 평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령제단: 희생자 참배공간 위패봉안실: 희생자 위패가 모셔진 공간 위령광장: 4·3희생자추념식 봉행 봉안관: 유해발굴사업에 의해 발굴된 379기 유해 봉안 각명비원: 희생자 성명, 성별, 당시 연령 등을 기록 행방불명 표석: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 3,976기 설치  <p>① 위령광장 ② 위폐봉안실 ③ 위령탑 ④ 세주4·3평화기념관 ⑤ 어린이체험관 ⑥ 귀련 ⑦ 각명비 ⑧ 행방불명인표석 ⑨ 보안관 ⑩ 모나상: 비설 ⑪ 주차</p>
4·3 평화 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도서자료실, 영상관 운영 공간성격: '기념·추념공간, 아카이브 공간, 역사교육·교훈의 공간' 4·3사건 관련 역사적 사실과 진상 규명과정 전시, 4·3기획전, 관련 자료 열람 및 학술대회 등 개최 
4·3 어린이 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설·특별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4·3어린이체험관, 집에서 만나는 4·3어린이체험관 운영 
4·3 트라우마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유, 신체치유, 사회치유 등 

자료: 제주 4·3평화재단 홈페이지

2.3.2. 민주화운동 관련 계획수립 사례

▣ 광주광역시

- (계획수립 근거) 2012년 10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7조(계획의 수립)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계획의 수립에 있어 ①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②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③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④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을 도모함
- (계획수립 기본방향)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거나 혹은 대규모 시위 중심의 성공한 민주화운동만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지향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운동, 사회의 각 부문에서 민주화를 위해 이루어진 활동 모두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며 현장 중심의 인식 전환을 시도함
- 인식의 전환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문별 조직운동사에 대한 연구, 세부활동 내용을 고려한 기여도 평가, 민주화운동 참여 인물들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신뢰도 확보가 중요해짐
- (추진목표 및 주체) 계획의 추진과제는 연구분야 및 연구주체의 다양화, 안정화, 체계화, 전국화·세계화이며 이를 위해 정부-대학-민간기관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함



[그림 2-5] 광주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체성

자료: 광주광역시(2019),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205쪽

[표 2-41] 광주광역시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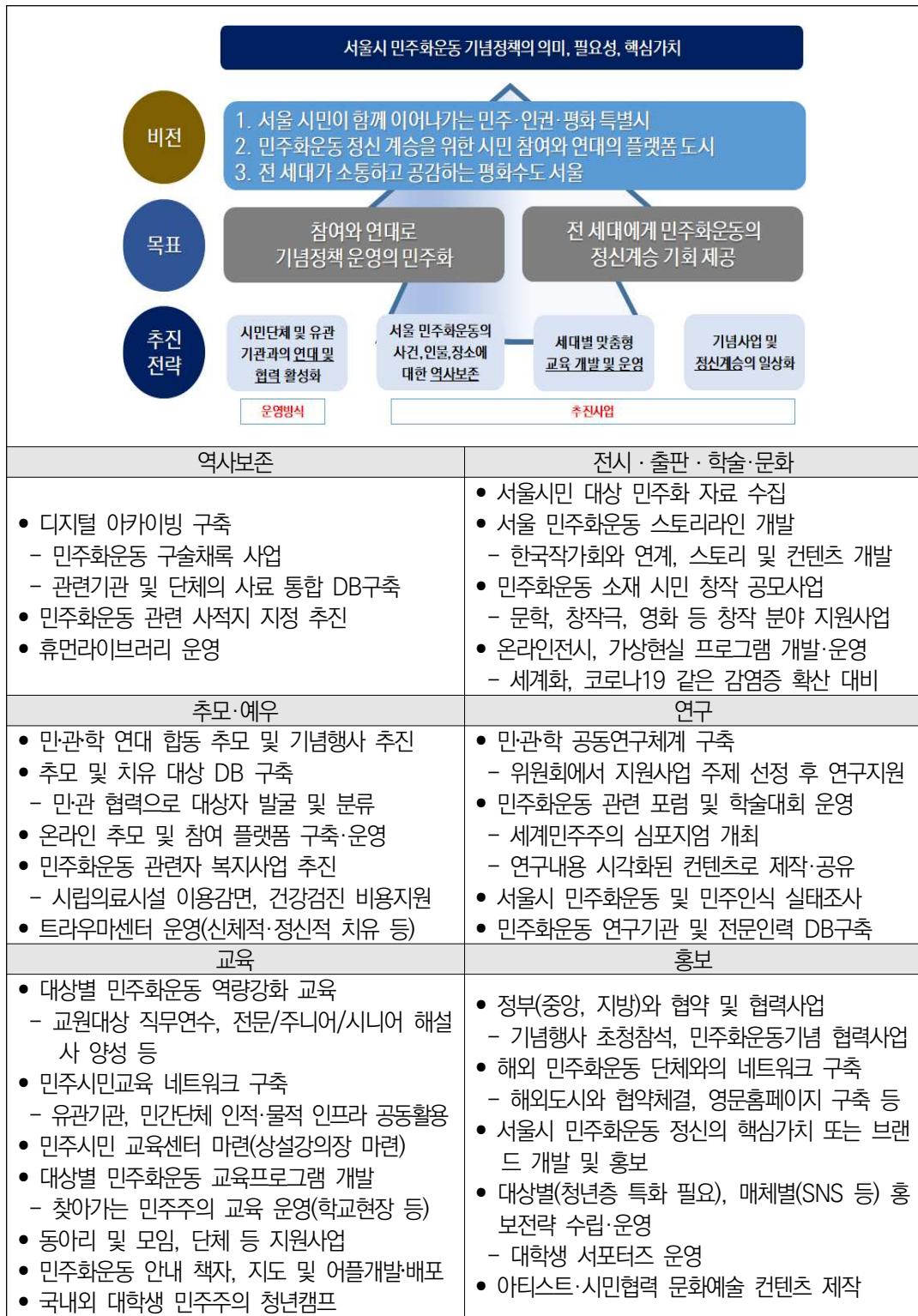
마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추진계획 수립			
비전	시민이 주도하는 포괄적, 미래지향적, 자율적 기념사업			
핵심가치	역사발굴·진실규명	추모·위로·치유	정신계승	
전략목표	다양화	안정화	체계화	연대
	해방 후 지역민주화운동으로 사업범위 확대: 인문학에서 사회과학+α	협의조직 신설: (가)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협의회(민기협) 설립	기초사료의 체계적 축적, 관리, 공유시스템 구축, 열사·유족 DB 구축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 연대
	학생, 노동, 여성, 농민, 종교, 문화예술 등 부문별 민주화운동 포괄	(가)민주인권대학원 설립(연구자와 활동가 공동참여)	치유프로그램 대상자 및 참여기회 확대	공동전시·출판·학술·문화사업 추진
	전문가 양성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관·학 연계체계 구축 및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전국역사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료: 광주광역시(2019),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 (계획수립 근거) 2012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3(계획의 수립)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함
- 계획은 ①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추진전략)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역사보존, 정신계승, 교육사업 중심의 추진사업 들을 제안함
-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민과 민주화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키워드와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했으며 의견수렴 결과 역사보존, 교육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표 2-42] 서울특별시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



자료: 서울특별시(2020),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인식조사와 의견수렴



3.1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인식조사

3.1.1. 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

□ 조사 목적과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사 : 2022년 8월 17일 ~ 23일(7일) 자료처리 및 검수 : 2022년 8월 24일 ~ 25일(2일)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지역 : 14개 시·군 조사단위 :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인식 등

□ 조사 방법

- 전북연구원 도민 모니터링단(전체 1,236명)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설계

구분	주요 내용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 = \frac{Z_{\alpha/2}^2 p(1-p)}{e^2}$
표집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연구원 도민 모니터링단(전체 1,236명)
표본추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연령에 따른 제곱근 비례 할당(비례 할당 시 특정 지역의 표본집중 및 과소 표집 해소를 통한 표본구성의 안정성 확보)

[표 3-1] 모집단 지역별 연령별 인구수 및 구성

전체	전체	인구수(연령)					구성비(연령)					
		20~29	30~39	40~49	50~59	60세+	전체	20~29	30~39	40~49	50~59	60+
전체	1,497,054	206,579	182,181	259,675	298,654	549,965	100.0	13.8	12.2	17.3	19.9	36.7
전주	535,755	92,498	80,960	104,928	107,276	150,093	100.0	17.3	15.1	19.6	20.0	28.0
군산	219,671	29,021	29,074	42,523	44,185	74,868	100.0	13.2	13.2	19.4	20.1	34.1
익산	233,585	34,997	27,390	40,310	48,537	82,351	100.0	15.0	11.7	17.3	20.8	35.3
정읍	91,390	10,199	8,394	14,043	18,118	40,636	100.0	11.2	9.2	15.4	19.8	44.5
남원	67,743	7,320	6,020	10,118	13,595	30,690	100.0	10.8	8.9	14.9	20.1	45.3
김제	70,999	6,942	6,196	9,549	13,237	35,075	100.0	9.8	8.7	13.4	18.6	49.4
완주	76,641	8,745	8,842	13,207	15,316	30,531	100.0	11.4	11.5	17.2	20.0	39.8
진안	22,221	1,810	1,507	2,536	4,420	11,948	100.0	8.1	6.8	11.4	19.9	53.8
무주	20,910	1,697	1,622	2,720	4,122	10,749	100.0	8.1	7.8	13.0	19.7	51.4
장수	19,043	1,548	1,400	2,405	3,635	10,055	100.0	8.1	7.4	12.6	19.1	52.8
임실	23,871	1,887	1,814	2,664	4,497	13,009	100.0	7.9	7.6	11.2	18.8	54.5
순창	23,432	1,906	1,752	3,096	4,387	12,291	100.0	8.1	7.5	13.2	18.7	52.5
고창	46,866	4,021	3,574	5,833	8,775	24,663	100.0	8.6	7.6	12.4	18.7	52.6
부안	44,927	3,988	3,636	5,743	8,554	23,006	100.0	8.9	8.1	12.8	19.0	51.2

주. 총 조사대상 표본 400개는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함

[표 3-2] 전북도민대상 조사 표본배정 방식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모집단 인구	1,497,054	535,755	219,671	233,585	91,390	67,743	70,999	76,641	22,221	20,910	19,043	23,871	23,432	46,866	44,927
인구 구성비	100	35.79	14.67	15.6	6.1	4.53	4.74	5.12	1.48	1.4	1.27	1.59	1.57	3.13	3
비례 할당 표본수	400	143	59	62	24	18	19	20	6	6	5	6	6	13	12
제곱근 비례 할당 표본수	400	74	47	49	31	26	27	28	15	15	14	16	15	22	21

주. 제곱근 배분법에 따른 지역별 적정표본 수 산출 후 연령·성별 최종표본을 추출함

[표 3-3] 지역별 최종표본 수

전체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주	74	36	38	10	5	5	9	5	4	13	6	7	15	7	8	27	12	15
군산	47	24	23	8	4	4	7	4	3	9	5	4	9	5	4	13	6	7
익산	49	24	25	6	3	3	6	3	3	9	4	5	10	5	5	17	8	9
정읍	31	15	16	5	3	2	4	2	2	5	2	3	6	3	3	11	5	6
남원	26	13	13	3	2	1	2	1	1	4	2	2	5	3	2	12	5	7
김제	27	13	14	3	2	1	2	1	1	4	2	2	5	3	2	12	5	7
완주	28	14	14	3	2	1	2	1	1	4	2	2	5	3	2	14	7	7
진안	15	8	7	2	1	1	2	1	1	3	2	1	3	2	1	6	3	3
무주	15	7	8	1	0	1	1	1	0	2	1	1	3	2	1	8	4	4
장수	14	7	7	1	1	0	1	1	0	2	1	1	3	2	1	7	3	4
임실	16	8	8	1	1	0	1	1	0	2	1	1	3	2	1	8	4	4
순창	15	8	7	1	0	1	1	0	1	2	1	1	3	2	1	8	4	4
고창	22	11	11	2	1	1	2	1	1	3	2	1	4	2	2	11	5	6
부안	21	11	10	2	1	1	2	1	1	3	2	1	4	2	2	11	5	6
전체	400	199	201	48	26	22	42	23	19	65	33	32	78	43	35	165	76	89

주. 해당 지역의 최종표본은 전북연구원 모니터링단의 표집틀에서 인구 특성에 맞춰 추출간격에 따라 표본을 추출함

[표 3-4] 지역 및 연령별 표본추출 간격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주시	5	11	13	8	2
익산시	전체	2	2	2	전체
군산시	1	2	2	3	전체
남원시	2	4	2	전체	전체
정읍시	2	4	3	3	전체
김제시	2	3	4	5	전체
완주군	전체	7	5	4	전체
부안군	3	6	8	5	전체
임실군	5	18	11	3	전체
고창군	13	16	6	2	전체
무주군	4	11	10	4	전체
진안군	3	9	12	5	전체
장수군	6	9	4	4	전체
순창군	전체	9	7	4	전체

주. 전라북도 성·연령별로 최신(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사후 층화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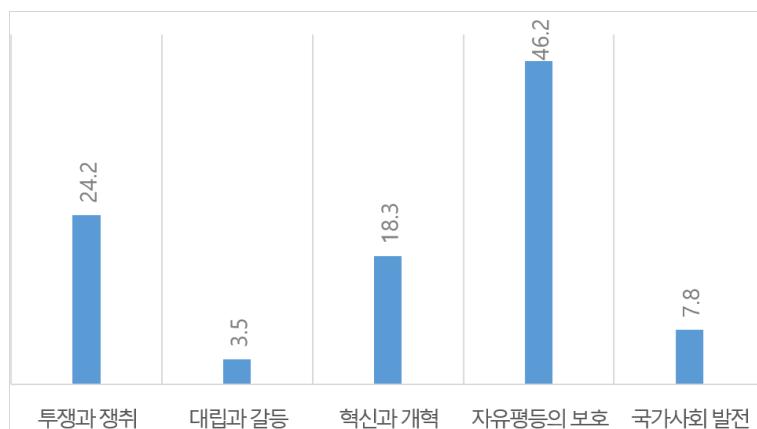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			N	%
성	남자	208	51.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	5.6
	여자	193	48.1		대학	241	60.3
연령	20대	54	13.4	정치적 신념	대학원 이상	137	34.1
	30대	47	11.7		보수	16	3.9
	40대	69	17.3		중도보수	29	7.2
	50대	83	20.7		중도	108	27.1
	60대 이상	148	36.9		중도진보	174	43.5
거주 지역	전주	149	37.2	종교	진보	73	18.3
	군산	53	13.1		불교	43	10.8
	익산	66	16.4		천주교	35	8.8
	정읍	21	5.2		개신교	148	37.0
	남원	20	4.9		원불교	12	2.9
	김제	19	4.8		이슬람교	0	0
	완주	17	4.3		종교 없음	162	40.5
	진안	4	1.0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	전혀 없다	211	52.7
	무주	6	1.5		과거 조금 참여	173	43.3
	장수	4	1.1		과거 적극 참여	16	4.0
	임실	6	1.6	사회활동 참여 경험	전혀 없다	193	48.1
	순창	5	1.3		과거 참여	125	31.3
	고창	19	4.8		지금 참여 중	82	20.6
	부안	11	2.7				

3.1.2.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미지

- 민주화운동을 말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자유평등의 보호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음(46.2%). 다음으로 투쟁과 쟁취, 혁신과 개혁이 뒤를 이었음
- 대체로 투쟁, 대립 등 다소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민주화운동을 대립과 투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혁신과 개혁과 보호 등 민주화운동의 목표로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뜻함



[그림 3-1]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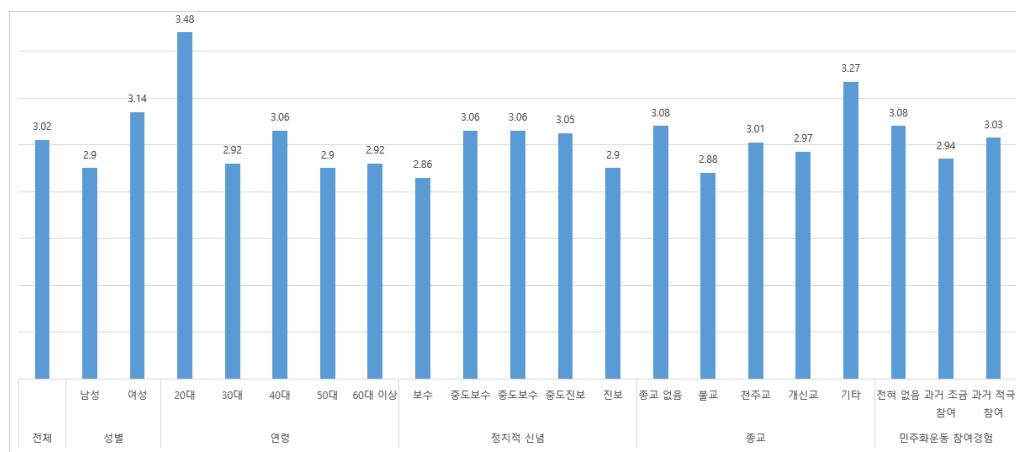
-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은 전체 평균 보통으로 나타남(5점 척도 3.02)
- 그런데 응답자 특성별로 민주화 수준에 대한 응답이 달랐음. 민주화 수준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본 그룹이 20대임.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는 무교인 사람이, 정치적 신념은 중도 성향이, 민주화운동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이에 반해 민주화운동 경험이 있고, 보수나 진보 성향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7) 여기에서는 주요 특징만을 살펴봄. 응답자 특성별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부록을 참조하면 됨

- 연령이 높을수록 민주화운동 참여 경험이 높음.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원하였던 민주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함. 진보 성향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이에 반해 20대에서는 민주화 수준을 높게 평가함. 연령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학교에서 4·19, 5·18, 6·10 등 주요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화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수준 제고 성과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3-5]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5점 척도)

	%	평균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3.7	3.02
부족한 수준이다	23.9	
보통이다	42.5	
훌륭한 수준이다	27.0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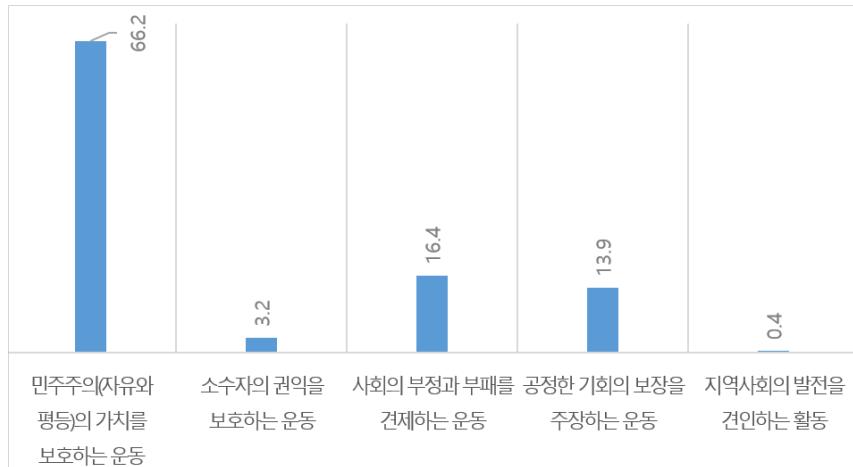


[그림 3-2]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정도에 대한 응답 평균(5점 척도)

▣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활동

- 법률에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고 있으나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물어본 결과, 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호하는 운동이라는 응답(66.2%)이 가장 많았음.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는 운동(16.4%),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주장하는 운동(13.9%) 등이 뒤를 이음
-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슈로 제기되었던 ‘공정’ 개념이 주요하게 거론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행동으로서 민주화운동이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대체로 전체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정치적 성향과 민주화운동 경험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임. 보수라고 응답한 부류에서는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로 나타났지만,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운동이라는 응답이 65% 이상으로 나타남. 민주화운동 경험 여부도 비슷한 패턴을 보임
- 즉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민주화운동 경험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거나, 보수 성향인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는 운동,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운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사 결과와 연관됨.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수준이 도달하였으므로,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민주화보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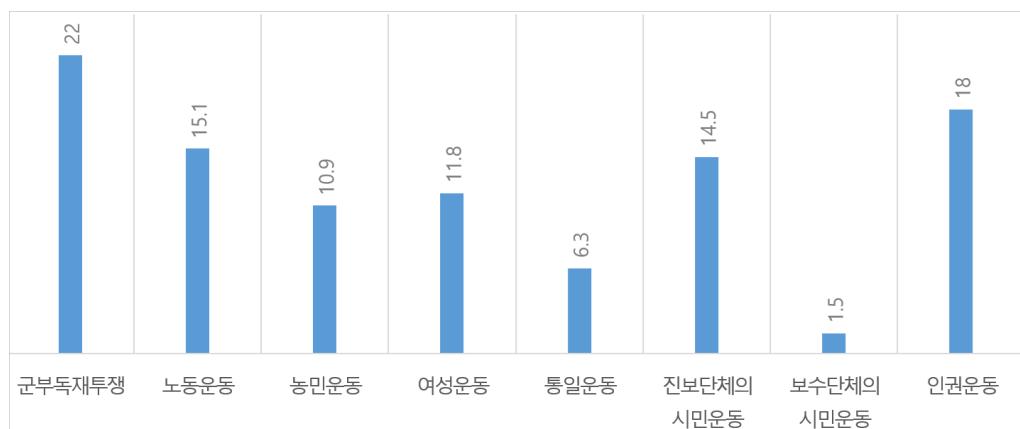


[그림 3-3]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민주화운동이라고 바라보는 운동에 대한 응답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임. 복수 응답 결과 군부독재투쟁에 대한 응답률(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운동(18%), 노동운동(15.1%), 진보단체의 시민운동(14.5%) 등이 뒤를 이음.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최근 보수단체에서 노인층의 태극기부대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 질문 항목에 넣어 조사하였으나, 응답률이 1.5%에 그쳐 대부분 민주화운동이

라고 이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3.8%가 보수단체 시민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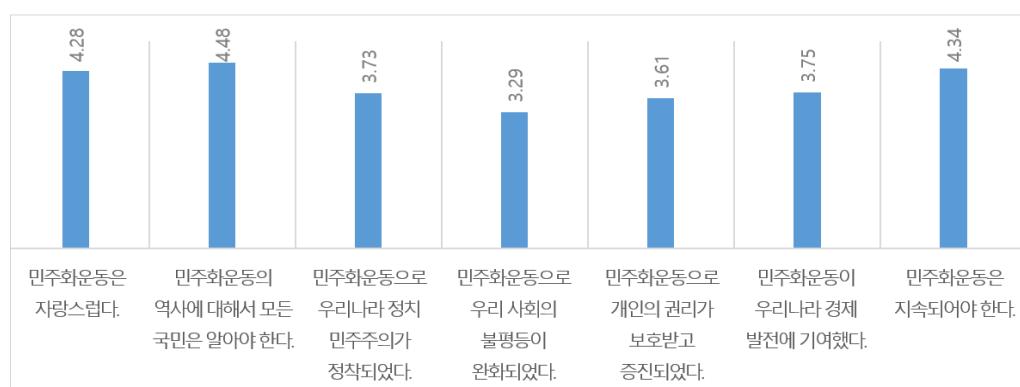
-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응답률이 높았으나(여성 15.1%, 남성 8.3%), 여성운동이 군부독재투쟁(19.6%), 인권운동(17.7%)에 이어 3위였다는 점도 눈에 띠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4]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활동(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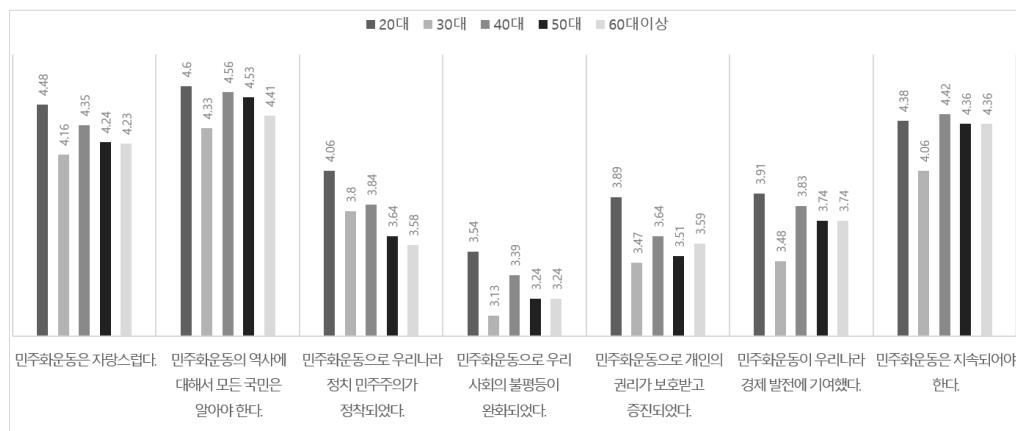
▣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 민주화운동의 전반적 인식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대부분 3점을 넘겨 민주화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보여줌.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본 내용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항목이었음(4.48). 다음으로 민주화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4.34),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럽다(4.28)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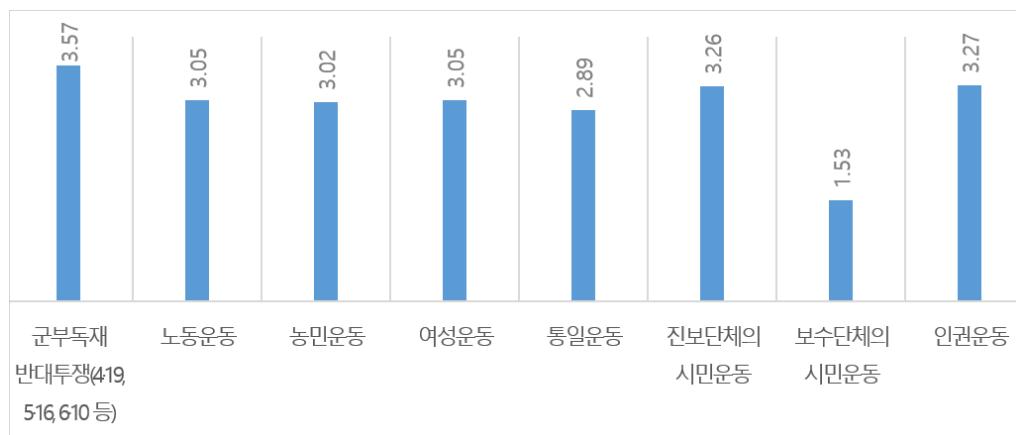
[그림 3-5]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5점 척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민주화운동이 자랑스럽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4.48), 진보 성향일수록 높게 나왔고(보수성향에서는 3.18에 그침), 민주화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남



[그림 3-6]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5점 척도, 연령별)

- 민주화운동 유형별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4점 척도), 군부독재 반대투쟁(3.57), 진보단체의 시민운동(3.26), 인권운동(3.27) 등 순으로 나타남
-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물어보았을 때 인권운동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18%)을 보였듯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 유형에서도 인권운동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립하고, 향후 계승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을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말해줌



[그림 3-7]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4점 척도)

3.1.3.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인식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안다는 응답률이 모른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왔음. 4점 척도에서 평균 3.31로 조사됨
- 어떻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 내용이 교육을 통해서이었음(32.5%). 다음으로 관련 영상을 통해(27%), 언론을 통해서(20.1%) 등이 뒤를 이음
-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20~3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교육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0대는 68.6%, 30대는 50%이었음. 민주화운동 세대가 아닌 20~30대가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줌

[표 3-6]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4점 척도)

	%	평균
전혀 모른다	3.9	2.65
잘 모른다	33.7	
조금 안다	55.7	
매우 잘 알고있다	6.6	

- 다만 민주화운동 역사를 안다는 20대를 보면 4·19, 5·18, 6·10 등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 (표 3-7, 표 3-8 참조)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결과 대부분 주요 사건을 알지 못하였고,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현철폐 도민대회처럼 전라북도 역사보다 전국적인 역사를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묾. 전라북도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이세종 열사 사망(2.55), 3·15 부정선거 관련 시위(2.35), 노태우 대통령후보 유세 방해 사건(2.29)이 전체 평균(4점 척도의 2.25)보다 높게 나타남
- 임균수 열사(1.98), 조성만 열사(1.97) 등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20대를 보면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사망, 노태우 대통령후보 유세방해 사건(전주역) 등 순으로 결과가 나타남. 20대이지만 이세종 열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은 홍보와 관련 행사가 지속되었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표 3-7]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4점 척도)

전체	2.25
3·15 부정선거 관련 전북대 시위(전국대학 중 최초)	1960.4.4
전주고 학생들의 비상계엄 반대시위: 유신계엄 최초 유일한 시위	1972.10.22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사망	1980.5.18
임군수 열사(원광대학교 2학년) 광주에서 사망	1980.5.21
공수부대원(주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 테러 사건	1980.6.25
오송회 간첩단 사건: 군산제일고 현직교사 8명과 전직 교사 1명	1982.11.25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1987.6.10
노태우 대통령후보 유세방해 사건(전주역)	1987.12.9
조성만 열사(김제출신, 해성고 졸) 죽음과 추모시위	1988.5.15
	1.97

- 부문 운동과 관련해서는 정치 민주화운동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전체 평균 2.16). 평균을 넘어 알고 있는 사건은 소몰이 투쟁,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등임

[표 3-8] 전라북도 민주화운동(부문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4점 척도)

전체	2.16
민주노조운동 출발: 태창메리아스 민주노조 사수투쟁	1981~1982
소값 피해 보상 투쟁: 소몰이 투쟁	1985.7~9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1986.8~9
후레이훼슨(독일계)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	1987.4
썬전자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투쟁: 407일 장기투쟁	1989~1990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1990~1993
	2.54

- 앞선 질문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실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과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국적인 사건(박종철 열사 사망, UR반대 투쟁,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투쟁 등)을 알고 있는 수준임. 그나마 지역의 상징적인 역사인 이세종 열사 사망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세종 열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기념행사와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말해줌. 매년 5월이 되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에게 이세종 열사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게 만듦

3.1.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인식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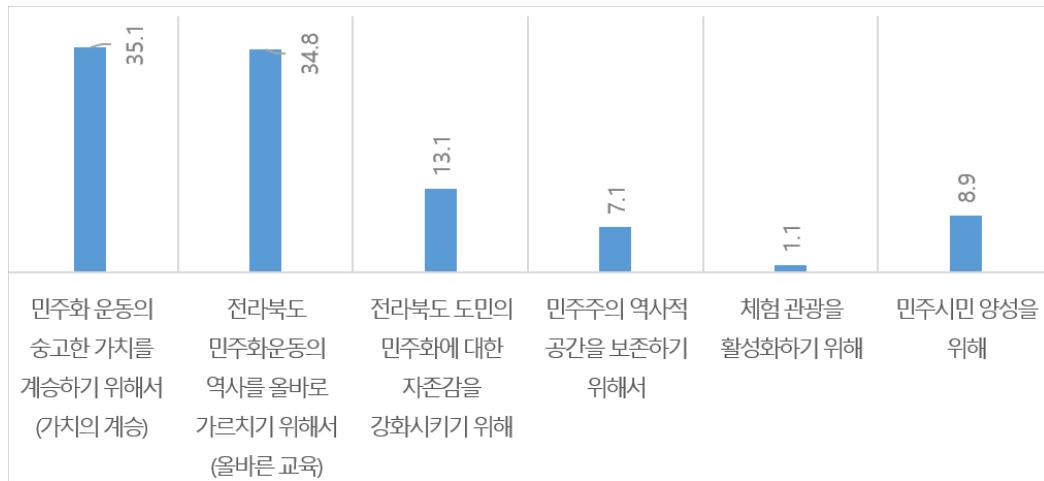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음. 4점 척도에서 3.2점으로 나타남
- 기념 및 계승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순위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29%),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강화하기 위해서(11.8%)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1~2순위를 더한 전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가치의 계승과 올바른 교육이라는 응답률이 비슷하였음
- 이에 반해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거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한다거나, 체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즉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다른 측면에서 활용하기보다 민주화운동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계승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방향이 활용 중심보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말해줌. 체험관광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활용전략이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전략의 추진과 설정에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줌

[표 3-9]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점 척도)

	%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	3.2
필요하지 않다	7.9	
필요하다	58.9	
매우 필요하다	31.5	

[표 3-10]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1~2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전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가치의 계승)	51.3	18.8	35.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올바른 교육)	29.0	40.6	34.8
전라북도 도민의 민주화에 대한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11.8	14.4	13.1
민주주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2.9	11.3	7.1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0.3	1.8	1.1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4.7	13.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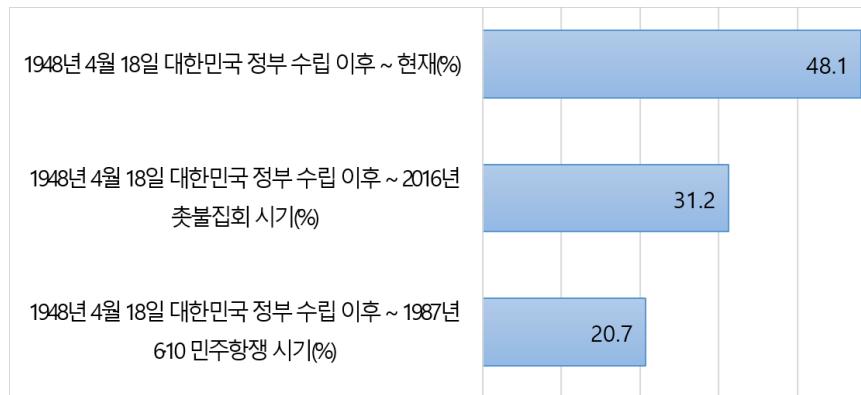


[그림 3-8]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전체)

□ 사업대상으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시기와 선정기준

- 법률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설명하나, 정책적으로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를 상정함. 1987년 6월항쟁이 가장 최근 민주화운동으로 논의되고, 그 이후는 연구차원에서 진행될 뿐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음
- 앞에서 “민주화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의 응답률이 5점 척도에서 4.34으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 민주화운동은 특정시기에 종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정책적으로 모든 시기를 아우를 수는 없으며, 집중하여 사업화할 시기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설정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시기를 언제로 설정할지를 물었고, 조사 결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라는 응답률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전라북도 조례에서도 강조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 시기까지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20.7%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촛불집회 시기까지 설정하자는 응답률은 31.2%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응답 행태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까지 설정하자는 의견이 많았고(20~30대에서는 1987년 6·10민주항쟁까지로 하자는 응답률이 40.7, 40.4%로 가장 높았음),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서 높

게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을 높게 보는 인식과 같은 흐름을 보임 (20~30대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을 높게 봤고, 민주화운동 참여 경험이 있는 부류에서 민주화 수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림 3-9]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정책의 대상 시기는?

- 전라북도에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추진할 때 역사적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39.4%(1순위+2순위)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의 정도라고 응답함. 비슷한 수준(39.1%)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이 뒤를 이었고, 지역주민의 인지도(13.3%),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중의 규모(8.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민주주의의 발전, 지역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 선정기준임을 말해줌

[표 3-11] 민주화운동 중 우선적으로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대상 선정기준은? (1~2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전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	55.4	22.8	39.1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의 정도	30.8	48.1	39.4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중의 규모	4.5	11.8	8.2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9.3	17.3	13.3

▣ 기념하고 계승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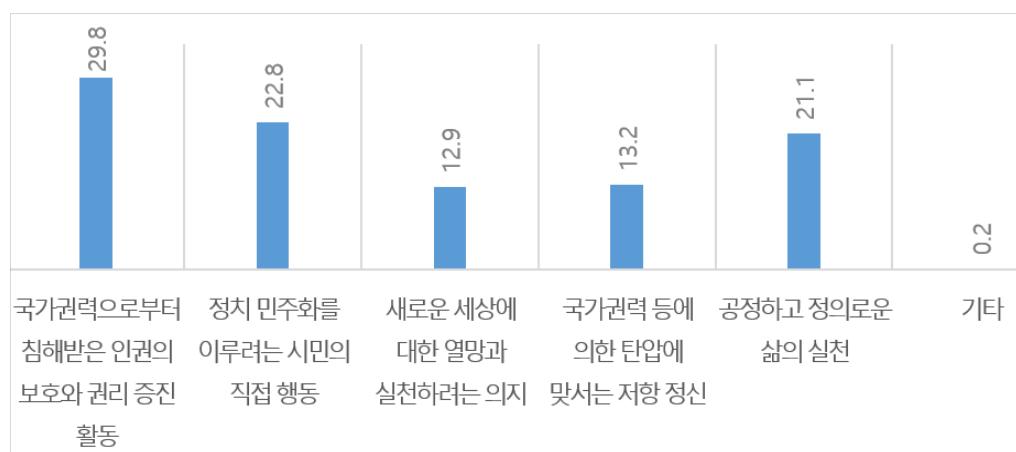
-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정신, 가치를 무엇으로 설정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29.8%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인권의 보호와 권리 증진 활동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라고 응답함. 뒤를 이어 22.8%가 정치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응답함. 민주화운동의 정의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처럼 계승해야 할 민주화운동의 가치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됨(21.1%)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정치 민주화와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2]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1~2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전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인권의 보호와 권리 증진 활동	41.9	17.7	29.8
정치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민의 직접 행동	23.3	22.2	22.8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실천하려는 의지	9.6	16.3	12.9
국가권력 등에 의한 탄압에 맞서는 저항 정신	8.8	17.6	13.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실천	16.0	26.2	21.1
기타	0.4	0.0	0.2



[그림 3-10]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전체)

▣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이 필요한 민주화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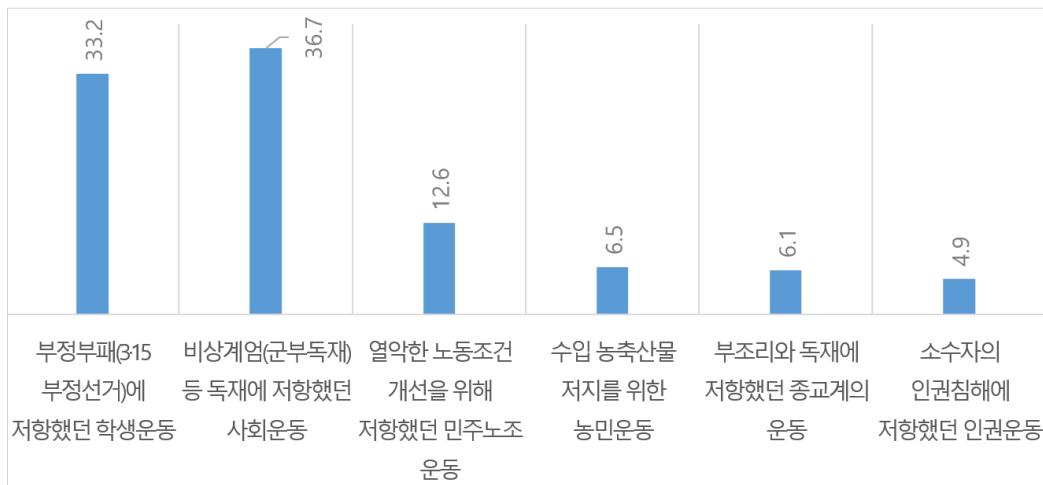
- 전라북도에서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서 민주화운동은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물었고, 비상계엄(군부독재) 등 독재에 저항했던 사회운동이 전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부정부패에 저항했던 학생운동(4·19 관련, 33.2%), 민주노조 운동(12.6%) 등이 뒤를 이음
- 정치 민주화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앞에서 조사한 바와 비슷한 결과인데, 민주노조 운동이 세 번째의 주요 사업대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띤다. 농민운동

(6.5%)보다 2배 정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국가권력에 침해받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저항했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으로서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줌(전체 4.9%). 이는 소수자 인권 침해 관련 활동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별도 인권운동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음

[표 3-13]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중에 개념이나 정신계승이 필요한 운동은? (1~2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전체
부정부패(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학생운동	38.7	27.7	33.2
비상계엄(군부독재) 등 독재에 저항했던 사회운동	40.8	32.6	36.7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항했던 민주노조 운동	11.0	14.3	12.6
수입 농축산물 저지를 위한 농민운동	3.6	9.4	6.5
부조리와 독재에 저항했던 종교계의 운동	3.1	9.0	6.1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저항했던 인권운동	2.8	7.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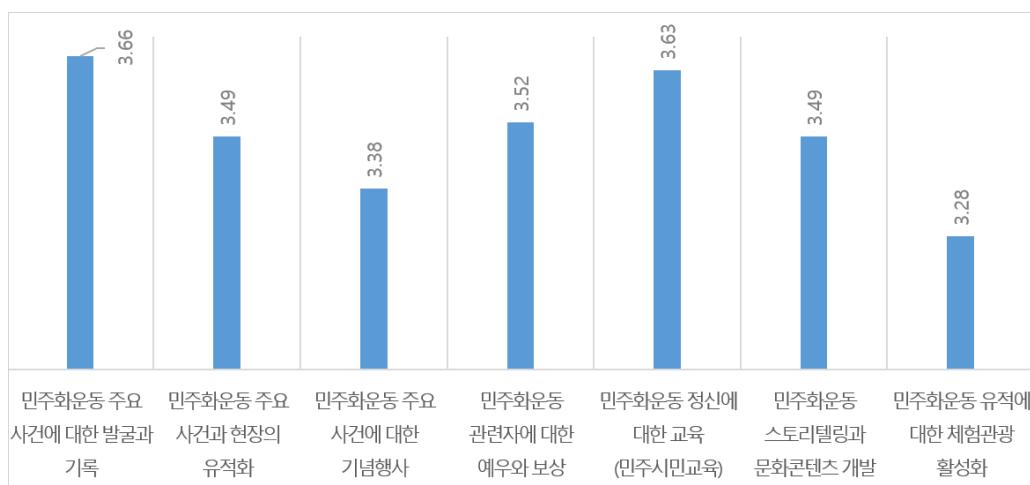


[그림 3-1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중에 개념이나 정신계승이 필요한 운동은? (전체)

- 끌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방법에 대해서 항목별 필요성을 물어보았음 (4점 척도).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이었음(3.66). 다음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사업(3.63),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3.52), 사건과 현장의 유적화/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 개발(3.49), 기념행사(3.38), 체험관광 활성화(3.28)가 뒤를 이음
- 모든 사업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가장 낮은 응답률이 3.28: 4점 척도),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인 방법이 역사적 사건의 발굴과 기록, 이

를 통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교육임. 기념행사 등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았음.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기념사업보다 민주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보수성향에서는 필요성이 대체로 낮게 나왔고, 진보 성향일수록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연령대에서는 20대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 평균보다 앞섰음. 교육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알고 있는 세대로서 기념 및 정신계승의 필요성도 더 공감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3-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방법은? (4점 척도)

[표 3-14]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방법은? (연령과 정치적 신념)

		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	주요 사건과 현장의 유적화	주요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정신관련 교육 (민주시민 교육)	스토리 텔링과 문화콘텐 츠 개발	유적에 대한 체험관광 활성화
평균		3.66	3.49	3.38	3.52	3.63	3.49	3.28
연령	20대	3.75	3.54	3.46	3.75	3.76	3.39	3.33
	30대	3.59	3.4	3.19	3.55	3.58	3.45	3.26
	40대	3.73	3.61	3.51	3.65	3.75	3.72	3.4
	50대	3.7	3.46	3.44	3.55	3.7	3.55	3.36
	60대 이상	3.59	3.46	3.31	3.34	3.51	3.41	3.18
정치적 신념	보수	2.98	3.12	3.14	2.71	2.85	2.87	3.08
	중도보수	3.38	3.27	2.96	3.01	3.41	3.11	3.03
	중도	3.6	3.4	3.37	3.37	3.5	3.44	3.2
	중도진보	3.74	3.51	3.37	3.66	3.75	3.56	3.3
	진보	3.82	3.73	3.61	3.76	3.8	3.68	3.51

3.1.5.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주요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중요 독립변수인 민주화운동의 인식과 평가의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모두 9개 문항의 탐색적 요인을 분석함. 그리고 단일성분으로 검출된 변인을 선별하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의 필요성과 어떤 인과적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함
-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의 직각회전인 베리맥스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는 1, 요인적재량은 4이상 기준을 적용함

[표 3-15] 측정 도구의 개념 및 정의

구분	범주	변수	정의
종속 변수	민주화운동 기념과 계승 필요성	민주화운동 기록 유적화	민주화운동 박물과 기록학의 필요성 2개 문항의 합
		민주화운동 기념과 보상	민주화운동 기념과 보상의 필요성 2개 문항의 합
		민주화운동 교육과 활성화	민주화운동 교육과 활성화 3개 문항의 합
독립 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	민주화정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1~5점)
		민주화운동 참여경험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험정도(1~3점)
		사회참여활동 참여경험	과거 사회참여활동 참여한 경험정도(1~3점)
		정치적 신념	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1점~5점)
		연령	만 나이
	민주화운동 인지정도		과거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총 9개 사건의 합(전혀 알지못한다~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민주화운동 인식과 평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총 7개 문항의 합(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 분석 결과 민주화운동 인식과 평가는 크게 두 개의 하위변인으로 검출되었는데, 민주화운동 인식은 모두 3개 문항으로서 요인적재량은 0.613~0.904로 나타났고, 민주화운동 평가는 모두 4개의 문항이 동일 성분으로 검출되었고, 요인적재량은 0.768~0.785로 나타남

[표 3-16] 민주화운동 인식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요인 적재량	추출 제곱합	분산	KMO 측도값	Bartlett 구형성 검정
민주화운동 인식	1,2,7	3문항	.613~.904	3.446	43.078	.832	905.180
민주화운동 평가	3,4,5,6	4문항	.768~.785	1.188	14.850		***

***p<.001

주1. 요인적재량 .4 이상 요인행렬에서 동일문항의 적재량값이 .4이상일 경우 제거 원칙

주2. 진단기준 : KMO측도값 1근접, Bartlett 구형성 검정값 <.05

- 민주화운동 인식과 평가의 개념 타당도 분석결과 KMO(Kaiser 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0.8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Bartlett구형성 검정은 905.18(p=.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입변수의 신뢰도 검정결과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인지정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01이였고 민주화운동 인식과 민주화운동 평가의 신뢰도 계수도 각각 0.779와 0.8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민주화운동 계승의 하위변인인 민주화운동 발굴기록의 신뢰도 계수도는 0.774였고, 민주화운동 기념과 보상 0.775 그리고 민주화운동 계승은 0.794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임

[표 3-17] 투입변수의 기술 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Cronbach's α
독립변수	민주화정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인식	1.00	5.00	3.02	.880
	민주화 인식	민주화운동 참여경험	1.00	3.00	1.51	0.58
		사회활동 참여경험	1.00	3.00	1.72	0.78
		정치적 신념	1.00	5.00	3.65	0.99
		연령	1.00	5.00	3.56	1.42
	민주화운동 인지정도	315부정선거 관련 전북대 시위	1.00	4.00	2.35	0.83
		전주고등학생(전주고, 신흥고)들의 비상계엄 반대시위	1.00	4.00	2.14	0.83
		계엄선포 이후 최초 학생자 이세종열사 사망	1.00	4.00	2.55	0.96
		임금수 열사(원광대) 광주에서 사망	1.00	4.00	1.98	0.82
		공수부대원(주정)의 박창신 신도 태러사건	1.00	4.00	2.05	0.87
		오송회 간첩단 사건	1.00	4.00	2.12	0.92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1.00	4.00	2.81	0.98
		노태우 대통령 후보 유서방해 사건	1.00	4.00	2.29	0.92
		조성만 열사(김제출신) 죽음과 추모시위	1.00	4.00	1.97	0.86
종속변수	민주화운동 인식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럽다	1.00	5.00	4.28	0.84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1.00	5.00	4.48	0.72
		민주화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1.00	5.00	4.34	0.78
		민주화운동으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1.00	5.00	3.73	1.04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1.00	5.00	3.29	0.95
		민주화운동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고 증진되었다	1.00	5.00	3.61	0.93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00	5.00	3.75	0.84
종 속 변 수	민주화운동 발굴 기록	민주화운동 주요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	1.00	4.00	3.66	0.62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과 현장의 기록화	1.00	4.00	3.49	0.67
	민주화운동 기념과 보상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	1.00	4.00	3.38	0.72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1.00	4.00	3.52	0.73
	민주화운동 계승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민주시민교육)	1.00	4.00	3.63	0.58
신뢰도 진단기준 Cronbach's α		.6				

[표 3-18] 민주화운동 기념 필요성 관련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인구사회학적 특성					민주화 운동 역사 인식	민주화 운동 인식	민주화 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계승			민주화 운동 계승 필요성	
	민주화 정도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	사회 활동 참여 경험	정치적 신념	연령				민주화 기반	민주화 기념	민주화 계승		
민주화 정도	1	-.060	.032	-.023	-.163 **	.134 **	.023	.124 *	-.133 **	-.046	-.093	-.101 *	
인구 사회학적 특성	민주화운동 참여 경험		1	.366 ***	.169 **	.287 ***	.203	.211 ***	.090	.061	.047	.044	.062
	사회활동 참여 경험		1	.019	.356 ***	.085	-.002	-.135 **	.031	-.066	.015	-.005	
	정치적 신념			1	.044	.078	.456 ***	.268 ***	.268 ***	.295 ***	.298 ***	.284 ***	
	연령				1	.134 **	-.033	-.101 *	.008	-.090	.002	-.026	
민주화운동 역사 인지 정도						1	.230 ***	.189 ***	.211 ***	.202 ***	.114 *	.261 ***	
민주화운동 인식							1	.542 ***	.462 ***	.484 ***	.460 ***	.499 ***	
민주화운동 평가								1	.317 ***	.435 ***	.397 ***	.354 ***	
민주화 운동 계승	민주화 기반								1	.646 ***	.672 ***	.474 ***	
	민주화 기념									1	.702 ***	.476 ***	
	민주화 계승										1	.468 ***	
민주화운동 계승 필요성												1	

* p<.05, **p<.01, ***p<.001

- 민주화운동 기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독립변수에서 제외될 변수가 없는지를 검토하였음. 종속변수로 투입된 민주화운동 계승의 하위변인과 투입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민주화운동 계승은 민주화운동 인식($r=.460\sim.484$)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령,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은 민주화운동 기반($r=.462$, $p<.001$), 민주화운동 기념 ($r=.484$, $p<.001$), 민주화운동 계승($r=.460$, $p<.00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민주화운동의 기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r=.435$, $p<.001$)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필요성은 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9]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민주화운동 발굴 및 유적화)

구분		분석모델1			분석모델2		
		베타	t	VIF	베타	t	VIF
인구 사회학적 특성요인	민주화 정도	-.136	-2.762**	1.040	-.181	-4.046***	1.073
	민주화운동 참여경험	.004	.072	1.228	-.109	-2.196*	1.310
	사회활동 참여경험	.045	.827	1.271	.077	1.559	1.306
	정치적 신념	.266	5.421***	1.032	.073	1.492	1.282
	연령	-.043	-.812	1.222	-.032	-.647	1.278
민주화 운동 인지 및 인식요인	민주화운동 역사 인지				.152	3.291**	1.150
	민주화운동 인식				.360	6.338***	1.725
	민주화운동 평가				.145	2.741***	1.495
	상수		17.089***			-4.046***	
	F		7.787***			18.442***	
	F 변화량					33.011***	
	R2		.091			.276	
	adjusted R2		.079			.261	

***P<.001, **p<.01, *p<.05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필요성 중 민주화운동의 발굴과 유적화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형1에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인식($\beta=-.136$, $p<.01$)과 정치적 신념($\beta=.266$,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한국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민주화운동의 발굴과 유적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정치적 신념은 보수적 신념보다는 진보적 신념일수록 민주화운동의 발굴과 유적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와 인식요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인식($\beta=-.818$, $p<.001$), 민주화운동 참여경험($\beta=-.109$, $p<.05$) 등이 민주화운동의 발굴과 유적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변수로 제시되었고, 민주화운동 인지 및 인식요인에서는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beta=152$, $p<.01$)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beta=.360$, $p<.001$),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beta=.145$, $p<.001$) 등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민주화운동 역사를 잘 알고 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민주화운동의 발굴과 유적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이 힘을 얻으려면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기록하여 교육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 줌
- 한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민주화운동의 발굴 및 유적화의 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1의 조정결정계수는 7.9%였고, 민주화운동 인지 및 인식요인을 투입한 모형2의 조정 결정계수는 26.1%였음. 두 모형 모두 F값은 7.787($p<.001$)과 18.442($p<.001$)로 나타나 두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20]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민주화운동 기념과 예우)

구분		분석모델1			분석모델2		
		베타	t	VIF	베타	t	VIF
인구 사회학적 특성요인	민주화 정도	-.053	-1.085	1.039	-.106	-2.423*	1.071
	민주화운동 참여 경험	.042	.785	1.235	-.068	-1.396	1.319
	사회활동참여경험	-.047	-.875	1.276	.004	.085	1.316
	정치적 신념	.293	6.025***	1.033	.096	2.010*	1.282
	연령	-.107	-2.026*	1.222	-.083	-1.733	1.276
민주화 운동 인지 및 인식요인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인지				.096	2.123*	1.153
	민주화운동 인식				.304	5.454***	1.736
	민주화운동 평가				.258	4.974***	1.501
상수		14.829***			5.076***		
F		9.067***			21.320***		
F 변화량					37.519***		
R2		.104			.305		
adjusted R2		.092			.290		

*** $p<.001$, ** $p<.01$, * $p<.05$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방법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행사와 예우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참여경험이 적을수록 그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여 경험이 적은 20대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과 관련됨. 정신적 신념은 진보적 신념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연령은 낮을수록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예우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예우의 필요성에는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예우는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beta=0.96$, $p<.05$)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beta=.304$, $p<.001$)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beta=.258$, $p<.001$)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민주화운동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일수록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예우의 필요성에도 깊이있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예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1의 조정결정계수는 9.2%였고, 민주화운동 인지 및 인식요인을 투입한 모형2의 조정결정계수는 29.0%으로 나타났고, 모형 모두 F 값은 9.067($p<.001$)과 21.320($p<.001$)로 나타나 두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1]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민주화운동 교육 및 활용)

구분		분석모델1			분석모델2		
		베타	t	VIF	베타	t	VIF
인구 사회학적 특성요인	민주화 정도	-.093	-1.908	1.039	-.138	-3.084**	1.071
	민주화운동 참여경험	-.013	-.248	1.235	-.106	-2.146*	1.319
	사회활동 참여경험	.029	.527	1.276	.082	1.657	1.316
	정치적 신념	.299	6.138***	1.033	.107	2.198*	1.282
	연령	-.033	-.620	1.222	.004	.078	1.276
민주화운동 인지/인식요인	민주화운동 역사인지				.025	.537	1.153
	민주화운동 인식				.302	5.310***	1.736
	민주화운동 평가				.243	4.606***	1.501
상수		15.800***			6.343***		
F		8.489***			18.671***		
F 변화량					32.258***		
R2		.098			.277		
adjusted R2		.086			.263		

*** $p<.001$, ** $p<.01$, * $p<.05$

-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방법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정도에 대한 인식($\beta=-.138$ $p<.01$), 민주화운동 참여경험($\beta=-.106$ $p<.05$) 그리고 정치적 신념($\beta=.107$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즉,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민주화운동의 참여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정치적 신념은 진보에 가까울수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beta=.302$ $p<.001$)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beta=.243$ $p<.001$)도 민주화운동의 교육과 활용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즉,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용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자면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은 하위변수 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구학적 요인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그리고 정치적 신념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음. 민주화운동의 인식 관련 요인에서는 주로 민주화운동이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됨

3.2

민주화운동 관계자 의견 수렴

3.2.1. 의견 수렴 개요

□ 의견 수렴 방법

- (심층인터뷰)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 기념사업의 문제점, 전라북도의 상징적 사건과 계승해야 할 가치, 전라북도 추진사업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과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개별적인 인터뷰 외에 정책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책 범위, 주요 대상,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받고, 관련자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함

□ 의견 수렴 관계자

- 4·19, 5·18 관련 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집행위원회), 전북민주화운동사 집필진, 대학교수, 관련 사업 추진 관계자, 행정 공무원, 연계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민주화운동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계자(교사), 인권 분야 관계자 등

3.2.2. 의견 수렴 결과 (시사점)

□ 특정 사건이 아닌, 폭넓은 대상 설정 필요

- 군부독재 관련 정치 민주화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 사안만 다뤄지는 것은 안됨. 또한, 4·19, 5·18, 6·10 등 주요 사건에만 집중해서도 안됨.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정치적 민주화 관련 사건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경제적·사회적 권리 투쟁까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포함되어야 함

□ 6월 민주항쟁의 중요성과 기념사업의 강조

- 6월 민주항쟁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임. 가장 큰 승리였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6월항쟁 이후에 지역에서 부문 운동이 정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기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30주년 기념행사 외 사업이 없었음)
- 4·19, 5·18 중심 기념사업에서 확장하여 6월 민주항쟁을 중요한 사건으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념과 정신계승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함

□ 연구와 교육교재의 중요성

- 이세종열사와 관련한 기초연구(학술행사), 대학에서 진행한 노동 및 농민운동 관련 연구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 기초연구를 통해 주요 사건을 발굴·기록하고, 학술적인 의의를 도출하여야 교육과 홍보 등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이 가능함
- 기초연구가 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カリ큘럼·교재 개발 사업이 선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인권 분야와 통합(연계) 사업화

- 도민 인식조사 결과 계승할 가치로 ‘인권,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항거,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 자문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어지는 전라북도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로 ‘기본권, 인권’을 제안함. 따라서 인권을 주요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인권만을 제시하면 자칫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기본권을 침해한 군부독재,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 특히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려는 시민의 항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리고 계승해야 할 가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 낮은 도민 인식, 전라북도 역사에 대한 홍보 필요

- 4·19, 5·18, 6·10, 이세종열사 등은 알지만 나머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인물·장소가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에서 도민 인식조사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낮게 조사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사건·인물·장소를 발굴하고, 역사적 의의를 도출하여 스토리를 개발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사라지는 자료의 수집과 디지털화 필요

- 2006~2007년에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을 진행함. 자료를 모았으나 이를 아카이브화 하지 못하고 단순 보관 중임. 이에 대한 디지털화와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자료 모집에 나서야 함
- 자료 수집 도민 공모전과 같은 대중적인 자료 수집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관련자 중심의 기념사업, 도민의 참여가 필요

- 대표적인 기념사업인 4·19, 5·18 기념행사는 당시를 추억하는 관련자가 주축이 되어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함. 전북대학교 내에서 5월 기념행사가 이뤄지나 전북 대 학생의 참여조차 저조함
- 대중적인 행사가 추진되도록 기존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억하고 예우하는 공간의 부족

-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고, 체험하고 교육을 하려해도 관련 장소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규모 건물을 신규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역사를 보관하고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공간과 기능이 마련되어야 함
- 이세종열사 현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여야 함. 서울시 인권지도 사례처럼 교육·체험이 가능한 현장 발굴과 기념화가 필요함

4

계획의 방향과 목표



4.1

계획의 방향 설정

4.1.1. SWOT 분석

□ 강점 요인 (Strength)

-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주요 거점인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임
 - 4·19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의 대학시위인 4·4의거, 김주열 열사의 고장,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전국적인 농민·노동운동의 중심 등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선양(기념과 정신계승)사업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역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
-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한 환경 마련
 - 전라북도 조례는 다른 시도 조례와 달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에 대하여 실효적 추진 가능성이 큼
 - 민선 8기 전북도정 정책과제(인수위)에 '전북민주주의 정립과 정신 계승'이 포함됨. 이 과제에는 본 기본계획에서 담으려는 주요 방향이 설정됨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북도와 의회 등 정책 기관에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임. 이는 본 계획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환경임
- 도민 인식조사 결과,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
 -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평균 3.2점(4점 척도)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가치의 계승(35.1%)과 올바른 교육(34.8%)이 높게 조사됨
 -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4점 척도)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3.66),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사업(3.63),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3.52), 사건과 현장의 유적화/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3.49), 기념행사(3.38), 체험관광 활성화(3.28) 순으로 조사됨

□ 약점 요인 (Weakness)

- 민주화운동 관련 지역과 달리, 전북의 지역성을 상징하는 대표 사건이 미흡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 명시됨
 - 대통령령에서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 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으로 명시함(제2조 민주화운동)
 - 대구, 대전, 창원(3·15), 부산, 광주, 인천·서울(6·10)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 사건이 명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이 마련됨. 이에 반해 전라북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 민국 민주주의 뿌리라는 상징성 외에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이 명시되지 않음
 -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4·19 관련 전국 최초 대학시위 4·4의거 등을 강조하나, 이에 대하여 정부 기념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학계에서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음
- 4·19와 5·18 기념행사 외 6·10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사업이 부재
 - 4·19, 5·18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진행되며,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승리로 평가받는 6·10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여타 행사가 진행되지 않음
 -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갈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대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됨
 -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이 기념식 위주이며, 교육사업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민주야 소풍가자’가 전부임. 민주화운동에서 교육이 강조되나, 관련 교재와 커리큘럼이 없음
-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기록화 등 역사 정립의 기반이 미흡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조사는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행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서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전라북도가 2006~2007년에 지원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문서를 수집하는 사업, 201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전북민주화운동사] 발간이 전부임
 - 학술연구도 대부분 5·18 기념행사와 연계되면서 주요 논문 발표도 5·18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구술사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4·19, 5·18, 6·10과 관련하여 지역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에 불과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참조)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려면 주요 사건과 인물과 장소에 대한 조사와 연구, 교육 교재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하나, 이를 실행한 역사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음

▣ 기회 요인 (Opportunity)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념과 정신계승 관련 주요 기반을 마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록하더라도 이를 아카이빙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구축한 아카이빙 체계(오픈 아카이브)를 활용하면 신규 예산 투입 없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음

<참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 구술 아카이브 중 전라북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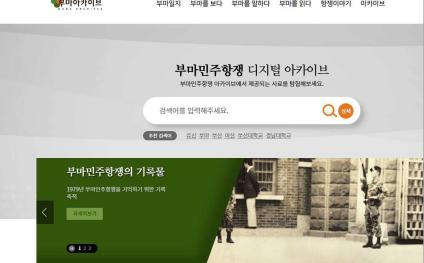
4.19혁명	한일합정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6·10민주항쟁		
1970년대 민주화운동	198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체육운동	빈민운동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인 경수 경원·제주	▶ 관련키워드 6·10평생 원광대학교 호남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호대기 련] EYC 심현 기정 학자주 민우편 창민동상당 우례미체선 민법주 전민동 임군수모사업회 이 지역신문주한법정학국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 전북지역생협의회 자민주 공정선거김시단 이 지역신문주한법정학국민운동본부 구국기도회	 강일준 대학 초년생이 겪은 유신, 뜻하지 않은 도망자 신세, 도피생활, 궁금 암퇘, 복...	 노봉관 6·10평생 당시의 근황, 전북대학생운동 동아리 활동사이다. 박충렬 고문사건으로...	 박창신 기동적 산부가 된 과정, 가톨릭농민회에 서의 활동, 전두환의 경수설복작전...	 소문관 원광대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 학보사 부회장兼 헌법재판소 판사로 활동, ...
 송만규 상장괴성,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원, 미술 관련 사회운동, 미술운동 조직 경...	 오두희 자오네(JOC)기동련, 동청년회 활동을 하게 된 경기, 미술운동으로서 활동...	 오정묘 전주대 문예회 활동이며 비단의식 고장, 전주대 신문사와 문화재 예배당 활...	 이경철 고교시절부터 사회봉사에 놀랐다. 아버지에게 전통으로 인해 산업부에...		
 전병성 전시회 참여, 대학 교육과 활동, 교대 대회와 활동	 정훈 충북도 일문과로 충북대학원 우보가 단 배우, 충북대학원 당시 고장, 복...	 최인구 충주세 성장과로, 충·기동학교 교육위원, 전북대 입학과 KSF 원동, 원장역...			

- 전라북도 인권 분야와 시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
 - 도 인권담당관실에서 민주·인권지도 개발 및 활용사업을 추진 중임. 이 사업을 통해 주요 역사 현장을 발굴하고,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임
 - 남원시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조성을 마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 전주시는 민주화운동 기록관 사업을 구상함. 군산시와 정읍시에서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이 진행됨
- 민간 영역에서 6·10민주항쟁과 관련한 사업 추진의 의지가 많음
 - 4·19, 5·18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념사업이 적은 6·10민주항쟁과 그 이후 부문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고,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음

▣ 위협 요인 (Threat)

- 정부의 교체, 지자체장의 교체 등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축소
 - 국정과제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많은 지역의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관심이 줄어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에 관심이 적어짐. 이로 인해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가 지원 또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동력 확보가 어려움
-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선도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부족
 - 5·18민주화운동의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의 성지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다양한 교육·체험 사업을 진행함. 전라북도가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다른 지역과의 상징성에서 경쟁력이 약함

〈참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요사업 현황

구분	주요사업
학술/사료	부마민주항쟁학술대회, 부마민주항쟁 사료수집, 부마아카이브서비스
기념/교육	부마 아카이브 전시, 부마민주항쟁 상황재현 문화제, 부마민주음악제,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리멤버부마문화행사, 부마민주영화제, 부마길 텁방프로그램, 부마민주항쟁 교재개발, 부산민주화운동 교수학습자료개발
부마아카이브	 

자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홈페이지

-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이 어려움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는 23.8%로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임(전국 시도 평균 45.3%, 전남 24.2%, 강원 24.7%)
 - 자체적으로 활용할 재정이 충분치 않아 새롭게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조성사업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4.1.2. SWOT 분석 대응 전략

SWOT분석 및 대응방향		강점(S)	약점(W)
기회(O)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 기반 마련 도 인권담당관, 시·군에서 관련 사업 추진 민간영역, 6·10민주 항쟁 관련 사업추진 의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 전라북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환경 마련 도민인식조사 결과, 사업 필요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지역성 상징하는 대표 사건이 미흡 4·19, 5·18 중심, 6·10에 대한 사업 부재 조사, 연구, 기록화 등 역사정립 기반 미흡
	[강화전략(SO)]	[보완전략(WO)]	
위협(T)	정부와 지자체 교체, 전국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축소 경향 민주화운동 선도지역 대비 경쟁력이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대규모 투자사업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뿌리 전라북도 상징성과 지역 성 갖는 사건·인물/장소 발굴, 홍보강화 인권담당관, 시·군과 연계하여 도민대상 교육사업 강화 : 교재개발과 프로그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체계 활용,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0민주항쟁과 이후 부문운동에 대한 기념과 계승사업 발굴 및 실천 다양한 단위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역사 정립, 활용콘텐츠개발을 추진, 보급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추진하도록 환경을 마련(지원)
	[극복전략(ST)]	[방어전략(WT)]	

▣ 강화 전략 (SO) 기회를 활용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계획과제 도출

- 지역성을 갖는 대표 사건·인물·장소를 발굴하고, 동학농민혁명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 전라북도라는 상징성을 홍보함.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집중함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사업(인권지도 개발과 활용 사업), 시군에서 진행하는 인권 및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히 도민 대상 교육사업(교재와 커리큘럼 개발과 활용)을 강화함
-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전라북도 사업에 활용함.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구축한 오픈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록화 사업을 추진함

▣ 보완 전략 (WO)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계획과제 도출

- 4·19, 5·18 중심 기념사업을 넘어,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승리로 평가받

는 6·10민주항쟁과 이후 확대된 부문운동에 대한 기념과 정신 계승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계획 기간 내 실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구상함

- 전라북도 다른 부서와 시군, 민간단체 등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추진됨.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립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플랫폼 전략을 추진함
- 전라북도 내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인물·장소에 대하여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을 마련함

□ 극복 전략 (ST)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통해 계획과제 도출

-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국가 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 차원에서 재원 확보 방안과 재정 부담이 크지 않는 관련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어지는 전라북도만의 민주화운동의 지역성을 강화하는 브랜드(가치)를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추진함
-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지향하고,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함

□ 방어 전략 (WT)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을 통해 계획과제 도출

- 본 계획과 이후 계획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본 계획기간 전반부에 역사를 정립하는 기반을 구축(조사, 연구, 기록)하고, 후반기에 교육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활용사업을 진행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활용한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기존 사업 연계), 주요 역사적 현장을 연계하는 다크투어리즘을 지원함
- 전북도민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현재 생활에서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홍보 마케팅)을 발굴하여 추진함

4.2

계획의 목표와 전략

4.2.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대상

□ 민주화운동의 개념

- 민주화는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를 포함하여,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말함. 이러한 전환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체계에서 반(半)민주주의(semi-democracy) 사회로 전환이나 반(半)권위주의 정치체계(semi-authoritarian)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민주화의 과정이 민주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역전의 경험(de-democratization)이 나타날 수 있음(Tilly, 2003). 이러한 민주화로의 전환에 있어,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민주화의 확대를 주장하는 논의와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민주화에 대한 가능성의 양측으로 존재함
- 일반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되나, 박정희(1961-1979), 전두환(1980-1988), 노태우(1988-1993) 대통령 시절의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독재정권이 지배하였음(Shin, 2007)
- 민주화운동 과정은 하나의 사건이나 복수의 사건 리스트로 정리될 수 없으며,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고정된 상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님.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대응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역시 참여 주체의 변화, 안건의 발굴, 대응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함
-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이어진 강한 국가의 전통은 분단 시기의 공산주의에 대항하고자 강압적인 국가권력을 정당화하였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시민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강한 통치가 이어질수록 민주화운동은 더 확산하는 모습을 보임. 경제의 압축적인 성장에 따른 불평등의 증가는 민주화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함

- 이러한 갈등은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이후 촛불항쟁에서도 그 정신을 찾을 수 있음. 그러나 기념비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 단독적으로 발생했다고 파악하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긴 변혁 과정에서 조건과 기회가 시의적절하게 결합하여 나타났다고 보아야 함
- 공식적인 역사 서사에서 배제된 개인, 여성이나 하위주체가 경험하는 국가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의 맥락이 비록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형화되는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기억 역시 기록되고, 잔여적 범주로 남아, 운동의 담론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야기를 복원하여야 함(정경운 외, 2013)
-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는 1970년대에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싸우던 운동가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탄생한 이후 좀 더 널리 사용됨(현종철, 2017)
- 운동의 주체들은 민중항쟁, 민중운동, 변혁운동, 민족민주운동 등 단어를 더욱 자주 사용하였으나,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이 더 사용됨(현종철, 2017)

[표 4-1] 민주화운동의 법률적 개념 정의

「민주화보상법」	
제2조(정의)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경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 시·도 조례에서도 민주화운동을 두 법(「민주화보상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정의함. 대체로 민주화운동을 ①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③ ‘항거’로 정의하며, 직·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함
 - 이 정의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와 헌법적 가치의 실현 혹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에 주목하는 경우는 운동에 포함되는 범위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로 민주화운동을 정의할 때는 민주화운동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저항 세력으로 비합법 조직 운동을 통한 투쟁이나 넓은 의미의 통일운동은 민주화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음(현종철, 2017).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 사회적 권리의 투쟁까지도 포함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치체계가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

귀위주의 체계 → 외저하민주주의 체계 → 반(半)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이해 모두를 포함

- 미즈하이 바하은 격저되 하바하이 아니 여전히 가는선을 포함

미주 주민과 독립하는 현재 시점에서 드디어 미주 헌법은 최대 절 관점의 운동이 가능

6·10회째 이후 의사의 미즈한 유통도 기록하고 예수해야 할 미즈한 유통에 포함되는 이유

- 민주화의 주도적 역할: 정치적 엘리트 vs 아래로부터의 운동

- 미주화 우도은 바둑재트잭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

- (법률적 정의) 민주화운동은 ①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작시키, ③ 한거로 집가전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

▲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 하경이 ▲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들의 폭력 등에 항거하는 경우는 제외

누동운동(단순파언이아닌) 썩까툰재 굽기에대한하인권활동 굽기교육정책관련 교육운동등 포함

-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하며, 운동 전반이 아닌 정치적 의미의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 민주화운동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역시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도 정치적 의미의 민주화운동 참여자에서 점차 확장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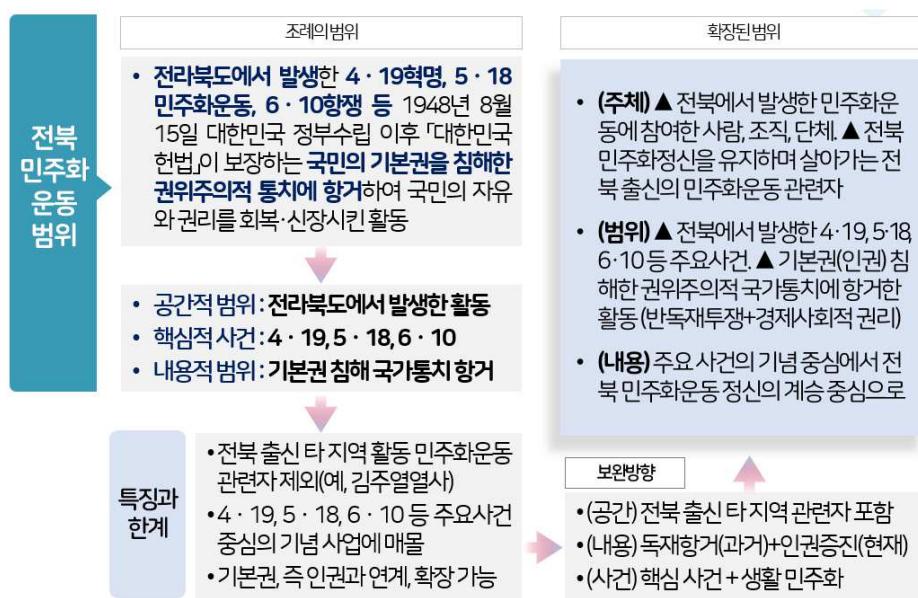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

- 전라북도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임
- 이 내용만 보면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활동, 핵심적 사건은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내용적 범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통치에 항거하는 활동”으로 제한됨
-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출신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조례에 따른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제외됨. 대표적인 예가 전라북도 남원시 출신이나 마산에서 돌아가신 김주열 열사임. 또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책의 관심을 받기 어려움
-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조직, 단체 등”과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전라북도 출신의 민주화운동 인사”까지 포함함

[표 4-2] 지역 인물에 대한 개념 정립 사례

-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나름대로 제주사회의 형성에 기여한 여성들을 포함, 제주의 땅에 태어나서 제주문화를 향유하면서 살다가 젊은 시절에 고향인 제주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지만 제주여성문화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제주출신 여성”(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대구나 혹은 다른 곳에 나가서 활동한 여성,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도 독립운동을 대구에서 펼친 여성은 마땅히 대구 여성”(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 종합하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 조직, 단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전라북도 출신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말함.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4·19, 5·18, 6·10 등 주요 사건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국가통치에 항거한 활동(반독재투쟁+경제사회적 권리)까지 포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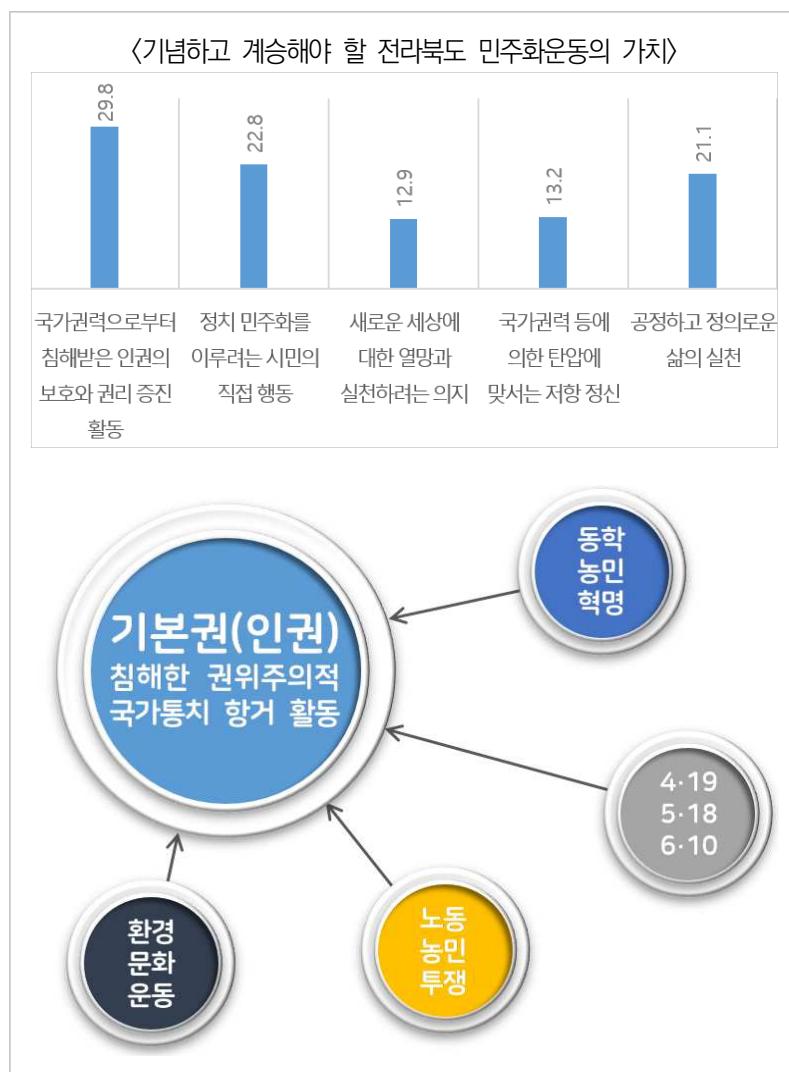


▣ 계승 대상으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 과거 사건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하는 당위성으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함.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서는 고정된 전라북도의 정신이 아닌, 정치 여건이나 운동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는 정신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가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으로 ① 반제·반봉건의 성격, ②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운동이라는 점, ③ 신분제도 폐지로 인간평등의 새 세상을 주장한 인권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④ 민중에 의한 근대 개혁의 지방통치 모형을 제시함(최재용, 2022). 동학농민혁명에서 출발한 이러한 정신이 일제 침략기 항일의 병항쟁, 3·1만세운동(1919), 항일투쟁, 4·19혁명(1960), 5·18민주화운동(1980), 6월 민주항쟁(1987), 촛불혁명(2016)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

북도 민주화운동 정신의 뿌리임

-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은 기본권(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국가통치에 항거한 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짐. 즉 일제, 군부독재 등 권위주의적 국가통치로 인해 침해받은 기본권이 중요한 목표이었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현재 시점에 기념하고 계승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도 기본권, 인권과 관련됨
- 인식조사에서 기념·계승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대해 29.8%가 인권의 보호와 권리 증진 활동이라고 응답함. 또한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이 뒤를 이음. 이를 종합하면 “정치 민주화와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계획에서는 기념·계승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가치)을 “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국가통치에 맞선 시민의 항거”로 설정함



4.2.2. 제1차 계획의 의미와 주요 방향

▣ 기본계획 방향과 정책환경 마련

- 본 계획은 제1차 계획임. 따라서 본 계획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앞으로 진행된 다음 차 계획의 방향(기념과 계승)을 설정하는 데 있음
- 또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정신계승은 국가기념일 관련 기념식에 그쳤으나, 본 계획과 더불어 독자적인 정책사업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는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책환경을 마련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첫 번째 계획인 본 계획에서는 기념하고 계승할 대상(범위와 주체)을 설정하고, 기념하고 계승할 세부 사업 방향을 마련하면서 이를 추진할 정책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역사의 발굴·기록과 교육의 강조

- 첫 계획이면서 계획기간이 5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계획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4·19, 5·18 외 6·10 등 주요 사건과 인물과 장소에 대하여 역사를 정립하는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자 기록화도 미진하였고, 국가기념일 중심으로 기념식이 진행됨. 즉 역사를 정립하고 기억할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역사를 정립하고 관련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되, 조례가 명시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계획기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초기에는 역사 정립과 기억·예우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 교육에 집중함. 활용·확산 전략은 2026년부터 추진하되, 제2차 기본계획(2028~2032)에서 본격화함



□ 주요 역사로서 6월항쟁 강조

- 1987년 6월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뿐 아니라 사회변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전라북도에서도 6월항쟁을 분수령으로 삼아 사회 전반으로 민주화운동이 확대되었음
- 6월항쟁은 이전과 달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계층이 확장됨. 재야, 종교계, 학생, 일반시민, 농민 등이 대거 민주화운동 대열에 합류함. 또한 6월항쟁 기간에는 전주시를 비롯하여, 익산시, 군산시와 함께 군 지역에서도 많은 도민이 참여함
- 참여자가 늘어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그 결과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가 확대됨. 자유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넘어, 경제, 환경, 주거, 여성, 소수자 등 사회권을 확충하는 논의가 시작됨. 즉 전라북도에서 6월항쟁은 정치 민주주의의 중요한 승리이자, 지역 부문 운영의 시발점임
- 다른 지역에서는 6월항쟁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활동과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진행하나, 전라북도에서는 6월항쟁과 관련한 연구나 행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음(6월항쟁 30주년 기념행사가 유일함)
- 이러한 이유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1987년 6월항쟁과 그 이후에 조금 더 주목하여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발굴하고, 6월항쟁 역사를 정립하고 그 활동과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6월 항쟁의 의미

- 4·19나 5·18대비주목이 덜 된 역사적 사건
- 사회운동의 집합적 의지와 실천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룸
- 한국사회의 민주화 :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사회운동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정치사회가 이를 받아들임 (민중으로부터의 변혁)
- 주요의제: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
- 주요참여자: 야당과 민주시민으로 사회각계층
- 항쟁의 기억을 담을 용기(vehicle)로 다양한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이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 확산으로 작동
- 의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는 계기이며, 인권 담론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 및 인권 의제의 다양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부마항쟁과 경남의 민주화 운동

- **(지위)** 부마항쟁: 한국 민주화 역사에 서 잊혀진 항쟁 & 지역주의 심화와 지역 내 보수주의의 영향 아래 비가시화
- **(계승)** 부마항쟁의 경험을 기억·계승 한 개인·집단이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항쟁에 기여
- **(의의)** 부마항쟁의 기억은 운동과 동원의 동력과 자원으로 작동: 기억은 1987 민주화 운동, 2000년대 노사 운동으로 발현되고,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권으로 제도화
- **(합의)** 평범한 시민, 노동자, 빈민, 약자, 소수자, 지역민의 경험으로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에 유의미한 기여

4.2.3. 계획의 목표와 전략



▣ 비전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궁극적 목적은 그 정신을 현재에 맞게 계승하려는 바가 큼. 이를 반영하는 핵심 키워드로 ‘시대를 넘어, 오늘의 삶’을 설정함
-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근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으나 대표성을 상실함. 특히 지역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따라서 비전의 또 다른 키워드로 ‘전북’을 강조한 ‘전북 민주주의’를 포함함
- 본 계획의 비전을 “시대를 넘어, 오늘의 삶이 되는 전북 민주주의”로 설정함

▣ 목표

- 본 계획의 목표는 기념사업과 정신계승이라는 조례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음. 전라북도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점

에서 본 계획의 목표에도 “함께”라는 키워드를 강조함

- 첫째,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목표를 “**모두와 함께하는 기념사업**”으로 설정함
-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부족하였고, 추진된 사업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특정 사건에 집중되고, 인물이나 장소 역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유공자를 중심으로 예우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본 계획의 중요한 숙제임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모든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사건·인물·장소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음
- 둘째, 정신계승과 관련하여 목표를 “**도민이 참여하는 정신계승**”으로 설정함
- 기존 추진된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이 참여한다는 한계를 보였음. 다양한 계층이 기념과 정신계승 사업에 참여하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계승사업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음
- 특히 본 계획에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정신계승의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함. 이는 도민 인식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전략

● (기념) 역사의 정립, 기억과 예우

- 본 계획이 가장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모든 민주화운동을 기록하다는 목표 아래 사건, 인물, 장소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며,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관련자를 예우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예우”를 전략으로 설정함

● (계승) 가치의 교육, 활용과 확산

- 모두의 기억을 도민이 함께 기념하고 계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하는 본 계획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즉 ‘가치를 교육’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활용하고 확산’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함

●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기반 구축

- 독자적인 정책분야로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기반(제도, 체계 등)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함

5

전략별 과제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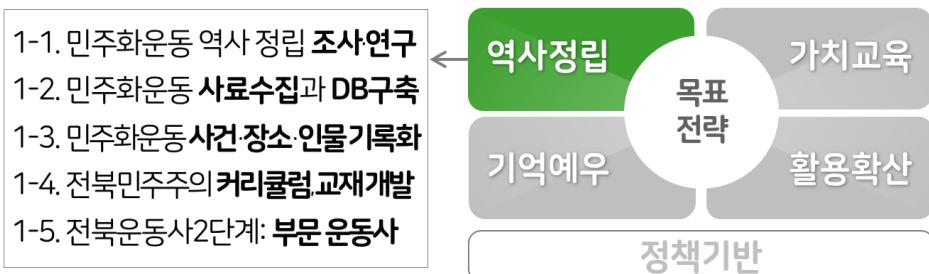
역사의 정립

□ 추진 배경

- 이세종 열사 관련 세미나를 제외하고 학술 연구가 부족함. 인식조사의 결과에서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 이세종 열사, 6·10 항쟁 등 상징적 사건을 제외하고 지역성을 담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 조례에는 기념사업(제5조)으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이 명시됨.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기반으로서 역사적 사건을 발견·발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

□ 추진 방향

-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립하는 첫 번째 과정은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여 제대로 된 역사로 만들어가는 기초연구임. 지역성과 더불어 현재에 계승해야 할 가치를 도출하는 학술적 연구를 추진함
- 둘째, 발굴된 역사를 활용하는 기반으로서 기록화가 필요함. 역사적 사건, 장소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애사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함
- 셋째, 장소는 역사에 대한 계승에서 상징성과 더불어 기억의 핵심적인 요소임.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장소의 기억화가 필요함
- 넷째, 전라북도에는 민주화운동을 교육하는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새롭게 정립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교육하는 기반으로서 교육교재 개발을 추진함
- 다섯째, 1단계 전북민주화운동사에 이어 2단계 부문별 운동사 정립이 필요함



1-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조사·연구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초연구는 2005년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책임 홍성덕), 전라북도가 운동 사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2009년에 추진한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12년에 폐낸 『전북민주화운동사』가 전부임. 학술 연구에서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직접 거론한 논문을 찾기 어려움
 - KISS(한국학술정보)에서 민주화운동+전라북도(전북)로 검색(KCI 등재 논문 기준)한 결과, “19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운동: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이성호, 2009) 논문만 검색됨
- 현재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념과 계승사업은 일부 사건(4·19, 5·18)과 상징적 인물(이세종 열사 등)에 제한되어 추진됨. 게다가 이들 사건과 인물조차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관계자 기억에 의존하여 사업이 진행됨

〈참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민주화운동연구 목록

연도	과정명
2003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_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2003	한국 학생운동, 정치운동, 노동운동,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관련 문헌 해제
2004-2006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대전, 경기, 경남, 대구, 전북 등 광역시도별, 유럽 등
2006	6월항쟁과 넥타이부대-80년대 금융_사무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2006-2007	현장 민주화운동 종합보고서
2016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2017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특별 연구사업-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 비교
2017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2018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과 소수자 인권운동: 형제복지원사건을 중심으로
20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분석(2018)
2018	민주화운동 명칭 표준화 탐색 연구(2018)
2018	80년대 현장 지향민중미술의 재구성 《1988년 한민족 20주년 힘》전 사전에 열린 미술동인 누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2018	로컬(리티)와 6월항쟁 : 광주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2019	민주화운동 사전 역사정보 DB 기본계획
2021	1980년대 여성운동: 진보적 여성운동의 등장과 이념을 넘어선 연대
2021	민주화운동 사건 단체 연구총서 발간 기초조사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 중 민주화운동 연구 목록 참조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립하는 첫 단계로서 역사적 사건·장소·인물을 발견하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지역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해석하여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함
- 제1차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조사·연구를 중요하게 추진하되, 관련 연구기관(전북학연구센터, 대학 내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소)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기초연구 자문위원 구성과 연구 로드맵 수립(2023년), 연차별 기초연구 수행(2024~2027년), 전북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행사 지원(2024~2027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유산과(전북학연구센터)
 - 자치행정과 자체 추진과 전북학연구센터 협력 추진
- 사업내용 : 조사연구 로드맵 수립, 연차별 기초연구 수행, 학술행사 지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200)
 - 기초연구 지원 연 40백만원(기초연구 2건 규모), 학술행사 지원 연 10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00		50	50	50	50
국 비						
도 비	200		50	50	50	5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조사·연구 로드맵 수립)**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초조사와 학술연구의 주제와 세부 내용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조사·연구 로드맵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함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초조사와 학술연구 주제와 시기에 대한 로드맵 수립, 추진

- **(전북학으로서 민주화운동 기초연구 지원)** 근현대 전북학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정립과 기록화 관련 기초 학술연구를 지원함

 - 문화유산과 협력, 전북학연구센터(전북연구원) 사업 활용 :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공모
 - 자치행정과 자체 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지원 : 건당 20백만원

[표 5-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초연구 목록(안)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시기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기록물과 유적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기록물(공공, 유관단체, 민간 기록물)의 유형별(종 이 기록물 및 간행물, 시청각물 등) 현황 및 소장처 조사 ● 민주화운동 인물 및 활동, 단체시설, 관련 유적 현황 조사 ● 기록물 발굴, 수집, 정리, 보존, 관리, 공유 등 방안 제시 ● 전시출판·학술문화교육사업 등 방안 제시 ● 민주화운동 기록물 관리체계 및 방안 제시 	202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구술사와 사료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관련 문헌과 영상 자료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서 등 현장 배부 유인물/ 각 단체 내부 문건 및 배부 문건/ 방송언론 보도 영상 및 신문/ 사진 [박창신 신부 등]/ 전북지역 시위 현장에 전시한 걸개그림 ● 부문사간조직의 구술 채록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농민노동·여성·청년·시민·종교·문화예술/ 5·17전북대학교 민주화 투쟁과 이세종 열사/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오송회 사건 등 ● 민주화운동 관련자 구술 채록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사주요 인물과 유족, 추모사업회 등/ 전북 출신 및 연고자의 타 지역 활동/ 주요 인물과 장소[공간] 	2025

- **(민주화운동 학술행사 개최)** 기존의 사회단체 지원, 4·19, 5·18 등 국가기념일 관련 행사 지원 등 사업을 활용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근현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전북학대회를 개최(협력)함

 - 4·19 기념행사, 5·18 기념행사 연계 학술행사 지원 : 기존 지원 사업 활용
 - 문화유산과 협력, 전북학연구센터(전북연구원)의 '전북학대회'(1년 1회 개최)를 활용 : 근현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주제, 기초 조사 및 학술연구 결과를 총괄한 학술행사 개최

- **(관련 학회 학술대회 연계)** 전라북도 관련 학회, 지역 정책 관련 학회(자치행정학 계열), 민주화운동 관련 학회(인문사회학, 역사학 계열 등)와 협력,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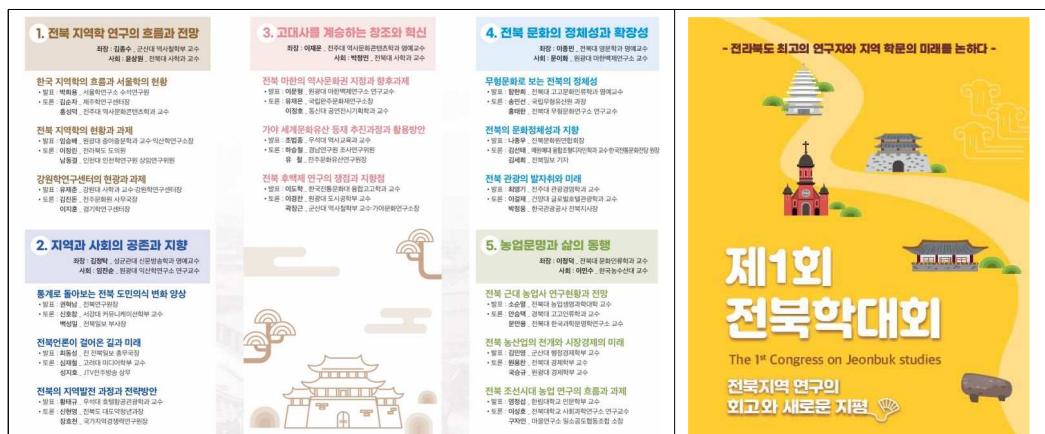
 - 도 또는 도의회의 예산 지원 통한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내 주제 섹션 개설 협조 요청

□ 참고자료

- 전북학연구센터의 전북학 관련 지원 및 전북학대회 개요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지원 내용
전북학 학술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의 역사문화, 사상과 철학, 민속과 민간신앙, 언어, 예술 등 전북의 정체성이나 변화상을 탐구할 수 있는 인문 분야 전북의 관광, 경제, 교통, 복지, 법학, 행정 등 현재 전북 지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 분야 전북 관련 건축, 농업, 생태, 환경, 해양 등 자연과학 분야 전북학과 관련된 각 분야 융복합 및 비교연구 전북의 인물, 역사문화적 전통과 관련된 자료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과제: 과제당 300만원 저술 및 번역 과제: 과제당 800만원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의 연구자(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소속된 학술연구기관(연구소) 및 학회 전북 관련 역사·문학·철학·사회·환경·지리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과제 내외: 각 과제당 400만원
전북학 우수학위 논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학 연구의 기반 마련과 연구 진흥을 위해 전북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전북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명(석사 3, 박사 2) 연구지원금 석사 200만 원/박사 300만원 지급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참여 자격 부여 『전북학연구』 게재

● 전북학대회 개요(2021년)



1-2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은 지역의 중요한 근현대사이지만 관련 사료를 수집하거나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유일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년 동안(2008~2009)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단체가 보유한 사료를 수집하고 목록화하였음. 하지만 이 사업 이후 추가 사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집된 사료도 체계화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

〈참고〉 2008~2009년 수집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사료와 보관 상태



-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 간 기억의 연대와 후속 세대의 정신계승 기반으로서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을 추가 발굴하고 사료를 수집, 수집된 사료의 보존과 체계화가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화를 통한 아카이빙이 시급함
- 지금까지 수집된 구술자료를 한데 모아 DB로 구축하는 사업부터, 1980~1990년 대에 집중된 1차 수집 사료 외 4·19 등 이전 세대의 사료와 개인이 보유한 사료를 추가 수집하는 사업과 이를 아카이빙 하는 사업을 추진함
 - (가칭)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2-5 과제)에 디지털 사료를 축적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스템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1차 수집사료의 디지털화와 체계 구축 용역(2023년), 민주화운동 기록 2차 수집(도민 공모)과 디지털화(2024~2026년), (가칭)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내 사료 구축(2027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산업과(전라북도 대표도서관)
 - 연구용역, 사료수집, 디지털화 등(자치행정과), 기억의 공간 구축(문화산업과 협조)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사료의 디지털화, 기록관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350)
 - 1단계 디지털화 사업 200백만원, 2단계 사료수집 및 디지털화 연 평균 50백만원(3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350	200	50	50	50	
국 비						
도 비	350	200	50	50	5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수집 사료의 관리체계 구축과 디지털화)** 2008~2009년에 1차 수집된 사료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 사료를 기초로 아카이빙 구축과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함
 - 연구용역을 통해 두 가지 과업을 추진
 - 첫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기록과 정리,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내 사료 구축과 활용 등 민주화운동 사료의 아카이빙 구축과 활용의 토대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과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구축)
 - 둘째, 1차 수집된 민주화운동 사료의 영구적 보존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사료로 전환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사료 분류
- **(민주화운동 사료의 추가수집과 디지털화)** 6월항쟁 이전의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사료는 수집되지 않음. 개인 소장하는 사료를 비롯하여 6월항쟁 이전 사료를 수집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를 디지털화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함

- 1차 수집된 사료는 6월항쟁 전후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와 기관이 보유한 유인물과 책자임. 수집된 판화 작품과 사진 등도 6월항쟁 시기와 맞물려 있음
 -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방식을 적용,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 : 수장작 선정, 상금 수여. 수집된 사료의 보관·전시 제공
 -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자 자문을 거쳐 분류체계에 따라 보존, 디지털화 추진

- **(기록관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1~2차를 거쳐 수집된 민주화운동 사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를 기억의 공간에 보관·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함

- 수집된 사료 등을 체계화하여 공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일반인이 활용하도록 홍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 관리 지침’(2020.04)을 준용하여 기억의 공간에 보관할 사료의 적용범위, 선별과 평가, 등록, 열람과 이용, 구술 사료 공개와 열람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전라북도 구축 자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호환되도록 표준화된 기준 적용)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와 연계 활용되도록 협력사업을 추진

□ 참고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OPEN ARCHIVES)

<p>구술 아카이브</p>  <p>이소남</p> <p>히어로아트 영상 내용: 이은 박슬기의 구속으로 동네문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차운 부부와 함께 사전출정과 성장기 동행, 문은 후원 6개월 만에 사방한 시간, 어린 3세제를 혼자 키운 사연, 경찰서에...</p>	 <p>1965년 한일협정 조인 비준반대투쟁</p> <p>1965년 1월 18일 6·3광주에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이 속개되었고 2월 20일 광주본부에서 기조인민연시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을 시작되었다. 3월 26일 동국대학 시사를 서별로, 4월 2일에는 원주...</p>	<p>*2022-02-09 기준 통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1 등록 사료의 계층 통계</th> <th>546건</th> </tr> </thead> <tbody> <tr> <td>그룹(GROUP)</td> <td>546건</td> </tr> <tr> <td>시리즈(SERIES)</td> <td>3,305건</td> </tr> <tr> <td>파일(FILE)</td> <td>7,598건</td> </tr> <tr> <td>아이템(ITEM)</td> <td>612,164건</td> </tr> </tbody> </table>	1 등록 사료의 계층 통계	546건	그룹(GROUP)	546건	시리즈(SERIES)	3,305건	파일(FILE)	7,598건	아이템(ITEM)	612,164건
1 등록 사료의 계층 통계	546건											
그룹(GROUP)	546건											
시리즈(SERIES)	3,305건											
파일(FILE)	7,598건											
아이템(ITEM)	612,164건											
<p>의 일지</p> <p>1971</p> <p>1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고부 국방부, 교련 거부 시 강제 징집 통고 병침 • 신민당, 중앙보보부의 위원 조사와 무장군인의 고대 난립 관련 대통령 철의 작성 • 국체 한진조사부, 위험수당 관련 주공 • 안세현 및 고시대에서 무장군인 고대 난립사건 규탄 대모 • 전남도 학생 시위 • 동아대 학생 시위 	 <p>더보기</p>	<p>*아이템 단위의 등록 건수(매체별 분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문서류</th> <th>546,470건</th> </tr> </thead> <tbody> <tr> <td>사진필름류</td> <td>58,734건</td> </tr> <tr> <td>음성영상류</td> <td>3,373건</td> </tr> <tr> <td>박물류</td> <td>3,258건</td> </tr> </tbody> </table>	문서류	546,470건	사진필름류	58,734건	음성영상류	3,373건	박물류	3,258건		
문서류	546,470건											
사진필름류	58,734건											
음성영상류	3,373건											
박물류	3,258건											
<p>유튜브 콘텐츠</p> <p>[사료의 낙독 세 번째 : 껌빨집(00958223)]</p> <p>김빨집 00958223</p> <p>사료임 닉네임 세 번째</p> <p>여동노동자들의 삶: 껌빨집(00958223)</p>	<p>트랜스크립션</p>  <p>사료임 닉네임 세 번째</p> <p>여동노동자들의 삶: 껌빨집(00958223)</p>	<p>2 디지털 이미지 구축 통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축</th> <th>273,754</th> </tr> </thead> <tbody> <tr> <td>문서류</td> <td>219,742</td> </tr> <tr> <td>사진필름류</td> <td>53,636</td> </tr> <tr> <td>음성영상류</td> <td>0</td> </tr> <tr> <td>박물류</td> <td>376</td> </tr> </tbody> </table>	구축	273,754	문서류	219,742	사진필름류	53,636	음성영상류	0	박물류	376
구축	273,754											
문서류	219,742											
사진필름류	53,636											
음성영상류	0											
박물류	376											

1-3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 구술 기록화

□ 사업목적

-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은 개인의 활동보다 주요 사건에 집중함. 개인의 활동은 대개 상징적인 인물에 한정됨. 하지만 그 사건의 주체는 개인이며, 그 사건으로 개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겪음.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차원에서 당시 사건의 핵심 주체로 개인의 활동과 당시에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참고〉 기존 수행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전국 단위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도 2002~2005년 4회에 걸쳐 수행되었고, 2017년에는 1987년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으로 6월항쟁 관련 구술사업이 수행됨
- 이 외에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2012~2014년에 전북지역 5월 운동사 구술작업이 진행된 바 있음. 특히 이 사업을 수행한 김수돈 기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민주운동사의 여러 기록 및 정리사업을 수행함

- 문서 등 사료와 달리 구술사는 당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며, 당시 개인이 가졌던 생각과 시대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개인의 기억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나, 여럿의 구술사를 통합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음
- 따라서 문서 등 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당시에 활동하던 주체들의 생애사와 시대정신 등을 기록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구술사업을 추진함

〈참고〉 기존 수행된 구술사업과 본 계획의 차이

구분	기존 구술사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전라북도 구술사업(본 계획)
구술 목적	주요 사건의 기록	관련자 개인의 기록
구술 대상	사건의 주요 인물	전라북도 관련자 전체
구술 효과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	관련자 개인의 예우
구술 기간	사건 기록 목적이 일회성	관련자 전체 완료까지 지속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구술 기록화 사업 세부 계획(대상자 선정, 구술 방법과 활용 방안 등) 수립(2023년), 유공자와 관련자의 전수 구술 기록화 추진(2024~2027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산업과
 - 자치행정과 자체 사업으로 추진(연구용역 통한 사업 추진)
 - 65세 이상 유공자와 관련자는 문화산업과의 '빛나는 도서관' 사업 연계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관련자 대상 민주화운동 구술 기록화
-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400)
 - 연 평균 100백만원(2024~2027년) ※ 1인 2백만원 비용 기준 × 연평균 50명 목표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400		10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400		100	100	100	10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유공자와 관련자 대상 단계별 구술 기록)**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인용된 관련자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차별 목표에 따라 단계별로 전수 구술 사업을 추진함
 - 나이가 많은 순으로 구술 대상자를 선정, 연간 구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개인 활동의 기록과 수집된 기록의 공개(전시 등)를 동의하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1차 구술 기록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2차 단계 구술사업(제2차 기본계획 기간)을 추진
- **(기록된 구술의 전시회 개최)**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생애사라는 이름으로 기획 전시회(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또는 전북예술회관 등)를 개최함
 - 구술 관련자 초청 토크 콘서트, 구술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한 영상전시 등 병행

▣ 참고자료

● 구술사 기록과 아카이빙 계획안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자료 아카이빙 목적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의 아카이빙 목적은 당대 민주화운동의 배경, 경과, 의의 등을 규명하고 미래가치를 발굴하는 것임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는 전라북도의 역동적인 현대사뿐만 아니라 당대 다양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구가 될 수 있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 아카이빙 방향
 -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아카이빙 방안 마련
 - 예비 목록을 정한 뒤, 우선순위를 두어 주요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인터뷰 영상기록물 제작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자료는 소장품 등록 절차를 거쳐 지정 수장고에 보관함(최근 강화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 8조(자산의 기부 등), 수증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물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를 기록)

〈물증 자료 조사표 내용〉

- 소재 정보 : 소장처(소재지), 소유자 · 관리자(성명, 주소 등)
 - 유물 개요 : 분야, 종별(유형), 명칭(유물명), 수량(단위 포함), 제작자, 제작 연도, 용도, 재질(재료), 구조, 형식, 규격(가로, 세로, 높이, 직경) 및 형태 등
 - 유물 설명 : 유물의 관리 상황(보존처리 및 수리, 보존 상태 등), 주요 연혁 · 이력 및 특징 등 해설, 소장 경위, 인물 · 유물 ·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한 이야기거리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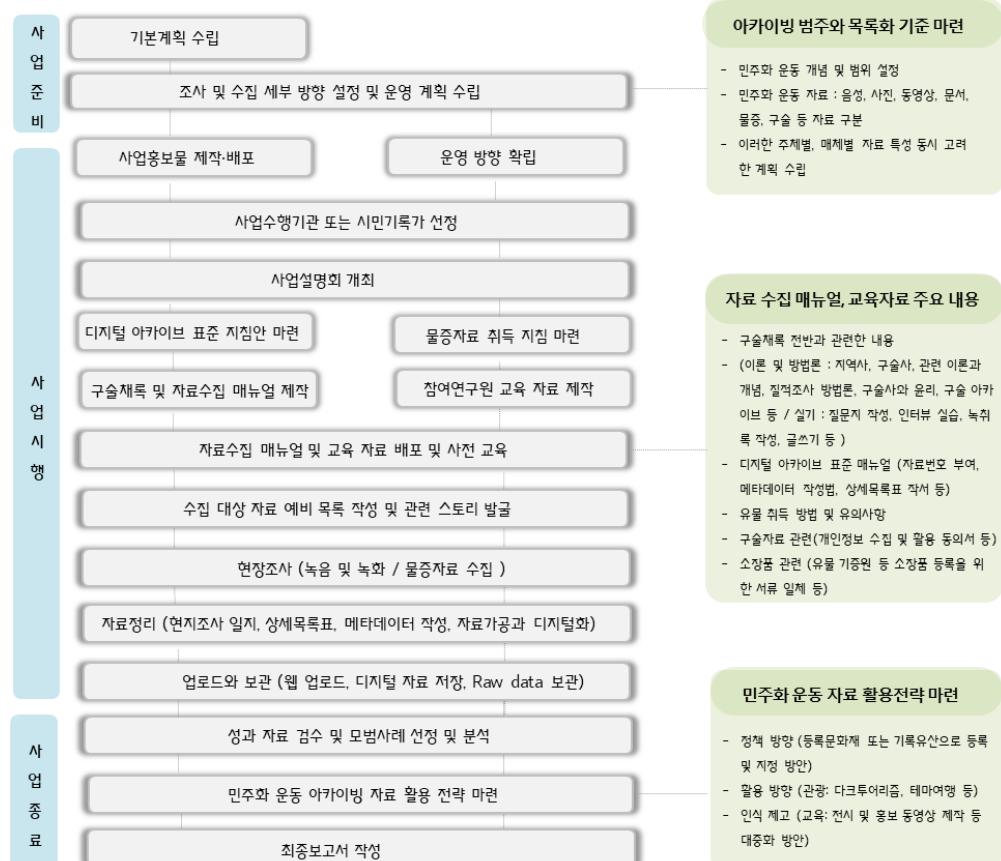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의 범주 구체화
 - ‘민주화운동’의 모든 것을 기록함(공공기관, 민간, 학술 분야 등에서 생산한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을 포함)
 - 민주화운동 관련 유형·무형 문화기록을 집적하고 관리함(이미 생산된 자료: 주로 물증 자료,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한 자료: 구술 증언에 따른 녹취록, 음성, 동영상 등)
 -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생산적으로 재배치하고 자료가 지닌 의미를 분석함(주제별, 시기별 등)
 - 수집 범위가 넓음으로 분야별 전문성이 다를 것이므로, 통합적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별도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 아카이빙 기준 마련
 - 수집, 관리, 활용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해야 함. 즉 만약 향후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 시 반드시 해당 자료에 대한 유물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기증, 기탁, 대여, 복제 등의 의사)를 정확히 기록해야 함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억을 증언해준 사람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를 받아 구술조사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함
 - 기억과 연관되는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에 담긴 다양한 맥락을 함께 수집할 수 있음(구술자료 수집 매뉴얼을 통해 통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 참여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진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함)

- 민주화운동 자료의 아카이빙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자료는 별도의 수장고에 잘 보관하여 오래도록 보존해야 하며, 디지털 아카이빙한 자료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 응용에 초점을 맞춤(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 정해야 함)
- 조사, 수집, 생산한 음성, 사진, 물증, 동영상, 구술, 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 출판, 방송,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응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철저하게 작성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 아카이빙 방안 전략 수립체계〉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자료 아카이빙의 의의

- 근현대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의 중요한 역사기록물로서의 관심을 고취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
- 등록문화재 등록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정. 등록문화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문화재도 포함
-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화와 관련 이야기 기록·정리, 활용방안 모색
- 깊이 있는 조사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전북을 넘어서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고, 당대 시대정신을 토대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가치를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추진 ‘빛나는 도서관’ 사업 체계(안)



1-4 전북 민주주의 주제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현재에 계승하려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가 필요함. 현재 전라북도에는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초등과 중·고등 교과서가 발간되어 활용되나, 민주화운동에 관한 교재도 없거나와 교육·체험 현장에서 활용할 자료조차 없음
- 민주화운동의 사건·장소·인물에 대한 기초연구로 도출된 정신과 계승 방향을 담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련 교재를 발간하여 교육·체험 현장에 보급함
- 특정 사건·인물에 관한 독자적인 교재를 개발하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개발한 교재·커리큘럼에 전라북도 역사를 반영하여 활용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5년
 - (추진일정) 2023~2024년 기초연구 통한 교재 개발 정보 축적, 2025년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개발 연구용역 추진, 2026년 초·중·고등학생용 교재 제작 및 보급(활용)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전북도교육청
 -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사업으로 제안, 전라북도·전북도교육청·대학 공동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교육 커리큘럼·교재 개발과 보급
-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100) ※ 연구용역 100백만원(2025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00			100		
국 비						
도 비	100			100		
시군비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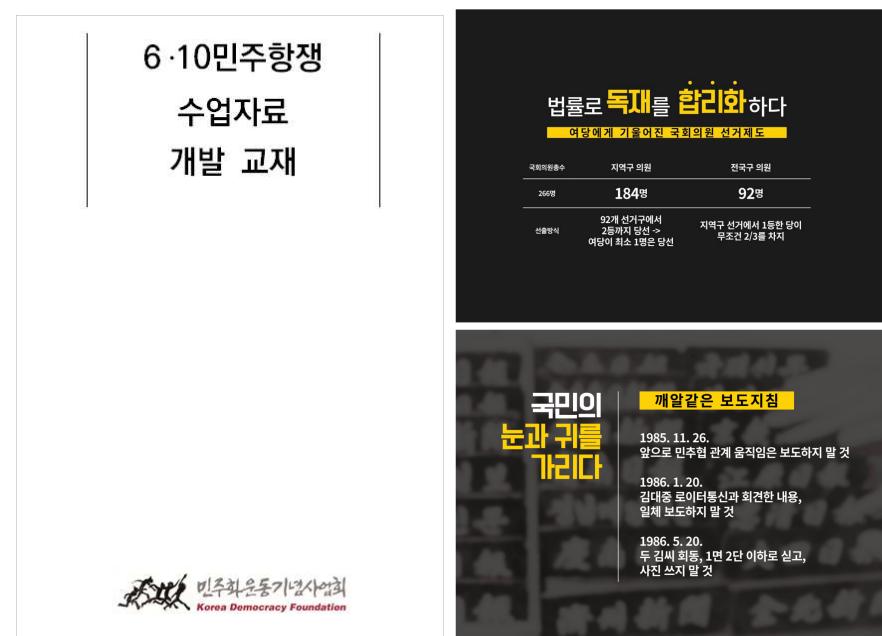
▣ 세부 사업내용

- **(교육 커리큘럼·교재 개발)** 조사·기초연구(2023~2024년)를 통해 구축된 정보와 주요 가치를 활용하고, 기존에 개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된 교육 커리큘럼·교재를 준용하여 전북만의 교육 커리큘럼·교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
 - 전북교육협력추진단 과제로 제안,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이 연구 진행
 - (내용적 범위) 1단계 사업으로서, 4·19, 5·18, 6월 민주항쟁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6·10 관련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사 지도안, 학생 학습지 등 기존 자료 활용 : 기존 내용에 전라북도 사건·인물·정신을 추가
- **(교육 커리큘럼·교재 보급과 활용)** (가칭)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2-5 과제 참조)에서 내려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제작하여 보급함
 - (사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발 6월 민주항쟁 교재(www.610.or.kr)
 - 교사 지도안, 학생 학습지, 수업 PPT 자료 보급
- **(신입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연수 활용)** 전라북도 신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전라북도 이해 과정으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교육(연수) 과정에 적용
- **(2단계 교재 개발 계획 수립)** 1단계 4·19, 5·18, 6·10 등 국가기념일 외에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 사건·인물 모두를 포괄하는 교재 개발과 교육 커리큘럼 등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함
 - 1단계 교재 개발과 활용(제1차 기본계획)에 대하여 평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구체화

□ 참고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6월 민주항쟁 수업교재 개발

-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초중고 교과별 10종 개발. 교사 지도안, 학생 학습지, 수업 활용 파워포인트 자료로 구성
- 초등 교재 : 5학년 교재(도덕), 6학년 교재(사회) 등 2종으로 정규 교과과정 진행 시 관련된 단원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개발
- 중등 교재 : 읽기 수업, 이야기 수업 등 2차시에 걸친 4종 발간
- 고등 교재 : 강의식 수업, 토론식 수업 교재, 2차시로 구성된 교재 등 4종 발간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교재	제작자(지)	학년	시작	마상	5학년	지도 교사
6. 민주화 촉진하는 대상						
성취기준						
단원	주제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목표 활동 및 유의점		
동기 발달	① 신생아 문제를 내 놓고, 첫 번째 문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1. 대중령 2. 국민 ② 대중령은 2번이고 대중령의 것이 예상됩니다.				6월 민주항쟁 일이보기	15분
	②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됐습니까요? 1. 김대중 2. 노무현 3. 이명박 4. 박근혜 ④ 전국에 5,000명 정도의 사설집을 대통령을 풍자합니다. ⑤ 대중령은 2번이고 대중령의 것이 예상됩니다.					
도입	③ 세 번째 문제, 대통령은 선거제에 의해 뽑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하고 고문해도 된다. ④ 대중령은 2번이고 대중령의 것이 예상됩니다.				전개	5분 PPT (슬라이드 1-3)
	⑤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인은 어려운 바운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중령을 대체한 나라 주인인 국민이 뽑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어 국민은 부모님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여 자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겠지요? 영상을 볼 때마다 내용을 어떻게 풀는지, 그리고 대통령 부모에 친애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성취기준 체사	⑥ 영상과 함께 대중령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⑦ 대중령 선거 당시 당시 (7.23.)				자유 발언	13분 PPT (슬라이드 4-18)
	⑧ 대중령 선거 후에도 정치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모인은 5.27.77 출 5.27.77경 4.75%으로 당선					
전개	⑨ 대중령 선거 후에도 정치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모인은 5.27.77 출 5.27.77경 4.75%으로 당선				정리 학습	2분
	⑩ 대중령 선거 후에도 정치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모인은 5.27.77 출 5.27.77경 4.75%으로 당선					

자료: 초등 5학년용 도덕과목 교수학습 과정안(<http://www.610.or.kr/610/study>)

● 전라북도교육청의 역사교육 관련 보조교재 사례

- 「동학농민혁명」증보판(초·중등용),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증보판(초·중등용), 「전라북도 근현 대인물이야기」증보판(초·중등용)

● 전라북도교육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 교과서 제작 사례

〈참고〉 전라북도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발간

- (단일 역사 사건 최초 교과서) 2014년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년)을 맞아 초등학생용(5학년)과 중·고등학생용 교과서 2종을 발간하여 학교에 배급
- (교과서 단원 구성) 초등학생용 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으로 구성되었고, 중고등학생용 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지향점, 의의 등으로 내용이 구성됨
- (집필 과정)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집필위원, 윤문위원, 심의위원 등 25명)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간



자료: 전북일보(2014.11.18) 보도(홈페이지) 참조

1-5 전북민주화운동사 발간 2단계: 부문 운동사 발간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은 정치민주화 외에도 부문별 운동이 활발하였음. 특히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부문별 운동이 전체 민주화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음. 하지만 기존 사업 중에서 부문 운동 관련 기록화 사업은 2012년에 발간한 『전북민주화운동사』 내 각 장으로 구성된 내용이 전부임
- 민주화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목적뿐 아니라, 부문 운동이 현재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관련 단체와 활동자에 대한 구술을 통해 부문 민주화운동의 사료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취지에서 책자를 발간함

〈참고〉 부문별 민주화운동사 책자발간 사례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5~2027년
 - (추진일정) 세부 사업계획 수립(2024년), 부문 운동 사료 구축과 발간 3개년 사업 추진 (2025~2027년, 3개년 전문기관 위탁)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
 - 사료 구축과 부문 운동사 발간 3개년 사업 위탁 기관 선정

- 사업내용 : 부문(노동, 농민, 교육, 종교, 문화, 여성 등) 운동사 발간

-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300)

- 1개 분야별 50백만원 × 6개 부문 = 300백만원(1년 2개 부문 추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30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300		100	100	10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부문별 민주화운동사 발간)** 전북민주화운동사(2012)에 수록한 부문별 운동 내용을 기초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함. 부문별 사료를 수집하여 체계화하고, 구술사를 통해 부문별 운동사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함
 - (대상 부문) 전북민주화운동사에 기록된 노동, 농민, 종교, 교육, 문화, 여성 분야
 - (사료 구축) 관련자 구술사를 조사하고 구술자료를 DB화
 - (책자 발간) 1년 2개 부문을 목표로 3개년 6개 부문 운동사를 발간, 교육기관 등에 배포
- **(전문기관 위탁 추진)** 민주화운동사를 정립하고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기관에서 관련자를 섭외하여 사업을 진행함
 - (사례) 전라천년사(전북·광주·전남 공동사업) 발간사업을 전북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 **(부문별 운동사 보급)** 부문별 관련 분야에서 정책개발·학술연구 등에 활용되도록 발간된 부문별 민주화운동사를 교육기관, 공공도서관과 관련 관계자 등에 보급함
 -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하여 부문별 운동사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되도록 협력

□ 참고자료

- 전북민주화운동사(2012) 내 부문 운동 관련 내용

제4부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	
제1장 농민운동	271
제1절 1980년대 개방농정과 전북지역의 농촌 상황 /	271
제2절 농민 대중투쟁의 진전(1980~1984년) /	274
제3절 농민대중의 자주적 진출과 투쟁의 전면화(1985~1988년) /	284
제4절 농민운동의 조직통일과 UR협상투쟁(1989~1992년) /	320
제5절 198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의 특징과 의의 /	333
제2장 노동운동	337
제1절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	337
제2절 민주노조운동의 태동 /	340
제3절 노동운동의 확산과 전라북도 노동조합연합회의 결성 /	355
제4절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성격과 의의 /	370
제3장 종교계의 반독재민주화투쟁	375
제1절 천주교계의 반독재민주화투쟁 /	375
제2절 개신교계의 반독재민주화투쟁 /	388
제4장 교육계·학계의 민주화운동	397
제1절 교육민주화를 위한 교사운동의 태동 /	397
제2절 전교조 출범 이후의 교육민주화운동 /	411
제3절 학계의 민주화운동 /	426
제5장 문화예술운동	437
제1절 1980년 이전 전북지역의 문화예술운동 /	437
제2절 1980년대 전반기의 문화예술운동 /	440
제3절 1987년 이후의 문화예술운동 /	447
제4절 문화예술운동의 새로운 모색 /	460
제6장 여성운동	463
제1절 여성운동 복구 이전의 혼란기 /	463
제2절 지역여성운동의 전개과정 /	465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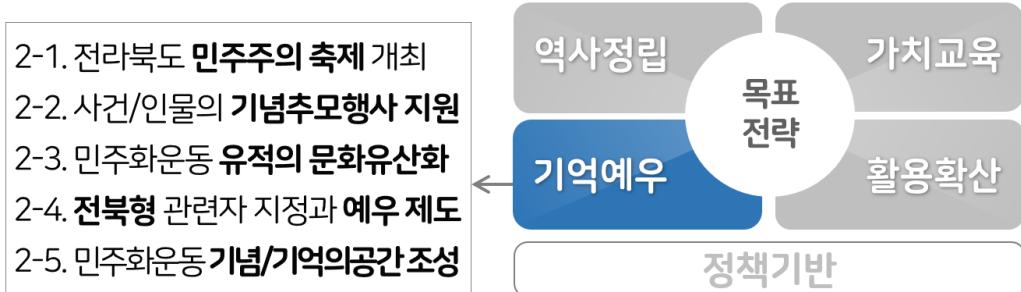
기억과 예우

□ 추진 배경

-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있었으나 기념 및 추모는 일부 사건과 일부 인물에 머묾. 예우도 모든 관련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 지역성을 포함하면서, 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추모하며 관련자를 예우하는 사업이 발굴되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지속되도록 제도를 마련함

□ 추진 방향

- 기념과 예우 전략의 첫째 과제로 4·19, 5·18 중심 기념에 6월 민주항쟁을 포함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전라북도 민주주의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을 설정함
- 둘째, 기념과 추모가 이뤄지는 사업 외에 지역성을 갖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사건과 인물과 장소에 대하여 기념하고 추모하는 시군,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함
- 셋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화함
- 넷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인용되어야 관련자로서 예우를 받음.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련자로 인용되지 못하는바, 국가에서 소외받은 전북의 관련자를 예우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
- 다섯째, 주요 사건, 인물, 장소 등에 대한 구술 기록, 사료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현재의 활동을 구상하는 장소를 마련함



2-1

기존 행사 통합 브랜드화: 전북 민주주의 축제 개최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 대표 기념사업은 기념식임.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4·19, 5·18 등 국가기념일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함. 특히 5·18 기념식과 이세종열사 추모식이 대표행사로 진행되고, 6월 민주항쟁의 경우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것을 제외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참여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참여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6월 민주항쟁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4월(4·4)에서 6월(6·10)까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발함
 - 기존에 전라북도, 시군별로 지원하여 추진하던 기념행사를 연계, 통합브랜드화를 추진

〈참고〉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현황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군산 민주화운동	20.12.30 ~ 21.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군산의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 '입춘, 6월에 봄이 오다'가 전시됨 당시 군산 오룡동성당 주임신부인 박창신 전 주교구 원로 신부가 1984년부터 시위 현장을 다니며 찍은 7000여장의 기록이 전시됨 	군산 대학교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21.5.15~22.0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항쟁 기념식 및 이세종열사 추모식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미안마 민주화 투쟁 지지를 위한 사진전 개최(전주, 부안) 	5.18민주 항쟁기념 전북행사 위원회
	이세종 열사 41주기 추모식	21.0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항쟁 4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1부 기념식, 2부 추모식으로 나뉘어 진행됨. 추모비 현화, 이세종 열사의 투쟁 기록과 추모비를 제작 과정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함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행사	22.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 당시 희생된 김주열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기념식을 실시함 	남원시

- 대중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념식과 학술행사, 교육·체험, 전시, 예술행사를 종합한 행사를 구상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4·4, 4·19, 5·18, 6·10 연계 기념행사 시범 추진(2023년), 전라북도 민주주의 축제(4월에서 6월까지) 개발 및 운영(2024년 이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대외협력과·사회복지과
 - 총괄 주관 : 자치행정과
 - 행사 지원(기준 사업 지원부서) : 대외협력과, 사회복지과

〈참고〉 2021년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 지원 현황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 기념사업(도비 34백만원, 정무기획과)
 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 : 사진전시회(도비 2백만원, 사회복지과)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광주전라지부 : 추모문화제(도비 2백만원, 사회복지과)

- 사업내용 : 전북 민주주의 축제(4·4에서 6·10까지) 개최
- 사업예산 : 834백만원(도비 434, 시군비 400)
 - 2023년 연계 추진 시범사업 34백만원(기준 예산 활용, 대외협력과 30, 사회복지과 4), 2024년 이후 연 200백만원(시군비 100백만원 포함)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834	34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434	34	100	100	100	100
시군비	400		100	100	100	100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전북 민주주의 축제 기획단 구성)** 현재 국가기념일 행사는 전라북도가 진행하고, 기념행사는 민간이 도·시군비를 지원받아 진행함. 이러한 이유에서 행사가 기념식과 학술행사 등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됨. 전문 기획자가 참여하는 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하도록 ‘축제’를 개발함

- (2023년) 4·4, 4·19, 5·19, 6·10 등 각각 진행하던 행사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예, 통합 행사 브랜드 개발과 통합 홍보, 각 시기 중간에 징검다리 행사 개발 등)
- (2023년)(가칭) 전라북도 민주주의 축제를 담당할 전담기관(예,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또는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축제 기획자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 축제를 개발
- **(전북 민주주의 축제 4·4에서 6·10까지 개최)**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인 4·19, 5·18, 6·10을 중심으로 하되, 전라북도의 지역성을 갖는 4·4의거를 시작으로 하여 가칭 4·4에서 6·10까지 전라북도 민주주의 축제를 개최함
 - 전라북도 민주주의 축제 기간을 4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설정하여 행사를 진행
 - 4·4의거 기념식과 더불어 축제 개막식을 진행하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하고,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축제 폐막식으로 진행
 - 축제 기간에 학술행사, 투어프로그램(민주인권지도 활용), 민주화운동 활용 예술콘텐츠 전시·공연, 대중 참여 프로그램(민주주의 주제 시민가요제, 토크 콘서트,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회, 인권영화제 등)을 기획하여 3개월 동안 이어지도록 운영
 -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기관, 인권 관련 단체와 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와 기관, 예술단체와 기관, 지역 언론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협력체계를 마련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예, 근대민주주의 대표하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행사), 전주국제영화제 등 시군별 축제, 축제 시기 내 기존 행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참고자료

- 민주화운동 계승 기간 설정 사례: 세종시, 고양시

- 세종시에서는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세종민예총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6월을 6·10민주항쟁 기념기간으로 선포하고, 6월 9일에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를 개최
- 6·10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 : 전국 53개 시민사회 및 민주화운동 단체가 참여
- 35주년(2022년) 기념 슬로건 : 같이 한 걸음
- 영화 <1987> 상연, 영화의 김태리 역인 실제인물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세대 공감형 기념문화제를 지향
- 세종민예총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답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고양시는 5월 15일~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으로 설정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추모사업을 연이어 추진
- 5·18민주화운동 추모행사: ▲민주주의 선포식 ▲5·18기념식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 초청 포럼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파터’ 다큐영화 상영 ▲5·18 주먹밥과 추모리본 만들기 ▲평화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행사
- 6·10민주항쟁 행사: ▲6·10항쟁 기념식 ▲토크 콘서트 ▲노래극 및 시민가요제 ▲6월항쟁 사진 전시
-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기념 강연 및 토크콘서트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 평화통일주제 작품 발표 대회 ▲사진전 ▲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시민참여행사
- 고양시민회(5·18 추모행사), 고양자치연구소(6·10기념행사),(사)고양평화누리(6·15기념행사) 등 고양시 시민운동·평화운동 관련 시민단체가 행사를 주관



2-2 주요 사건·인물의 기념·추모행사 개최 지원

□ 사업목적

- 주요 사건과 인물의 기념 및 추모행사는 4·4의거, 4·19혁명, 김주열열사(남원시), 5·18민주화운동, 이세종열사(전북대), 조성만열사(해성고), 임균수열사(원광대), 최덕수열사(정읍시) 추모식 등임. 6·10민주항쟁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행사가 부족함

〈참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및 추모식 현황		
사업명	내용	해당지역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항쟁 기념식 및 이세종열사 추모식함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미안마 민주화 투쟁 지지를 위한 사진전 개최(전주, 부안) 	전라북도/ 전주시
이세종열사 추모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항쟁 4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 행사에서는 1부 기념식, 2부 추모식 진행됨. 추모비 현화, 이세종 열사의 투쟁 기록과 추모비를 제작 과정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함 	
조성만열사 34돌 추모 오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만기념사업회 주최로 모교인 해성고에서 개최 추도식, 평화사진전, 추모공연 등 	
4.19 혁명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로 세워진 익산 4.19혁명기념탑에서 마백역 사연구회와 익산발전연구회의 공동주최(서부보훈지청 후원)로 진행됨 	익산시
임균수 열사 추모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광대 2학년(한의대) 재학 중에 1980년 전남도청 앞 5·18시위에 참가, 계엄군 발포로 사망. 5·18 유공자로 지정되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됨 	
4.19 혁명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4.19혁명 당시 학생된 김주열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기념식을 실시함 10월에는 김주열열사 기념 음악회 개최 	남원시
최덕수 열사 정신계승 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국대 시계탑에서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치며 분신한 최덕수열사 추모 시민문화제 	정읍시

-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추모와 기념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북도민이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연구 및 조사를 통해 발굴된 전라북도 주요 민주화운동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함
- 국가기념일 등은 지자체에서 진행하지만, 부문 운동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는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므로,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민간 영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행사를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4~2027년
 - (추진일정) 민주화운동 기념·추모행사 관련 지원 계획(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 수립(2023년), 민주화운동 추모·기념행사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2024년 이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심의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시군 담당 부서
 - 자치행정과 : 시군 및 민간단체의 수요조사,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 시군 : 시군별 자체 추모·기념행사 지원
- 사업내용 : 국가기념일 외 주요 사건·인물에 대한 추모·기념행사 지원
 - (가칭) 전북민주주의 축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국가기념일(4·19, 5·1, 6·10) 기념행사 외 시군별, 부문별 민주화운동 대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추모·기념행사를 지원
-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 연 평균 100백만원(1건당 10백만원 기준 × 10건)

※ 시군 매칭을 전제(시군매칭시 전체 10백만원 지원)하되, 시군 추진이 어려운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400		10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200		50	50	50	50
시군비	200		50	50	50	50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사건·인물 추모·기념행사의 지원체계 마련)**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건과 인물의 추모·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함. 지원방향, 지원대상, 수요조사, 지원기준, 지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립하여 일관되게 지원함

- 사건·인물의 추모·기념행사 실태 및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전라북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1차 지원대상(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한 민주화운동열사 27명
 - (사건·인물 추모·기념행사의 지원과 통합정보 제공) 수요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 추모·기념행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추모·기념행사 현황을 파악하여 전북도민이 참여하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함(홍보)
 - 지자체 홍보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 (공모 사업 대응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협력사업 등을 공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유사 사업을 공모함. 지역 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인문정신 관련 단체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을 진행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
 - 공모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공모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위탁기관에서 통합 지원
- ※ (참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년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 공모에 전라북도 지원사업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음

〈참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년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 공모 주요 내용

○ 공모예산

모집분야	한도액(만원)		협정 방식	예산 형태	예산 집행
	총액	배정액			
I.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16,000	300~1,000	계약 체결	일반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사항에 기반, 예산기준표(후첨) 준수하여 자율집행 • 계약 시 자부담금 설정, 활용 필요
II. 민주주의 국내협력	32,800	100~500	승인 공문 통지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회 승인 사항에 따라 집행 • 각종 수당, 원고료, 홍보물, 인쇄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한정

○ 신청자격

모집 분야	일반 요건	개별 요건
I.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단체·법인·기관 • 단체·법인·기관 증빙 서류 제출(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추진 경력 및 실적을 가진 곳 ※ 다수단체 연합응모 가능(대표 1곳과 계약, 공동추진)
.II 민주주의 국내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활동 추진 경력 및 실적을 가진 곳

▣ 참고자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열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 추모사업이 없는 열사(음영)

열사정보				사업회	주요사업 현황	비고
번호	이름 (생몰년)	지역 명칭	사업 명칭			
1	강은기 (1942~2002)	남원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은기선생 추모제 •강은기 평전 발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년 유신에 맞서 세진인쇄 설립 이후 유신반대 관련 인쇄유인물을 제작·제공, 02년 병환으로 운명
2	강희남 (1920~2009)	김제	통일 열사	힌돌강희남 기념사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힌돌강희남목사추모식 •7주기 기념 자서전(한 목사의 생애와 사상)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7년 유신투쟁을 하다 투옥, 87년 전두환 호헌조치 반대 옥중단식투쟁, 95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취임, 09년 이명박에 대한 민중항쟁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3	곽태영 (1936~2008)	김제	재야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년 4월혁명 참여, 85년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인권위원장, 08년 병환으로 운명
4	권미경 (1969~1991)	장수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대봉에서 살인적인 노동문제에 항거하여 투신
5	김시자 (1961~1996)	김제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시자동지 추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용노동의 노동탄압에 항거하여 분신
6	김양무 (1950~2000)	남원	통일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양무선생 추모제 •〈청년 김양무〉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년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결성으로 구속, 투병중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 주진, 00년 병환으로 운명
7	김종수 (1966~1989)	장수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종수평전(구로, 1989) •김종수 열사 추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8년 주)서광구로공장입사, 89년 “무 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도 사수”를 외치며 분신
8	김주열 (1944~1960)	남원	학생 열사	남원김주열 열사기념사 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주열열사 추모제 •김주열열사 기념사업 기념식·음악회(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 참가 뒤 실종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 4·19혁명의 도화선
9	김진수 (1949~1971)	임실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수열사 추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년 3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사대에게 피습 당한 후 사경을 헤멤, 5월 운명
10	박복실 (1956~1992)	김제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년 태창메리야스 노조위원장, 전주 노동자의집 사목활동, 92년 병환으로 운명
11	박순덕 (1963~1997)	정읍	빈민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순덕열사 추모제(서울 전농동 추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 철거반대 철탑망루 농성 중 투신
12	박영근 (1958~2006)	부안	재야 열사	박영근시인 기념사업회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영근시인 추모제/박 영근작품상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년대 노동문학 개척, 84년 한국 최초 노동시집<취업공고판 앞에서> 발간, 민중가요<솔아 푸르른 솔아>원작자
13	서영호 (1962~1993)		노동 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6년 현대자동차 입사, 92년 1월 경찰 침투 대비 바리케이트 설치중 차량사고로 입원, 93년 운명

14	송석창 (1964~2003)	진안	노동 열사			•2003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호소 유서 남기고 자결
15	이경해 (1947~2003)	장수	농민 열사		•이경해열사 추모제(한국 농업연수원 이경해 열사 묘역·추모비)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을 위해 여러 차례 단식 농성 •멕시코 카를로스에서 WTO 반대집회 중 학살자 살
16	이광웅 (1940~1992)	이리	노동 열사			•오송희 사건 연류로 5년동안 옥중생활, 92년 병환으로 운명
17	이대용 (1963~1987)	고창	노동 열사			•86년 통양튜브 임금인상 쟁취 투쟁, 87년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 수련회 중 동료를 구하고 운명
18	이병렬 (1967~2008)	정읍	노동 열사		•이병렬동지 추모제	•08년 이명박 탄핵투쟁연대범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참여 촛불항쟁 참여,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 6월 운명
19	이석규 (1966~1987)	남원	노동 열사	이석규민주 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추모제	•대우조선 노동자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중 사망
20	이옥순 (1954~2001)	정읍	노동 열사		•이옥순동지 추모제	•1973년 원풍모방입사(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중심), 82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구속, 85년 서울노동연합 부의장 선출(의장 직무대행)
21	이재호 (1965~1986)	부안	노동 열사			•88년 협신사 입사 •89년 10월 노조재건 활동 중 피살
22	이창환 (1971~1994)	익산	노동 열사			•92년 노래패 <휘파람>창설, 94년 겨울농활 수행 중 사고로 운명
23	이형관 (1973~1997)	성남 (군산 대)	학생 열사		•이형관열사 추모제	•전대기련 전북지부장 •대학연론 탄압문제 해결 위해 원광대로 가던중 쓰러져 뇌출혈로 운명
24	조성만 (1964~1988)	김제	학생 열사	조성만기념 사업회	•조성만열사 추모제	•83년 명동성당 청년연합회소속 가톨릭민족연구회 가입, 88년 "양심수 석방,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 외치고 학살 투신
25	진기승 (1967~2014)	임실	노동 열사		•진기승동지 추모제	•09년 신성여객 입사, 12년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대응투쟁 과정에서 구속, 14년 4월 자결 시도, 6월 운명
26	최덕수 (1968~1988)	정읍	학생 열사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 (천안)	•최덕수열사 추모제	•87년 단국대 입학 후 서도회, 호남향우회, 동학운동사연구회 가입 및 활동, 88년 교내 광주영령 추모식에서 광주항쟁 성명서 낭독, 5월 시계탑 앞 분신 시도 후 9일 뒤 운명
27	한상근 (1971~1997)	김제	학생 열사	한상근 열사 추모사업회	•한상근열사 추모제	•91년 대한체육과학대(현 용인대) 입학 후 농촌문제연구회 활동, 97년 용인대 학자추 활동, 2월 분신 시도 후 3일 뒤 사망

● 2022년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협력사업 선정사업 : 전라북도 선정 단체 없음

협력 단체	협력 사업
6.15안산본부 등	6월항쟁 35주년 기념, 다시 민주주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6월민주항쟁계승 시민기념식 및 기념토크쇼
70년대민주노조운동동지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 관련행사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5주년 6월 민주항쟁 경기중부 기념행사
광주전남6월항쟁	거리음악제 '시민과 함께 6월을 노래하다'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 6.10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5주년 6·10민주항쟁 대전 기념사업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만화로 보는 6월항쟁 찾아가는 전시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6·10민주항쟁 35주년, "박종철을 기억하다!"
민주화추진협의회	2.12 총선으로 본 민주협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 35주년 부산기념사업
서울여성회	학습과 기행으로 다시 만나는 현대사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선배시민의 삶과 함께 돌아보는 민주화운동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5주년 6·10민주항쟁 세종지역 기념문화제
송광영천세용기념사업회	송광영 열사 평전 편찬 및 기념계승 사업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0민주항쟁 35주년 수원지역 기념사업
안동YMCA	"안동, 광야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여수YMCA	제35주년 6월 민주항쟁 여수기념사업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6.1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글·그림 공모전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 원주기념사업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근현대사 현장탐방
이한열기념사업회	6월항쟁 특별전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6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6월항쟁 정신계승 시민콘서트 및 사진전 사업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 민주항쟁 35주년 충남기념사업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사업
한국YMCA전국연맹	두바퀴로 그리는 한반도 평화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6월항쟁 시기 개신교계 민주화운동의 역할 관련 토론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87년 노동자대투쟁 회고와 노동운동 전망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80년대 민주화운동 기록물 발굴, 정리 및 전시회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월간 문익환 발간 및 전시 사업
해외주민운동연대	주체와 현장, 연대의 아시아 공동 행동
4.9통일평화재단	인혁당 사형수 대구경북출신 5인 생애사 토론회
민주화추진협의회	6.10 이후 아현동교회 집회현장 미공개 사진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022전국활동가대회
피스모모	평화공공외교협력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민주주의/평화강좌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이구동성+동상이몽 공론장

2-3 민주화운동 유적의 국가·도지정 문화재화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이 도내에 산재해 있지만,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나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 문화재 지정을 통해 관련 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물리적 훼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참고〉 민주화운동 관련 문화재 현황

연도 사적	지정대상(안)	지정일
	서울 前서대문형무소	1988.02.27
	안국동 윤보선 가옥(한국민주당 산실)	
광주시 유형문화재	민빈정사 소장 전적(1980~90년대 민주화운동)	2013.12.24
서울시 기념물	해공 신익희 가옥(독립운동가)	2005.02.11
경상남도 기념물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	2011.09.22
	광주 전라남도청 前본관	2002.05.31
국가등록문화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유신시기 민주화) 원주 원동성당(유신시기 민주화 장소)	2004.12.31
	목포 번화로 일본식 상가주택(5·18민주화운동)	2018.08.06
	광주 前무등산 관광호텔(5·18민주화운동)	2020.03.09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연 평균 1개 도(등록)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학술대회 및 도지정문화재 기초연구(조사보고서) 진행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유산과
 - 자치행정과 : 기초 조사와 학술연구 관련 예산 지원
 - 문화유산과 : 도지정 문화재 심의와 지정, 사후 관리 등
- 사업내용 : 도내 민주화 관련 유적의 문화재 지정 추진, 관련 지원 조례 개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매년 1건 기준 20백만원(기초연구 10백만원, 학술대회 10백만원)

* 전라북도 대표 유적의 경우 전라북도 예산 지원, 시군별 유적의 경우 시군비 집행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50	10	10	10	10	10
시군비	50	10	10	10	10	10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추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학술대회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조사보고서를 마련함
 - 민주화 역사 속에서 해당 유적과 관련한 인물, 사건 등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학술대회 개최
 - 지정문화재 검토를 요청하려면 문화재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문화재 현황 및 지정 가치, 연구자료 및 활용계획 등이 담긴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참고〉 도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민주화운동 유적 계획(안)

연도	지정대상(안)	주요 내용
2023년	이세종열사 사망 장소	이세종열사 사망 장소에 대한 도지정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 추진(이세종열사의 상장성과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신축에 따른 유적지 보호에 따른 시급성 차원)
2024년	김주열열사 묘지, 기념관	4·19혁명의 핵심 인물이며, 전국의 있는 3개 묘 중에서 진묘가 있는 남원시 추모공원(묘지와 기념관, 추모각)을 지정

〈참고〉 도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 시군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 신청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 필요성 인정한 문화재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시군 향토문화유산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또는 위원회에서 신청 의결된 문화재
 - 전문가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 의견이 제출된 문화재 : 비자정 문화재 중 가치가 크고 지정 시급성이 인정되는 문화재의 도직권 지정 추진 가능)

〈참고〉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내용

- 근거: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9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①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 형식·크기 및 형태
 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문화재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 실측도면 및 배치도, 건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8. 문화재의 사진·슬라이드·녹음물 및 기록물
 9.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이세종열사 사망장소는 전북대학생회관 신축으로 소실될 위기가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직권 지정을 추진함

- **(등록문화재 관리·활용계획 수립)** 도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전라북도 문화유산과를 통해 유적의 보존과 보호를 추진하고, 유적을 활용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유적·기념물 지정과 관리 관련 조례 개정)** 현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행 중이나 해당 조례에서는 기념사업 추진과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내용 외 유적의 문화재 지정·관리와 관련한 조항은 없음
 - 제5조(기념사업)에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추진을 명시하지만 민주화 유적·기념물에 포함되는 범위가 불명확하며 이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이에 해당 유적·기념물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리적 훼손 등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유적·기념물 보존·관리·조사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마련하여 관리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자료

- 창원시 민주화운동 유적 관련 조례 개정과 민주화유적지 14곳 지정 사례

• 창원시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제9조(유적·기념물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을 유적·기념물로 지정 관리한다.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 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회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조형물전문가, 민주화단체 대표자 등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유적·기념물 관리점검)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립(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2. 정기점검 : 연 2회(3월, 9월)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3. 특별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의 유적·기념물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창원시 민주화유적 지정 및 홍보 사례(14곳, 창원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

▣ 민주화 유적지

3·15의거 발원지	3·15의거 기념탑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4·19혁명 진원지
김주일 열사 시신 인양지	3·15의거 기념비	국립 3·15민주묘지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강용기 열사 주도비	김영호 열사 주도비	김주일 열사 흉상
김용실 김영준 열사 추념비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표석		

▣ 3·15의거 발원지



3·15의거 발원지 표지판(동판)

2-4 전북형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용 및 예우 제도 마련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자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자 예우 사업을 진행함
 - 국가유공자법과 5·18보상법에 따른 지원 내용 :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 광역시도의 조례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관련 지원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활지원[보조]비<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매월 10만원, 전남 13만원명예수당<ul style="list-style-type: none">만 65세 이상, 거주 기간(현재, 6개월~1년), 충남 매월 6만원, 기타 10만원장제비(葬制費) : 1백만원지원사업<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공공시설의 이용과 감면에 관한 사항박람회 및 행사 이용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관련자에 관한 자료 수집과 출판 및 문화사업 |
|--|

자료 : 박대길(20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표문에서 인용

-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조건을 달아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이 적음. 또한 국가에서 진행한 관련자 인용 절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음
- 관련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예를 세우고 예우를 하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에서 인용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자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전북형 지원사업 발굴(2023년), 지

원 대상자 발굴과 수요 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2024년 이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
- 사업내용 : 관련자 예우에 관한 제도(조례와 지원체계) 마련과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사업 발굴·실행, 지역 차원의 관련자 추가 발굴과 지원방안 마련 등
-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100)
 - 연 평균 20백만원(수요조사 통해 적정한 예산 추정 필요)

※ 2023년 수요조사 후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100	20	20	20	20	2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관련자 예우에 대한 제도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행함
 -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 관련자 현황 파악, 관련자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등)
 - 기존 사업 중에서 관련자 지원사업(심신 치유, 박람회 및 행사 이용, 공공시설의 이용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예)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제공,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축제 초대(예: 세계소리축제 등)
- **(전북형 예우 사업 발굴과 지원)**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등 재정적 지원 외 관련자의 명예를 세우면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은바, 재정적 지원 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비재정적 예우 사업이 필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부분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65세 이하, 경제적 기준 미달자), 전체에게 예우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발굴

- (예시) 관련자 개인별로 민주화운동을 구술 기록화하고 콘텐츠화하는 사업(기록화와 콘텐츠화 지원). 개인의 민주화운동 기록을 기억의 공간 등에 전시 보존하는 사업 등
- **(지역 차원의 관련자 추가 인용제도 마련)**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차원에서 인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함
 - 국가에서 인용하지 않은 관련자를 지역에서 인용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바, 관련자 개개인을 인용하여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비재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가 발굴에 대하여 국가에 건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차원의 인정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구상하고,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개정 추진)

□ 참고자료

- 광역시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와 지원, 명칭과 내용	비고
	거주 요건	기타 요건		
광주 광역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생활지원금(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급 가능	
전라 남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上同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경기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장제비) 지급 가능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외
		65세 이상 관련자로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서울 특별시	上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장제비) 지급 가능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외
		65세 이상 관련자로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충청 남도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생활지원비 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주하는 사람	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65세 이상으로 생활 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울산 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장제비) 지급 가능	
경상 남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민주 공로 수당·장제비 지급 가능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외
강원도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장제비 지급 가능	
대전 광역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명예 수당 지급 가능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인천 광역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 가능. 다만, 제3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 지급 가능.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외
부산 광역시	구체적 요건이나 내용 없음. 다만,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는 규정 및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 관련자 사망시 장제비,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치유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박람회 및 행사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주 특별 자치도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자료 : 박대길(20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표문에서 인용

2-5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억의 공간 조성

□ 사업목적

- 기억은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핵심임. 주요 운동과 관련한 장소를 선정하여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공간이 민주화운동 계승에 활용되도록 사업을 지원함
- 민주화운동의 대표성을 갖는 4·19, 5·18, 6·10과 관련한 기념장소를 지정하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전체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함
- (가칭)민주공원 또는 민주기념관 조성은 강기계획으로 추진하되. 기존에 조성된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기억의 공간을 조성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4~2027년
 - (추진일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활용 민주화운동 기억관 조성 협의(2023년), 이세종기념과 및 민주광장 조성 협의(전북대학교, 2023년), 기억의공간 조성과 운영(2025년),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구상(2027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산업과
 - 자치행정과 : 사건별 대표 기념장소 실태 파악과 활성화 지원, 이세종기념관과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내 기억의공간 조성 협의, (가칭)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구상
 - 문화산업과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기억의공간(역사기록실 활용) 설치 협력(검토)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조성과 활성화 지원
 - 주요 사건별 기념장소 실태 파악과 각 공간 활성화 지원
 - 이세종기념관(가칭)과 민주광장 조성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민주화운동 기억의공간(가칭) 조성과 운영(검토)
 - (가칭)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기본구상
- 사업예산 : 1,100백만원(국비 250, 도비 600, 기타 250)

- 이세종기념관과 민주광장 조성 500(국비, 기타-민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의공간 조성 500(도비), (가칭)전북민주주의관건립 기본구상 용역 100(도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100		500	500		100
국 비	250		250			
도 비	600			500		100
시군비						
기 타	250		250			

▣ 세부 사업내용

- **(주요 운동별 기념장소 지정과 지원)** 주요 사건과 관련한 장소를 대표적 기념공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함
 - (지정안) 4·19 관련하여 남원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과 전북대 4·4의거 장소를 지정. 5·18 관련하여 이세종 열사 추모비가 있는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을 지정. 6·10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집회가 열렸던 전주시 오거리광장(전주시 협의 필요)을 지정
 - (활성화 지원) 각 장소에서 기념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장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사람이 방문하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예) 다크투어리즘 일환으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 지원, 인권지도 주요 거점으로 선정 등
- **(전북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도 대표도서관 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사건·인물에 대한 구술사 등을 구축하여 쉽게 정보를 얻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관을 조성하고, 관련 기록(관련자 구술사, 수집 사료, 전시 콘텐츠 등)을 보존·전시·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대표도서관 계획에 반영된 전북역사기록관 내 민주화운동 기억관을 조성하거나(전라북도 현대사로서 민주화운동 강조: 디지털 전시 등을 활용한 구술 기록 등),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와 협의
- **(주요 상징적 장소의 기억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주요 활동 장소를 기억하는 방안으로 표지석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민주화운동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3-2.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 사업 활용)
 - 주요 민주화(부문)운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관계자, 관련자 의견수렴), 관련 장소에 대하여 스토리를 발굴·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표지석을 설치

- 민주화운동 주제별로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추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중심인 전라북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전북민주주의관 건립을 추진함
- 민선 9기 전라북도 공약화를 추진. (공약화를 전제) 2027년에 건립 구상용역을 추진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 참고자료

- 기억의 공간 조성 사례 : 광주 5·18기억공간

- 광주 전일빌딩의 5·18기억 공간
- 전일빌딩 9~10층에 ‘5·18기억공간’을 조성.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총탄 흔적 원형을 보존 하여 전시
- 1980년대 당시 거리를 축소한 모형, 헬기사격 증언을 기반으로 제작된 멀티 어트랙션 영상쇼 등을 제공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사업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겪은 역사를 기억, 교육하는 공간



석석길(역사 속으로)

지하전시실(그녀의 일생)



계단(호소의 벽)

역사관

자료 :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기본계획(<https://www.gmcc.co.k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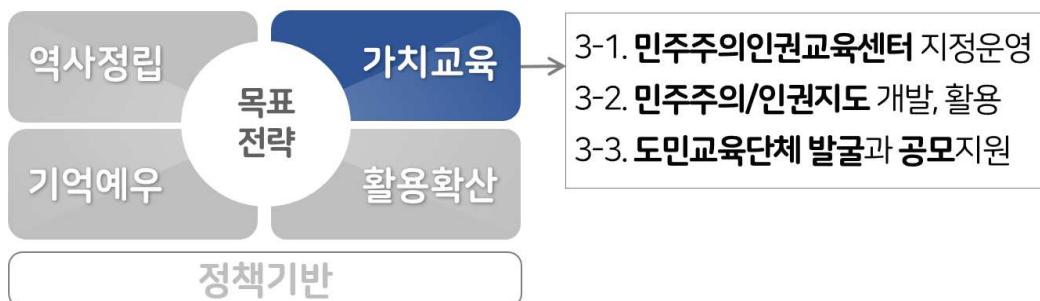
가치의 교육

▣ 추진 배경

- 도민 인식조사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방법으로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가치로 인권이라는 인식이 컸음. 따라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민주주의와 함께 인권을 병행하는 교육 사업이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정신계승이 되려면民間 영역에서 활동이 이어져야 함.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확산하고,民間 단체가 민주주의·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

▣ 추진 방향

- 정신계승과 관련한 첫 번째 과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함.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 기록, 콘텐츠 개발 등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구상함
- 둘째,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면서 일상에서 민주주의·인권을 경험하도록 민주주의·인권지도를 제작하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셋째, 민주주의·인권 교육이 가능한 단체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직접 도민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함



3-1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가 조례(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의 주요 분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함. 모든 지역은 아니나, 일부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함. 인권 영역에서도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센터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계승 방향이 인권과 관련되므로,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모두가 필요하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통합교육하는 센터를 설치함
- 민주주의·인권교육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연구, 아카이브 구축, 민주화·인권지도 활용 투어 프로그램 등 민주화운동 교육·체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가칭)를 운영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개정(2023년), 민주주의·인권교육 센터 지정·운영(2025년 이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인권담당관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조례 개정)과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900백만원(도비 900)
 - 연평균 300백만원(전담기관 위탁 사업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900			300	300	300
국 비						
도 비	900			300	300	30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설치 조례 개정)**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부터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가칭)전라북도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른 지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센터 설치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가치로서 민주정신과 인권을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를 개정
 -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명시된 센터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개정 추진
 - (조례 개정 내용 안)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설치와 주요 사업 조항, 민주주의·인권교육 전담기관 지정 조항(예: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또는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민간 분야로의 위탁과 사업예산 지원 가능 조항 등

〈참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와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사례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민주시민교육 지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5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교육센터 전담기관 지정 또는 민간단체 위탁)** 민주주의·인권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고 전담 기관 내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또는 민간단체·기관에게 교육 센터를 위탁하는 방안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함
 - 전담기관(예,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또는 위탁단체에게 위탁 운영비 지원 : 연평균 300백만원(센터 운영비(3~4명 직원), 프로그램 개발 및 주요 사업비 등)
 - (주요 사업안) 민주주의·인권교육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직접 연구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민주주의·인권 아카데미 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관련 컨설팅, 민주화운동·인권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 참고자료

- 광역 교육청 설립 운영 사례: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

- 대구시교육청 소속. 2018년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2021년 10월 28일 개관. 학생 참여 중심 민주시민교육 체험 공간
- 연면적 1,502.62㎡(지상 2층, 야외 및 옥상), 총사업비 747.5백만원
- 1층: 디지털 콘텐츠 체험 및 모의 법정 운영 공간, 상설 전시 공간인 민주 쉼터
- 2층: 국제 회의장인 세남홀·북카페·나눔실, 민주시민 전시 공간·역사 테마길 체험 공간
- 주요 체험 프로그램: 모의 법정, 모의 국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극, 공공 의제, 소셜 리빙랩, 모의 유엔 체험 등 7개 과정 운영
- 참여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생



자료 : 대구일보 기사(<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207010002>)

● 조례에 의한 지자체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례: 위탁 운영

〈참고〉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례

- 서울시 위탁을 받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위탁 종료, 시에서 직접 수행
- 주요 사업
 - 시민참여 : 생활 속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정책 제안 등 시민의 토론경험 지원
 - 작은 공론장 : 발굴된 의제 또는 센터 제안 의제로 20~30인이 모여 공론을 진행
 - 서울 민주시민 아카데미
 - 활동가 역량 강화 : 민주주의 지식과 실천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민성을 강화하고, 소통 능력 및 기술 향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주민자치 아카데미 : 주체적 행정참여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반조성 및 저변 확대: 대외협력, 연구개발, 아카이브 등

〈참고〉 시흥시민주시민교육센터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근거, 2021년 하반기에 설립
- 시흥YMCA가 위탁 운영
- 주요 사업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 민주시민교육 교재/교안 개발과 보급, 누구나 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 시흥시민의 공론 촉진 및 다양한 사회참여, 실천 지원(시흥다음 뉴스 발행 및 시민기자단 활동, 시민공론장 운영)
 - 민주시민교육 활동 주체 발굴 촉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 지구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활동가 모임 및 활동 지원, 연계)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민주시민교육 민관 거버넌스 구축,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민주시민 아카이브 운영)

● 민주시민교육 보조사업자 모집 사례: 고양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공모 내용

가. 사업명 : 2022년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나.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1월

다. 총 사업비 : 92,000천원

라. 공모분야

○ 사업내용 : 제안주제 4개 사업, 자유주제 3개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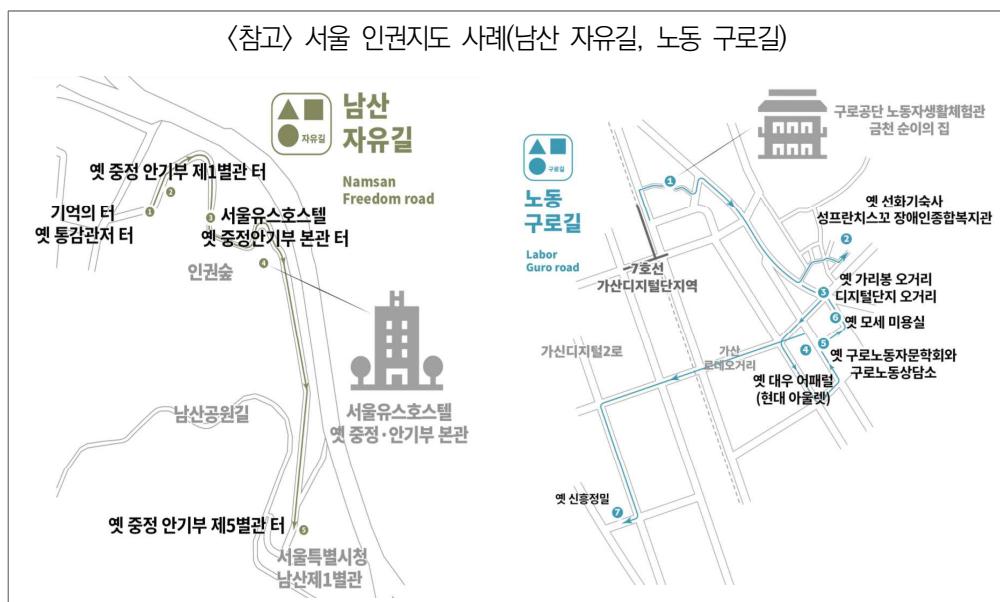
※ 실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개소 및 신청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주제 : 젠더, 활동가(기획자) 연수, 기후환경, 시민인터뷰
 - ※ 각 주제별 1개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1개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자유주제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
 - ※ 3개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1개당 최대 5,000천원 지원

3-2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 및 교육·체험 활용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인권의 주요 현장을 발굴하고 관련 유적지를 연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및 현장 방문형 민주주의·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전라북도 민주주의·인권지도를 제작하려면 지역의 민주화운동과 인권 관련 사료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민주화운동과 인권의 역사적 현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민주주의·인권 관련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하고 유형별 인권지도를 제작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지도 제작 기초연구(역사 현장 조사, 투어 시범프로그램)(2023년), 민주주의·인권 투어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제작(2024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2025년 이후)
- 사업주체 : 인권담당관
 - 운영 기관 :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전담(또는 위탁) 기관에 투어프로그램 운영 위탁

- 사업내용 : 민주주의·인권지도 제작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350)
 - 기초조사 학술연구 용역 100백만원(2023년), 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제작 100백만원(2024년), 교육·체험 투어프로그램 운영 연평균 50백만원(2025년 이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350	100	100	50	50	50
국 비						
도 비	350	100	100	50	50	5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민주주의·인권지도 제작)** 민주화운동, 인권과 관련한 주요 역사적 현장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기초조사하고, 전문가와 도민공모 등에 의한 선정절차에 따라 주제(유형)별 역사적 현장 선정과 주요 의의를 설정함(참고자료: 서울시 사례 참조)
 - 전라북도 인권 역사현장 발굴과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 추진(2023년): 역사 현장에 대한 기초조사, 주제 선정에 따른 투어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 민주주의·인권 지도 제작과 유형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2024년)
- **(민주주의·인권 역사현장 투어프로그램 운영)** 선정된 민주화운동·인권의 역사적 현장을 분류하여 교육·체험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참고〉 서울시 민주화운동·인권 지도 제작과 스토리텔링에 따른 투어 주제 선정

적용 시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부터 2000년 사이 • 서울에서 발생한 인권사의 역사적 현장: 국가폭력과 인권단압에 맞서 저항했던 현장 • 시민저항(항쟁), 국가폭력, 제도 내 폭력 등 3개테마로 구분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모, 전문가, 종교계 추천을 받아 110곳을 선정. 인권, 역사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권현장으로 최종선정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최종 45곳 선정, 추후 추가
스토리 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 43곳 중 35곳을 연결, 4개 테마(민주화, 노동, 사회연대, 남산) 7개 코스(4월 길, 6월 길, 구로 길, 전태일 길, 여성 길, 시민 길, 자유 길)를 개발

□ 참고자료

● 서울시 민주화운동·인권 관련 역사적 장소 현황(지도의 주요 장소)

구분	명칭	문구
폭력	한국원 피격 장소	시위현장을 지나던 서울대학원생이 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사망
폭력	실미도 사건 현장	북파공작원 24명이 실미도를 탈출해 군경과 격전을 벌인 자리
폭력	불교계 법난 현장	신군부가 조계사 등에서 승려 162명을 강제 연행·단압한 현장
폭력	중앙정보부 터	독재시대에 권부 위의 권부로 군림해온 '중청' 본청 자리
폭력	협성계공 터	수은증독으로 사망한 15살 소년노동자 문송면이 일하던 곳
폭력	신민당사 터	야당 당시에서 농성하던 YH무역 노동자 김경수이 진압과정 시 사망
폭력	청계천 판자촌 철거	정부가 도시빈민 주거권을 박탈하여 광주대단지(성남시)로 강제 이주
폭력	한강 인도교 폭파	6·25 발발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교량 폭파로 피란민 800여 명 사망
항쟁	4·18선언 현장	고려대 학생들의 선언 4·19혁명으로 타오르다
항쟁	구로동맹파업 현장	시민·학생들이 노동자 파업에 연대의 손을 내밀다
항쟁	전태일 분신 현장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여기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다
항쟁	6·10항쟁선언 현장	6월 시민항쟁의 함성, 여기서 시작되다
항쟁	명동성당	이곳은 민주화운동의 피난처이자 둥지다
항쟁	형평사 터	이곳에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 시작된다
항쟁	어린이 권리선언 터	이곳에서 소년·소녀의 인격과 권리를 옹호하는 어린이날을 선포하다
항쟁	망원동 유수지 터	거듭되는 수해의 국가책임을 밝혀내 공익소송에서 시민이 처음 승소
항쟁	그림마당 [민]	한국 미술, 여기서 독재권력을 고발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항쟁	을지로 인쇄골목	이 골목에서 독재에 맞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친 선언문 인쇄
항쟁	새한버스 기숙사 터	시내버스 안내양 40여 명, 여기서 인간선언을 울부짖다
항쟁	장애인인권 요구 현장	혜화역 장애인 훨체어 추락사고 이후, 여기서 이동권을 외치다
항쟁	한국기독교회관	이곳은 독재시대에 민주화운동의 발판이자 기둥이다
항쟁	상계동 철거민투쟁 현장	정부의 강제철거에 맞서 상계동 주민들이 주거권 투쟁을 전개하다
항쟁	서울대 문리대 터	이곳은 4·19혁명에서 반유신투쟁까지 한국 학생운동의 빛나는 터전
항쟁	녹색병원	이곳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일궈낸 병원
항쟁	영등포 산업선교회	기독교인 헌신과 노동자 의지가 만나 노동조합·노동자인권으로 꽂 펌
항쟁	YWCA위장결혼식 현장	위장결혼식 통해 집회를 하여야 했던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항쟁	옛 사상계 터	군사독재와 유신시대를 비판한 시사 월간지 사상계, 찢어내고 폐간
항쟁	민족일보 터	혁신계 일간지 민족일보, 창간 석 달 만에 폐간되고 발행인 처형
항쟁	조선어학회 터	문맹을 퇴치하고, 우리 말글의 보루로서 언어 주권을 지키던 학회 자리
항쟁	서울 YMCA회관	교사들이 널리 뜻을 모아 독재교육을 거부하는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항쟁	여의도 농민시위현장	농민 생존권을 요구하던 전용철, 흥덕표 농민이 숨진 곳
항쟁	상봉동 연탄공장 터	주민 진폐증사건을 시민참여로 승소, 대표적 공해추방운동 현장
제도	대법원 터	일제와 독재시대에 다수의 인권침해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 자리
제도	서대문형무소	항일의병·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가들을 투옥·처형했던 수형시설
제도	'체육관 선거' 현장	직선제가 폐지된 유신정권 이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던 곳

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등 여기서 사라진다
제도	훌트아동복지회	부모없는 아기가 잠시 머물던 아동인권보호기관, 대표적인 입양기관
제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터	부실·날림공사 아파트 붕괴, 34명 죽고 40명 다친 대표 재난참사현장
제도	탑골공원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인권과 복지를 재고케 한 상징적 공간
제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터	(1994.10.21) 부실한 공사와 안전관리로 다리가 무너져 출근길. 통학길에 있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대표적인 재난현장
제도	한성권번 터	(1918~1942) 일제강점기에 제도적으로 여성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 기생조합이 있던 자리
제도	명동파출소	(1973~1988) 미니스커트, 장발단속 등 국가의 통제와 청년들의 자유가 충돌하던 현장
폭력	건국대 구속사건 현장	(1986.10.28) 민주화운동 시기에 단일사건 최대인 1,288명이 구속된 '건대항쟁'자리
폭력	빙고호텔 터	(1957~1990) 민주인사에게 고문수사 했던 국군보안사 서빙고분실
폭력	남영동 대공분실 터	(1976~2005) 서울대학생 박종철 고문사망 등이 있었던 대공분실 터
폭력	4.19 최초 발포 현장	(1960.04.19) 경찰 발포로 시민·학생 1백여 명이 쓰러진 자리
항쟁	자유언론실천선언 현장	(1974.10.24) 이곳에서 동아일보·동아방송 언론인들이 검열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하다
폭력	국보위 터	(1980~1981) 삼청교육대 등 가혹한 인권탄압을 기획한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 자리
항쟁	덕수궁 대한문 앞	만민공동회, 3.1운동 등 역사의 고비마다 새 뜻을 일으켜 온 왕조시대의 광장이자 늘 오늘인 광장
항쟁	청계천 광장	시민광장, 민주주의와 인권광장, 표현의 자유의 광장, 시대의 쟁점이 있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광장
폭력	이한열 피격 현장	(1987.06.09) 연세대 이한열이 경찰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자리
항쟁	근우회 터	(1927~1931) 봉건적 굴레와 일제의 억압을 깨뜨리는 운동을 전개한 여성단체가 있던 자리
폭력	궁정파출소 터	(1955) 하녀와 노동자의 중간위치에 있던 식모가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는 등 인권이 유린되었던 곳
저항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	(2009.06.04) 마로니에공원/ 자유로운삶 지역사회로!/ 시설 거주인 8인 여기서 탈시설-자립생활 외치다
폭력	김귀정 사망 현장	(1991.05.25) 성균관대학생 김귀정이 민주화시위 중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진 자리
항쟁	4·18고대생피습현장	(1960.04.18) 그날 그들이 흘린 피가 1960년 4월 19일 민주 혁명에 불을 댕기다
항쟁	장애인 운동 인권 투쟁 현장	(2011.01.02)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와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우동민 열사 등이 투쟁한 곳
항쟁	학림다방	(1982.01)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위해 조직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의 첫 모임을 가진 장소
항쟁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	(1982) 한국의 환경운동, 1982년 "공해추방운동" 이란 이름으로 시작

3-3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단체 발굴과 공모 지원

□ 사업목적

- 개발된 교재, 투어코스, 민주화운동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자생적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모사업, 유사 분야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되,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역 내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 특히 전주시 중심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군 내 관련 단체를 우선 발굴함
 - 1개 시군 1개 민주주의·인권교육 추진이 되도록 단체·기관 파악과 수요조사 진행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5~2027년
 - (추진일정) 민주화운동사 정립, 교재 개발, 투어코스 개발 등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2025년 이후 진행)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
 -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운영 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라북도평생학습장학진흥원에 위탁
- 사업내용 : 시군별 단체·기관 연계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지원 공모
-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150)
 - 연평균 50백만원 내에서 1개 교육 사업당 평균 3백만원 내외 지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50			50	50	50
국 비						
도 비	150			50	50	5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시군별 교육 가능 기관·단체 발굴)** 민주주의(민주시민교육)와 인권을 교육할 수 있는 시군별 기관과 단체를 발굴함
 - 시군별 주요 단체·기관 현황을 파악한 후 민주주의·인권교육 사업의 수요조사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교재·프로그램 등 제공
- **(기관·단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 민주주의·인권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방향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함
 - 전북 민주화운동 및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 전북 민주화운동 및 인권 관련 교재 설명, 투어 프로그램 활용방안 등 제공
 -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기관별 사업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민주주의·인권교육 사업공모 진행)** 발굴 및 수요조사된 기관·단체 외 일반단체까지 포괄하여 시군별 민주주의·인권교육을 담당할 단체를 선정, 교육 사업을 지원함
 - 1시군 1교육사업을 목표로 하되, 생활권 단위로 1개 사업 이상이 지원되도록 노력
 - 사업별로 예산을 차등지원, 1개 사업 평균 3백만원 내외 지원
 -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주시민교육(기반구축 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공모, 전북형 자원특화)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참고자료

-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계획(2022년)
 -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참고〉 전북형 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 사업목적 : 민주시민성 강화와 합리적인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14개 시·군 간 공감대 형성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30백만 원
- 사업대상 : 14개 시·군 등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운영 및 전북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138백만원
- 사업대상 : 도내 평생학습 기관·단체(1, 2차 심사 후 선정)
- 사업분야 및 내용(안)

분야	내용	지원금액	지원 수
대상 특화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93백만원	15기관
미래사회 역량특화	·4차 산업 신기술 교육(AI, SW 등 미래 디지털 역량강화), 직업준비 프로그램, 직무 역량 프로그램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진입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38백만원	6기관
전북형 지원특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인문자원을 활용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7백만원	1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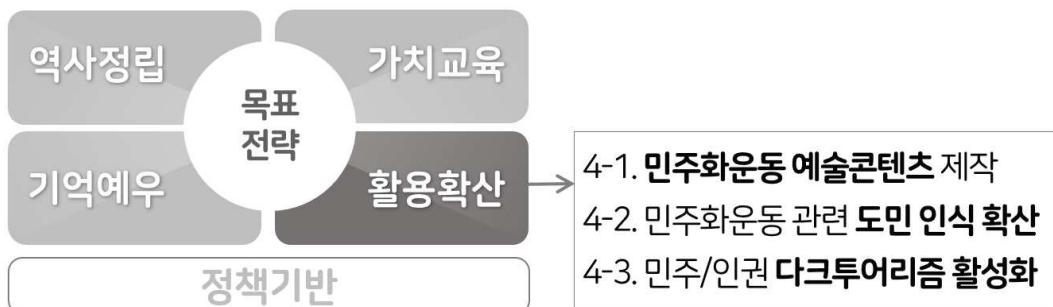
5.4 활용과 확산

□ 추진 배경

- 도민 인식조사에서 활용과 확산 관련 사업(콘텐츠 개발, 체험관광)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나타남. 관계자 의견수렴에서도 체험관광,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이어지려면 다양한 확산 전략이 필요함. 예술콘텐츠를 만들어 도민이 보다 쉽게 몰입하도록 하고,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으로서 정착하는 사업이 필요함

□ 추진 방향

- 활용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민주화운동 소재를 활용한 예술 콘텐츠 제작과 활성화임. 예술은 역사적 사건 등을 가장 쉽게, 가장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임. 대표 사건·인물·장소를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활용하여 공연·전시예술 콘텐츠로 제작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
- 둘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함
- 셋째, 다크투어리즘은 암울한 역사를 체험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큼. 민주화운동 체험관광 역시 전북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그 정신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함



4-1 민주화운동 활용 예술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과 전국적인 민주화운동(특히 5월)을 다룬 문화(예술)콘텐츠는 많음. 하지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 사건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콘텐츠는 거의 없음. 기념 문화제 프로그램으로 사진전 등이 개최되었으나,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오는 영화, 공연 등의 콘텐츠 제작은 미흡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그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려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록화(구술사 등) 사업을 토대로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문학, 연극 등)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마련함

〈참고〉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스토리 사례) 1980년 여산성당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민주화·인권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박창신 신부. 1980년 6월 25일 여산성당에서 5·18 진상을 알리는 활동 중에 금마 공수부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에 의해 여산성당 사제관에서 칼과 쇠파이프로 테러를 당함. 이후 장애인이 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민주화운동 스토리텔링(2023~2024년), 문화(예술)콘텐츠 제작·활용(2025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산업과
 -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협력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소재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예산 : 150백만원(국비 60, 도비 90)
 - 민주화운동 스토리텔링 용역 50백만원, 콘텐츠 제작지원 연평균 50백만원(기준사업 연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50		50	50	50	
국 비	60			30	30	
도 비	90			50	20	2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스토리텔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인물, 장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이를 예술가·예술단체에 제공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스토리텔링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 대표 10여개 스토리 발굴
 - 발굴된 스토리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제공
- **(기존 창작 지원사업 대응 지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술창작 공모사업에 예술가·예술단체가 민주화운동 소재로 참여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

〈참고〉 공연예술 관련 창작 지원 사업 예시

기관	사업명	세부내용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 의신작 - 연극, 창작뮤 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예술단체(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실연심의 지원금 정액 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2천만원 • 창작뮤지컬 : 2천5백만원 • 극작가 및 작곡가 개인 • 정액 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 10개작품, 작품당 1천만원 - 창작 뮤지컬/오페라: 5개 작품, 작품당 2천만원
	•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의 과정 #공연예술 ①(사전연구)조사·리서치 ②(사전제작)포트폴리오 ③ (사전제작)쇼케이스·포트폴리오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①조사·리서치: 정액 5백만원 ②포트폴리오: 최대 8 백만원 ③쇼케이스·포트폴리오: 최대 18백만원 • 창작뮤지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리서치: 정액 5백만원 ② 포트폴리오 : 최대 15백만원
	• 창작의 과정 #공연예술 (사전제작활동지원) - 연 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분야 창작 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예 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및 우수 창작 작품 발굴
전북문화 관광재단	•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 참고자료

● 전라북도 내 동학농민혁명 소재 예술작품 사례

- 마당극 <황토현의항전>, <황토현의햇불>/ 창무총체극 <천명>, <들불>/ 무용 <파랑새>/ 연극 <서울로 가는 전봉준>, <들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오페라 <녹두장군> 등



4-2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관련 도민 인식 확산

□ 사업목적

- 전북도민 인식조사결과에서 나오듯이, 많은 도민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함. 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인 사건을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 2.25(4점 척도)에 그쳤음
- 특히 6·10항쟁과 이세종 열사 사망 등을 제외하곤 주요 사건 대부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부문 운동은 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사업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을 현재에 계승해야 하는 당위성 차원에서 운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함. 조사 결과 계승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권(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시민의 항거”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4~2027년
 - (추진일정) 민주화운동 대표 현장과 스토리 개발(2023년, 인권담당관) 후 추진(2024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홍보기획과
 - (홍보기획과) 도정소식지, 전북생생TV 등 전북 미디어 홍보 협력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브랜드 개발, 민주화운동 미디어 홍보
- 사업예산 : 비예산(기존사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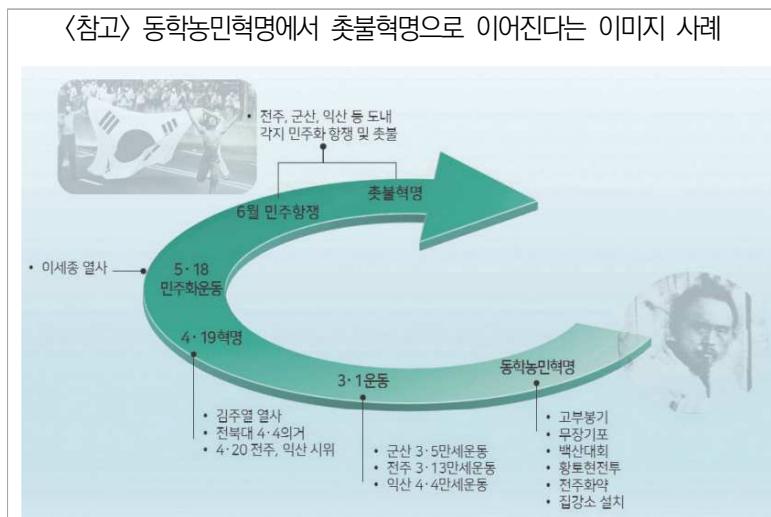
□ 세부 사업내용

- **(핵심가치·브랜드 개발과 홍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핵심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 사업에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
 - 민주화운동을 도시브랜드로 강조하는 지역별로 브랜드와 홍보문구를 개발하여 활용
 - 동학농민혁명과 연계,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가 전북임을 강조하는 브랜드(홍보문구)와

관련 이미지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사업·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



- 민주화운동의 핵심 가치가 인권이고, 인권 측면에서 계승해야 한다는 홍보 내용을 개발



- **(기존 홍보 수단 활용, 민주화운동 홍보)** 전라북도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지역 언론사와 협력하여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인물·장소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추진함

- (전라북도 미디어 홍보) 소식지(얼쑤 전북) 내 민주화운동 기획 연재, 전북생생TV 방송, 유튜브 채널, 청사 LED 광고 등을 활용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홍보
- (지역 언론사 협력) 4월에서 6월 시기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요청(언론 보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

4-3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주제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면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체험하는 게 중요함.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하는 다크투어리즘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 민주화운동 단독으로 투어 프로그램 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지역별 투어 프로그램에 민주화 운동 현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가 인권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내 인권 관련 주요 현장을 연계하는 다크투어리즘 상품을 개발(인권지도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5~2027년
 - (추진일정)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인권담당관, 2023년) 이후 계획수립 추진(2024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문화산업과·관광산업과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협력 : 재단 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순례 투어 개발과 지원, 민주화운동 다크투어리즘 마케팅
- 사업예산 : 60백만원(도비 60)
 - 연 평균 20백만원(민주화운동 체험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60			20	20	20
국 비						
도 비	60			20	20	2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순례 투어 개발과 지원)** 전라북도의 새로운 특화관광상품으로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 관련 역사 현장을 방문하는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투어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

- 시기별 특화주제 관광사업(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례)으로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관광진흥사업으로 제안 : 사업예산 지원, 재단이 운영하는 방식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인권 다크투어리즘 여행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 지역별 투어 프로그램에 민주화운동·인권 역사현장을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 사업을 지원

〈참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사례

- 〈탄소중립 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
 - 사업목적 :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등에 대응한 공공주도의 선도적 실천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친환경 관광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1~12월
 - 사업내용
 - 〈탄소없는 전북여행〉 캠페인 및 프로모션 추진
 - 시·군 추천 〈친환경 전북여행 스팟〉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유관기관 협력 〈ESG 친환경 전북여행〉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 **(여행단체·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 전라북도 민주주의·인권지도를 통한 주요 역사적 현장과 주요 사건·인물·장소에 대한 스토리(텔링 결과물)를 지역 내 여행단체·기관에 제공하고, 여행상품 개발 등을 유도함
 - 여행상품 개발, 관광단체 기업 지원사업 시 민주화운동 관련 여행상품 개발을 요청
- **(전라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뉴 개설)** 현재 전라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뉴의 역사기행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인권 기행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
 - (현재 역사기행 메뉴) 세계문화유산투어, e-성계 꿈길따라, 동학역사기행
- **(관광안내 책자 등 민주화운동 정보 제공)** 전라북도 관광안내 책자, 홈페이지 정보, 관광안내센터 내 정보 등에 민주화운동·인권 관련 유적 정보와 투어 코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투어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민주주의·인권지도 제작 사업(인권담당관) 결과물을 활용, 관광산업과와 협력 추진

▣ 참고자료

● 경남 창원시의 ‘민주성지 관광상품’ 개발 사례

- 2017년 민주성지 관광상품이라는 이름으로 2개 코스 개발 및 운영 사업 추진
- 제1코스: 3·15의거 재현길(1960년 3월~4월)
 - 오동동 문화의 광장 ▶ 오동동 3·15의거 발원지 ▶ 불종거리와 3·15의거 기념탑 ▶ 무학초등학교 총격당장 ▶ 4·19혁명 진원지와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 해설사 설명을 포함 3시간 소요. 3·15의거 관련 골든벨 퀴즈왕 선발 이벤트 실시
- 제2코스: 민주화의 길
 - 국립3·15민주묘지 ▶ 3·15아트센터 홍보관 ▶ 3·15의거 기념비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석 ▶ 3·15의거 기념탑 ▶ 무학초등학교 총격당장 ▶ 4·19혁명 진원지 ▶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 경남대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 월영동 서향공원(부마민주항쟁기념 조형물)
 - 4시간 소요
- 상설 프로그램 운영
 - 창원관광 홈페이지 메뉴 개설. 관광가이드북, 관광 안내지도에 민주성지 관광상품 탐방길 게재

문화관광 / 축제 / 인천 / 복지/식품 / 건강 / 교통 / 부동산 / 교육 / 농업/환경

문화관광 > 민주성지 창원 > 탐방코스

3.15의거 재현길

마산민주화의 길

3·15의거 재현의 길

당시(1960.3.15. ~ 4.19.)의 이동코스 재현

1 3·15의거 발원지(오동동)
2 당시 민주당 마산시 당사
3 불종거리
4 창동치안센터(당시 남성동파출소)
5 3·15의거 기념탑
6 무학초등학교 총격당장
7 마산의료원(당시 도립마산병원)
8 마산합포구청(당시 마산시청)
9 김주열열사 사신 인양지

1 3·15의거 발원지(오동동)
2 당시 민주당 마산시 당사
3 불종거리
4 창동치안센터(당시 남성동파출소)
5 3·15의거 기념탑
6 무학초등학교 총격당장
7 마산의료원(당시 도립마산병원)
8 마산합포구청(당시 마산시청)
9 김주열열사 사신 인양지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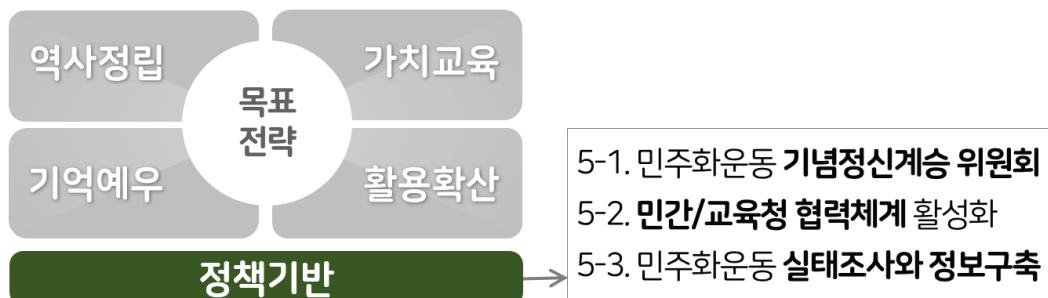
정책의 기반

□ 추진 배경

-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의 협력이 필요함. 또한 정신계승 사업의 핵심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민주학교사업을 추진하는 전북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실증적 정책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통계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할 때 가능함. 따라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정보를 구축해야 함

□ 추진 방향

- 정책 기반으로서 첫째, 전라북도 조례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함
- 둘째, 민간과의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필요함. 또한, 민주학교사업을 벌이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주화운동 교재 개발, 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적인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
- 셋째,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정책의 기반으로서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민주인식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과를 측정함



5-1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전라북도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제8조 위원회 설치 등)를 둬야 함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둈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이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2022년 위원회 구성, 2023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등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

- 사업내용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100)

- 연평균 10백만원(회의수당 지급 등, 연 4회 운영 기준), 선진지 사례 방문, 현장 답사, 다른 지역과의 교류사업 등 활성화 지원 연평균 10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100	20	20	20	20	2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 민간 위원 13명 내외를 추천받아 구성함

- (분야별 구성 예시)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문 운동별 공개 모집 후 선정된 사람 5, 학계 등 2
- (위원의 선정 방식) 단체 추천, 공개 모집,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복수 후보군을 선정하고, 위원회 선정 TF에서 시군·부문·사건(4·19, 5·18, 6·10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군을 결정,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선정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분기별 운영을 목표로 위원회 운영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업이 심의되도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

- (분기별 위원회 운영안) 1분기: 4월~6월 전북 민주주의 축제 계획안 자문·심의/ 2분기: 4~6월 민주주의 축제 및 기념사업 참여/ 3분기: 다른 지역과 교류, 현장 답사, 선진지 견학 등/ 4분기: 다음 해 시행계획(주요 사업계획) 자문·심의
- (활성화 사업) 도지사와 함께 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현장 답사(테마별 주요 현장과 단체 등 방문, 필요사업 등 의견수렴), 다른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방문과 교류협력 등

□ 참고자료

● 부산시장 동행, 부산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역사현장 방문(답사) 사례

- 2019년 3월, 부산시장과 위원회가 함께 주요 역사 현장 답사
- 답사를 계기로 민주화 유적의 보존과 관리·홍보를 강화할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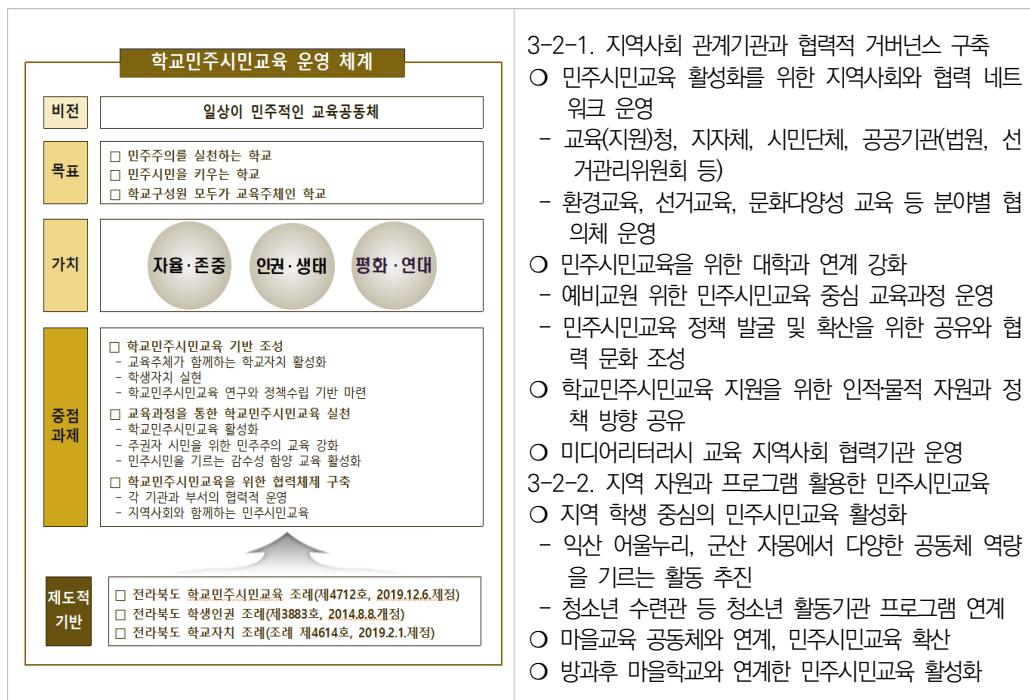
5-2

민간·전북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하게 협력할 기관은 전라북도교육청임.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
 - 비전은 “일상이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목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 민주시민을 키우는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주체인 학교”임. 중점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교육과정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참고〉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과 협력체계 구축(중점과제) 내용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3~2027년
 - (추진일정) 전라북도(자치행정과)-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의 협력(2023년), 공동사업 발굴과 협력 사업 추진(2024년 이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
 - 사업내용 :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공동 추진
 -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기존 사업 활용)

□ 세부 사업내용

-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 사업)**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 등을 교류함
 - 공동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정보 교류, 프로그램 공유 등 추진
 - 민주시민학교 연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운영(전략 3-2 과제 활용)
 - **(민간 단체 기관과 협력 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인권교육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공동사업을 발굴하거나 전라북도 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함
 - 조례에 따른 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5-3 민주화운동 관련 실태조사와 정보 구축

□ 사업목적

- 통계에 기반한 실증적인 정책 개발이 중요하나, 도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정·조사통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음. 주요 기념행사 현황,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관련자 현황, 역사적 현장과 유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구축되지 않음
-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부터, 유공자와 관련자 현황,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 현황과 관리 실태, 기념사업의 현황 등 기초 정보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4~2027년
 - (추진일정) 연차별로 행정통계 및 기초정보를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조사(2027년)
- 사업주체 : 자치행정과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 정보 구축,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사업예산 : 120백만원(도비 120)
 - 실태조사와 정보구축 연구용역 40백만원(2024년), 도민인식조사(2차 기본계획용역 병행 80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20		40			80
국 비						
도 비	120		40			80
시군비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 정보 구축)**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시군 등을 활용한 행정통계, 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관리함
 - (구축 기초 정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관련자 현황, 유공자와 관련자 생활실태,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 현황과 보존·관리 실태, 민주화운동 기념과 교육 등 사업 현황(추진주체, 행사내용, 결과 등), 민주화운동 관련 문화콘텐츠 현황(출판물, 예술작품, 교육콘텐츠 등), 전북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연구 현황,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참여자와 프로그램 수 등
- **(민주화운동에 관한 도민 인식조사)** 본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측정하고, 도민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도민 조사를 5년 단위로 진행함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민 인식조사를 기초로 5개년 기본계획 이후 달라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
 -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

□ 참고자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 정보 목록 예시

구분	정보 지표	세부 내용
사람	유공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 5·18 관련 유공자 DB
	관련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관련자 DB• 전라북도 자체 기준에 따른 관련자 DB
	유공자·관련자 생활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공자·관련자 생활실태조사 통계
장소	문화유산(기념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도 지정 문화재로서 유적 현황
	역사 현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A/B/C)에 따른 역사 현장 DB
	역사 현장 관리·활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현장별 관리, 활용(행사 등) 실태
기록	구술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인물에 대한 구술사 현황, DB
	민주화운동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수집 현황과 디지털화 실태 DB
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간접적 관련 단체 정보와 활동 현황
기념	기념사업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사건별 기념사업 목록과 실태
연구	학술연구 유형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관련 논문, 보고서, 문헌 목록
	학술행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주제 학술대회 현황
	민주화운동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단체 목록
교육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참여자 전체 수
	교육프로그램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운영되는 민주화운동 교육프로그램 목록
	교육장소와 교육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장소와 교육단체 현황
활용	민주화운동 투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주제의 투어프로그램 실태
	민주화운동 소재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운동 소재 문화콘텐츠 제작, 운영 실태

6

집행과 관리



6.1

투자 계획

6.1.1. 총 사업비

□ 5년 19개 과제, 5,714백만원

- 제1차 기본계획 기간(2023~2027)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5,594백만원으로 추정됨. 전략 1(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5개 과제에 1,350백만원, 전략 2(민주화운동 기억과 예우) 5개 과제에 2,534백만원, 전략 3(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3개 과제에 1,400백만원, 전략 4(민주화운동 활용과 확산) 3개 과제에 210백만원, 전략 5(민주화운동 정책 기반) 3개 과제에 220백만원을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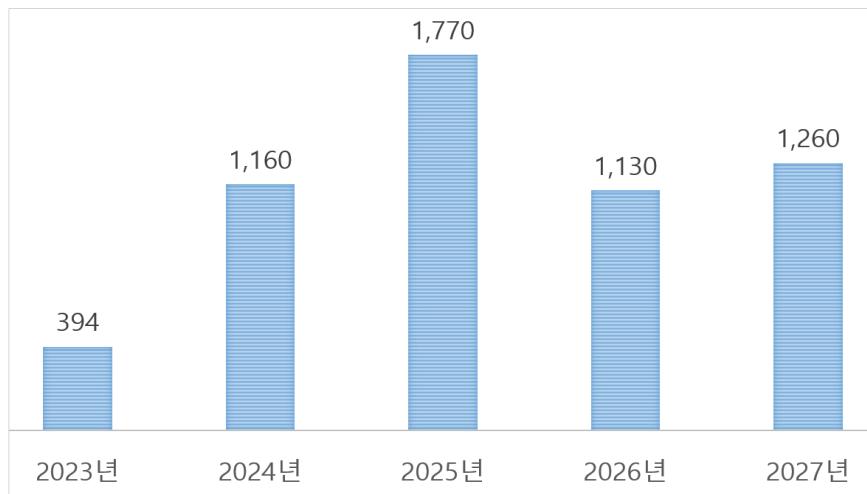
[표 6-1] 전략별 투자 계획

전략	추진 과제	예산(백만원)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조사 연구	200
	2 민주화운동 사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350
	3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 구술 기록화	400
	4 전북 민주주의 주제 교육 커리큘럼·교재 개발	100
	5 전북민주화운동사 2단계: 부문 운동사 발간	300
소계		1,350
2. 민주화운동 기억과 예우	1 기존 행사 통합브랜드화: 전북 민주주의축제	834
	2 주요 사건·인물의 기념 및 추모행사 개최 지원	400
	3 민주화운동 유적의 국가·도 지정 문화재화	100
	4 전북형 관련자 지정 및 예우 제도 마련	100
	5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억의 공간 조성	1,100
소계		2,534
3.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1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900
	2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 및 교육 체험 활용	350
	3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단체발굴과 공모 지원	150
소계		1,400
4. 민주화운동 활용과 확산	1 민주화운동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150
	2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관련 도민 인식 확산	0
	3 전북 민주화운동 주제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60
소계		210
5. 민주화운동 정책기반	1 민주화운동 기념·정신계승 위원회 운영	100
	2 민간·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0
	3 민주화운동 관련 실태조사와 정보 구축	120
소계		220
합계		5,714

6.1.2.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사업비

- 2023년 394백만원, 2024년 1,160백만원, 2025년 1,770백만원, 2026년 1,130백만원, 2027년 1,260백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함



추진과제	계(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1	200		50	50	50	50
1-2	350	200	50	50	50	
1-3	400		100	100	100	100
1-4	100			100		
1-5	300			100	100	100
2-1	834	34	200	200	200	200
2-2	400		100	100	100	100
2-3	100	20	20	20	20	20
2-4	100	20	20	20	20	20
2-5	1,100		500	500	0	100
3-1	900			300	300	300
3-2	350	100	100	50	50	50
3-3	150			50	50	50
4-1	150			50	50	50
4-2	0					
4-3	60			20	20	20
5-1	100	20	20	20	20	20
5-2	0					
5-3	120			40		80
합계	5,714	394	1,160	1,770	1,130	1,260

6.2

관리 계획

6.2.1. 단계별 추진

▣ 3단계로 구분

- 5년이라는 계획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을 단계별로 설정함
-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를 정립하고 기억할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계획에서는 역사를 정립하고 관련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이 사업 방향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함
- 계획기간 초기에는 역사 정립과 기억·예우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 본 계획의 중요한 방향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교육하고, 끝으로 2027년부터 민주화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함



▣ 1단계(2023~2024) 추진과제

- 2023~2024년 추진 과제
 - 2023년부터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와 관련된 11개 과제가 추진됨
 - 2024년부터 전략 2, 전략 4, 전략 5와 관련된 4개 과제가 추진됨
- 2023~2024년 투입 재원별 예산
 - 2023년에는 국비 투입은 없으며, 도비 384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으로 계획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 2024년에는 국비 250백만원, 도비 540백만원, 시군비 160백만원, 기타 250백만원으로 계획됨

구 분	2023년 추진과제	2024년 추진과제
전략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조사 연구(2023~), 민주화운동 사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2023~),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 구술 기록화(2023~)	
전략 2	기존 행사 통합브랜드화: 전북 민주주의 축제 개최(2023~), 민주화운동 유적의 국가·도자정 문화재화(2023~), 전북형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용 및 예우제도 마련(2023~)	주요 사건·인물의 기념 및 추모행사 개최 지원(2024~),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억의 공간 조성(2024~)
전략 3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2023~),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 및 교육 체험 활용(2023~)	
전략 4	민주화운동 활용 예술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2023~)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관련 도민 인식 확산(2024~)
전략 5	민주화운동 기념·정신계승 위원회 운영(2023~), 민간·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2023~)	민주화운동 관련 실태조사와 정보 구축(2024~)

	2023년(백만원)	2024년(백만원)
계	394	1200
국 비	0	250
도 비	384	540
시군비	10	160
기 타	0	250

▣ 2단계(2025~2026) 추진과제

- 2025~2026년 추진과제
 - 2025년부터 전략 1, 전략 3, 전략 4와 관련된 4개 과제가 추진됨
- 2025~2026년 투입 재원별 예산
 - 2025년에는 국비 투입은 없으며, 도비 1,570백만원, 시군비 160백만원으로 계획됨
 - 2026년에는 국비 30백만원, 도비 940백만원, 시군비 160백만원으로 계획됨

구 분	2025년 추진과제	2026년 추진과제
전략 1	전북 민주주의 주제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2025), 전북민주화운동사 발간 2단계: 부문운동사 발간(2025~)	
전략 2		
전략 3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단체 발굴과 공동 지원(2025~)	
전략 4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주제 다크투어리즘 활성화(2025~)	
전략 5		

	2025년(백만원)	2026년(백만원)
계	1730	1130
국비	0	30
도비	1570	940
시군비	160	160
기타	0	0

▣ 3단계(2027~) 추진과제

● 2027년 추진과제

- 2027년에 시작되는 과제는 없음

● 2027년 투입 재원별 예산

- 2027년에는 국비 30백만원, 도비 1,070백만원, 시군비 160백만원이 투입됨

	2027년(백만원)
계	1260
국비	30
도비	1070
시군비	160
기타	0

6.2.2. 협력체계와 연계사업

▣ 도청 내 부서, 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전략별 과제는 자치행정과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다른 부서, 다른 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음. 기준에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제가 계획되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과제를 계획하였음
- 따라서 본 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이나, 과제별로 전라북도청 내 다른 부서, 전라북도교육청, 민간단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가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계획함

[표 6-2] 전략별 과제의 협력기관과 연계사업 계획

전략	추진 과제		담당·협력기관	연계사업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조사 연구	•자치행정과 •문화유산과(전북학 연구센터)	•전북학연구센터의 전북학 관련 지원 및 전북학대회
	2	민주화운동 사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OPEN ARCHIVES)
	3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 구술 기록화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추진 ‘빛나는 도서관’ 사업
	4	전북 민주주의 주제 교육 커리큘럼·교재 개발	•자치행정과 •전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의 역사교육 관련 보조교재 제작 사업
	5	전북민주화운동사 2단계: 부문 운동사 발간	•자치행정과	
2. 민주화운동 기억과 예우	1	기존 행사 통합브랜드화: 전북 민주주의축제 개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과·사회복지과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 기념사업(정무기획과) •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 : 사진전시회(사회복지과)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광주전라지부 : 추모문화재(사회복지과)
	2	주요 사건·인물의 기념 및 추모행사 개최 지원	•자치행정과 •시군 담당부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년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 공모
	3	민주화운동 유적의 국가·도지정 문화재화	•자치행정과 •문화유산과	

	4	전북형 관리자 지정 및 예우 제도 마련	•자치행정과	
	5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역의 공간 조성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	•도 대표도서관 건립(역사자료실)
3.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1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2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 및 교육 체험 활용	•인권담당관	•전라북도 인권지도 개발
	3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단체발굴과 공모 지원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계획(2022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
4. 민주화운동 활용과 확산	1	민주화운동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술창작 공모사업
	2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관련 도민 인식 확산	•자치행정과 •홍보기획과	•도정소식지, 전북생생TV 등
	3	전북 민주화운동 주제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관광 산업과(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5. 민주화운동 정책 기반	1	민주화운동 기념·정신계승 위원회 운영	•자치행정과	
	2	민간·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자치행정과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 부서)	
	3	민주화운동 관련 실태조사와 정보 구축	•자치행정과	

※ 전략별 추진과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전략	추진 과제	세부 사업	추진기간					예산
			23	24	25	26	27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1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 조사 연구	• 조사연구 로드맵 수립, 연차별 기초연구 수행, 학술행사 지원						200
	2 민주화운동 사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 사료 수집, 사료의 디지털화, 기록관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350
	3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 구술 기록화	•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관련자 대상 민주화운동 구술 기록화						400
	4 전북 민주주의 주제 교육 커리큘럼·교재 개발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교육 커리큘럼·교재 개발과 보급						100
	5 전북민주화운동사 2단계: 부문 운동사 발간	• 부문(노동, 농민, 교육, 종교, 문화, 여성) 운동사 발간						300
2. 민주화운동 기억과 예우	1 기존 행사 통합브랜드화: 전북 민주주의축제 개최	• 기념행사(시군) 통합 브랜드 개발, 전북 민주주의 축제(4~6월) 개최						834
	2 주요 사건·인물의 기념 및 추모행사 개최 지원	• 국가기념일 외 주요 사건·인물에 대한 추모·기념행사 지원						400
	3 민주화운동 주요 유적의 문화재화: 등록문화재	• 주요 역사적 유적의 국가·도지정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100
	4 전북형 관련자 지정 및 예우 제도 마련	• 예우제도 마련과 사업 발굴, 전북형 관련자 인증과 지원방안 마련						100
	5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역의 공간 조성	•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조성과 활성화 지원						1,100
3. 민주화운동 가치 교육	1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전라북도 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 지정(조례 개정)과 운영 지원						900
	2 민주주의·인권지도 개발 및 교육 체험 활용	• 민주주의·인권지도 제작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
	3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단체발굴과 공모 지원	• 시군별 단체·기관 연계 민주주의·인권 도민교육 지원 공모						150
4. 민주화운동 활용과 확산	1 민주화운동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소재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지원						150
	2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관련 도민 인식 확산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브랜드 개발, 민주화운동 미디어 홍보						0
	3 전북 민주화운동 주제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 민주화운동 순례투어 개발 지원, 민주화운동 다크투어리즘 마케팅						60
5. 민주화운동 정책 기반	1 민주화운동 기념·정신계승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활성화						100
	2 민간·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공동 추진						0
	3 민주화운동 관련 실태조사와 정보 구축	•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 정보 구축,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120
합계								5,714

□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19).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 남춘호, 이성호. (2009). 「전북지역 민주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일상」. 한울
-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대구여성독립운동인물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15). 『민주화운동백서 위원회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한국민주주의운동사 1. 돌베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 「2022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 보고서」
- 박대길. (20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의회 조례 제정 공청회 자료집.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손호철. (2002).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 『기억과전망』, (1):57-67.
- 신지은. (2011). 장소의 상실과 기억: 조르쥬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232-256.
- 안병욱. (2010).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김정인 편)
- 완주군. (2020). 『완주군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 연구용역Ⅱ』.
- 정경운, 김원, 권명아. (2013). 문화/과학 북클럽 『광주, 여성』.
- 정성미. (2016).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 지역조사 활동의 비판적 검토와 나아갈 방향. 『지역사회연구』, 24(1):139-156.
- 정성미. (2019). 부산 지역 박물관의 생활문화자료 수집과 활용 증대 방안 – 구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구술전시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37:55-79.
- 정성미. (2020). 디지털 문화유산 ODA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문화재』, 53(4):198-215.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자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주성수. (2019). 개인화 시대의 생활민주화: 촛불혁명 이후 미투운동과 갑질저항 사례. 『시민사회와 NGO』, 17(1):3-40.
- 최재용. (2022). 갑오동학혁명은 왜 혁명으로 불릴까? 전북도민일보 오피니언(2022.5.15).
- 박순철, 함한희, 이정송, 정성미. (2018). 『인문학자를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즈』. 민속원 아르케.
- 현종철. (2017).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KDF REPORT: Issue and Review o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Shin, Gi-Wook, Paul Y. Chang, Jung-eun Lee, Sookyung Kim. 2007.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1970-1993): Stanford Korean Democary Project Report
- Tilly Charles. 2003. Inequality, Democratization, and De-Democratization. *Sociological Theory*, .21(1).

부록



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 연도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사(부문 운동사 포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2)가 발간한 『전북민주화운동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연도별 주요 사건을 요약 정리함

일시	주요 내용
1960.03.15.	마산시위(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 행방불명)
1960.04.04.	전국 대학교 가운데 최초의 시위 전대열은 4월 2~3일경 전북대교보사에 들어가 〈민주선언문〉을 철필로 등사. 4월 4일 당일 아침 타종과 함께 상대 앞 광장에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정치학과 학생들이 유인물을 뿌림. "부정선거 다시 하라", "기성세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교문을 향해 나아갔으나 진출입로 봉쇄로 교내에서 한두 시간 시위 후 해산함. 전북대생의 '4·4시위'는 개강일에 맞추어 계획·시도한 부정선거 규탄 시위임
1960.04.14.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당원 수십 명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4·4시위를 주도했던 전북대 정치학과 학생 등 20~30명의 대학생들이 이 집회에 참여함
1960.04.20.	전주지역 최초의 대규모 시위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달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금암동을 거쳐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함. 철길을 따라 가는 도중 전주공고, 전주농고, 신흥고 학생들이 합류함. 시청 앞에는 전북대 학생들과 각 고등학교 학생, 시위에 합세한 시민까지 합쳐 6~7,000명이 모였음. 전주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과 시민들은 350여 명가량 되었음. 시위는 4월 24일까지 계속되었으며, 4월 24일 4·19사건 희생학생 합동 추도식을 정점으로 잣아듦
1960.04.20.	원광대 등 대학생과 이리여고, 이리여상 등 고등학생 약 3,000명이 "부정선거 다시 해라", "학원의 자유를 달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1960.04.~ 1961.04.	1960년 4월 24일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은 '4·19 사건 희생 학생 합동추도식'을 거행하면서 '4·19사상자들을 위한 모금위원회'를 조직하고 모금활동을 실시함. '여명동지회'는 봉사활동 및 문학행사, 시회전 등을 개최함. 전북대 학생들은 '대학생 공명선거 추진 계몽단'을 조직하고, 도내 각 시군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민주적 선거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함. 이후 '4월 전북총학생단'은 결성 총회에서 '무지와 빈곤으로 황폐한 국민계몽, 멸공정신의 양양' 등을 결의함
1960.04.29.	군산 부두노조에서 간부들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함
1960.05.	전북대의 새로운 종학생회는 학원정화론을 내걸고 그동안 자유당 정권에 협력한 교수들의 퇴진, 학원의 자율 보장, 수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월말까지 학원민주화투쟁을 지속함

1960.05.05.	전주고 강당에서 약 300명 교사가 참석, 전주시중등교원조합 결성함. 교원 정치적 중립, 학원의 완전한 민주화, 교육행정의 부폐일소, 교육악법 일소 등 결의함
1960.05.07.	전 군산지구 노총 위원장(박길동)과 일파 배격을 주장하며 1,500여명의 노동자 참여하는 시위가 발생함
1960.05.07.	전주지구노동조합총연합회도 각 노조 위원장 및 상집위원 연설회의 개최하여 그동안 노동조합이 자유당의 어용단체에 불과하였다고 선언하고, 정당의 이용물이 되지 않을 것 결의함
1960.05.11.	5월 9일 전북 언론인 20여 명이 참여하여 전북언론인대회 개최를 합의 및 발기하고, 5월 11일 대회를 개최함. 개헌헌법 중 제28조 2항 언론자유 제약 조항 삭제 요구함
1960.05.18.	군산 고려제지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간부퇴진, 종업원에게 회사 주권 배당, 노동자 전원 복직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1960.05.21.	전주 12개 중·고등학교 대표 45명 참석, 전주시 교원노조 결성추진위원회 결성함
1960.05.26.	한국운수 전주자점 노조원은 체불 노임 지불, 어용노조 간부 사퇴 요구 시위함
1960.05.26. ~05.27.	전주 남부시장 상인들은 인정과세 폐지, 정실부과 반대, 악질 세무공무원 축출 요구 철시시위를 벌였으며, 전주세무서와 전주시청을 찾아가 각각 영업세 인하와 시장사용료 인하 등을 약속 받음
1960.05.26.	김제군 봉남면 농민 약 400명은 금평수리조합의 수문공사 및 재방 재공사 요구 연좌시위를 벌임
1960.07.04.	대한교원노동조합 전북지구연합회를 결성함
1960.07.09.	전주시 16개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주고 강당에 모여 초등학교 교원노동조합 결성하고 대한교육연합회 탈퇴를 천명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1960.07.14.	전북교원노조는 대의원대회 개최를 개최하여 문교부장관의 교원노조 불법 발언 취소 요구 및 교원노조 재산 처리, 교육법에 규정된 제 수당 지급 문제 등을 전국 대회에 제출할 안건으로 가결함
1960.08.15.	전주시 교원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경북지역 교원노조 간부 부당 인사이동문제 및 교원 사상문제, 교원에 부과한 세금인하 연판장 수집 논의. 교원노조 합법성에 대한 건의 및 계동활동 가결
1960.09.17.	전북교원노조는 전북도 공보관에서 교원노조 약화 기도 반대 전북궐기대회를 열고,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을 정권에 촉구함
1960.09.27.	전북교원노조는 전주고에 투쟁본부 마련하고, 초·중·고등학교 조합원 700여명이 불법화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 투쟁을 전개함
1960.09.28.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교원노조 전국대회에 약150명의 전북지역 대표 파견 단식 농성에 참여함
1961.02.24.	전주에서 전국 각도의 교원노조 대표와 전북지역의 각급 학교단위 교원노조 대표 40여명이 '한국교원노조 합동투쟁대회'를 열어, 학원 민주주의와 교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투장목표 제시하고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결의함
1961.04.13.	전북교원노조는 전주서중 음악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 2대 악법(반공임시 특별법, 데모규제법) 저지·규탄한다고 선언함
1961.04.19.	악법반대 전북도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에 참여
1961.05.16.	5·16 군사쿠데타

1963.03.22.	민정당 전북도당 중신의 전주·완주지구투쟁위원회 결성하고 결사투쟁 불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함. 3월 25일 전매청 앞 시위를 결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최초로 준비된 전북지역의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시도는 미수로 그침
1963.10.15.	제5대 대통령 선거 실시
1963.12.17.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
1964.03.25.	전북대 법정대 학생 80여명이 "대일굴육외교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본교 현관에 집결하여 시위를 시작함. 김종필 즉시 소환, 구속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라북도청 광장에 모여 농성함(상대와 농대 학생 가세).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27일까지 지속됨(전주시내 고등학생들이 가두행진에 참여). 이날 시위로 전북대 학생 5명 구속되고, 대학은 휴교를 시작함. 1964년 3월부터 시작된 한일회담 반대투쟁은 해를 넘겨 한일협정 조인 반대투쟁으로 전환하면서 1965년 8월까지 계속됨
1965.04.20.	전북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격렬하게 벌발함. 이에 전북대 와 전주교대는 4월 24일까지 휴교를 시작함
1965.06.25.	전주 신흥고 학생 500여 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한일협정 조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감행함.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는데, 이 사태로 학생 10여명과 경찰 7명이 부상을 당함
1965.07.04.	군산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전주와 이리에서는 국사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결의함
1965.08.23.	전북대 학생 1,000여명이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교내에서 삭발과 단식투쟁을 전개함
1967.05.03.	제6대 대통령 선거 실시
1967.06.08.	총선실시(공화당 130석, 신민당 44석, 대중당 1석 확보)
1967.06.10.	6·8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신민당 부안군자구당원들이 단식투쟁을 실시함
1967.06.11.	군산시민 3,000여 명이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실시함. 이후 6월 13일에도 군산시민 5,000여 명이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실시함
1967.06.15.	전북대 법대학생들이 휴교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여 23일까지 지속함
1967.07.05.	원광대 학생 300여명이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열고, 20여명이 단식동성에 들어감
1971.04.26.	전주 남문교회에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전북지부 지원 하에 전북공명선거학생참관인단 결단식이 개최되어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전북지부 인원단과 학생 50여명이 참석함. 전북공명선거학생참관인단은 85명의 규모로 구성됨
1971.04.29.	전북대 교양과정부 학생 500여명이 잔디밭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고, 학원사찰 중지 요구 등 6개 항목의 결의문을 발표함. 이어 4월 30일에 전북대 학생 850여명이 모여, 자유로운 서클활동, 학원 사찰중지, 선거참관 학생 제적문제 대한 언론의 자중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함. 집회를 마친 후 가두로 진출하여 공무원교육원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경찰기동대가 출동, 제지하자 거리에서 농성을 벌임
1971.05.19.	전북대 2,3학년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성토대회를 갖고, 당시 국회의장과 공화당 의장의 발언을 규탄함. 이어 21일에는 전북대 학생 1,000여명이 국회의장 허수아비 화형식을 갖고, 지역감정 망언 규탄과 학원의 자유, 구속학생 석방 등을 외치며 교문을 나서 금암동 파출소 앞 1.5킬로미터 까지 거리시위를 벌임

1972.10.22.	유신계엄하의 최초이자 유일한 시위 전주고 3년생이던 소병훈과 최규엽 등이 비상계엄 반대데모를 추진함. 방송실을 점거한 후 유신반대 반파소선언문을 낭독하고, 유신반대시위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위준비물을 반입하다 발각되어 선언문은 낭독하지 못함. 이에 운동장에서 시위를 실시하려 했으나 교사들의 강력한 만류에 의해 시위가 실패함
1972.12.13.	유신 치하 첫 번째 성직자 구속 피해자 포고령 위반혐의로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전주 남문교회 은명기 목사를 연행 및 구속함
1974.07.23.	전주 중앙성당에서 신부 30여명, 수녀 40여명, 평신도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학순 주교(천주교 원주교구장)와 사회정의 구협을 위한 특별미사와 철야기도회 개최를 개최함. 8월 1일에는 중앙성당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도회를 개최함
1974.10.14.	전북대 법대학생들의 농성(민청학련 구속자 석방투쟁)으로 16일간 휴강상태 발생함. 수업을 재개한 이후로도 11월 4일부터 다시 시위가 벌어지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무기휴강에 들어감
1974.10.29.	가톨릭센터에서 신부와 수녀 121명이 참여한 사회정의 구현 세미나를 개최하여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침묵행진을 벌임. 11월 11일에는 신부와 수녀, 신도 400여 명이 전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 촛불미사를 올리며 정권에 대한 항의를 계속함
1974.11.04.	전북대 법대, 문리대, 상대생 200여명이 징계학생 처벌 무효화,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교내 농성을 시작함. 다음날에는 700여명이 모여 교내시위에 이어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함.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이 휴강에 들어간 8일에도 농성을 벌였으며, 학교는 시위 농성과 관련해 학생들을 무더기 징계하였으며, 경찰은 학생들을 연행함. 이에 22일 전북대 의대 1학년생 54명이 처벌학생 구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실시해 의대 역시 휴강을 실시함. 하지만 이후 12월 9일 재개강을 하자마자 전북대 학생 20명이 처벌학생 구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으며, 다음날엔 철학과 학생 17명이 농성을 실시함
1974.11.07.	전북신문 기자들 언론자유수호 대책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구성함
1974.11.18.	전주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이 조국이 처해있는 당면문제에 관하여 울뜨레아(전진하자) 선언을 발표, 전동성당에서 전주교구 기톨릭대학생연합회와 중고등학생연합회가 조국을 위한 기도회를 공동 개최하고, 1,000명이 참석함
1975.07.08.	전북도경찰국이 김제 난산교회 강희남 목사를 강제 연행함. 연행 사유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선교활동자유수호위원회 주최로 연 기도회(1975.03.03, 김제 신풍교회)에서 한 "인권과 선교" 강연과, 이어 4월에 난산교회에서 한 설교, 그리고 전북노회 교육부 주최 청년수련대회(1975.07.07, 전주신흥교회에서 한 "공과사" 제하의 강연 내용 일부가 긴급조치 9호 내지는 반공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음
1975.10.21.	전주에서 10여 명의 신·구교 성직자가 경찰에 한꺼번에 연행. 20일 밤 개최된 월요기도회에서 행해진 신앙 간증 대화 내용, 또 이날 회람된 경과보고 유인물이 법규에 저촉 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었음. 유인물은 지학순 주교 사건의 개요, 김지하의 <양심선언> 배포 경위 등을 다루고 있었음. 23일에는 전주 성광교회 주일학교 교사 임영환이 추가로 연행됨
1976.03.04.	1976년 전북지역의 학생운동은 고등학생의 유인물 배포 사건만이 기록상으로 유일하게 확인됨

	전주농고 고영조는 당시 대학생 김금룡과 이해학 전도사로부터명동 <3·1민주구국 선언>을 전해 받고, 이를 뒤인 3월 6일 임실오류교회에 찾아가 밤새 등사기로 선언문을 찍음. 그 중 5,000장을 전주, 익산, 군산 등의 교회와 성당에 배포하였으며, 6일부터 19일까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마친 뒤에 주말에는 익산, 군산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3,000여장을 배포하였으나 결국 주민의 신고로 체포됨
1977.04.20.	4월 20일과 21일 전북대 학생 최인규, 손인범, 최갑성 등이 주동이 되어 전북대 캠퍼스와 이리, 전주시내 교회 등지에 유인물을 배포함.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매판자본 철수 등의 요구사항과 함께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은 수배 중이던 전남대 학생 정등룡이 작성하여 등사한 것임
1977.05.05.	김제 난산교회 강희남 목사가 경찰에 연행되어, 8일 만에 긴급조치 9호 및 반공 법,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
1978.02.28.	3·1절 기념예배를 막으려는 정권의 방해로 천주교 전주교구의 문정현, 김종택, 김영신 신부 등이 2월 28일부터 3월까지 각각 전주 비사별호텔에 연금됨
1978.07.05.	전주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하려던 전북지역 신부들은 1명당 3~4명씩 따라붙은 기관원들의 미행과 감시에 시달렸음. 이에 분노한 신부들은 가톨릭센터 3층 옥상에 올라 1시간 동안 기도회를 개최함
1978.08.16.	전국에서 전개된 대규모 학생시위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 1970년대 후반 전북 최대 가두시위(1주일 가두 농성투쟁) 가청 전국연합회는 전주시 한복판인 고사동 중앙교회에서 구속자를 위한 인권기도회가 열리게 되자, 이 기도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함. 대열이 전동선당 네거리에 도착하자,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박정희는 물러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며 차선으로 뛰어들어 행진하기 시작함. 전주시청 앞에서는 경찰과 1시간 동안 대치하였으며, 경찰 저지선을 우회한 150여 명은 전주역 앞으로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벌이다 중앙교회로 들어감. 이날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1시간 넘게 벌어진 가두시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이날 시위로 총 98명이 연행되어 영장 없이 7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음. 중앙교회에 도착한 시위대는 교회 전체가 경찰 병력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기리로 진출하지 못하고 연좌농성에 들어감. 경찰 병력에 저지당해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은 대회장 근처 남문교회로 모여들어 연행된 청년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함. 농성은 경찰의 봉쇄 속에서 8월 22일 까지 1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외신을 통해 전파됨. 청년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전주에서는 천주교 신부들이, 서울에서는 EYC 회원 80여 명이 기장 청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단식기도회를 가지며 지원함. 21일 전국에서 모인 개신교 목회자들과 청년들까지 모두 1,000여 명이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으며, 이후 노회 대표 150여 명이 대책을 협의함
1979.09.10.	천주교 정의구현 준주교구사제단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네 단체가 전주 중앙성당에서 개최한 '인권과 교원 수호를 위한 전국 기도회'에는 가톨릭 성직자, 신도 뿐 아니라 재야 인사와 대학생들까지 모두 1,800여명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기도회 후 전동성당까지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1,000여 명이 성당 안에 모여서 철야기도회를 가짐
1979.12.05.	전북대 학생 1,500여 명이 교내 집회를 열고, <민주학생선언>을 배포하며 시위를 벌임. 주된 구호는 학생회 부활, 구속학생 석방과 복교, 어용교수 퇴진, 학원·언론의 자유 보장 등이었음. 이날 시위와 관련해 3명이 연행되고, 여러 학생이 도피하게 됨. 군산대 학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다 연행됨

1980.03.28.	전북대학교 서클연합협의회, 여학생협의회, 과대표 협의회를 총괄하는 학생자치기구로 '전북대 학자주'가 발족 이후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등 전북지역 내 모든 대학들이 학자주를 결성하여 4월과 5월초까지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고, 학원민주화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함
1980.05.02.	5·18 민중항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포된 최초의 대학생들 전북대 학생 6,000여 명은 처음으로 가두로 진출하여 전북도청 앞까지 시위를 벌임. 어용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전북대 총 학생 수가 1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사위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음. 시위대열은 전북대 앞 팔달로에서 금암동 남도주유소까지 이어졌으며, 전북도청 앞까지 대규모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구타 및 부상을 입게 됨. 이후 총 학생회 7명은 부상학생을 위문하러 병원에 갔다가 광무 상무대 계엄사에 구속·수감되어, 5·18 민중항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포된 최초의 대학생들로 기록됨. 5월 2일 시위를 시작으로 전북대 학생들은 철야농성과 가두시위를 지속하였으며,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회관과 의대 합동강의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전북대 학생회관 농성은 이날부터 본격화됨
1980.05.06.	전북대 총학생회는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연행학생 석방과 총장·어용교수 퇴진, 복직 교수, 복적 학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내에서 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함
1980.05.07.	원광대 학생 3,000여 명이 교내 도서관 앞에 모여 민주화촉진대회를 열고, 시국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결의문을 채택, 교내시위를 벌임. 이날 원광대 총학생회는 9일까지 3일간을 제1차 민주화촉진기간으로 정하고, 교내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성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8일 오전 교내에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와 경찰 병력과 충돌함. 학생들은 이리역 광장까지 진출해 연좌하며 시국성토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함. 이후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구속됨
1980.05.08.	군산실업전문대 야간부 학생 300여명이 학도호국단 재편과 야간 행정업무 정상화, 취업담당교수 임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1980.05.10.	군산대 학생들 500여 명이 교내 강당에 모여 시국성토대회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함. 12일에는 군산대와 군산실업전문대, 서해공업전문대, 군산수산전문대, 개정간호전문대 등 군산지역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이 군산대에 모여 시국을 성토하고 비상계엄이 확대되면 군산역 광장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함
1980.05.12.	원광대 학생들은 교내 집회를 열어 연행된 총학생회 간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함. 이어 14일 함석헌 초청 강연회를 마친 뒤 다시 3,000여명이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학생들은 이리경찰서 앞까지 진출하여 연좌농성을 벌였음. 이날 원광대교수협의회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행학생 석방과 교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생들을 보호하기로 결의함
1980.05.12.	전주대 학생들은 재단퇴진을 위한 총학생회 궐기대회를 열어 당시 학원이사장의 퇴진 각서를 받아냄. 이날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거부한 채 800여 명이 교내 강당에 모여 영생재단 퇴진, 어용교수 자진사퇴, 복지시설 개선 등의 교구사항을 내걸고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이사장 집으로 몰려가 새벽까지 농성을 벌임
1980.05.12.	전주공업전문대 학생들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재단퇴진 요구를 내걸고 중간고사를 거부하며 5월 12일과 13일에 교내집회를 개최하고 농성을 벌임

1980.05.13.	군산대 학생 500여 명이 교내에서 시국성토대회를 열었으며, 15일에도 600여 명이 교내 강당에 모여 민주화토론회를 연 뒤, 개정간호전문대 학생들과 합류해 시청 앞 광장에서 700여 명이 모여 "계엄철폐"와 "언론 각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임
1980.05.14.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등 학생들이 전주, 이리, 군산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며 계엄철폐를 외침. 이날 전주에서는 학생과 경찰 병력이 충돌해 학생 61명, 경찰 4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1980.05.14.	전북대생 3,0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전북도청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라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임. 15일에는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총집결투쟁에 시민들이 결합해 2만 명이 운집함
1980.05.15.	대학생 총결집투쟁과 시민 결합, 2만 여명 참여 대규모 시위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등 전북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 총 5,600여 명이 총 집결하여 시위를 전개함. 이날 시위에는 교수 20명이 함께 나와 시위대를 보호함. 시민들도 시위에 가세하면서 시위대는 고사동 오거리에서 2만 여명이 되었으며, 전주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1980.05.17.	전북대 학생회관 농성현장에서 다음 날 데모가로 "흔들리지 않게" 등의 노래를 녹음함. 학생회관에 무장군인들이 난입하여 건물을 살살이 뒤져 학생들을 끌고 감
1980.05.18.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 이세종 열사 5월 17일 밤과 5월 18일 새벽에 전북대에서 공수부대원에 의해 체포된 학생은 34명이었으며, 전주대에선 10명, 군산대 5명, 전주공업전문대 1명 등이 연행됨. 5월 17일을 전·후하여 전북지역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전북대 이세종 열사가 사망함
1980.05.	임균수 열사(원광대 2학년), 광주에서 사망 임균수와 오세현이 피격·사망함
1980.05.24.	전주시내 전역에 두 종류의 유인물이 배포됨. 하나는 전북대 학생들이 제작한 <시민에게 드리는 글> 이었으며, 또 하나는 김현장이 작성한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이었음
1980.05.27.	전주 신흥고 학생들이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신흥고 학생 1,500여명 전체가 운동장에 집결하여, "오 자유!" 등의 노래를 부르고, "비상계엄 철폐", "유신잔당 척결"등의 구호를 외침. 시위대열은 교문을 돌파하지는 못하였으나, 운동장에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시위를 지속함. 이날 시위 이후 신흥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휴업함
1980.06.24.	5·17쿠데타 이후 휴교 중이던 전국의 대학 중 전북대 의대가 가장 먼저 개강함.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몇몇이 구호를 외쳤지만 곧 연행됨. 전국의 의대 중 가장 먼저 개강했던 전북대 의대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다른 의대의 개강도 연기됨
1980.06.25.	공수부대원(추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임을명) 태러 5월 21일 전북 인산군 여상면 연산리 여산천주교회에서 박창신 주임신부가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강론을 진행하면서 이를 옥외확성기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림. 이에 6월 25일 밤에 공수부대원으로 보이는 괴한 4명이 교회 사제관에 침입해 박창신 주임신부와 신도 임을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라짐
1981.12.	전북대 캠퍼스에서 전북대 학생 정승룡이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을 배포하다가 구속됨
1982.06.08.	전북대 비사벌 축제 기간에 전북대 2학년 이진일, 신은채, 신엽성 등이 강당에서 시위를 주동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등의 저지로 구호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 못하고 연행됨
1982.11.06.	전북대 학생의 날 기념 시위: 나무 위 시위 시위 주동자인 전희남이 과도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이 나무에 올라간 허정이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음. 이후 32명이 스크럼을 짜고 정문 바로 앞까지 진출함.
1982.11.25.	오송회 간첩단 사건 도경찰국은 군산제일고 현직교사 8명과 전직교사 1명 등을 오송회라는 용공이적 단체를 구성하였다며, 모두 법정 구속함. 이들은 2002년 1월 18일에서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음
1983.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대학생 5명(전북대 신연섭, 서강대 김호경, 성균관대 김현철, 서울대 지영근, 서울대 송호진)이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재소자 인권투쟁을 실시함
1983.04.	이민우와 신귀종이 제 몸을 칼로 긋는 자해를 해가며 시간을 번 끝에 대중시위를 조직함
1983. 말.	학원자율화조치 발표
1984. 02.	학원에 상주하던 사복경찰 병력 철수
1984.03.	전주대 학생들이 '1984년 3월 갑오농민전쟁 90주기 기념행사'에서 갑오농민전쟁을 주제로 한 상황극 재연과 시위를 벌임. 이어 4·19 기념행사와 5·18 기념행사 때에도 문화행사를 계기로 삼아 시위를 벌임
1984.04.26.	전북대 300여명의 학생들이 서클연합회 결성식 개최를 개최하고, 대학 측에 써클연합회 공식인정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임
1984.04.30.	전북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됨
1984.05.07.	전북대 서클연합회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가 전북대 학원민주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함
1984.05.17.	전북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북대 서클연합회 대표 등 50여 명이 '고 이세종 추모제'를 열고 교내 침묵시위를 벌임
1984.05.24.	1980년 이후 4년 만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교문 밖 진출 가두시위 400여명의 학생들이 마당극 '장산곶매'를 관람한 뒤, 교내시위를 시작으로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진출함. 팔달로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경찰병력과의 대치가 발생함
1984.2학기 초	전주대와 원광대 등에서도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됨
1984.08.18.	전국 최초로 지역 연합운동체인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창립됨. 전북민협 결성으로 개신교계, 천주교계, 노동운동계, 농민회가 하나로 뭉쳤으며, 전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이 부문운동으로 확산됨
1984.09.05.	전북대에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방일반대시위와 철야농성이 벌어짐. 5일 80여명의 전북대 학생들은 고 이세종 추모식을 시작으로 '민족·민중·민주 부활제' 집회를 개최함. 이후 가두진출이 좌절되자 대학본부로 몰려가 민주학생회 승

	인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6일에는 "전두환 방일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400여명의 시위대열이 1,000명으로 불어나면서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함. 밤이 되어서는 마당극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철야농성에 돌입함
1985.05.07.	전북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부활대잔치를 열고, 총학생회 합법성 쟁취 투쟁과 5월 투쟁에 나섬
1985.09.13.	전북대 민주광장에서 전북지역 4개 대학(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의 1,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민중민주화운동 단합 성토대회' 개최됨. 본 대회에는 집회가 끝난 뒤 교문 진출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전투경찰과 충돌해 격렬한 투석전 및 최루탄 공방이 벌어짐
1985.12.02.	전북대 학생 5명(오미숙, 문성섭, 이재규, 최낙창, 김영숙)과 전남대 학생 4명으로 이뤄진 호남지역학생연합 삼민투 성원들이 광주 미문화원 원장실을 기습하여 점거 농성을 실시하였으나 4시간 만에 경찰 병력에 진압됨. 다음날 전북대에서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회관 광장에 모여 '광주 미문화원 점거농성 투쟁 보고대회'를 열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1986.04.03.	전주시 중앙동 임마누엘교회에서 전북민주헌법쟁취위원회가 결성됨. 천주교, 개신교계 성직자들과 신도, 재야인사, 청년학생 등 150명은 결성식을 마친 후 거리 행진을 벌이고, 전주시 전동구 성모병원 건물 3층 전북민협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1986.05.	전북민협이 문화제 기간 전주 가톨릭센터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대중들에게 폭로함
1986.05.20.	전북민협은 5월20일부터 23일까지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5월해방제를 치르면서 광주학살 관련 비디오 상영, 광주 유족 증언 청취, 문화제 행사 등을 통해 5월 31일의 '민주헌법쟁취 민중대회'를 홍보하고 전북지역학생협의회와 농민·노동단체 등을 통해 대회 개최를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만 매를 배포함
1986.05.31.	1980년대 당시 전주에서 개최된 집회 중 가장 많은 인파 운집한 대회 개헌추진위원회는 전북학생회관에서 현판식 및 결성대회(민주헌법쟁취민중대회)를 개최함. 이날 참석한 시민은 5만 명(경찰추산3만 명)을 넘어섰으며, 참석자 모두가 "독재타도", "미제축출" 등을 외치며 가두행진에 참석함. 본 대회는 대중들이 개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1986.10.	전북대 전용균, 이광재, 신종백은 '해방 전북'이라는 제호의 지하신문 8,000매를 발간함. 이에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됨
1986.10.09.	군산 월명공원에서 신민당은 장내외 병행 개헌투쟁의 일환으로 지구당단합대회의 명목으로 직선제개헌추진대회를 개최함. 참석자는 50~60대 노년층으로부터 20개 초반의 학생까지 다양했으며, 1만여 명이 참석함. 학생들은 대회가 끝난 뒤 "직선제 개헌", "사면복권"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임
1986.11.12.	전북대 교내에서 전북지역 6대학 호우회가 공동으로 개최를 도모했던 '금강산 댐 건설 및 용공작경세력 규탄 결기대회'를 전북대 학생들이 저지하는 상황에서 학생 4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됨. 이에 전북대 학생들은 4차례에 걸쳐 비상총회를 열고, 5일 동안 수업을 거부한 채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연행 학생 석방과 제적·수배 철회를 요구함
1987.01.14.	박종철 고문사망 사건
1987.02.07.	전주시 고백교회에서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시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도하여 '

	고 박종철 군 국민추도대회'를 개최하여 100여명이 참여함. 이밖에 군산 오룡동성당과 이리 구세군영문에서도 추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남원과 김제 등 다섯 개 지역 신민당사에도 분향소가 설치됨
1987.03.03.	전주 성광교회에서 박종철 49제를 맞아하여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대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추모대회를 마친 학생들 300여명이 평화적인 행진을 시도하기 위하여 전주시 경원동 서울 신탁은행 앞에 집결하였으나 경찰 측에서 최루탄을 난사함. 학생들은 재차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는 과정을 지속하여 관통로사거리를 확보하고, 팔달로를 따라 전동성당까지 행진하여 마무리 집회를 성사시킴
1987.03.09.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천주교 전주교구의 문정현, 이수현, 박창신 신부가 3·3대회 폭력 제지 규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농성을 돌입함
1987.03.14.	전주 성광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소속 은명기 목사, 신삼석 목사, 김경서 목사, 교인들이 고문과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함. 본 단식농성은 3월 23일 전주 성광교회에서 개최된 제71회 종회와 제5차 교회와 사회위원회 행사로까지 이어짐
1987.03.17.	전북대 교수 76명이 시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교수를 승진탈락 시킨 사태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 위해 김원섭 총장에게 건의서를 보내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함
1987.04.09.	전북대 종학생회는 '참스승님 부당인사 공동조하위원회'를 결성하고, 부당인사에 대한 학교의 책임소지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학생 44명이 농성에 돌입함
1987.05.12.	전북대 종학생회는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12일에서 14일까지 '배영동 교수 승진 누락 폭로대회'를 개최하고,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철야농성에 돌입함
1987.05.18.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5·18추모 및 광주민중항쟁 계승대회가 전북민협을 중심으로 개최됨
1987.05.21.	전북지역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교계와 재야 인사, 재야 정치인 등이 대거 참여한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전북위원회'가 결성됨(이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북본부로 개칭)
1987.06.08.	전주YMCA중등교육자협의회 교사 김윤수 등 현직 교사 17명이 전두환 정권의 개헌유보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함
1987.06.10.	고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고 박종철 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를 덕진성당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덕진성당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종교계인사 300명은 전북일보사 앞에 집결하여 연좌농성을 벌이기 시작함. 전북대 학생 300여 명도 교내에서 6·10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출정식을 마치고 학교 정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가능회원 등 70여 명도 가톨릭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가두행진을 진행해 시내의 시위 대열에 합세였으며, 성직자, 재야인사, 청년 등 50여명은 전주시외버스정류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전북일보사 앞 시위대로 합류함. 600여명으로 늘어난 시위대열은 백제로사거리에서 덕진성당에서 치르지 못한 도민대회를 개최함. 집회군중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군중 외에도 2,000여 시민이 집회장 주변을 에워싼 채 함께 집회에 참여함 군산에서는 월명동 성당 안에 시민 300여 명이 모여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군산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성당 주위에 운집한 시민과 함께 약 2,000여명이 시청을 향해 평화행진을 시작함. 시위대가 민주당사 앞을 지날 때 시위 군중은 1만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됨
	이리에서는 별도의 집회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주와 군산 지역에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원광대 학생 1,000여명이 학내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시내로 나와 집회를 시작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1만여 명이 집회 대열을 형성함
1987.06.11.	국민운동전북본부는 가톨릭센터 안에 난입하여 최루탄을 발사한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함. 전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명도 4·13조차 철회와 합의개헌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1987.06.11.	원광대 학생들이 뉴타운(구 삼남백화점) 앞에서 시작했던 시위가 시내 곳곳으로 퍼지며 학생과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7,000여 명이 호헌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임. 이후 원광대 학생들은 6월 18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내집회를 이어감. 6월 18일에는 최루탄 추방의 날을 맞아 이리 시민 3,000여명과 함께 창인동성당에 모여 가두행장을 이어감
1987.06.12.	전북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 70여 명이 610도민대회 보고 및 최루탄 폭력 규탄 대회를 열고 교내시위를 벌임
1987.06.14.	중부교회에서 1,500여명의 목회자와 신도, 시민들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노송동 전성교회 까지 행진함
1987.06.19.	전북대 학생 500여 명이 전주시내 중심가인 팔달로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대오를 형성함. 순식간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 군중이 3,000여명으로 불어남. 평화적으로 자체 집회를 형성해 호헌철폐와 민주쟁취의 당위성을 설파함. 집회를 마친 후 도청을 향해 행진을 돌입함. 대오를 둘로 나누어 한 무리는 완산교 쪽으로 진출하여 서학동파출소를 공격하고, 한 대열은 중앙성당 앞에 모여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토론회를 개최함
1987.06.19.	군산대 학생 50여 명이 군산역과 미원동에 집결하여 해안파출소에 기습적으로 투석을 하는 것으로 투쟁이 시작됨. 이후 이 시위대가 시청 앞에서 시민 300여 명과 합류해 집회를 진행함. 이들이 가두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사이 군산대 학생 80여명이 오룡동 성당에서 철야농성을 단행하였으며, 이들은 이튿날 시청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함
1987.06.20.	전북대 학생 700여명이 팔달로는 점거한 채 집회를 개최함. 조흥은행 앞 대로에서 신민과 학생 3,000여명이 경찰과 접전을 벌임. 시위대는 서중로터리로 이동하여 7,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정치집회를 개최함 이리에서는 3,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뉴타운백화점 앞에서 결집하여 창인동 성당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진행함. 창인동성당 앞에서 '범이리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투쟁을 지속함
1987.06.21.	학생들이 조흥은행, 중앙시장 등지에서 산발적 시위를 시작함. 오후8시쯤 시민들이 거리로 밀려나와 시위에 참여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6,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팔달로를 거쳐 전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임. 이후 전동성당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자정까지 연좌농성을 벌인 후 시한부 철야농성을 시작함 이리 중앙교회에서 이리익산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나라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개최됨. 12개 교단 22개 교회의 목회자, 신도, 시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기도회에는 시민들의 참가가 계속 이어짐. 설교가 끝날 무렵엔 1만여 명이 교회와 인근 거리를 가득 채움. 기도회가 끝난 후 목회자 200여 명을 위시해 1만여 명의 시민들은 '최루탄 추방을 위한 범이리시민 평화시위 행진을 진행함
1987.06.22.	도내 대학생 7,000여 명은 전북대 민주광장에서 '호헌 철폐와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전북대 학생 총궐기촉구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함. 기말시험과 조기방학을

	<p>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가두시위를 벌임. 시민들이 대오에 합류하여 군중은 1만 5,000여명으로 불어남</p> <p>원광대 학생 1,000여 명이 뉴타운백화점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투쟁이 전개됨</p>
1987.06.23.	<p>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 코아백화점 앞에서 시민과 학생들 1만여 명이 대오를 형성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1차 민주시민 시국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관통로사거리에서 국민운동전북본부가 개최한 시국토론회에 참석함. 더불어 전동성당에서는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주최로 '나라의 민주화운동 기도회'가 개최됨</p>
	<p>이리 시민과 학생 5,000여 명이 이수현 신부를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창인동성당에서 집회를 개최함. 한편 이리 공난 내의 후레아훼손 노동자 등 200여 명도 귀금속단지 후문에서 시위를 벌였고, 고교생 15명도 화염병을 들고 경찰과 대립함</p>
1987.06.24.	<p>전주백화점에서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등 전주시내 3개 대학 제대복학생 100여 명이 예비군복을 입고 "군부독재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연좌시위를 개최하여 제대복학생 49명이 연행됨. 이날 오후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학생 2,000여명과 시민들이 코아백화점 앞에서 연좌하여 '민주개헌과 민주정부 시립을 위한 실천대회'를 개최함(1만 5,000여명 참가). 대회 중간에 마당극 공연과 해방춤 등을 추는 등 이제까지와는 달리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으로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문화행사가 끝나자 시위대 1만여 명은 관통로사거리와 오거리 사이에서 시위를 벌임</p>
1987.06.25.	<p>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한일신학교 등 도내 7개 대학 학생 6,000여명이 전북대 민주관장에서 '전북지역학생협의회'를 결성하고, 예정된 집회를 성사시키고자 가두로 나선다. 하지만 집회장인 코아백화점 앞 광장을 경찰이 점거하고 있어 시민들과 학생들은 오거리 한일은행 앞길에서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연좌시위에 들어감. 이후 코아백화점 앞에서 예정된 집회를 성사시켰으며, 집회를 마친 후 다시 오거리로 이동하여 정리 집회를 가진 후 해산함</p>
	<p>이수현 신부 폭행 사건을 규탄하며 창인동성당에서 '성직자 집단폭행 및 최루탄 발사 규탄대회'를 개최함. 대회에는 성직자와 신도 1,000여명이 참가였으며, 시가 행진을 벌인 후 집회를 종료함. 하지만 일부 학생과 청년들이 시내에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해 시청과 세부서 일부가 불탔다</p>
1987.06.26.	<p>국민운동전북본부의 주최로 전주 조흥은행 앞 팔달로에서 '민주헌법쟁취 전북도민 평화 대행진'이 개최됨. 이날 평화대행진에는 군 지역에서 온 농민들까지 대거 참여함. 1,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조흥은행 앞에서 모여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나중에는 중고등학생까지 가세하면서 시위대는 2,000여명으로 불어남. 관통로 네거리에서 '민주헌법쟁취 전북도민 평화대행진' 발대식이 시작되자 시민들의 수는 1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음. 발대식이 종료된 후 서중 앞 로터리까지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이 무렵 군중은 10만 여명으로 증가함. 이후 서중 로터리 앞에서 시국토론회를 개최함.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 시위를 전개한 후 시위대가 해산함</p>
	<p>군산에서는 30여명의 목회자와 600여명 신자가 성광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함. 그와 동시에 동방생명 앞에서 학생과 시민 2,000여명이 대오를 이루어 시청 방면으로 행진함. 이후 시민들이 대열에 추가 합류하여 시위 군중은 1만여 명으로 증가함. 이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학동 방면에서 시위를 벌인 후 경찰서 앞에서 '폭력 경찰 규탄대회'를 개최한 후 역전을 향하여 행진한 뒤 kbs 앞에서 1</p>

	만 3,000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왜곡 및 편파보도를 규탄함. 이후 역 광장에 모여 1만 2,000여명의 군중들이 집회를 자속한 후 자진 해산함. 이후에도 청년 학생 등 3,000여명의 시위대는 미원동 사거리까지 행진하여 연좌시위를 벌임 이리에서는 '민주현법쟁취 국민운동 이리익산지부' 지도부와 시민 50여명이 창인동 성당에서 평화대행진을 개최함. 제일은행사거리에 모인 집회대열은 도합 1만 5,000여 명에 이를
1987.06.27.	민주현법쟁취 국민운동 군산옥구 지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생 8,000여명이 민주화 행진을 시작함. 경찰서와 민정당사 앞에서 현 정권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KBS 앞에서 편파보도를 규탄함
	대학생 5000여 명이 이리 주요 시가지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으며, 제일은행 앞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함
1987.06.28.	군산 동방생명 앞에서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진나루 풍물패들이굿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모았으며, 2,000여 명의 시위 군중이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다 명산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1987.06.29.	청년 30여 명이 군산 명산동 사거리에 집결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작 시청 앞 광장에도 1,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연좌시위를 벌였고, 특히 미군부대 주변의 기지촌 여성 4명이 태극기를 들고 대열에 합류함
1987.06.29.	이리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됨. 학생들이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다가 학생 4명이 연행됨. 학생과 시민들이 뉴타운백화점 사거리에서 경찰의 폭력행사를 규탄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함
1987.12.09.	500~600명의 학생들이 노태우 유세 저지를 위한 출정식을 가짐
1987.12.10.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저지되는 전국의 유일의 사례 전주역 광장에서 노태우 후보가 유세를 가질 예정. 각 대학의 유세저지 투쟁위원회 소속 학생들과 EYC 전주지구협의회 회원들이 곳곳에서 "노태우 물려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이끌어 유세를 저지함. 이날 공식집계로 시민과 당원, 학생, 경찰 등 14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학생과 청년 등 44명이 연행됨
1987.12.16.	전주지역 대학생들과 국민운동전북본부 회원 500여명은 전주 팔달로 일대에서 "이번 대선은 원칙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임. 이날 오후 이리에서도 대학생들이 50~60명씩 거리로 나와 구로구청 사태 등 부정선거를 고발하며 산발적 시위를 벌임. 대통령선거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18일과 19일에 이어 24일까지도 전주와 이리시내 등지에서 계속됨. 특히 19일에는 가두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파출소 등을 습격하기도 함
1988.02.22.	전북학협 소속 대학생 50여명이 전북대 1학생회관 앞에서 '대통령 취임 및 집권 반대 투쟁기간 선포식'을 갖고 25일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함
1988.05.15.	조성만 열사(김제출신, 해성고) 투신 조성만이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을 물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투신. 조성만은 1964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를 졸업해 조성만의 죽음은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세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8.05.17.	민주현법쟁취 국민운동 전북본부, 전주민주화운동협의회 등 단체들과 도내 대학 학생들은 5월 제 행사와 함께 조성만 추모집회를 열고, 일부가 가두로 진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임. 이날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한일신학교 등 도내 7개 대학 학생 1,8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전북대 학생 50여명은

	교내에서 철야농성을 벌임. 한일신학교 학생 100여명과 전주대 학생 50여명은 교내 집회를 마친 뒤, 시내 관통로에 나와 5·18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벌임
1988.05.18.	전주 해성고 강당에서 동문, 교사, 재학생 등 1,500여명이 참석하여 조성만 추도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 강당과 도내 각 대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함. 도내 7개 대학 학생 3,000여 명이 광주영령 및 고 조성만 추모제를 개최하고 "광주학살 진상 규명"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교내외 시위를 벌임. 대학생들은 시민들과 전주 전동성당, 이리 창인성당, 군산역 광장 등에서 연합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전주 팔달로에서는 경찰 병력과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산발적 시위를 벌임
1988.05.20.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고 조성만군을 추모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함
1988.06.07.	전북지역 대학생들은 610 남북학생회담을 앞두고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함
1988.06.09.	전북대, 우석대, 전주 한일신학교 등 3개 대학 학생 1,000여명은 전북대 제1학생회관 앞에서 6·10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및 출정식을 가진 뒤, 정문 진출을 시도함.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음. 이날 전북대 총학생회장 소주형 등 대학생 3명이 시위 도중 부상을 입음. 이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리는 '청년학도 결의대회'에 참석하려 상경하는 대학생 121명을 연행하였으며, 이중 103명을 전주 북부, 군산, 이리 경찰서에 가두었음. 또한 전주 전동성당에서는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민주연합이 주최한 6·10남북학생회담 범도민 지지결의대회가 열림. 집회 참가자들은 팔달로와 관통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함
1988.06.10.	전북대, 원광대, 전주교대, 한일신학교 등 도내 4개 대학 학생 700여 명은 각각 6·10남북학생회담 지지 결의대회를 가진 뒤 가두진출을 시도하며 경찰 병력과 공방을 벌임. 전주 한일신대학교 학생 100여명은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6·10남북 학생회담과 조국통일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개최하고, 식발 단식기도에 들어간 가운데 시위를 벌이다 해산함. 교내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전주지역 대학생 200여 명은 전주시내 관통로, 팔달로, 오거리 등에서 산발시위를 벌이다 전주 코아백화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에 들어감. 이후 70여 명의 학생들은 전주 중앙 성당에 모여 철야시위를 시도하다 해산함
1989.01.14.	전주시 전동 남문교회에서 도내 노동, 농민, 종교, 여성 등 10여 개의 부문운동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이 결성됨. 전북민련 창립으로 전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주단체들은 통합·단일화됨. 전북민련은 창립되자마자 반정부 시위와 민생투장현장 지원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임
1989.02.18.	전민련 이부영 상임의장, 전북지역 재야 인사,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서노송동 코아백화점 앞 광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개최하고, 18일부터 27일까지를 '현 정권 탄도와 부시 미대통령 방한반대 투쟁기간'으로 설정함. 그리고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처간, 미국 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반민주 악법 철폐 등 4항을 결의함.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독재정권 탄도"등의 구호를 외치며 팔달로를 따라 고사동 전북민련 사무실까지 400여 미터가량 가두행진을 벌인 뒤 현판식을 가짐
1989.04.13.	전북민련과 전북인권교선교협의회, 전북기독교사회운동연합 등은 대학생들과 함께 문익환 목사의 귀국과 관련하여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사무실에서 문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함. 전북지역의 학생운동 대표조직 이었던 '전북지역학생협의회'는 전주 우석대에서 '문 목사 환영 및 현대중공원 공권력 개입 규탄투쟁대회'를 개최함. 학생들은 교문 진출 및 호남고속도로 점거를 시

	도하며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임
1989.08.15.	8월 15일을 전후로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민련의 8·15통일염원축전, 범민족축천추진 전북본부의 범민족주전, 8·15통일예배가 개최됨
1989.08.21.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민주화와 통일 미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함
1990.03.22.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5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학생연합이 발대식을 진행함. 전북지역학생연합은 전북학협을 탈퇴한 뒤 또 다른 학생조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함
1990.04.04.	전북대 총학생회는 반민중적 3당 야합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아가 4월 6일에 전북지역민중민주주의학생연합 발대식을 가짐
1991.05.01.	서울 명지대 강경대 폭력살인 이후 5월 1일을 전후해서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한일장신대 학생들이 거의 매일 거리로 나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농성을 벌임. 이수현 신부 등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소속 신부30여 명은 강경대 사망사건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전북지역 민주화교수협의회(8개 대학 130명)은 성명을 발표하며 "노내각 총사퇴, 노 대통령 대국민 사과, 내무부장관 등 관련 책임자 구속" 등을 주장함
1991.05.03.	13개 대학 학생 3,000여 명이 전북대에서 전북학협 제5기 출범식을 연 데 이어, 9일에는 15개 대학 학생들이 이를 동안 동맹휴학을 시작함. 이어 14일 전북학협 소속 전북대 학생 15명이 신민당 전북도지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자당 해체와 신민당의 투쟁 참여"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 15일에는 전북민족문화학인협의가 <오월을 목 놓아 통곡한다.>는 재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주관으로 전주 성광교회에서 개최됨
1991.11.30.	전북학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등 도내 6개 단체로 구성된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 전북본부' 등의 연대활동을 기반으로 11개 지역 민주화운동단체, 대중조직이 연합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이 발족됨. 전북연합은 "앞으로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기층 민중생존권 쟁취,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대중적 합의 도출, 경제개혁투쟁,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함
1992.02.23.	전북연합은 '민자당 심판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도민대회'를 강행함. 노동자, 농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전북대~팔달로~충경로~다가공원까지 가두행진으로 이루어짐. 이후 전북연합은 1999년 2월 제7기를 끝으로 자체 해산할 때까지 전북지역의 연합운동을 이끌

주 : 전북지역 내 사건은 아니더라도 전북지역 주요사건에 영향을 준 전국적인 사건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표기

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2). 「전북민주화운동사」를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

2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여 기념하고 그 정신을 현재에 계승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지를 통해서 확인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장세길 연구위원(063-280-7173)
문의 : 공동연구자 : 신지원 전문연구원(063-280-7142)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기념 및 정신계승의 정의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2조)
- 민주화운동이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A.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A-1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 __① 투쟁과 쟁취 __② 대립과 갈등 __③ 혁신과 개혁
__④ 자유·평등의 보호 __⑤ 국가·사회 발전 __⑥ 기타 ()

A-2 귀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부족한 수준이다	보통이다	훌륭한 수준이다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 | |
|-----------------------------|-----------------------|
| ① 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호하는 운동 | ②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 |
| ③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는 운동 | ④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주장하는 운동 |
| ⑤ 지역사회와의 발전을 견인하는 활동 | ⑥ 기타() |

A-4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으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고 증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A-5 귀하는 다음의 보기 중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 해주세요

- | | |
|-------------------------------|------------------------|
| __① 반독재투쟁(4·19, 5·16, 6·10 등) | __② 노동운동 |
| __③ 농민운동 | __④ 여성운동 |
| __⑤ 통일운동 | __⑥ 진보단체의 시민운동(촛불시위 등) |
| __⑦ 보수단체의 시민운동(태극기부대 등) | __⑧ 인권운동 |

A-6 귀하는 다음의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독재투쟁(4·19, 5·16, 6·10 등)	①	②	③	④
노동운동	①	②	③	④
농민운동	①	②	③	④
여성운동	①	②	③	④
통일운동	①	②	③	④
진보단체의 시민운동(촛불시위 등)	①	②	③	④
보수단체의 시민운동(태극기부대 등)	①	②	③	④
인권운동	①	②	③	④

B.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B-1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조금 안다
-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B-1-1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어떤 경로로 알고 계십니까?

- | | |
|--------------------------|----------------------------|
| ① 교육(학교 교육, 시민강좌 등)을 통해서 | ② 언론을 통해서 |
| ③ 주변 지인을 통해서 | ④ 관련 영상(다큐,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
| ⑤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 ⑥ 정당 활동 혹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
| ⑦ 기타() | |

B-2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다음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3·15 부정선거 관련 전북대 시위(전국대학 중 최초)	1960.4.4 ①	②	③	④
전주고 학생들의 비상계엄 반대시위: 유신계엄에서 최초 이자 유일한 시위	1972.10.22 ①	②	③	④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사망	1980.5.18 ①	②	③	④
임군수 열사(원광대학교 2학년) 광주에서 사망	1980.5.21 ①	②	③	④
공수부대원(추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 테러 사건	1980.6.25 ①	②	③	④
오송회(五松會) 간첩단 사건: 군산제일고 현직교사 8명과 전직 교사 1명	1982.11.25 ①	②	③	④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1987.6.10 ①	②	③	④
노태우 대통령후보 유세방해 사건(전주역)	1987.12.9 ①	②	③	④
조성만 열사(김제출신, 해성고 졸) 죽음과 추모시위	1988.5.15 ①	②	③	④

B-3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다음의 민주화운동(부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출발: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 사수투쟁	1981~1982 ①	②	③	④
소값 피해 보상 투쟁 : 소몰이 투쟁	1985.7~9 ①	②	③	④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1986.8~9 ①	②	③	④
후레아훼손(독일계)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	1987.4 ①	②	③	④
썬전자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투쟁: 407일 장기투쟁	1989~1990 ①	②	③	④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1990~1993 ①	②	③	④

C.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인식

C-1 귀하께서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C-1-1 귀하께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두개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민주화 운동의 승고한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가치의 계승)
- ②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
- ③ 전라북도 도민의 민주화에 대한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 ④ 민주주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⑤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 ⑥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⑦ 기타()

C-2 귀하는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87년 6·10 민주항쟁 시기
- __②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2016년 촛불집회 시기
- __③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현재

C-3 귀하는 민주화운동 중 우선적으로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대상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두개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 __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 __②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의 정도
- __③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중의 규모 __④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 __⑤ 기타()

C-4 귀하는 현재에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두개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 __①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인권의 보호와 권리 증진 활동
- __② 정치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민의 직접 행동
- __③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실천하려는 의지
- __④ 국가권력 등에 의한 탄압에 맞서는 저항 정신
- __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실천
- __⑥ 기타()

C-5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중에 기념이나 정신계승이 필요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두개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 __ ① 부정부패(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학생운동
 - __ ② 비상계엄(군부독재) 등 독재에 저항했던 사회운동
 - __ ③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항했던 민주노조 운동
 - __ ④ 수입 농축산물 저지를 위한 농민운동
 - __ ⑤ 부조리와 독재에 저항했던 종교계의 운동
 - __ ⑥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저항했던 인권운동

C-6 구하는 전라북도에서 아래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과 현장의 유적화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민주화운동 유적에 대한 체험관광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D.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208	51.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	5.6
	여자	193	48.1		대학	241	60.3
	합계	400	100.0		대학원 이상	137	34.1
연령	20대	54	13.4		합계	400	100.0
	30대	47	11.7	정치적 신념	보수	16	3.9
	40대	69	17.3		중도보수	29	7.2
	50대	83	20.7		중도	108	27.1
	60대 이상	148	36.9		중도진보	174	43.5
	합계	400	100.0		진보	73	18.3
거주지역	전주	149	37.2		합계	400	100.0
	군산	53	13.1	종교	불교	43	10.8
	익산	66	16.4		천주교	35	8.8
	정읍	21	5.2		개신교	148	37.0
	남원	20	4.9		원불교	12	2.9
	김제	19	4.8		이슬람교	·	0.1
	완주	17	4.3		종교없음	162	40.5
	진안	4	1.0		합계	400	100.0
	무주	6	1.5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	전혀 없다	211	52.7
	장수	4	1.1		과거 조금 참여	173	43.3
	임실	6	1.6		과거 적극 참여	16	4.0
	순창	5	1.3		합계	400	100.0
	고창	19	4.8	사회활동 참여 경험	전혀 없다	193	48.1
	부안	11	2.7		과거 참여	125	31.3
	합계	400	100.0		지금 참여중	82	20.6
					합계	400	100.0

주. 전체 조사대상자는 400명으로 정확한 모수추정을 위해 사후보정가중값을 적용하여 모집단의 인구학적 속성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일부문항에서 조사대상의 총수가 전체 조사대상자 수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A.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A-1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N	%
투쟁과 쟁취	97	24.2
대립과 갈등	14	3.5
혁신과 개혁	73	18.3
자유평등의 보호	185	46.2
국가사회 발전	31	7.8
합계	400	100.0

A-2 귀하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N	%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15	3.7
부족한 수준이다	96	23.9
보통이다	170	42.5
훌륭한 수준이다	108	27.0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12	2.9
합계	400	100.0
M/SD	3.02 /17.605	

A-3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N	%
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호하는 운동	265	66.2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	13	3.2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는 운동	66	16.4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주장하는 운동	56	13.9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활동	1	0.4
합계	400	100.0

A-4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점)

	M	SD
전체	3.92	0.630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럽다.	4.28	0.845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4.48	0.721
민주화운동으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3.73	1.037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3.29	0.946
민주화운동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고 증진되었다.	3.61	0.926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3.75	0.837
민주화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4.34	0.779

A-5 귀하는 다음의 보기 중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	%	케이스 %
군부독재투쟁	325	22.0	81.2
노동운동	223	15.1	55.8
농민운동	161	10.9	40.2
여성운동	174	11.8	43.5
통일운동	93	6.3	23.3
진보단체의 시민운동	214	14.5	53.5
보수단체의 시민운동	22	1.5	5.4
인권운동	266	18.0	66.3
합계	1478	100.0	369.2

A-6 귀하는 다음의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4점)

	M	SD
전체	2.96	0.423
군부독재 반대투쟁(4·19, 5·16, 6·10 등)	3.57	0.625
노동운동	3.05	0.659
농민운동	3.02	0.614
여성운동	3.05	0.733
통일운동	2.89	0.695
진보단체의 시민운동	3.26	0.817
보수단체의 시민운동	1.53	0.724
인권운동	3.27	0.688

B.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B-1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4점)

	N	%
전혀 모른다	16	3.9
잘 모른다	135	33.7
조금 안다	223	55.7
매우 잘 알고있다	27	6.6
합계	400	100.0
M/SD	3.31 / 0.663	

B-1-1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떤 경로로 알고 계십니까?

	N	%
교육을 통해서	81	32.5
언론을 통해서	50	20.1
주변 지인을 통해서	6	2.4
관련 영상을 통해	67	27.0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29	11.6
정당 혹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14	5.5
기타	2	0.9
합계	250	100.0

B-2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다음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점)

	M	SD
전체	2.25	0.666
3·15 부정선거 관련 전북대 시위(전국대학 중 최초)	1960.4.4	2.35
전주고 학생들의 비상계엄 반대시위: 유신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위	1972.10.22	2.14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학생자 이세종 열사 사망	1980.5.18	2.55
임균수 열사(원광대학교 2학년) 광주에서 사망	1980.5.21	1.98
공수부대원(추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 테러 사건	1980.6.25	2.05
오송회(五松會) 간첩단 사건: 군산제일고 현직교사 8명과 전직 교사 1명	1982.11.25	2.12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1987.6.10	2.81
노태우 대통령후보 유세방해 사건(전주역)	1987.12.9	2.29
조성만 열사(김제출신, 해성고 졸) 죽음과 추모시위	1988.5.15	1.97

B-3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다음의 민주화운동(부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점)

		M	SD
전체		2.16	0.700
민주노조운동 출발: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 사수투쟁	19812~1982	1.99	0.822
소값 피해 보상 투쟁 : 소몰이 투쟁	1985.7~9	2.20	0.891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1986.8~9	2.46	0.916
후레이아훼순(독일계)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	1987.4	1.84	0.788
썬전자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투쟁: 407일 장기투쟁	1989~1990	1.92	0.835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1990~1993	2.54	0.918

C.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인식

C-1 귀하께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점)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1.6
필요하지 않다	32	7.9
필요하다	236	58.9
매우 필요하다	126	31.5
합계	400	100.0
M/SD	3.2 / 22.946	

C-1-1 귀하께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전체	
	N	%	N	%	N	%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186	51.3	68	18.8	254	35.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105	29.0	147	40.6	252	34.8
전라북도 도민의 민주화에 대한 자존감을 강화시키려	43	11.8	52	14.4	95	13.1
민주주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11	2.9	41	11.3	51	7.1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	.3	7	1.8	8	1.1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17	4.7	48	13.1	65	8.9
합계	362	100.0	362	100.0	724	100.0

C-2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	%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87년 6·10 민주항쟁 시기	83	20.7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2016년 촛불집회 시기	124	31.0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현재	193	48.2
합계	400	100.0

C-3 민주화운동 중 우선적으로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대상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전체	
	N	%	N	%	N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	222	55.4	91	22.8	313	39.1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의 정도	123	30.8	192	48.1	316	39.4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중의 규모	18	4.5	47	11.8	65	8.2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37	9.3	69	17.3	106	13.3
합계	400	100.0	400	100.0	801	100.0

C-4 현재에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전체	
	N	%	N	%	N	%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인권의 보호와 권리 증진 활동	168	41.9	71	17.7	239	29.8
정치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민의 직접 행동	93	23.3	89	22.2	182	22.8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실천하려는 의지	38	9.6	65	16.3	103	12.9
국가권력 등에 의한 탄압에 맞서는 저항 정신	35	8.8	70	17.6	106	13.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실천	64	16.0	105	26.2	169	21.1
기타	1	0.4	0	0.0	1	0.2
합계	400	100	400	100	801	100

C-5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중에 기념이나 정신계승이 필요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전체	
	N	%	N	%	N	%
부정부패(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학생운동	155	38.7	111	27.7	266	33.2
비상계엄(군부독재) 등 독재에 저항했던 사회운동	163	40.8	130	32.6	294	36.7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항했던 민주노조 운동	44	11.0	57	14.3	101	12.6
수입 농축산물 저지를 위한 농민운동	14	3.6	38	9.4	52	6.5
부조리와 독재에 저항했던 종교계의 운동	13	3.1	36	9.0	49	6.1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저항했던 인권운동	11	2.8	28	7.0	39	4.9
합계	400	100	400	100	801	100

C-6 전북에서 아래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점)

	M	SD
전체	3.49	0.542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	3.66	0.621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과 현장의 유적화	3.49	0.665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	3.38	0.725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3.52	0.727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3.63	0.578
민주화운동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	3.49	0.687
민주화운동 유적에 대한 체험관광 활성화	3.28	0.748

A.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A-1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n	투쟁과 쟁취(%)	대립과 갈등(%)	혁신과 개혁(%)	자유· 평등의 보호(%)	국가 ·사회 발전(%)
전체		400	24.1	3.3	18.3	46.4	8.0
성별	남성	207	21.7	3.9	16.9	46.4	11.1
	여성	193	26.9	3.1	19.7	46.1	4.1
연령	20대	54	35.2	3.7	20.4	35.2	5.6
	30대	46	31.9	6.4	10.6	46.8	4.3
	40대	69	33.3	1.4	7.2	50.7	7.2
	50대	84	14.6	4.9	19.5	52.4	8.5
	60대 이상	147	18.4	2.0	24.5	44.9	10.2
학력	고졸 이하	22	13.6	4.5	45.5	27.3	9.1
	대학 재학·졸업	242	23.6	3.7	19.4	47.5	5.8
	대학원 이상	137	27.0	2.2	11.7	47.4	11.7
정치적 신념	보수	16	25.0	0.0	31.3	37.5	6.3
	중도보수	29	20.7	13.8	17.2	41.4	6.9
	중도보수	109	26.6	5.5	11.9	51.4	4.6
	중도진보	174	22.4	0.6	21.8	45.4	9.8
	진보	72	26.4	2.8	18.1	43.1	9.7
종교	종교 없음	161	31.7	5.6	16.1	41.0	5.6
	불교	43	16.3	0.0	20.9	51.2	11.6
	천주교	35	17.1	5.7	17.1	54.3	5.7
	개신교	148	20.9	2.0	19.6	48.0	9.5
	기타*	12	16.7	0.0	33.3	50.0	0.0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12	27.8	4.2	18.4	44.8	4.7
	과거 조금 참여	174	20.1	2.3	17.8	48.9	10.9
	과거 적극 참여	16	18.8	6.3	25.0	37.5	12.5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93	31.1	4.7	15.5	40.4	8.3
	과거 참여	125	15.2	2.4	24.0	52.8	5.6
	지금 참여중	82	22.0	1.2	15.9	50.0	11.0

A-2 귀하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n	매우 부족한 수준(%)	부족한 수준(%)	보통이다 (%)	훌륭한 수준이다 (%)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	M	t/f
전체	400	3.7	23.9	42.5	27.0	2.9	3.02	-
성별	남성	208	4.3	27.9	43.3	22.1	2.4	2.90
	여성	192	3.1	19.3	41.7	32.3	3.6	3.14
연령	20대	54	0.0	9.3	37.0	51.9	1.9	3.48
	30대	47	6.5	26.1	37.0	26.1	4.3	2.92
	40대	69	4.3	14.5	52.2	27.5	1.4	3.06
	50대	83	6.0	25.0	42.9	25.0	1.2	2.90
	60대 이상	148	2.0	32.7	41.5	19.0	4.8	2.92
학력	고졸 이하	22	0.0	39.1	34.8	26.1	0.0	2.89
	대학 재학·졸업	241	4.5	21.8	39.9	28.8	4.9	3.08
	대학원 이상	137	2.9	24.8	48.2	24.1	0.0	2.93
정치적 신념	보수	16	6.3	31.3	43.8	12.5	6.3	2.86
	중도보수	29	3.4	20.7	48.3	20.7	6.9	3.06
	중도보수	108	6.4	13.8	47.7	31.2	.9	3.06
	중도진보	174	1.7	27.4	40.0	26.3	4.6	3.05
	진보	73	4.1	30.1	38.4	27.4	0.0	2.90
종교	종교 없음	162	5.0	18.0	44.7	29.2	3.1	3.08
	불교	43	4.7	30.2	39.5	23.3	2.3	2.88
	천주교	35	5.6	19.4	44.4	30.6	0.0	3.01
	개신교	148	2.0	29.5	41.6	22.8	4.0	2.97
	기타	12	0.0	25.0	25.0	50.0	0.0	3.27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11	4.3	19.0	45.5	27.0	4.3	3.08
	과거 조금 참여	173	2.3	29.1	40.7	27.3	0.6	2.94
	과거 적극 참여	16	6.3	31.3	25.0	31.3	6.3	3.03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93	5.7	22.8	40.9	26.4	4.1	3.00
	과거 참여	125	1.6	27.8	42.9	26.2	1.6	2.99
	지금 참여중	82	2.4	20.7	45.1	29.3	2.4	3.09

A-3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n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운동(%)	소수자 권리보장을 위한 운동(%)	사회적 부정과 부패를 견제하는 운동(%)	공정한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운동(%)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활동(%)
전체	400	66.2	3.2	16.4	13.9	0.4
성별	남성	69.7	2.9	15.4	12.0	0.0
	여성	62.5	3.1	17.7	16.1	0.5
연령	20대	64.8	1.9	24.1	9.3	0.0
	30대	65.2	2.2	21.7	10.9	0.0
	40대	60.0	2.9	15.7	20.0	1.4
	50대	66.3	2.4	13.3	18.1	0.0
	60대 이상	69.1	4.0	14.8	12.1	0.0
학력	고졸 이하	54.5	0.0	27.3	18.2	0.0
	대학 재학·졸업	71.0	2.1	15.4	11.2	0.4
	대학원 이상	59.9	5.8	16.1	18.2	0.0
정치적 신념	보수	46.7	6.7	40.0	6.7	0.0
	중도보수	62.1	10.3	17.2	10.3	0.0
	중도보수	62.4	2.8	19.3	15.6	0.0
	중도진보	71.7	1.7	15.0	11.0	0.6
	진보	65.8	2.7	11.0	20.5	0.0
종교	종교 없음	66.3	3.7	17.2	12.9	0.0
	불교	60.5	7.0	18.6	14.0	0.0
	천주교	72.2	2.8	19.4	5.6	0.0
	개신교	66.0	2.0	15.0	16.3	0.7
	기타*	75.0	0.0	0.0	25.0	0.0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59.5	4.3	19.5	16.2	0.5
	과거 조금 참여	73.4	1.2	13.3	12.1	0.0
	과거 적극 참여	81.3	6.3	6.3	6.3	0.0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64.1	2.6	17.7	15.1	0.5
	과거 참여	66.7	3.2	21.4	8.7	0.0
	지금 참여중	70.7	3.7	7.3	18.3	0.0

A-4 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4-1.	A4-2.	A4-3.	A4-4.	A4-5.	A4-6.	A4-7.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럽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민주화운동으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민주화운동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고 증진되었다.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민주화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M	M	M	M	M	M	M
전체	4.28	4.48	3.73	3.29	3.61	3.75	4.34
성별	남성	4.25	4.44	3.66	3.25	3.62	3.69
	여성	4.31	4.52	3.80	3.34	3.59	3.81
	t	- .649	-1.181	-1.280	- .981	.237	-1.394
	20대	4.48	4.60	4.06	3.54	3.89	3.91
연령	30대	4.16	4.33	3.80	3.13	3.47	3.48
	40대	4.35	4.56	3.84	3.39	3.64	3.83
	50대	4.24	4.53	3.64	3.24	3.51	3.74
	60대이상	4.23	4.41	3.58	3.24	3.59	3.74
	F	1.234	1.531	2.526*	1.606	1.757	1.926
학력	고졸이하	4.48	4.41	3.05	3.07	3.43	3.51
	대학	4.26	4.51	3.85	3.36	3.67	3.81
	대학원	4.29	4.42	3.63	3.21	3.52	3.68
	F	.689	.834	7.218**	1.883	1.557	2.176
정치적 신념	보수	3.18	3.62	2.79	2.48	2.61	3.02
	중도보수	3.50	3.92	3.07	2.75	3.06	3.09
	중도보수	4.17	4.35	3.67	3.34	3.65	3.77
	중도진보	4.47	4.65	3.95	3.37	3.71	3.89
	진보	4.53	4.65	3.75	3.42	3.72	3.79
	F	20.333***	16.254***	8.779***	6.322***	8.527***	9.615***
종교	종교 없음	4.21	4.41	3.75	3.31	3.66	3.75
	불교	4.13	4.51	3.59	3.10	3.44	3.65
	천주교	4.52	4.57	3.78	3.37	3.60	3.69
	개신교	4.33	4.52	3.75	3.32	3.62	3.84
	기타*	4.48	4.52	3.43	3.13	3.28	3.17
	F	1.595	.657	.496	.649	.869	2.078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4.17	4.37	3.72	3.21	3.56	3.68
	조금 참여	4.38	4.59	3.72	3.35	3.62	3.82
	적극 참여	4.69	4.68	3.84	3.73	4.12	3.91
	F	5.066**	5.263**	.090	2.963	2.776	1.546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4.30	4.45	3.88	3.41	3.73	3.81
	과거참여	4.40	4.53	3.60	3.19	3.48	3.72
	지금 참여	4.05	4.46	3.57	3.18	3.50	3.65
	F	4.339*	.434	4.123*	2.937	3.358*	1.208
							3.293*

A-5 귀하는 다음의 보기 중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부독재투쟁(%)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진보단체시민운동(%)	보수단체시민운동(%)	인권운동(%)
전체		22	15.1	10.9	11.8	6.3	14.5	1.5	18
성별	남성	24.6	15.3	10.8	8.3	6.8	14.8	1.3	18.3
	여성	19.6	14.9	11.0	15.1	5.9	14.3	1.7	17.7
연령	20대	25.6	15.1	13.0	12.0	5.7	10.7	2.6	15.3
	30대	24.8	16.9	10.9	11.3	3.3	14.6	2.4	15.8
	40대	22.3	16.3	10.5	10.9	3.5	16.8	0.4	19.3
	50대	19.3	14.2	11.2	12.0	8.3	14.8	2.2	17.9
	60대 이상	21.5	14.7	10.0	12.1	7.3	14.5	0.9	18.9
학력	고졸 이하	22.0	12.2	13.1	14.0	7.8	13.5	0.8	16.6
	대학 재학·졸업	21.3	16.0	10.5	11.5	6.1	14.7	1.5	18.4
	대학원 이상	23.1	14.1	11.2	12.0	6.3	14.3	1.5	17.4
정치적 신념	보수	18.1	18.2	11.0	11.3	10.7	9.9	7.1	13.7
	중도보수	26.9	16.9	8.5	13.3	5.4	9.2	2.4	17.4
	중도보수	25.2	15.3	11.1	11.2	5.8	10.4	1.6	19.4
	중도진보	20.5	14.9	11.0	11.8	6.1	16.7	1.1	17.7
	진보	20.6	14.2	11.2	12.0	6.9	16.3	1.1	17.6
종교	종교 없음	24.1	15.9	10.9	11.9	5.3	13.0	2.1	16.8
	불교	23.6	13.1	11.8	11.6	5.6	13.6	1.5	19.3
	천주교	21.6	14.2	11.3	9.4	8.5	16.9	.9	17.2
	개신교	19.9	15.4	10.5	12.2	6.9	15.7	1.0	18.4
	기타*	18.1	12.3	11.0	13.3	7.8	13.8	0.6	23.1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1.5	16.0	10.9	13.5	5.2	13.6	1.9	17.3
	과거 조금 참여	23.0	14.1	10.5	10.3	7.2	15.3	0.6	19.0
	과거 적극 참여	18.3	14.7	14.0	6.3	10.4	16.8	3.8	15.7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3.7	14.9	10.3	12.7	4.6	14.4	1.7	17.6
	과거 참여	20.2	16.8	11.4	10.8	6.1	15.5	.9	18.3
	지금 참여중	21.2	12.9	11.2	11.3	10.3	13.2	1.9	18.2

A-6 귀하는 다음의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A6-1. 군부독재투 쟁	A6-2. 노동운동	A6-3. 농민운동	A6-4. 여성운동	A6-5. 통일운동	A6-6. 진보단체 시민운동	A6-7. 보수단체 시민운동	A6-8. 인권운동
		M	M	M	M	M	M	M	M
전체		3.57	3.05	3.02	3.05	2.89	3.26	1.53	3.27
성별	남성	3.58	3.00	3.02	2.85	2.85	3.16	1.44	3.23
	여성	3.56	3.11	3.03	2.93	2.93	3.37	1.64	3.32
	t	.270	-1.587	-.278	-3.301**	-1.080	-2.585*	-2.779* *	-1.326
연령	20대	3.57	3.29	3.27	3.02	2.66	3.19	1.80	3.39
	30대	3.51	2.99	2.90	2.78	2.68	3.13	1.71	3.06
	40대	3.74	3.17	3.02	2.92	2.87	3.47	1.34	3.35
	50대	3.58	3.05	3.04	3.01	3.00	3.34	1.55	3.23
	60대이상	3.51	2.93	2.97	3.24	2.98	3.18	1.45	3.29
	F	1.716	3.821**	3.096*	4.869**	3.769**	2.080	4.283**	1.858
학력	고졸이하	3.43	3.15	2.95	3.21	3.01	3.50	1.72	3.34
	대학	3.55	3.05	3.04	3.02	2.86	3.26	1.54	3.31
	대학원	3.63	3.03	3.01	3.08	2.93	3.22	1.49	3.20
	F	1.426	.291	.322	.780	.761	1.137	.970	1.091
정치적 신념	보수	2.71	2.17	2.39	2.36	2.40	2.01	1.78	2.35
	중도보수	3.31	2.70	2.59	2.87	2.59	2.68	1.76	3.02
	중도보수	3.43	3.01	3.02	2.97	2.77	3.00	1.69	3.12
	중도진보	3.69	3.14	3.10	3.17	3.01	3.54	1.45	3.40
	진보	3.79	3.23	3.14	3.11	3.00	3.49	1.35	3.48
	F	15.924***	12.602***	10.026***	5.889***	6.009***	27.655***	4.396**	14.299***
종교	종교 없음	3.56	3.05	3.02	2.96	2.80	3.18	1.62	3.24
	불교	3.58	2.81	2.91	3.19	2.97	3.28	1.60	3.19
	천주교	3.69	3.13	3.16	2.96	2.79	3.33	1.30	3.30
	개신교	3.54	3.12	3.04	3.12	3.02	3.32	1.49	3.30
	기타*	3.74	2.92	2.82	3.25	2.52	3.46	1.27	3.47
	F	.604	2.102	1.196	1.595	3.139*	.868	2.169	.554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3.49	3.03	2.98	3.03	2.85	3.18	1.63	3.23
	조금 참여	3.67	3.05	3.06	3.08	2.92	3.34	1.43	3.32
	적극 참여	3.66	3.26	3.28	2.98	3.08	3.55	1.30	3.31
	F	4.423*	.924	2.349	.308	1.200	2.897	4.765**	.753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3.54	3.07	3.00	3.01	2.83	3.30	1.58	3.28
	과거참여	3.61	3.06	3.07	3.10	2.97	3.31	1.40	3.28
	지금 참여	3.58	2.99	3.01	3.07	2.90	3.10	1.62	3.24
	F	.461	.464	.587	.562	1.368	2.039	2.961	.134

B.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B-1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	전혀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M	t/F
전체	400	4.0	33.8	55.8	6.5	3.31	-
성별	남성	208	6.8	27.5	59.9	5.8	2.65
	여성	193	1.0	40.4	51.3	7.3	2.65
연령	20대	54	5.6	29.6	51.9	13.0	2.73
	30대	47	10.9	47.8	41.3	0.0	2.32
	40대	69	5.8	39.1	55.1	0.0	2.49
	50대	83	0.0	36.1	59.0	4.8	2.68
	60대 이상	148	2.0	27.7	59.5	10.8	2.79
학력	고졸 이하	22	0.0	39.1	43.5	17.4	2.74
	대학 재학·졸업	241	4.6	34.9	53.9	6.6	2.63
	대학원 이상	137	3.6	30.7	60.6	5.1	2.68
정치적 신념	보수	16	18.8	43.8	31.3	6.3	2.24
	중도보수	29	10.0	30.0	53.3	6.7	2.58
	중도보수	108	3.7	33.0	60.6	2.8	2.62
	중도진보	174	1.7	31.6	56.9	9.8	2.75
	진보	73	5.4	39.2	50.0	5.4	2.56
종교	종교 없음	162	5.5	39.9	49.7	4.9	2.54
	불교	43	0.0	30.2	67.4	2.3	2.72
	천주교	35	8.3	19.4	55.6	16.7	2.81
	개신교	148	2.7	30.4	60.1	6.8	2.71
	기타	12	0.0	45.5	36.4	18.2	2.70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11	6.6	41.2	46.0	6.2	2.51
	과거 조금 참여	173	.6	24.9	68.2	6.4	2.81
	과거 적극 참여	16	5.9	29.4	47.1	17.6	2.78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93	5.7	36.3	50.3	7.8	2.60
	과거 참여	125	1.6	33.6	60.0	4.8	2.68
	지금 참여중	82	2.4	28.0	62.2	7.3	2.74

B-1-1 귀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떤 경로로 알고 계십니까?

		n	교육을 통해서 (%)	언론을 통해서	주변 지인을 통해	관련 영상을 통해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정당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해서	기타
전체		249	32.5	20.1	2.4	26.9	11.6	5.6	0.8
성별	남성	136	22.8	21.3	2.2	27.2	19.1	6.6	0.7
	여성	113	44.2	18.6	2.7	26.5	2.7	4.4	0.9
연령	20대	35	68.6	2.9	2.9	22.9	0.0	2.9	0.0
	30대	20	50.0	25.0	10.0	10.0	0.0	0.0	5.0
	40대	38	34.2	28.9	2.6	23.7	5.3	5.3	0.0
	50대	52	26.9	13.5	3.8	25.0	23.1	5.8	1.9
	60대 이상	103	19.4	25.2	0.0	34.0	14.6	6.8	0.0
학력	고졸 이하	14	42.9	35.7	0.0	7.1	14.3	0.0	0.0
	대학 재학·졸업	147	36.1	22.4	2.7	23.1	10.2	4.1	1.4
	대학원 이상	90	25.6	13.3	2.2	36.7	13.3	8.9	0.0
정치적 신념	보수	6	33.3	0.0	0.0	50.0	0.0	16.7	0.0
	중도보수	18	33.3	22.2	0.0	33.3	5.6	5.6	0.0
	중도보수	69	33.3	14.5	2.9	30.4	11.6	4.3	2.9
	중도진보	117	36.8	24.8	0.9	19.7	11.1	6.0	0.9
	진보	42	16.7	19.0	7.1	33.3	19.0	4.8	0.0
종교	종교 없음	90	40.0	16.7	2.2	23.3	11.1	4.4	2.2
	불교	31	25.8	25.8	0.0	32.3	9.7	6.5	0.0
	천주교	26	38.5	19.2	7.7	7.7	23.1	0.0	3.8
	개신교	99	22.2	23.2	3.0	33.3	10.1	8.1	0.0
	기타*	7	85.7	0.0	0.0	14.3	0.0	0.0	0.0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09	40.4	25.7	2.8	26.6	0.0	2.8	1.8
	과거 조금 참여	128	28.9	17.2	2.3	28.1	16.4	7.0	0.0
	과거 적극 참여	11	0.0	0.0	0.0	18.2	72.7	9.1	0.0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12	36.6	20.5	1.8	31.3	8.0	0.0	1.8
	과거 참여	82	34.1	17.1	2.4	24.4	14.6	6.1	1.2
	지금 참여중	57	21.1	22.8	3.5	22.8	14.0	15.8	0.0

B-2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다음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B2-1. 3·15 부정선거 관련 전북대 시위	B2-2. 전주고 학생들의 비상계엄 반대시위	B2-3.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사망	B2-4. 임군수 열사 광주에서 사망	B2-5. 공수부대원 (추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 테러 사건	B2-6. 오송회(五 松會) 간첩단 사건	B2-7.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 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B2-8. 노태우 대통령후보 유세방해 사건	B2-9. 조성만 열사 죽음과 추모시위
	M	M	M	M	M	M	M	M	M
전체	2.35	2.14	2.55	1.98	2.05	2.12	2.81	2.29	1.97
성별	남성 여성	2.45 2.24	2.21 2.07	2.62 2.47	2.02 1.93	2.13 1.97	2.27 1.95	2.87 2.74	2.41 2.17
	t	2.560*	1.701	1.627	1.141	1.940	3.482**	1.294	2.633**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37 2.18 2.01 2.35 2.54	2.16 2.23 1.81 2.20 2.31	2.42 1.88 1.69 2.72 2.78	1.83 1.78 1.78 2.11 2.12	1.92 1.66 1.70 2.13 2.27	1.83 2.46 2.46 2.99 3.482**	2.69 1.97 1.97 2.45 3.04	2.29 1.63 1.63 2.13 2.46
	F	5.602***	4.920**	7.635***	4.349**	5.962***	16.062** *	7.409***	5.549***
학력	고졸이하 대학 대학원	2.37 2.28 2.46	2.27 2.07 2.25	2.73 2.42 2.75	2.06 1.89 2.11	2.26 1.98 2.14	2.25 2.02 2.28	2.62 2.69 3.06	2.33 2.18 2.49
	F	1.965	2.343	5.658**	3.297*	2.176	3.795*	6.901**	4.957**
정치적 신념	보수 중도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진보	2.02 2.53 2.27 2.40 2.33	2.18 2.10 2.06 2.19 2.15	2.42 2.34 2.52 2.69 2.38	1.84 1.97 1.98 2.02 1.91	1.83 1.88 2.07 2.16 1.90	2.08 1.99 2.10 2.19 2.03	2.16 2.78 2.74 2.94 2.76	2.07 2.26 2.33 2.34 2.19
	F	1.309	.460	1.913	.339	1.715	.600	2.634*	.634
종교	종교 없음 불교 천주교 개신교 기타*	2.26 2.55 2.34 2.37 2.56	2.02 2.38 2.32 2.10 2.76	2.42 2.66 2.75 2.59 2.82	1.82 2.16 2.02 2.03 2.60	1.90 2.07 2.52 2.07 2.43	1.91 2.27 2.27 2.23 2.60	2.70 3.12 2.92 2.79 3.08	2.12 2.57 2.64 2.29 2.63
	F	1.384	3.911**	1.636	4.108**	4.435**	4.196**	1.938	4.194**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	전혀 없음 조금 참여 적극 참여	2.22 2.50 2.33	2.02 2.28 2.21	2.35 2.76 2.94	1.84 2.12 2.23	1.90 2.20 2.48	1.88 2.36 2.52	2.64 3.01 2.87	2.08 2.51 2.82
	F	5.428**	4.750**	10.612** *	6.734**	7.666**	15.574** *	6.761**	13.894** *
사회 활동 참여 경험	전혀 없음 과거참여 지금 참여	2.18 2.49 2.51	2.00 2.32 2.18	2.32 2.73 2.80	1.90 2.01 2.09	1.95 2.19 2.08	1.92 2.23 2.40	2.60 2.99 3.03	2.12 2.51 2.38
	F	7.413**	5.858**	10.838** *	1.677	2.982	9.591***	8.910***	7.466**
									8.814***

B-3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다음의 민주화운동(부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B3-1. 민주노조운동 출발: 태창메리아스 민주노조 사수투쟁	B3-2. 소값 피해 보상 투쟁 : 소몰이 투쟁	B3-3.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B3-4. 후레이아훼손 노동자들의 노동단압 규탄투쟁	B3-5. 썬전자 노동자들의 노동단압 투쟁: 407일 장기투쟁	B3-6.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M	M	M	M	M	M
전체		1.99	2.2	2.46	1.84	1.92	2.54
성별	남성	1.98	2.16	2.49	1.92	1.97	2.65
	여성	2.00	2.24	2.42	1.75	1.86	2.42
	t	-.177	-.849	.829	2.079*	1.289	2.596*
연령	20대	1.86	2.05	2.21	1.46	1.51	2.12
	30대	1.68	1.89	2.01	1.56	1.54	1.97
	40대	1.70	1.95	2.16	1.59	1.62	2.46
	50대	2.21	2.29	2.58	1.96	2.11	2.76
	60대이상	2.14	2.42	2.75	2.11	2.22	2.79
	F	7.298***	5.975***	10.594***	12.182***	15.969***	12.491***
학력	고졸이하	2.27	2.49	2.68	2.17	2.23	2.96
	대학	1.92	2.18	2.43	1.77	1.87	2.45
	대학원	2.06	2.18	2.46	1.90	1.96	2.63
	F	2.685	1.274	.712	3.233*	2.179	4.061*
정치 적 신념	보수	1.59	1.87	2.03	1.78	1.70	1.98
	중도보수	1.94	2.12	2.26	1.79	1.86	2.45
	중도보수	2.10	2.17	2.34	1.83	1.82	2.40
	중도진보	2.08	2.34	2.64	1.90	2.06	2.71
	진보	1.72	2.02	2.37	1.74	1.80	2.49
	F	4.064**	2.403*	3.629**	.546	2.277	3.841**
종교	종교 없음	1.84	2.09	2.28	1.64	1.71	2.35
	불교	2.16	2.43	2.66	1.97	2.06	2.77
	천주교	2.21	2.38	2.66	2.22	2.17	2.71
	개신교	2.01	2.18	2.53	1.93	2.06	2.62
	기타*	2.53	2.52	2.54	1.73	1.77	2.91
	F	3.786**	2.095	2.839*	5.618***	4.805**	3.591**
민주 화 운동 참여 경험	전혀 없음	1.83	2.08	2.28	1.67	1.79	2.34
	조금 참여	2.16	2.33	2.65	2.03	2.06	2.76
	적극 참여	2.29	2.40	2.76	2.03	2.03	2.73
	F	9.400***	4.244*	9.097***	10.754***	5.076**	10.877***
사회 활동 참여 경험	전혀 없음	1.84	2.07	2.30	1.71	1.80	2.34
	과거참여	2.09	2.31	2.63	1.95	2.09	2.72
	지금 참여	2.19	2.34	2.55	1.98	1.94	2.73
	F	7.007**	4.139*	5.520**	5.432**	4.555*	8.993***

C.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인식

C-1 귀하께서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t/F
전체		401	1.7	8.0	58.9	31.4	3.2	-
성별	남성	208	2.9	9.1	57.2	30.8	3.16	-1.363
	여성	193	0.5	6.7	60.6	32.1	3.25	
연령	20대	54	0.0	14.8	50.0	35.2	3.20	.621
	30대	47	2.1	10.6	55.3	31.9	3.17	
	40대	69	1.4	2.9	60.9	34.8	3.29	
	50대	83	0.0	6.0	65.1	28.9	3.24	
	60대 이상	148	3.4	8.1	59.1	29.5	3.15	
학력	고졸 이하	22	4.5	0.0	54.5	40.9	3.32	.456
	대학 재학·졸업	241	2.1	7.9	59.9	30.2	3.19	
	대학원 이상	137	0.7	8.8	58.1	32.4	3.22	
정치적 신념	보수	16	12.5	18.8	62.5	6.3	2.59	10.149 ***
	중도보수	29	6.9	20.7	58.6	13.8	2.80	
	중도보수	108	0.9	11.9	62.4	24.8	3.11	
	중도진보	174	0.0	5.2	56.9	37.9	3.33	
	진보	73	1.4	1.4	57.5	39.7	3.34	
종교	종교 없음	162	3.1	13.5	52.8	30.7	3.11	1.401
	불교	43	0.0	0.0	69.8	30.2	3.29	
	천주교	35	2.9	5.7	54.3	37.1	3.27	
	개신교	148	0.7	4.8	63.3	31.3	3.25	
	기타	12	0.0	0.0	58.3	41.7	3.36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11	2.4	8.1	60.7	28.9	3.16	.853
	과거 조금 참여	173	1.2	6.9	57.8	34.1	3.25	
	과거 적극 참여	16	0.0	12.5	50.0	37.5	3.26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93	1.6	7.3	58.9	32.3	3.22	.183
	과거 참여	125	2.4	10.4	54.4	32.8	3.17	
	지금 참여중	82	0.0	4.9	68.3	26.8	3.22	

C-2 귀하는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87년 6·10 민주항쟁 시기(%)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2016년 촛불집회 시기(%)	1948년 4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현재(%)
전체		401	20.7	31.2	48.1
성별	남성	208	19.2	34.1	46.6
	여성	193	22.3	28.0	49.7
연령	20대	54	40.7	35.2	24.1
	30대	47	40.4	27.7	31.9
	40대	70	11.4	34.3	54.3
	50대	83	18.1	27.7	54.2
	60대 이상	148	13.5	30.4	56.1
학력	고졸 이하	23	8.7	34.8	56.5
	대학 재학·졸업	241	22.4	32.4	45.2
	대학원 이상	137	19.7	28.5	51.8
정치적 신념	보수	16	6.3	43.8	50.0
	중도보수	30	46.7	30.0	23.3
	중도보수	108	24.1	23.1	52.8
	중도진보	174	17.8	33.9	48.3
	진보	73	15.1	32.9	52.1
종교	종교 없음	162	27.8	25.9	46.3
	불교	43	11.6	44.2	44.2
	천주교	36	19.4	27.8	52.8
	개신교	149	15.4	34.9	49.7
	기타*	12	33.3	16.7	50.0
민주화 운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210	27.1	24.8	48.1
	과거 조금 참여	174	13.8	39.1	47.1
	과거 적극 참여	16	12.5	25.0	62.5
사회활동 참여경험	전혀 없음	193	27.5	26.4	46.1
	과거 참여	126	10.3	35.7	54.0
	지금 참여중	83	20.5	34.9	44.6

C-6 귀하는 전라북도에서 아래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C6-1. 민주화운 동 주요 사건에 대한 발굴과 기록	C6-2. 민주화운 동 주요 사건과 현장의 유적화	C6-3. 민주화운 동 주요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	C6-4. 민주화운 동 관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C6-5. 민주화운 동 정신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 교육)	C6-6. 민주화운 동 스토리텔 링과 문화콘텐 츠 개발	C6-7. 민주화운 동 유적에 대한 체험관광 활성화	
			n	M	M	M	M	M	M	
전체		400	3.49	3.66	3.49	3.38	3.52	3.63	3.49	3.28
성별	남성	207	3.47	3.67	3.52	3.38	3.44	3.58	3.47	3.26
	여성	192	3.51	3.64	3.45	3.37	3.60	3.70	3.51	3.32
	t	-	-.611	.477	1.100	.101	-2.231*	-2.050*	-.564	-.798
연령	20대	54	3.57	3.75	3.54	3.46	3.75	3.76	3.39	3.33
	30대	46	3.44	3.59	3.40	3.19	3.55	3.58	3.45	3.26
	40대	69	3.63	3.73	3.61	3.51	3.65	3.75	3.72	3.40
	50대	83	3.52	3.70	3.46	3.44	3.55	3.70	3.55	3.36
	60대이상	148	3.40	3.59	3.46	3.31	3.34	3.51	3.41	3.18
	F	-	2.612*	1.263	.943	2.010	4.397**	3.562**	2.902*	1.379
학력	고졸이하	22	3.56	3.71	3.65	3.42	3.51	3.63	3.55	3.40
	대학	241	3.50	3.64	3.47	3.39	3.55	3.63	3.48	3.34
	대학원	136	3.46	3.69	3.50	3.35	3.46	3.64	3.49	3.17
	F	-	.368	.374	.765	.137	.694	.035	.118	2.604
정치적 신념	보수	16	2.97	2.98	3.12	3.14	2.71	2.85	2.87	3.08
	중도보수	29	3.17	3.38	3.27	2.96	3.01	3.41	3.11	3.03
	중도보수	108	3.40	3.60	3.40	3.37	3.37	3.50	3.44	3.20
	중도진보	174	3.56	3.74	3.51	3.37	3.66	3.75	3.56	3.30
	진보	73	3.70	3.82	3.73	3.61	3.76	3.80	3.68	3.51
	F	-	11.404** *	8.977***	4.917**	4.884**	15.106** *	14.568** *	7.655***	3.154*
종교	종교 없음	162	3.48	3.61	3.49	3.41	3.52	3.61	3.44	3.33
	불교	43	3.48	3.70	3.51	3.37	3.36	3.67	3.55	3.18
	천주교	35	3.55	3.63	3.53	3.52	3.52	3.59	3.65	3.37
	개신교	147	3.49	3.69	3.46	3.30	3.54	3.65	3.53	3.27
	기타*	12	3.44	3.82	3.55	3.52	3.67	3.61	3.00	2.96
	F	-	.133	.613	.128	.910	.693	.201	2.472*	1.012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	전혀 없음	210	3.46	3.62	3.45	3.32	3.51	3.62	3.47	3.30
	조금 참여	173	3.53	3.73	3.56	3.46	3.53	3.65	3.53	3.27
	적극 참여	16	3.35	3.43	3.26	3.21	3.35	3.56	3.36	3.26
	F	-	1.286	2.638	2.236	2.251	.443	.300	.687	.110
사회 활동 참여 경험	전혀 없음	191	3.49	3.64	3.46	3.37	3.60	3.64	3.49	3.32
	과거참여	125	3.50	3.62	3.55	3.37	3.49	3.65	3.51	3.29
	지금 참여	82	3.47	3.75	3.46	3.39	3.35	3.60	3.46	3.19
	F	-	.109	1.076	.665	.028	3.445*	.186	.107	.794

4

시도별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현황(2020~2022)

□ 조사 개요

-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2020~2022년도(3년) 사이에 진행된 민주화운동 사업을 온라인을 통하여 조사하여 정리함
- 온라인 조사(시도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언론사 등 활용)에 사용한 키워드는 “민주화”, “민주화운동”, “민주운동”, “민주주의”, “민주교육” 등임

□ 서울특별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60주년기념 4·19혁명 국민문화제 온라인 개최	2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4·19 혁명 온라인 국민문화제'를 개최함. 사이버 참배는 물론 '희망메시지 릴레이', 온라인 그림 그리기, 마인트 맵핑 이벤트, 특별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국가보훈처
	2020년 민주화운동 기념 문화행사	20.05.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봄, 부마 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잇다'를 주제로 민주, 평화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공유하는 강연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인권평화 도시 선언' 등의 퍼포먼스 전국대회 개최 	서울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울의 봄, 광주의 빛' 오월 평화 페스티벌	20.5.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에서 5월 18일부터 한 달 간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콘텐츠를 공유함. 기념식, 무용극, 컨퍼런스, 문학 11개 프로그램이 5·18TV, 네이버 LIVE, TBS미디어를 통해 공개됨 	서울시(문화예술과)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	2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 한열동산에서 고 이한열 열사의 추모식이 거행됨 	이한열기념사업회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33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며 이한열 열사 모친을 포함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됨 	행안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61주년 4·19 혁명기념식	21.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4.19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함 기념행사는 현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0여분간 진행됨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2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개최됨. 현화, 분향, 기념사, 추모사, 추모공연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서울기념식		(5·18뮤지컬), 기념공연 등이 열림	념사업회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행사	21.6.10	• ‘민주주의 바람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됨	행안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62주년 4·19혁명기념식	22.4.19	•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됨 • 4·19혁명 호국영령 추모제를 비롯 지역별 추모행사, 국민문화제,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림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서울기념식	22.5.18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서울 기념식을 개최함. 광주 5·18기념식과 동시 개최되었으며 현화와 분향, 추모공연, 5.18민주유공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됨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6월항쟁 특별전시 <이한열, 쓰러져 일으킨 민주주의>	22.5.30~11.30	•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인 1987년 6월항쟁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별이 된 이한열의 마지막 모습을 기증사진, 기증 문서자료 등을 통해 조명함	이한열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 이한열 열사 제35주기 추모식	22.6.9	• 연세대 신촌캠퍼스 한열동산에서 추모식이 열렸으며, 1일부터 9일까지 이한열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그림 게시 및 추모의 밤을 진행함	이한열기념사업회
	제35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22.6.10	• 올해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기념식을 준비함. 이곳은 6·10민주항쟁 당시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 모였던 곳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항쟁 정신계승 기념식 및 사진전	22.6.10	• 명동성당 앞 사진전, 6월항쟁 재연행진, 6월의 노래 콘서트 등이 진행됨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22.6.19	• 매년 열리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함	민족민주운동 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교육 사업	2020 마을노동자 민주역사탐방	20.4.18~11.28(총 16회)	• 서울시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민주역사탐방을 실시함. 4월 ‘4·19혁명 열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전국 민주역사지 탐방 16회를 실시함	강동노동인권센터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20.9.18	•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논쟁성 재현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제포럼 진행	4개시도교육청(서울, 강원, 경기, 인천)
	2021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21.9.4	• ‘코로나19 시대를 건너는 방법, 시민성’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코로나19이후 디지털시민사회와리터러시, 공존을 위한 시민성 등 내용	4개시도교육청(서울, 강원, 경기, 인천)
	문화재 유량단 <서울의 민주화, 노동운동 유적지 탐방>	20.10	• 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으로 10월프로그램으로 4차에 걸쳐 국립 4·19민주묘지, 전태일 거리&동상, 향린교회, 명동성당, 국가안전기획부 옛터, 남영동 대공분식, 옛 시민당사 등 민주 역사유적지를 탐방함	서울시NPO지원센터
학술 연구 사업	국제컨퍼런스<오월광주 40주년,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20.5.	• 평화와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국내외연사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학술행사임. 미얀마, 카메룬 등 국가폭력 및 내전을 겪은 각국의 인권인사와 문화예술전문가 발제를 통해 민주화와 평화에 대한 국제 동향을 공유함	서울시

	34주년 6.10민주항쟁 학술토론회	21.6.8	• '뉴노멀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국내외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준과 규범을 모색하는 토론장 마련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서울민주주의포럼	21.6.29~30	• '아시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2.6.8	•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라는 주제로 6월항쟁과 87년 체제 35년 평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 35주년기념 전기학술대회	22.6.11	• 한국구술사학회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지역, 기억, 노동, 젠더와 관련한 구술자료 수집, 분석 및 분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온라인 줌 회의)	한국구술사학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대회(5.18, 역사와 기억의 불화)	22.6.16~17	• 5.18 42주년을 맞아 서강대, 전남대 5.18연구소, 튜빙겐대 한국학 연구소 세 연구기관이 모여 '5.18과 불화하는 5.18'이 무엇인지 질문과 사유를 하는 장이 마련됨	서강대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2022 서울민주주의포럼	22.6.23~24	•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주간 '도전받는 민주주의: 현장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포럼 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부산광역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5·18민주항쟁 40주년 부산기념행사	20.5.18	•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슬로건으로 부산기념행사를 개최함. 부산청년미디어 <뭐라카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시민참여문화제, 시민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5·18톡톡톡-오월의 정신, '기억의 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함	5·18민주항쟁40주년기념사업부산추진위원회
	6월민주항쟁 33주년 부산기념식	20.6.10	• 33주년 기념식이 민주공원 종극장에서 열렸으며 <뭐라카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 • 본 행사와 함께 <2020 민중미술 오디세이 민중미술의 현장> 기념 전시와 <지금 여기 왜 민중미술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	20.10.16	• '다시 시월에 서서'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에서 기념식이 개최됨. 경과보고 및 주제공연 등이 이루어짐 • 부대행사로는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가 부산대 본관에서 열림. 항쟁관련 사진 40여점을 전시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21돌, 민주공원개관 1돌기념 나눔과 다짐의 한마당	20.10.16~23	• 부마항쟁21돌, 민주공원개관 1돌을 맞이하여 나눔 한마당 '새로운 행진' 행사가 진행됨. 제13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을 시작으로 심포지엄, 마당극, 춤 등 공연과 전시, 영화상영, 어린이 한마당 등의 행사가 진행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61주년 4·19혁명기념식	21.4.19	• 서구 중앙공원 4·19민주혁명위령탑에서 기념식을 진행함	부산광역시
	5·18민주항쟁41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	21.5.18	• 부산기념식과 시민문화제는 '마!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5·18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 주제영상, 빌언,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민주공원에서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 <더불어 흥성당 오월 판화마당> 전시를 개최	5·18민주항쟁기념사업부산추진위원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시민영상제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함. 영상고모전 선정작 5편을 기념식 당일 시민영상제에서 사영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함 	(사)부산민주 항쟁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전시	21.6.1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민주항쟁 34년 기념전시 <민중미술 2021-지구표류기>는 첫 번째 섹션<민중미술가열전 이인철>과 두 번째 섹션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코로나그램>가 진행됨 	(사)부산민주 항쟁기념사업회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21.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상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상임 개인부문 민중가수 박영순, 단체 부문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이 수상함 	(사)부산민주 항쟁기념사업회
	2021 부마야카이브전	21.10.19~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다루는 전시 <이웃집 투시들>이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됨 	(사)부산민주 항쟁기념사업회&(재)부마 민주항쟁기념 재단
	최성묵 목사 30주기 추모제	22.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80년대 부산 민주화운동 정신적 지주 최성묵 목사의 추모식 개최됨. 추모식은 추모사와 추모공연으로 이루어지며 민주주의 현장 영상을 상영함 	민주공원
	4·19혁명 희생자 위령제	22.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광장 내 민주혁명 희생자 영령봉안소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진행함. 당시 희생자 19명과 이후 돌아가신 21명, 총 40위 영정을 모심 	(사)부산민주 항쟁기념사업회&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혁명 기념식	22.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광장 내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앞에서 62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함. 혁명 희생자를 기리며 현화와 분향, 추모합창 등 추모 공연을 진행함 	부산광역시
	6월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전시	22.5.1~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전시 <민중미술 2022-출렁일령 꿈틀거리는>은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근대!근데?>와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2 침묵의 바다>라는 주제로 진행 	(사)부산민주 항쟁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 35주년 기념 부산시민문화제	2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월에서 유월로’ 주제로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진행됨. 6월 민주열사 추모의 벽 제막식(민주공원 추념의장)도 진행 	부산민주주의 행동추진위원회,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태춘 열사 35주기 추모제	22.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대 6월민주항쟁기념비 앞 이태준 열사 추모제가 거행 	부산민주주의 행동추진위, 동아대학교민 주동문화
교육 사업	부마해설강사양성과정 모집	20.4.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마민주항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마해설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함. 부산, 경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마민주항쟁의 역사, 부마항쟁지 답사, 탐방시나리오 작성등을 교육함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해설과 함께하는 부산민주길 탐방가요	2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중구 일대 민주화운동 장소를 탐방가는 프로그램 	민주공원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2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으로 공원해설사와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임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 민주공원 체험 프로그램으로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펼쳐보임방 전시해설 프로그램임	
	부마길 현장탐방	22.5~8	• 부마길 탐방은 부산대코스/남포동코스로 1일 1코스로 진행하며 1~2시간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탐방하는 프로그램	부산시교육청
	온라인 부마길 현장탐방 1979 <타임머신 부마길로 떠나요>	22.4~5	• 초등학교 4~6학년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신청 받으며 소속 반 재적수에 따라 셀프 탐방키트인 교재와 컬러링 도안을 제공함	부산시교육청
	부마민주항쟁 교재 제공	22.4~5	• 중고등학교 교과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우리들의 부마 1979> 20페이지 분량의 교재를 제공함	부산시교육청
학술 연구 사업	6월민주항쟁 33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20.6.25~26	• <지금 여기 왜 민중미술인가?>라는 주제로 민중미술의 시대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되물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예술 담론의 지평을 제기하고자 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0.29~30	• <부마민주항쟁 이후 지역 민주화운동과 민주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부마민주항쟁이후 민주화운동 흐름과 부산 경남시민의 정치적 선택이 지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민주정치의 미래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개최됨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민주항쟁기념학술토론회	20.11.6	• <왜 부산에 민주주의 사료관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민주공원 부속 사료관 건립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 자료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개최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운동사 발간>	21.7	• 1998년판 <부산민주운동사>에서 부산에서 처음 '지역의 민주운동사'를 편찬하여 1987년 6.10민주항쟁 직후까지 다룬바 있음. 2021년판 <부산민주운동사>는 2016~2017년 촛불혁명까지 민주운동사 시기를 확장하여 서술한 첫 시도임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6월민주항쟁 34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엄	21.8.27	• '복합위기 시대, 한국사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심포지엄 개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42주년 기념 학술대회	21.9.30~10.1	• '부마민주항쟁, 기억에서 역사로'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됨.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록화하고 현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록찾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20.10.21.10	• 유신정권기, 1970~80년대 초반 부마민주항쟁 또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전반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함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문학창작공모전	매년	•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민주, 평화, 인권)을 담는 내용으로 시, 산문, 단편소설, 아동문학 등의 문학창작 공모전을 실시함 • 2020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됨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논문 공모	매년	•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해 연구논문 지원 및 대학원생 연구논문지원사업을 진행함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매년	• 시대의 이っぽ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기위해 실시함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2.6.30	•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민주항쟁 관련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됨. 6월민주항쟁과 우리시대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청년세대와 불평등, 이주노동자의 지위 등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됨	민주주의사회 연구소

□ 대구광역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33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및 시민문화제	20.6.10 20.6.8~22	• 동성로민주광장에서 민주항쟁 기념식과 시민문화제가 열림. 2·28기념공원과 대구백화점 앞에서는 6·10민주항쟁 관련 사진전시회가 열림	제33주년 대구경북6·10 민주항쟁기념 사업위원회
	2·28민주운동 61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	21.2.23~28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남부도서관, 범어역, 2·28기념 학생도서관, 대구교육박물관 및 온라인 전시관에서 사진 전시가 이루어짐	(사)2·28민주 운동기념사업 회
	제61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1.2.28	•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함 • 국무총리 기념사 및 기념공연 〈민주, 그 시작〉, 〈미디어 퍼포먼스〉 등이 진행됨	국가보훈처
	제62주년 2·28민주운동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22.2.15~28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덕문화전당, 대전광역시시립동부도서관, 시립수성도서관과 온라인 전시관에서 사진 전시가 이루어짐	(사)2·28민주 운동기념사업 회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2.2.28	•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함. 2·28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국가주관 행사로 진행됨	국가보훈처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22.6.10	•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민주통일로, 다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6·10민주화운동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됨.	6·15남측위대 구경북본부&대 구경북민주화 운동계승사업 회
교육 사업	2020년 제20회 2·28민주운동 학생 글짓기 공모	20.5.26~6.2 6 21.7.12~8.3	• 2·28이 우리나라 최초 민주운동으로 4·19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글,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하는 글 등을 공모함.	(사)2·28민주 운동기념사업 회
	제1회 2·28 민주운동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22.2.21~27	•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걸고 일어난 학생들의 시민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함	한국중고등학 교태권도연맹, 대구시태권도 협회
	2·28민주화운동 기념 가족체험교실	22.3	• 2·28 기념 대구시민주간에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이루어진 체험교실로 2·28민주운동 학생 시위경로 지도 표시하기,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8개학교에 세워진 기념조형물과 두류공원에 있는 2·28기념탑이 있는 9장의 카드로 하는 메모리 게임 등을 진행함	대구교육박물 관
학술 연구 사업	국가보훈처지원 2·28민주운동60주년 기념학술대회	20.11.18	•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함.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이념을 밝히고 이를 기념사업과 민주시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함	(사)2·28민주 운동기념사업 회

□ 인천광역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제40주년 5.18민중항쟁 사진전	20.6.1~9	• 주안역 남광장에서 40주년 5.19민중항쟁 사진전이 열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34주년 인천 민주항쟁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계승대회	20.6.10	• 6월 행정의 도화선이 된 인천 5.3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5.3민주항쟁에서 6월항쟁으로'이라는 주제로 주안시민공원에서 민중의례, 연대사, 공연 등이 진행됨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5주년 인천 5.3민주항쟁 주간동안 인천민중가요 페스티벌, 학술토론회, 사진 전시회, 기념식이 개최됨	21.4.29~5.7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21 인천민족민주노동열사·희생자 합동 추모제	21.11.16	•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라’라는 주제로 경동열사, 유재관열사, 조영관 열사, 최명아 열사 등 인천지역 민족민주노동열사 및 희생자 추모제가 거행됨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 사진 전시회	21.12.10~16	• ‘악한 것을 강하게’라는 주제로 권위주의 정권 시설 민주화운동 과정에 발행한 문서, 박물류 등 민주화운동관련 사료를 전시함 • 인천시민들에게 당시 활동가들의 노고와 열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 발전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는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전시임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6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 대회	22.5.3	•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천5.3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 개최됨 •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사진 전시회 및 5.3KM 비대면 걷기, 5.3퀴즈 풀이 등 다양한 관련 행사가 진행됨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교육 사업	민주시민교육강사 전문성 강화 및 민주로드 체험	20.8.3~14	•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함. 철학, 노동, 성평등,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강의와 인천 및 강화 일대 민주로드 체험 행사를 가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청년민주시민·인권역량 강화과정	21.7.7~8.11	•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있는 청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환경, 교육, 청년정치, 인천민민주의에 관해 6번의 강좌를 진행함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공모전	21.6.28~9.10	•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상의 이야기를 주제로 UCC, 그림, 슬로건 부문에서 공모전을 시행함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년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22.7~10	• 만18세~35세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 진행함. 모둠당 60만원의 탐방지원금을 제공하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2022년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22.7~9	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표회를 가짐	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학술 연구 사업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	21.4.30	• 인천 5.3민주항쟁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짐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년 내가 살아온 이야기 발간	21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8명에 대한 구술자료집을 발간함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토론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1.12.14	• '전태일 기념관 건립과정',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립 과정' 발제를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 공간 건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5.3민주항쟁연구 논문 중간 발표회	22.5.30	• 5.3민주항쟁에 관한 언론기사 분석, 6월항쟁과의 상관관계 분석, 아카이브, 유인물 분석 등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짐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광주광역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대한민국 민중항쟁 120년 전시회	20.5.1~6.14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중항쟁 주요사건과 1980년 5월 당시를 재현하는 전시가 개최됨 •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근현대 민중항쟁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이 전시를 통해 민주주의 의미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음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민중미술아카이브 전시	20.5.6~6.6	• 1980년 이후 5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시대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창작된 미술작품과 활동을 정리하는 특별전 개최 • 2018년도부터 추진한 '오월민중미술아카이브 사업'을 정리하는 전시임.	5·18기념재단
	제40주년 5·18민중항쟁 추모제	20.5.17	• 5·18기념행사 중 가장 오래된 전통 행사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관 공식 추모행사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20.5.18	• 정부주관 국가기념식으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이뤄지며 SBS 생중계됨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40주년기념 5·18기념재단 온라인 기념식	20.5.18	• '한국 민주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40년의 여정'이라는 이름 아래 온라인 기념식이 개최됨. 역대 광주인권상수상자 및 재단 해외파트너, 세계인권도시 시장들의 메시지가 전달됨	5·18기념재단, 광주국제교류센터

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0.6.10	• 광주서현교회 앞 6월항쟁표석비 잔디광장,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기념식이 거행됨	사)광주전남6월항쟁33주년기념추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음악회	20.10.11	• <그날이 오면> 기념음악회는 광주의 투쟁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지역거주 전문·비전문 음악인, 내국인과 외국인이 경계를 허물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함.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됨	광주국제교류센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20.11.3~29	• 전시명 '그날의 사진첩을 열다-부마에서 광주까지'는 부마항쟁이전부터 항쟁 당시까지의 관련 사진 50여점,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시민들의 생활 및 항쟁 당시 사진 40여점이 전시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40주년 기념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20.11.7	• '닫혀진 40년, 열어가는 5월' 주제로 전국 12개 합창단이 참가한 축전이 열림 •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은 지난 201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2019년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으로 부산에서 열린 바 있음	광주광역시
'잊혀진 필름 속의 사람들' 사진전	20.11.25~21.22.24	• 5·18민주화운동 다시를 기록한 한국일보 미공개 사진이 전시됨	5·18기념재단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10주년 기념전시	21.5.7~6.30	• 1980년 이후 진행된 5·18군사재판, 국가의 법 앞에서 나약했던 개인들과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전시임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 5·18 연구소
5·18기록물 특별전 '기억의 지층, 기념의 미래 영상 개시'	21.5.12~8.5	• 5·18기록관 상설전시장과 전일빌딩245로비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가지 기록을 포함해 등재 이후 기증·수집으로 모인 기록물 170여점이 전시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4·3 73주년 및 5·18 4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남도의 봄 치유와 희망'	21.5.20	• 제주4·3평화정신과 광주5·18민주정신을 선율에 담은 음악회가 열림.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아리아 '어진 애'와 5·18의 상징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한 창작관현악곡을 통해 4·3과 5·18이 지향하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 • 30일에는 제주아트센터공연 5월 20일에는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됨	제주4·3평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21.5.17~18	• 5·18추모제(5·18민주유공자유족회주관, 국가보훈처 후원)를 비롯해 전야제(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관, 광주광역시 후원), 정부기념식(국가보훈처)이 개최됨	국가보훈처,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34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21.6.12	• 6·10민주항쟁 기념식 행사와 거리음악회가 광주 금남로 근린공원 일원에서 진행됨	사)광주전남6월항쟁34주년기념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과	21.8.17~29	•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역	부마기념재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5.18민주화운동 '이웃집 투사들' 전시개최		사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웃집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자 기획됨. 만화작품, 사진, 영상, 구술자료 등 100여점 전시됨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기획전시 '금남로에 있었다'	21.9.10~11.28	• 민주의 거리 '금남로'라는 공간적 기록에 포커스를 맞춰 3·15에서 4·19까지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에서 광주고 등 지역 고등학생들의 4·19학생시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금남로 대규모 집회의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전시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과 여성 아카이브 전시<사라지고, 살아지고>	21.11.10~22.2.28	• 사라지고 살아지는 사이에 존재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 활동에 주목하여 아카이브 전시가 열림	5·18기념재단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전시	22.3.~10	• 5·18희생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사진으로 기록한 '김은주 작가 사진전', 5·18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한 '광주비엔날레 베니스 특별전', 5·18관련 노래를 소개하는 '전진하는 오월', 5·18역사기록작품과 창작물을 전시하는 '호령 5·18거리미술전', '아사히 신문사 미공개 5·18기록물 특별전시' 등이 개최됨	광주광역시,(자)광주비엔날 레, 5·18민주 화운동기록관, 5·18민중항 쟁기념행사위 원회
	2022오월미술제	22.5.1~30	• 5·18 42주년을 기념하는 오월미술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5·18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도록 다양한 전시, 포럼, 오월길 걷기,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	오월미술제추 진협의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식	22.5.18	• 시민공모를 통해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올해 기념행사 공식구호로 선정함 • 코로나19, 전쟁, 차별과 혐오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가운데 '인류의 위기를 광주정신으로 극복하고 새 세상으로 전진하자'를 기조로 열림. 전야제 및 국가보훈처 주관 국가기념식이 열림	제42주년 5·18민중항 쟁기념행사위 원회, 국가보훈 처
	5·18민주화운동 42주년 행사	22.5.	• 5·18민주화운동 42주년과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개관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시민문화체험프로그램 진행(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 • 5·18체험관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역기보관소-타자기 버스킹' 운영. 메이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행사 진행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22.6.10	• 시·도민과 함께하는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동구 금남로 공원)	사)광주전남6 월항쟁35주년 기념추진위원회
	거리음악제 '시민과 함께 6월을 노래하다'	22.6.18	• 항쟁의 주요현장이었던 도심거리와 광장의 의미 재조명	
교육 사업	2020 5·18 아카데미 국내 참가자 모집	20.10.26~11.13	• 국제NGO활동가들을 통한 5·18민주화운동의 세계화, 5·18의 경험과 성과 공유를 통한 시민운동 리더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진행	5·18기념재 단
	'함께 걷는'	20.11.14	• 80년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증언자와 함께 현장을	5·18기념재 단

	오월길-'5·18현장 속으로'		걸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돋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임	단
	2021 제17회 5·18문학상 공모	21.2.15~3.26	• 5·18정신을 기리고 담아내며, 새로운 관점으로 이를 조명한 시, 소설, 아동문학 부문에서 신인상과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한 본상 공모를 진행함	한국작가회의, 5·18기념재단
	제5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글쓰기 대회	21.5.22	•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학생부/일반부 그림그리기·글쓰기 대회가 진행됨	5·18기념재단, 5·18민주 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기록 함께 읽기프로그램	21.5~11	• 5·18민주화운동 계승과 실천을 주제로 한 청년 대상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오월항쟁 관련 인사와 청년들 간의 대담 등도 주최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18테마투어프로그램운영	21.10.9~11.6	• 사진작가와 함께 도심에 위치한 5·18사적지를 걸어다니며 사적지 야경을 배경삼아 인생샷을 남기는 '5·180경 투어'와 1~2인의 배우가 함께 거리극 형식 공연 투어프로그램인 '시간여행자와 함께하는 사적지 투어'를 진행함	5·18기념재단
	2022 제18회 5·18문학상 공모	22.	• 5·18정신을 기리고 담아내며, 새로운 관점으로 이를 조명한 시, 소설, 아동문학 부문에서 신인상과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한 본상 공모를 진행함	한국작가회의, 5·18기념재단
	찾아가는 어린이 5·18민주화운동 교실	22.4~6월	• 오월항쟁을 주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 어린이 5·18민주화운동 교실을 운영함 •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영상 및 사진 등의 기록을 통해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18기록관, 오월정신 계승·실천 특별프로그램	22.4.16~12.17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 함께 읽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 • '너와 나의 5·18' 도서를 읽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오월항쟁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음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18역사교육 랜선 오월길	22.5.17	• 관내 초중고교생 20만여명이 5·18사적지와 교실을 생방송으로 연결하여 역사교육을 진행함	시교육청,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학술 연구 사업	5·18 40년 이후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집중토론회	20.5.20 20.5.27	• 변화한 사회정치적 상황과 5·18위상의 체계적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규범으로 5·18정신의 가능성은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문가 4인의 발표가 진행됨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국제학술대회	20.8.26~27	• '5·18이후 세대의 상상력, 광주를 너머, 세대를 너머'를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 18명의 주제발표와 각 세션별 토론이 이어짐	전남대학교
	5·18 40주년기념 세대간 소통포럼 '오월, 우리 모두의 기억'	20.10.19	• 5·18 40주년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토론의 장으로 마련됨	(사)지역공공 정책플랫폼 광주로
	5·18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1.6	• 5·18연구의 틀을 깨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여 5·18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기획된 학술대	5·18기념재단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회임	
‘오월, 그날의 청소년을 만나다’ 학술대회	2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5.18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됨 ‘고등학생 사선으로 구성한 5.18담론’, ‘5.18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의 참여’ 전남대대학원생의 논문발표와 1980년 5.18당시 고등학생들의 참여 사례 발표가 이어짐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제19차 정신포럼 ‘1980년 5월 두 공간의 기억과 구슬’	2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포럼으로 구 전남도청과 광주기독병원을 중심으로 당신의 기억을 재구성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국가폭력과 재현, 연재’ 국제학술대회	21.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대만, 일본 등 각국이 경험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양한 재현과 전유 방식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성찰하기 위해 기획됨 	전남대 5.18연구소
5·18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학술대회	21.11.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월의 기록, 항쟁과 연대의 역사’라는 주제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재조명하며, 5.18기록물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18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과 도청’	21.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 전남도청사의 보존, 복원, 활용에 관한 쟁점을 ‘1980년의 5·18항쟁을 어떻게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준비한 학술대회임 	5·18기념재단
2022년 오월기억포럼	2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6월 총 5차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이해와 5·18학 정립을 위한 강연을 진행함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 학술대회	2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월공동체, 기억과 공감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광주 YMCA 5·18구술영상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 여성, 경찰 등의 활동을 재조명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2022 광주민주포럼	22.5.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로 광주의 경험과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연대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성장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개최됨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제20차 광주정신포럼	22.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과 시간의 타인’이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광주정신포럼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매년 두 차례 진행함 1부에서는 ‘5·18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김동명(김영철 열사 아들)과 이해모(이정모 열사 동생)가 ‘5·18이해화 공존’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5·18 그 사회적 타설과 우리 안의 타인’의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짐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Archival Art 전시기획 학술포럼	22.5.2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Archival Art’주제로 아카이브 아트의 최근 경향을 통해 기록관 전시의 미학적 태도와 방식을 고찰하고 역사와 기억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논의함 백남준아트센터 아카비스트 발제를 시작으로 예술학, 미학, 기록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짐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행사	2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담론들에 대한 분석과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모색하고자 	사)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추진위원회

□ 대전광역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5.18민중항쟁 40주년 대전 온라인 기념식 및 문화제	20.5.18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기념식 및 문화제가 개최되었으며 시낭송,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기념식 행사가 진행됨	5.18민중항쟁 40주년대전행사위원회
	6·10민주항쟁 대전기념식 및 문화제	20.6.10	• 대전광역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식이 거행됨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61주년 3·8민주의거기념식	21.3.8	•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함 • 2018년 충청권 최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식을 거행함	대전광역시, 국가보훈처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21.5.18	• 기념식은 옛 충남도청에서 열렸으며 5·18 유공자와 대전시장 등이 참석해 군부독재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 정신을 기림	5.18민중항쟁 41주년대전행사위원회
	6월민주항쟁 사진전	21.6.1~10	• 시청 1층 로비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 사진 전시회 개최하여 1987년 6월항쟁을 기억하고 국민적 열망으로 쓰아 올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함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62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22.3.8	• 독재의 겨울을 성큼 너어 민주주의 새봄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노래한 김기리 시인의 시에서 따온 '성큼 겨울을 뛰어 넘으리'를 주제로 기념식이 거행됨 • 1960년 3.8민주의거 시위 중심이 되었던 7개교 중 대전고, 우송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보문고 학생대표 5명이 애국가를 부르며 의미를 되새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처
	제42주년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	22.5.18	•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대전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됨	42주년대전 5.18민중항쟁기념 행사위원회
교육 사업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2.6.10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거행됨. 드라이빙스루 콘서트 '다시 길위에서!' 공연이 진행됨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10회 3·8학생백일장 행사	20.7.1~9.15	•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8민주의거의 침뜻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임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제11회 3·8학생백일장 행사	21.10.1~10.30	•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8민주의거의 침뜻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임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학생프로그램운영(대전민주시민팀방길 체험)	21.	• 대전민주시민팀방길 학생 체험활동은 대전대신고 등 15교에서 운영하며, 민주, 자유, 독립,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역사현장과 독립운동 열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팀방길 체험을 운영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술 연구 사업	민주시민교육 학생프로그램운영(대전민주시민팀방길 체험)	22.	• 학생체험활동은 전년 대비 5교가 증가한 초, 중, 고 20교에서 운영하며 「대전민주시민팀방길」 안내자료를 발간하여 민주의 길, 준법의 길, 지역 상생의 길, 독립의 길, 산성의 길로 구분하여 텁방코스와 체험거리를 소개함	
	'3·8민주의거 끝나지 않았다' 발간	20.3	• 3·8민주의거 참여자들의 3·8민주의거 준비과정과 구체적인 의거 행태, 전개 과정 등을 생생하게 구술한 3·8민주의거 아카이브 24인의 증언록을 발간함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 울산광역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4·19혁명 60주년 기념식	20.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4·19 혁명으로 희생된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짐 역사담당 교원과 지역사 전문가 TF팀이 구성되어 울산지역 4·19혁명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정인석 열사 추모비 옆에 기념 표지판과 QR코드 현판을 설치함 	울산광역시교육청
	6월민주항쟁 관련 전시회	20.6.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과 하는 민주주의 역사 사진 및 사료 수집 전시회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창작활동 작품 전시회 	
	6·10민주항쟁 34주년 기념 '6월 민주항쟁의터-울산성당 표지판 제막식'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민주항쟁의 터인 울산성당(현,복산성당)에 표지판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행함 	6월의울산사람들
	제41주년 5.18민주화 운동 울산특별전시	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 412주년을 맞아 '역사의 피로침, 윤상원' 일대 특별전시가 울산시청 로비전시장에서 열림 윤상원 열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티브가 된 인물임 	울산노동역사관, 민주노총울산본부, (사)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등
	6·10민주항쟁 34주년 기념행사	2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동(중앙길 39)에 6월 민주항쟁 표지판 설치 행사를 개최함. 표지판에는 울산 민주항쟁의 발생과 역사에 대한 소개가 담김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 세종특별자치시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5·18민중항쟁 40주년기념식	20.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추모 묘념과 추모사, 5월의 시와 노래 공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는 기념식이 열림 5월의 기억과 민주주의 전(展), 자전거 민주평화행진, 5월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세종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6·10민주항쟁세종지역기념식 및 사진전	20.6.10 6.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0 민주항쟁의 의미를 전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와 사진전을 개최함 호수공원내 송담민리 전시관에서 6월 민주항쟁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약 50여점의 사진 전시가 열림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민중항쟁 41주년기념행사	2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식과 함께 오월과 민주주의 展, 오월 영화제, 자전거 민주평화행진, 오월과 민주주의 온라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5.18민중항쟁 41주년기념행사 세종시민주진위
	6·10민주항쟁 34주년 세종기념식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바람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6·10 그날, 그리고...'라는 주제로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등 문화제가 열림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22년 5.18민주화운동기념 문화제	22.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식과 함께 사진전, 영화제, 민주평화행진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 사업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	22.6.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에서 6.10민주항쟁 관련 사진전이 열림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0민주항쟁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세종)	22.5.2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지역 각 학교에서는 6·10민주항쟁을 알아보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함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경기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사)수원민주 화운동계승사 업회
기념 사업	6·10민주항쟁 기념식(수원)	20.6.6	• 기념식과 더불어 수원민주사랑어울림 행사가 진행됨	(사)수원민주 화운동계승사 업회
	6월항쟁 기념식 및 민주주의토크쇼 (안산)	20.6.10 6.17	• 416가족협의회 앞마당에서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기 념식과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쇼가 진 행됨	6월항쟁계승 안산추진위원회
	기념식 및 기념 문화제	20.6.27	• 안양 평촌 중앙공원 기념식, 민주주의사진전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20 고양시 6월민주항쟁 기념식	20.6.13	• 일산문화광장에서 기념식 및 노래퍼포먼스 공연 • 유월사진전, 인터넷생중계와 아카이빙 구축, 민주주의나 무 모자이크타일 함께 그리기 행사 진행	2020고양시6 월민주항쟁기 념사업조직위 원회
	2022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22.5.18~6.12	• 5.18 특별강연 ‘5.18의 세계사적 의미’ 전남대 철학과 김성봉 교수의 강연 • 6·10 민주화 역사에 관한 기념식과 특별전시회가 열림	고양시민회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순회전시(수원)	22.6.6~30	• 수원에서는 <독립에서 민주화>이라는 주제로 경기아트 센터, 수원특례시청, 수원창릉도서관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자료 순회 전시가 이루어짐	(사)수원민주 화운동계승사 업회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성남)	22.6.7~11	•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더불어 기념주간 사진전에 개최됨	성남민주화운 동사업회
	6월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및 기념 문화제(경기중부)	22.6.9~11 6.16~6.18	• 군포에서는 6월민주항쟁 35주년 기념 문화제로와 민주 주의 사진전 1987 “안녕!민주주의~”(군포, 안양)	경기중부민주 화운동계승사 업회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경기도기념식	22.6.10	• 특별무대 ‘6월민주항쟁 디지털사진전영상’을 시작으로 경기도 민주화운동사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공 연 등이 이루어짐 • 경기도 차원에서의 기념식 첫 개최됨	경기도민주화 운동기념사업 추진위원회
	6월항쟁 35주년 기념식 및 문화제(6.15공동선 언22주년포함)(인천)	22.6.11	• 안산문화광장에서 기념식, 세월호광장에서 안산문화광 장에 이르는 안산시민 통일 걷기대회, 민주주의학교·청 년강연,	6월항쟁계승 안산추진위원회
교육 사업	수원의 민주화 6월항쟁 <사진으로 본 역사>	22.6.21~7.2	•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1987년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생이 찍은 미공개 사진 44점이 전시됨	(사)수원민주 화운동계승사 업회
	시민 민주주의학교	20.6.1~28	• 안양군포의왕 일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민주주의학 교를 진행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함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학술 연구 사업	35주년 6·10민주항쟁기념 현장체험학습(성남)	22.8.16~9.30	•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선배시민의 삶과 함께 돌아보 는 민주화운동사’라는 주제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됨	성남민주화운 동사업회
	6월민주항쟁 민주포럼	20.6.27	• 군포시청 대회의실 6월민주항쟁을 되돌아보고 그 정신 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포럼이 진행됨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민주포럼(경기중부)	22.6.24	• 안양시의회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동에 대한 역사적 고 찰과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됨	경기중부민주 화운동계승사 업회

□ 강원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6월민주항쟁33주년기념문화행사(원주)	20.6.10	• 제33주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민주주의 음악제, 영화제, 위령제등이 진행됨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	20.6.13	• '5월의 열정, 6월의 함성으로 평화를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거행함. 강원도 민주화운동과정을 소개함으로서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를 진행함	강원도,(사)강원민주재단
	사북항쟁 40주년 기념 문화예술축전, 기념식	20.8	•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24일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자에서 일어난 6천여 명의 광부와 가족들의 노동운동 • 기념식 및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기념 콘서트, 기념 뮤지컬, 특별사진전 등이 개최됨	사북민주항쟁 도지회
	5·18 41주기 기념행사(춘천)	21.5.15	•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시 오월, 민주주의를 잇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함	강원도,(사)강원민주재단
	'찾아가는 5·18기록물' 전시	21.8.2~9.5	•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 전시를 춘천에서 개최함. •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오월 일기 전시로 그날의 참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전국이 5·18민주화정신으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춘천시청,(사)강원민주재단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행사(원주)	21.6.12	•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를 위해 의생한 열사들을 추모하는 자리로 '민주주의를 잇다 광장에서 일상으로'를 타이틀로 기념식, 시민포럼, 문화행사가 열림	강원도,(사)강원민주재단
	정선 사북민주항쟁 제42주년 기념식	22.4.21	•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24일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자에서 일어난 6천여 명의 광부와 가족들의 노동운동임 • 기념공연, 기념영상상영, 성명서 발표등이 이루어졌으며, 사북민주항쟁의 명예회복, 정부의 사과 및 배상, 관련자 직권재심등을 요구한 서명서를 발표함	사북민주항쟁 도지회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춘천)	22.5.21	•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기념사, 축사, 시낭송,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됨	강원도,(사)강원민주재단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행사(강원)	22.6.11	• 춘천시청 광장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문화제, 기념사진전이 개최됨	강원도,(사)강원민주재단
	6.10민주항쟁 기념식(원주)	22.6.11 6.18	• 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중가요 콘서트 열림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 사업	민주시민교육체험학습교재 <슬기로운 시민여행>발간	20.	•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생태, 평화, 다문화, 세계시민'을 주제로 강원도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됨	강원도교육청
	'우리가 만난 노동 인권교육-1970년 그리고 2021년' 영상제작 보급	21.	• 영상은 전태일 사망 51주기를 기념해 만든 것으로 노동인권과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를 템파하는 형식임. 강릉에서 출생해 의문사한 고 김성수 열사에 관한 내용도 언급됨 •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끼오 TV'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공식 유튜브 채널로 제공	강원도교육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 연구 사업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포럼	21.6.12	• 강원감영 선화당에서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모색-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주제로 시민포럼 개최 • '왜 민주시민 교육인가?'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와 현황' 발제를 시작으로 각 전문가들의 주제 토론이 이어짐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강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충청북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5·18민중항쟁 40주년 충북기념행사	20.5.16~31	• 충북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청주 성안길에서 5·18 역사의 진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교훈을 전하고자 거리문화제를 마련함	충북5·18민 중항쟁기념행 사위원회
	6·10민주항쟁 기념식	20. 6.13	• 민주항쟁 기념식과 민족민주열사추모제, 6·15 문화제가 열림	6월민주항쟁 33주년충북 주진위원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 역사사진 및 전시, 6월 현장 에코뮤지엄	20.6.10~17	• 표지석이 있는 곳과 사진이 남아있는 곳, 남궁병원, 청주약국, 시네마길, 중앙공원, 천우북대, 고속터미널 자리 등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민중항쟁 41주년 기념식 및 청주시민문화제	21.5.17~18	• 청남대 전두환 동상 앞에서 5월 민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청주 성안길에서 5·18민중항쟁기념 거리음악회 및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청주시민문화제를 개최함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9민주항쟁 제34주년 기념식 거리문화제	21.6.10	• 청주 성안길에서 기념식과 거리문화제를 열고 민주열사들을 추모함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최종철 열사 40주년 추모제 (5.18 민주유공자)	21.9.1	• 청주제일교회 민주정원에서 추모비 제막식, 추모사, 공연, 현화 등이 진행됨. 추모비에는 '해방에 기습 사무처 불타오른 투흔'이라는 문구를 새김	민주열사최종 철동시40주 기추모위원회
	5·18민중항쟁 42주년	22.5.4	•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앞 퍼포먼스 및 시민 워크숍 개최	충북5·18민 중항쟁기념행 사위원회
	6·10항쟁 35주년 기념식	22.6.10	• 청주 성안길에서 기념식과 거리문화제를 열고 민주열사들을 추모함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0 역사사진 전시	22.6.8~12	• 6·10항쟁현장 주요지점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함	
교육 사업	5·18 40주년 온라인 공동수업 자료 제작	20.5.18	• 도내 초등수업 연구모임인 '수업친구 더불어 숲' 교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웹 기반 수업자료를 공동제작 함	충청북도교육청
학술 연구 사업	5·18민중항쟁 42주년 시민워크숍	22.6.4	•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에 대한 대안 찾기 워크숍을 개최함. 청남대 동상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8개의 대안을 만들어 발표함	충북5·18민 중항쟁기념행 사위원회

□ 충청남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제40주년 5·18민주화 운동 충청남도 기념행사	20.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5·18민주화운동 첫 공식행사로 5·18관련 지역민에게 감사패 수여 및 충남미래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힘 	충청남도, 5·18기념재단
	제33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천안)	2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차원 공식기념식으로 처음 여는 행사로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됨. 기념식, 영상 상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사진전시회(천안역) 등이 이뤄짐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41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	2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청 별관 앞에서 현화, 분향, 기념사, 기념공연 등 의 행사로 기념식이 열림. 도민 다수가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함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행복한 민주주의,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행사 주제로 6·10민주항쟁의 주요 과정과 의미를 살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22.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정 로비에 마련된 추모단상에 현화하고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기념 사진전이 열림 	충청남도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추모제(천안)	2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차원에서 개최한 세 번째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로 '당신과 나, 같이 한 걸음'이라는 구호 아래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됨 	충청남도,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 사업	'4·19혁명' 계기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 의미로 본 민주주의 실천사례를 모색하는 프로그램 마련함.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도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 배포함 	충남교육청
	'5·18' 계기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도록 계기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함 	충남교육청
	'6월 민주항쟁' 계기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민주항쟁' 교육자료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5·18 그후, 6월항쟁의 전개, 의의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됨 	충남교육청
학술 연구 사업	〈충남민주화운동사〉 발간	2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부터 2년동안 진행된 '충남 민주화운동사 기록화사업'의 결과물로 충남 지역만을 다룬 최초의 민주화운동사 대중서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전라남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자체 기념식'	20.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주년 기념식과 옛 전라남도청 현판 및 기둥 제막식을 개최함 • 1980년 5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 도청 현판 및 기둥을 복원함으로써 40주년을 맞는 전남 5·18민주화운동에 특별한 의미를 더함 	전라남도
	〈뜨거운 오월, 밀알 하나〉 전시	20.5.~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박문종, 정영창, 하루·k의 그림이 전시됨 	남양해동문화예술촌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문화행사	2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며 '여성광장에 서다' 독립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됨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0민주항쟁기념 「회고사진전」 전시회	20.6.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회고사진전, 목포인물사 전시회가 개최됨 	
	제33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여수)	20.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제33주년 6월 민주항쟁 여수 기념식을 열고 사진전시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신부 초청강연을 개최함 	6월민주항쟁제33주년여수추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	21.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유공자와 유족, 사회단체, 학생 등 90여명이 참석해 현화 의례, 기념사, 추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 • 온·오프라인 남도 오월문화제, 오월사진 전시회, 5·18 관련 인물과 장소를 버스 타고 만나보는 '5월 순회버스'운행하며 나주, 함평, 무안, 목포 등에서 시위장면을 재연함 	전라남도
	제34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자리한 남악 중앙공원에서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광주전남 기념식을 개최함. 축사, 6월항쟁인 상 시상, 기념공연, 선언문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됨 	전라남도
	제34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목포)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기념식 및 공연, 추도식 등이 진행됨 	6월민주항쟁제34주년목포행사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21.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념식에 앞서 열린 합동위령제에서 전남도립국악단의 진혼무, 유족 사연 낭독, 추모합창,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이 열림 • 위령제는 '여순10.19,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추모영상과 현와와 분향, 추념사, 추모공연 등이 진행됨 	전라남도, 여순사건유족 협의회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22.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오월영령을 기리고 숭고한 오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실시함 	전라남도
	5.18민중항쟁 제42주년 기념식	22.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근대역사관 2관 주차장에서 42주년 5·18기념식이 거행됨. 기념식 및 마당극, 노래공연, 오월 시낭송 등을 진행하는 오월문화제가 열림 	5·18민중항쟁제42주년목포행사위원회
	목포시내 중학교 '순회전시회'만화로 본 1987년 그날'	22.6.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대상으로 6월항쟁의 정신계승 및 민주시민교육, "왜 6월항쟁이 일어났는지, 이후의 한국 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알리는 만화 순회전시회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제35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목포)	22.6.10	•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기념식 및 공연, 추도식 등이 진행됨	6월민주항쟁35년목포행사위원회
	제35주년 6월민주항쟁기념식(여수)	22.6.10	• 여수시청에서 여수기념식, 사진전시회, 정신계승 시민 토론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아치의 노래' 다큐영화 공동상영이 진행됨	여수시, 여수시민사회 연대회의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문화공연	22.6.11	• 목포시 평화광장 • 전남지역 민주화운동계승 단체와 문화활동가들이 결합하고 참여하는 행사임	(사)광주전남6월항쟁
	민족민주열사, 운동가 추모제 '기억의 날'	22.11.22~26	• 지역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87년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산화한 3열사, 민주운동가로 활동하다 돌아가신 이들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 전시회와 추모제 '기억의 날'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 사업	5·18사적지 해설프로그램운영	22.	• 도내 5·18사적지 전문 역사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함. 도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 8개 시군 25곳을 선정, 전남 5·18 사적지로 지정함	전라남도
	4·3항쟁지를 가다	22.10.21~23	• 밝혀지지 않은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항쟁지 탐방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학술 연구 사업	전남5·18민중항쟁41주년기념학술토론회(남도, 항쟁의 역사를 말하다)	21.5.11	• 5·18이 전남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5·18 정신을 계승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짐 • 1부는 5·18관련 6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2부는 전남 5·18관련실태와 과제에 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음	전남도의회

□ 경상북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경북지역6·10민주항쟁30주년기념문화제	20.6.7 20.6.15	• 김천역평화광장, 포항영일대해수욕장에서 6·10민주항쟁 기념 기념식 및 공연 등 행사가 진행	6·10민주항쟁기념김천·포항추진위원회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22.5.18	•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광주와 미안마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전을 열고 분향소를 운영함. 안동 중앙시네마에서는 5·18관련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준'이 무료 상영	안동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기념영화제(안동)	22.6.10	• 안동중앙시네마에서 기념식과 기념 영화제가 진행	안동 YMCA등
	6·10민주항쟁 기념 사진전시회(포항)	22.6.11	• 포항 기찻길공원에서 6·10민주항쟁 사진전시회 개최	6·10민주항쟁기념포항추진위원회

□ 경상남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3.15의거 제60주년 희생자 추모제	20.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로 인해 국가주도 기념식은 취소되고 도 차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함 국립3.15민주묘지에는 김주열 열사 등 3.15의거 참여 희생자 12명을 비롯한 3.15 부상자 및 공로자분들의 묘 46기가 안장되어 있음 	경상남도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은 기념사 및 6월 항쟁 정신계승사, '경남, 민주주의를 밀하다' 기념영상 상영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됨 	6월항쟁정신 계승경남사업회
	3.15의거 60주년 창작오페라 〈찬란한 분노〉	20.7.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5의거 6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재조명 한 창작오페라로 1960년 3월 15일과 4월 11일, 자유당의 불법 부정선거와 폭력, 불의에 항거한 마산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림 	창원시립예술단
	부마민중항쟁 41주년 기념 부마민주음악제	20.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는 '우리들의 부마, 노래가 되다'라는 테마로 부마민주음악회를 개최함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故김영식신부 1주기 추모행사	20.10.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 김영식 신부 1주기 추모제가 열림. 고성 이화공원 모역에서 참배 행사가 열렸으며 추모행사는 마산카톨릭여성회관 강당에서 진행됨 	6월항쟁정신 계승경남사업회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2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식은 추모-기억-전진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을 향해 나아갔던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있는 '3.15의거'를 계승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함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라는 주제로 국립 3.15민주묘지(창원)에서 열림 	국가보훈처
	제61주년 4.11민주항쟁 기념 및 김주열 열사 추모식	2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 마산합포구 김주열 열사 사신인양지에서 4.11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김주열 열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됨 	경상남도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도록 실제 항쟁 장소인 창원대 민주광장에서 열렸으며, 민주주의발전 유공 정부 포상 수여, 기념조형물 제막식 등이 진행됨 	6월항쟁정신 계승경남사업회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	21.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됨 '부마를 넘어, 시월을 넘어' 주제로 열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 자유 평화의 송고한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행사로 준비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일	22.3.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이 참석하는 기념행사가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림. 전날에는 3·15의거 희생 영령에 대한 참배(분향, 헌화, 둑념)이 이루어짐. 	국가보훈처/3·15희생자유족회
	김주열 열사 추모제	2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주열 열사 사신인양지인 마산중앙부두에서 식전공연, 무대제막, 기념사, 추모사 등 진행. 남원과 창원시 자매결연으로 100여명이 참석함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3·15의거 기념 대음악제	22.4.22	• 3·15뮤직컴퍼니 오케스트라 소리꾼 오혜원, 국악인 남상일 등이 출연하는 음악제를 개최함	(사)3·15의거 기념사업회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	22.6.10 22.6.19 22.7.2	•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6월 민주정신을 되새기고 즐기는 문화행사로 진행됨(마산) • 제6회 6.10만날고개 걷기대회(마산),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창원), 한국현대사 거리 사진전 등이 열림	(사)경남6월항 쟁기념사업회
교육 사업	창원지역 어린이·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함께 가자'	21.4~11월	• 어린이,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배우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 민주주의 현장탐방(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지를 찾아서) 6회와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실 4회를 운영함	6월항쟁정신 계승경남사업 회
	제16회 청소년문화제	22.5.23	• 중고등학교 동아리 및 일반학생들이 3·15의거를 주제로 펼치는 문화 축제임	(사)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 유적지 답사	연중	•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국립 3·15민주묘지 및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200여명이 참석함	(사)3·15의거 기념사업회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22.5~10	• 창원·남원의 김주열 열사의 길을 따라 서로 오가며 교감하는 장임. 창원·남원 시민 및 학생 등 120팀이 참석함	(사)김주열열 사기념사업회
	3·15의거 역사아카데미	22.7	•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통해 3·15의거 학교 교육 능력을 강화함	(사)3·15의거 기념사업회
학술 연구 사업	부마민중항쟁 41주년 기념 사회포럼	20.10.14	• <코로나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창원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됨 • '코로나와 민주주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코로나와 노동, 공공의료, 생태환경, 남북관계 등을 조명하는 세부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20.10.21	• <부마와 광주, 기억, 계승, 참여> 특별세션이 진행됨. 광주, 전남과 부산, 경남 양 지역 시민들이 함께 시공간 장벽을 허물고 두 항쟁의 기억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승화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0.29~30	• 부마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부산·경남시민의 정치적 선택이 지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민주정치의 미래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마련된 학술대회임 • 부산대와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기조 강연 및 세부주제별 3세션으로 진행됨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부산 대학교
	<김종철, 그의 시대 그리고 벗들> 부마민주항쟁 회고증언록 발간	21.2	• 20대에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김종철이라는 인물을 통해 1970년대 마산·창원지역 청년학생운동사 복원을 시도하기 위해 기획됨. 창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함	(사)부마민주 항쟁기념사업 회

□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사업명	날짜	내용	담당기관
기념 사업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2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를 주제로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기획전(4월에서 5월로)	20.6.18~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의 민주화운동 전개과정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종의 5·18 기록물 소개로 전시가 구성됨 	제주4·3평화 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특별전시 <어디에도 없었던 당신의 이야기>	20.10.12~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을 개인의 삶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집중조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한 4·3 생존자의 삶과 치유 시리즈를 기획함. 첫 전시는 생존희생자 김인근 할머니의 삶과 치유를 담은 특별전 	제주4·3평화 재단
	제주4·30카이브 특별전 <기록이 된 흔적>	20.12.28~2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 당시의 기록과 더불어 그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을 기록한 주요문서, 사진, 영상, 유물 등 전시함 	제주4·3평화 재단
	4·3특별법 개정 도민보고대회	2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호 통과를 축 하하고 도민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4·3영령에 대한 묵념, 개정과정 영상상영, 시낭송, 각계 발언, 공연 순으로 진행됨 	제주4·3특별 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2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념식은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린 후 오프닝 영상 상영, 묵념사, 추모영상, 대통령 추념사, 유족사연 소개,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됨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4·3 73주년 및 5·18 41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 ‘남도의 봄 치유와 희망’	2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4·3평화정신과 광주5·18민주정신을 선율에 담은 음악회가 열림.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아리아 ‘어진 애’와 5·18의 상징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한 창작관현악곡을 통해 4·3과 5·18이 지향하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 30일에는 제주아트센터공연 5월 20일에는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됨 	제주4·3평화 재단, 광주문화 재단
	‘4·3기억 그림전-청산이도의 기억’	21.11.9~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당시 고난의 피신생활 중 8명의 가족이 희생당한 현상지 유족의 손그림 전시가 개최됨 	4·3트라우마 센터
	세대공감 4·3예술제	21.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제주 청소년들이 신축항쟁부터 4·3항쟁까지 이어져 오는 제주 민중들의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기억하고, 역사를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임.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관람, 마당극 등이 진행됨 	제주4·3평화 재단, 제주민예총
교육 사업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	2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4·3평화공연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에서 묵념, 국민의례, 인사말, 경과보고, 추념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됨 올해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추모관을 구축해 제주도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추모가 가능하도록 함 	제주도, 제주4·3평화 재단
	제21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20.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및 해외거주 교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 산문, 민화 공모전을 실시함. 주제는 4·3관련 주제와 평화 인권관련 주제임 	제주4·3평화 재단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Ⅰ〉발간	20.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16년만에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함 	제주4·3평화 재단
제2회 〈4·3과 평화〉 영상공모전	20.7.13~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4·3을 다른 자유영상을 공모전을 실시함. 수상작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평화, 인권, 화해, 상생 등 4·30이 남긴 교훈과 가치를 계승하고 홍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임 	제주4·3평화 재단
제9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20.9~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의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한 시, 장편소설, 논픽션 관련 원고 공모전을 실시함 	제주4·3평화 재단
찾아가는 4.3어린이체험관-현 장교육	20.6~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샌드아트 영상시청, '두 흥이의 일기' 함께 읽기, 4·3교육콘텐츠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주4·3평화 재단
제주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感와 삶, 그리고 하루	2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4·3제단과 제주대가 업무협을 맺고 이뤄진 첫 공동 사업으로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실 및 평화공원 관람, 4·3특강, 소감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제주4·3평화 재단, 제주대
제2회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20.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4·3평화재단과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이 업무협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4·30이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확산, 제주4·3의 세계화 등을 지향함 	제주4·3평화 재단,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제22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21.4.26~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및 해외거주 교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 산문, 그림 공모전을 실시함. 주제는 4·3관련 주제와 평화 인권관련 주제임 	제주4·3평화 재단
제10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2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의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한 시, 장편소설, 논픽션 관련 원고 공모전을 실시함 	제주4·3평화 재단
제3회 〈4·3과 평화〉 영상공모전	21.9.27~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4·3을 다른 자유영상을 공모전을 실시함. 수상작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평화, 인권, 화해, 상생 등 4·30이 남긴 교훈과 가치를 계승하고 홍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임 	제주4·3평화 재단
제3회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21.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4·3을 통해 알리기 위해 마련된 대회임 	제주4·3평화 재단,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도내 유학생과 함께하는 4·3멘토링 워크숍	22.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은 4·3강의 및 유적지 기행으로 구성됐으며 제주 도내 재학중인 유학생들께 함께 4·3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됨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2018년 제주 4·3 70주년에 발족한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로 제주 4·3을 알리는데 기여함 	제주4·3평화 재단
제주4·3평화기념관 해설영상과 핸드북〈한눈에 보는 4·3〉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학교 1만2000여곳에 4·3의 역사적 교훈과 화해, 상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전달함 최태성 역사강사가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을 해설한 영상USB와 4·3평화기념관 핸드북이 담겨있음 	제주4·3평화 재단
제23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22.4.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및 해외거주 교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 산문, 그림 공모전을 실시함. 주제는 4·3관련 주제와 평화 인권관련 주제임 	제주4·3평화 재단

학술 연구 사업	〈제주4·3의 이해〉 도민교육	22.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사 비극인 4·3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라고 이해시킴으로써 제주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도민교육을 실시함 • 4·3사건의 이해과정 이론강의 및 4·3사건 유적지 현장답사가 이루어짐 	인재개발원
	제11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2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의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한 시, 장편소설, 논픽션 관련 원고 공모전을 실시함 	제주4·3평화 재단
	제4회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2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청소년들이 '4·3의 진실, 평화와 인권, 세계화'라는 주제로 4·3의 역사와 진실을 영어로 전달하며 실력을 겨루는 영어스피치 대회가 열림 	제주4·3평화 재단
	제주 4·3 7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4·3과 미디어>	2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사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탐구하고 이를 지역에 반영하는 방안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 마련됨 	제주4·3평화 재단, 제주언론 학회
	제10회 제주4·3평화포럼<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기억과 전승>	20.10.3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교육 전문가 17명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과 역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4·3의 오늘날 인식을 파악하여 역사평가문제의 매듭을 짓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에 공감대를 모음 	제주4·3평화 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 영문판 발간	2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학술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추진한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제 1권의 영문판을 발간했으며, 총 1,000부가 발간되어 미국 국회도서관, 주요대학, 국내외 주요기관 및 학술연구단체등에 배포함 	제주4·3평화 재단,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제주4·3사건추가진상 조사자료집<미국자료 I, II, III, IV, V>발간	20.2.23 2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발발시기인 1948~1949년 미군정 및 주한미군사고 문단의 상급 기관에 보고된 주요 문서의 원문과 번역본 수록함 • 한반도와 제주를 바라보던 미군정청 및 군사고문단의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임 	제주4·3평화 재단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21.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4·3연구의 활성화와 4·3의 미해결과제를 위한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사업임 • 4·3은 물론 평화·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저서 및 논문을 확보함으로써 평화·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4·3진실규명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제주4·3평화 재단
	제주4·3 7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제주4·3을 관통하는 냉전 질서와 미디어 정치'	21.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 73주년을 맞아해 과거사에 대한 미디어의 정치적 매개 과정을 통해 신냉전 질서의 재편과 사회구조의 변동을 점검해보고 이를 지역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기획됨 	제주4·3평화 재단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1	21.6.2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둘째날 (사)제주4·3연구소의 제주포럼 4·3세션이 열림. '4·3과 세계 냉전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기조강연,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4·3의 해결과제 등에 대해 논의함 	제주4·3평화 재단
	제11회 제주4·3평화포럼	21.10.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뜻깊은 해에 4·3 기록 성과들을 재조명하고 진상규명에 있어서 기록물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임 	제주4·3평화 재단
	2021년 4·3 트라우마센터 전국학술대회	21.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트라우마, 개인과 사회치유를 위한 길'의 주제로 트라우마의 회복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 	4·3트라우마 센터

연 구 진

- 연구책임 | 장 세 길 •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 중 섭 •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 전 희 진 •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신 지 원 • 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원
| 김 수 지 • 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원